

11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암태면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암태면편**

2013

신안군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암태면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연구 자료총서 제22집 | 2013 |

11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 암태면편



신안군 · 도서문화연구원

---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이 신안군의 의뢰를 받아 암태면을 대상으로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를 수행한 최종 성과물이다. 본 학술용역은 2003년 압해면(읍)으로부터 시작하여 비금면(2003), 흑산면(2003), 도초면(2005), 안좌·팔금면(2005), 지도읍(2006), 증도면(2006), 임자면(2006), 하의면(2011), 신의면(2012)에 걸쳐 수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암태면 편은 열두 번째 면, 제11권에 해당한다.

암태면은 본섬인 암태도와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등 4개의 유인도와 3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면이다. 암태도는 간척의 섬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부터 자연마을 단위로 소규모의 방조제를 축조하더니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방조제가 더욱 대규모화되면서 대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암태도의 너른 들은 대부분 이러한 간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암태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암태도 소작쟁의이다. 1923년 8월에 발생하여 1924년 8월까지 1년간 전개되었던 암태도 소작쟁의는, 박순동의 논픽션 『암태도 소작쟁의』(1969)와 송기숙의 소설 『암태도』(1981)로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도 크다. 일제와 지주 측의 강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소작인이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 전국적인 소작쟁의로 확산되는 발화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태석과 박복영 등을 독립운동가이자 소작쟁의의 영웅으로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암태도는 주위에 갯벌이 펼쳐져 있어 방조제를 쌓아 간척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결국 갯벌이 있어 대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너른 들을 가지게 되었고, 너른 들이 있음으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이 생겼으니, 갯벌과 간척과 너른 들과 소작쟁의는 암태도 역사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송봉산과 갯벌이 중심을 이루는 암태도의 자연생태도 주목할 대상이다. 대규모의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암태도의 자연환경은 상당한 변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암태도 사람들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문화적 환경을 형성해 왔다.

이런 면을 엮두에 두면서 암태면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크게 9개 분야로 나누어 진

행하였다. 자연생태, 고고유적, 역사문화유적, 민속문화, 어로문화, 구비전승, 방언문화, 주거문화, 경제자원 등이 그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1인이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역사적으로 저명한 압태도 소작쟁의와 그 소작쟁의 발생의 배경이 되었던 간척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압태도의 인물들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역사 분야는 2인이 분담하여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융합적 토론과정을 거쳐서 자원화, 특히 관광자원화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신안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수행한지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자은면과 장산면 2개면만 수행하면 신안군 14개 읍면에 대한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1004섬 신안군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사업은 도서문화연구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서문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게 하는 소중한 동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감으로써, '조사-연구-대안제시'로 이어지는 '문화생태론적 도서개발'의 방법론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도서문화연구원은 전국의 섬, 그리고 세계의 섬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신안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학술용역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 만큼 우리 연구원에 소중한 도서 조사·연구의 기회를 부여해준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려야겠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성의껏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갈무리해주신 각 분야 연구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 올린다.

2013년 9월

모든 연구원을 대표하여,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 강봉룡 씀

---

# Contents

|                         |     |
|-------------------------|-----|
| 연구개요                    | 6   |
| <hr/>                   |     |
| I. 자연생태                 | 9   |
| <hr/>                   |     |
| 1. 조사개요                 | 10  |
| 2. 자연생태 현황              | 14  |
| 3. 자연생태자원의 활용           | 27  |
| 4. 제안                   | 29  |
| <hr/>                   |     |
| II. 고고유적                | 31  |
| <hr/>                   |     |
| 1. 조사개요                 | 32  |
| 2. 고고유적                 | 34  |
| 3. 보존 및 활용방안            | 42  |
| <hr/>                   |     |
| III. 역사문화유적             | 43  |
| <hr/>                   |     |
| 1. 조사개요                 | 44  |
| 2. 암태면 주요 역사유적          | 46  |
| 3. 신안군 암태면 간척지 약식 조사 결과 | 58  |
| 4.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사적지    | 69  |
| 5. 암태면의 인물              | 77  |
| 6. 암태도 관련 고문서           | 93  |
| 7. 활용방안                 | 103 |
| <hr/>                   |     |
| VI. 민속문화                | 109 |
| <hr/>                   |     |
| 1. 조사개요                 | 110 |
| 2. 추포도 노두               | 111 |
| 3. 송곡리와 익금마을 우실         | 118 |
| 4. 당제, 기우제, 농약, 허새비 띄우기 | 123 |
| 5. 열두 달 세시풍속            | 132 |
| 6. 활용방안                 | 142 |
| <hr/>                   |     |
| V. 어로문화                 | 145 |
| <hr/>                   |     |
| 1. 조사개요                 | 146 |
| 2. 갯벌어로와 어선어업           | 148 |
| 3. 주민생애와 어민조직           | 153 |
| 4.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 162 |

|                                       |     |
|---------------------------------------|-----|
| VI. 구비전승                              | 165 |
| 1. 조사개요                               | 166 |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 170 |
| 3. 활용방안                               | 199 |
| VII. 방언문화                             | 205 |
| 1. 조사개요                               | 206 |
| 2. 어휘 설명                              | 207 |
| 3. 활용방안                               | 224 |
| VIII. 주거문화                            | 225 |
| 1. 조사개요                               | 226 |
| 2. 민가 현황                              | 229 |
| 3. 활용방안                               | 248 |
| IX. 경지자원                              | 251 |
| 1. 조사개요                               | 252 |
| 2. 인구                                 | 253 |
| 3. 토지                                 | 254 |
| 4. 사업체                                | 255 |
| 5. 농림                                 | 257 |
| 6. 산림                                 | 261 |
| 7. 수산물                                | 262 |
| 8. 염업                                 | 269 |
| 9. 활용방안                               | 271 |
| X. 관광자원화                              | 275 |
| 1. 암태도 소작쟁의-소작인과 지주                   | 276 |
| 2. 암태도 농지 형성사의 근간-간척                  | 278 |
| 3. 간척이 가능했던 배경-갯벌                     | 279 |
| 4. 마음을 이어주는 갯벌 위의 징검다리-노릇길            | 282 |
| 5. 암태도의 신비를 간직한 성소 -승봉산과 노만사, 그리고 입도지 | 285 |
| 6. 험고한 자연과의 협상-매항비와 우실                | 288 |
| 7. 희미한 역사의 피안-희미한 선사문화, 왜적과 맞선 역사     | 289 |
| 8. 테마 있는 암태도 여행                       | 291 |
| 부 록                                   | 297 |
| 1.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신문자료                   | 298 |
| 2.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회고문                    | 349 |

---

# 연구개요

## 1. 과업의 명칭

- •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용역 -암테면 편-

## 2. 연구 목적

### 1)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 • 점차 멸실되어 가는 신안군 암테면의 각종 자연자원 및 유·무형문화 자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

### 2)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 • 총체적으로 파악된 암테면의 자연자원 및 유·무형문화자원에 대한 전승·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 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

## 3. 연구의 기본방향

### 1) 기존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파악되지 못한 자연자원 및 유·무형문화자원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현지에서의 지표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

### 2) 조사된 자연자원 및 유·무형문화자원에 대한 전승·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방안을 모색함

### 3) 암태도 소작쟁의, 출향인사(정치, 문화예술, 교육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활용방안 등을 모색함

## 4. 대상지역

- • 암테면 본도 및 부속도서(추포도, 당사도)

## 5. 연구진구성

- • 책임연구원: 강봉룡(목포대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 • 공동연구원: 고두갑(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제정학 전공)  
김경완(신안문화원 사무국장, 인류학 전공)  
김지민(목포대 건축학과 교수, 건축역사학 전공)  
김재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개발과학 전공)  
변남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지방사학 전공)  
송기태(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고전민속문학 전공)  
이기갑(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방언학 전공)  
최성락(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고고학 전공)  
최성환(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한국지방사학 전공)  
홍선기(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환경계획학 전공)  
홍순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고전문학 전공)
- • 연구보조원: 김은주(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석사과정, 역사학 전공)  
임은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행정실 부실장, 역사학 전공)

## 6. 추진일정

- • 사업개시: 2012. 12. 27.
- • 공동답사: 2013. 2. 18~21.
- • 점검회의: 2013. 1. 28.
- • 중간 점검회의 : 2013. 3. 28.
- • 최종보고회 준비회의 : 2013. 8. 16.
- • 최종보고회: 2013. 8. 26.
- • 사업종료일: 2013. 9. 23.



# 암태면편

## I . 자연생태

홍 선 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1. 조사개요

### 2. 자연생태 현황

- 1) 식생
- 2) 식생군락별 주요 식물상
- 3) 마을숲과 노거수

### 3. 자연생태자원의 활용

- 1) 암태도의 돌과 돌담
- 2) 노만사와 낙조경관
- 3) 추포해수욕장

### 4. 제안

- 1) 우실, 전통마을숲, 노거수의 발굴과 보전
- 2) 최초 입도지에 대한 복원과 활용방안
- 3) 도서지역 생물자원이용에 대한 전통지식 보전



# I 자연생태

## 1. 조사개요

### 1) 개요

암태도는 목포로부터 28.5km, 중국으로부터 435km의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 속하는 섬 행정구역으로서 1978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9개 도서(유인도 1개, 무인도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암태도의 인구는 1970년대만 해도 12,000명이었으나, 2010년대에는 1/6으로 줄어들어 현재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고령화되는 추세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하여 암태도의 인구는 계속하여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신안군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암태도 오도항과 압해도 송공항을 연결하는 연육교(국도 77번의 연장)가 건설되고 있으며 2015년 완공을 하면, 암태도가 육지의 영향권에 들면서 급속도로 발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암태도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던지 민박 등 숙박시설의 개발, 농수산특관장 등이 설치되어 암태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변의 자은도나 팔금도와 마찬가지로 암태도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볼 수 있다. 양파와 마늘, 쌀 등 주로 1차 농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규모 선박들이 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물고기 유동 길목에서 고기를 많이 잡기 때문에 주변 어장의 변화도 암태도의 어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어, 농어, 송어, 민어 등은 계절별 주요 어류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또한 암태도는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식이나 천일염 생산을 비롯하여 갯지렁이, 낙지, 어패류 양식 등 연안 갯벌생물자원을 활용한 수자원 개발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태도의 주요 생태자원 중 하나는 승봉산(355.5m), 큰봉산(222.5m), 그리고 박달산(199.8m)이다. 이 산들은 모두 독특한 형상의 바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산을 하다 보면 발견되는 많은 바위들이 독특한 형상(동물)을 하고 있어서 등산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승봉산은 암태중학교와 노만사 입구 등에서 시작되는 모실길(등산로)



[사진 1] 승봉산 등산로 안내도 (암태중학교)

이 있어서 계절에 따라 암태면과 주변 신안군 다도해 일원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암태도는 주변 자은도에 비하여 해수욕장이 많지 않다. 그러나 노두에 의해 연결된 추포도에는 약 100만평의 해수욕장이 있으며 송림으로 둘러싸인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추포도로 가는 길은 3,653개의 암태도 바위로 만들어진 길이 2.5km의 노두길을 건너야 한다. 암태도의 자연생태를 나타내는 주요 식생은 주로 승봉산 일원에서 찾을 수 있다. 주변 도서들과 마찬가지로 해안가 주변의 특성인 곰솔의 분포가 주요한 식생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창복외 1980; 양효식 2002). 그러나 암태도의 상당 지역이 아까시나무, 리기다소나무나 사방오리나무 등 산림녹화를 위한 속

성수 위주의 인공조림으로 조성된 2차림이고, 수종의 특성상 산림경제적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개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일부에서는 참나무류를 비롯한 낙엽활엽수와 함께 부분적으로 상록활엽수종이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어서 난대-온대 혼성 식물군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식생과 식물 등은 신안군 흑산면 일원과 같이 차츰 아열대 식생대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변화에 따른 생태계 관리도 중요한 도서환경관리의 하나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김종홍과 이호준 2004).

## 2) 답사 및 방법

암태도의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조사는 <표 1>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수행하였다. 1회 조사는 암태면 일원의 주요 자연식생과 자원에 대하여 개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적 조사(preliminary survey)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승봉산 정상에 오르면서 암태면 전역의 경관과 토지이용, 식생분포 등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1차 조사를 기초로 식물과 식생의 활동이 활발한 5월에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는 재차 승봉산과 노만사를 등반하면서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자연식생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수행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마을에 분포하고 있는 노거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연생태자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식생조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군락 수고의 높이에 따라서 조사 방형구의 면적을 결정하였으며, 방형구의 크기는 수고의 높이를 기준으로 각각  $15 \times 15\text{m}^2$ ,  $10 \times 10\text{m}^2$ ,  $5 \times 5\text{m}^2$  크기로 설치하였다(Hong 1998). 정해진 조사지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교목의 경우, 단위면적당 밀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식물 리스트는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각 층을 구성하는 식물들의 우점도(Dominance)와 군도(Sociability)를 추정하여 기재하였다. <표 2>은 본 조사에서 도입한 우점도와 군도의 기준이다.

[표 1] 조사일정

| 순서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조사자               | 조사내용   | 비 고  |
|----|---------------|-------------------------|-------------------|--|------|
| 1  | 2013.02.18~21 | 암태면 일원<br>(추포도 포함)      | 홍선기, 김재은<br>(양효식) | • 승봉산 정상 등반 및 주요 마을<br>경관  | 공동조사 |
| 2  | 2013.05.18~19 | 암태 승봉산<br>일원,<br>노만사 일원 | 홍선기<br>(양효식)      | • 승봉산 정밀 식생조사 (암태중<br>학교 뒷산에서 정상까지): 곰솔<br>군락, 아까시군락, 리기다소나<br>무군락 등<br>• 노만사 주변에 대한 정밀 식생<br>조사: 굴참나무군락, 곰솔군락 | 단독조사 |
| 3  | 2013.07.23    | 암태도 일원                  | 홍선기, 김재은<br>송기태   | • 마을 노거수 및 경관, 관광자원<br>조사  | 공동조사 |

[표 2] 식생조사를 위하여 도입된 식물사회학적 우점도와 군도의 기준  
(김준민 외 1987)

| 구 분 | 평 가 기 준   |
|-----|---|
| 우점도 | 5: 방형구 면적의 3/4이상을 덮고, 개체수는 임의 (87.5% 이상)<br>4: 방형구 면적의 1/2~3/4이상을 덮고, 개체수는 임의 (62.5% 정도)<br>3: 방형구 면적의 1/4~1/2이상을 덮고, 개체수는 임의 (37.5% 정도)<br>2: 방형구 면적의 1/10~1/4이상을 덮고, 개체수는 임의 (17.5% 정도)<br>1: '개체수는 많으나 피도(coverage)가 낮다' 혹은 '산재하나 피도는 높다' (5.5% 정도)<br>+: 피도는 낮고 산재되어 있음<br>r: 고립하여 출현하고 피도는 극히 낮음 |
| 군도  | 군도5: 동종개체의 가지와 잎이 상호 접촉하여 전면을 덮고 이른바 단순군락의 상태임<br>군도4: 군도5의 상태에 구멍이 뚫려 있다, 또는 다른 종이 그 구멍의 부분에 생육하고 있다.<br>군도3: 군도4의 식물 피복부분과 구멍의 부분이 역관계로 된다.<br>군도2: 군도3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br>군도1: 단독으로 생육한 상태   |
| 사례  | 교목층 곰솔4.4 - 교목층을 구성한 곰솔의 우점도가 4이고, 군도가 4임, 즉, 곰솔이 전체 조사 방형구의 면적의 1/2~3/4이상을 덮고(62.5% 정도), 순수한 곰솔군락이 아닌 교목층에 다른 수목이 공존하고 있음.   |

## 2. 자연생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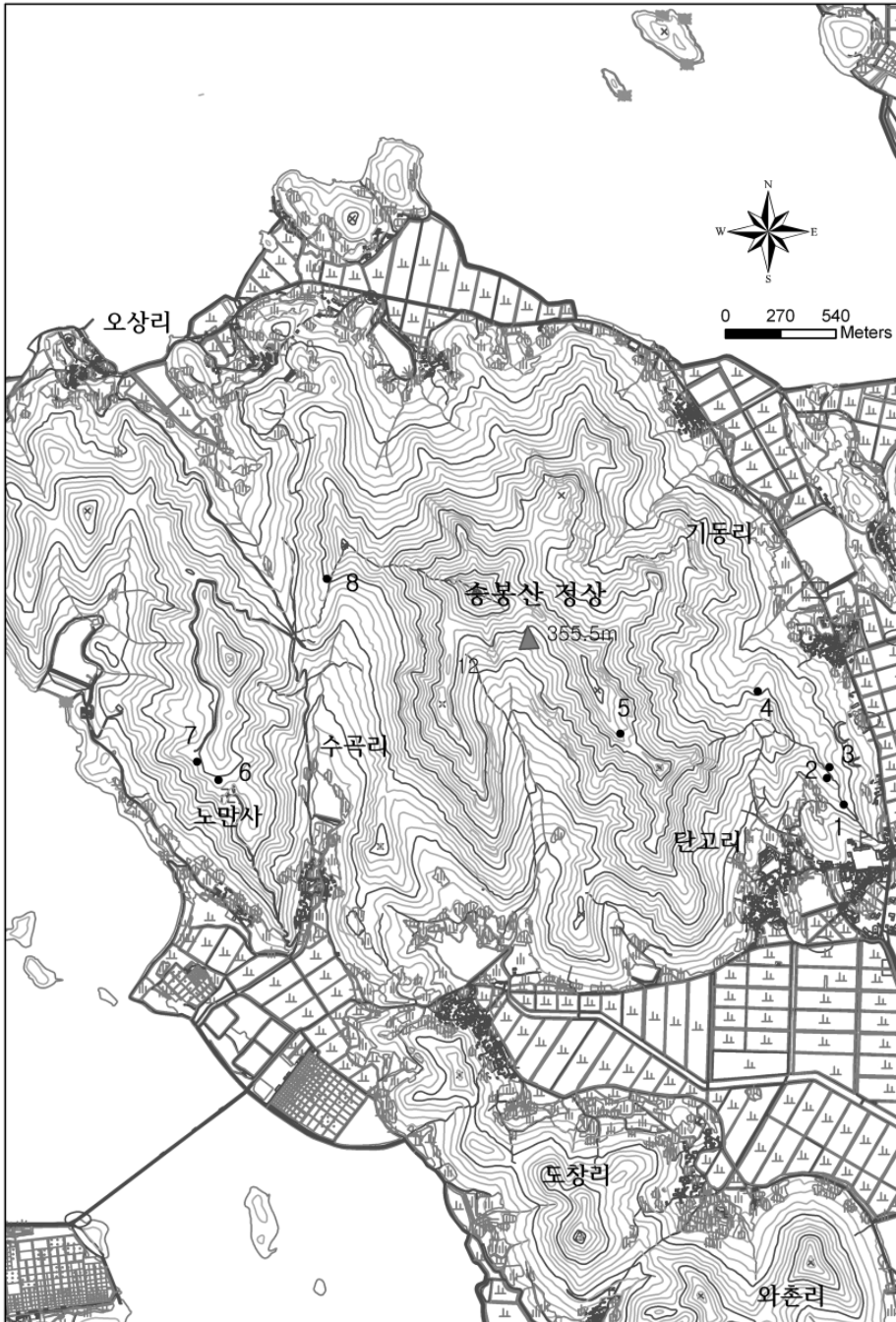
### 1) 식생

암태도의 주요 식생은 주로 승봉산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승봉산은 암태도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서 해발 355.5m이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반노출이 50%이상인 되는 화강암 산으로서 식물이 성장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다. 또한 사면이 급한 지형이 특성이라 우기에는 토양유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의 타 지역과는 다르게 자연식생 보다는 조립지와 같은 인위적인 식생이 우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승봉산과 연결된 큰봉산(대봉산 222.5m)과 함께 암태면의 대부분의 지역이 산림(70%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암태면의 주요 농사지역은 간척으로 인한 매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봉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수자원을 모아서 여러 개의 저수지를 형성하였다(그림 1).

[표 3] 승봉산 등산로 주변의 식생개관 (암태중학교에서부터 정상까지 등반).  
위치번호는 [그림 1]에서 표기된 조사지 위치임.

| 위치<br>번호 | 조사지역                | 지형        | 식생형    | 우점종 (단위: m) |               |                |                |
|----------|---------------------|-----------|--------|-------------|---------------|----------------|----------------|
|          |                     |           |        | 교목층<br>(8~) | 아교목층<br>(8~3) | 관목층<br>(3~1.5) | 초본층<br>(1.5이하) |
| 1        | 승봉산 등산로<br>입구 (암태중) | 산지<br>능선부 | 곰솔     | 곰솔          | 리기다소나무        | 예덕나무           | 억새             |
| 2        | 승봉산 등산로             | 산지<br>능선부 | 아까시나무  | 아까시나무       | 아까시나무         | 담쟁이덩굴          | 개밀             |
| 3        | 승봉산 등산로             | 산지<br>능선부 | 예나무    |             |               | 예덕나무           | 고사리            |
| 4        | 승봉산 등산로             | 사면        | 리기다소나무 | 리기다소나무      | 리기다소나무        | 사스레피나무         | 새              |
| 5        | 승봉산 등산로             | 정상부       | 곰솔     | 곰솔          | 곰솔            | 진달래            | 새, 억새          |
| 6        | 노만사 주변              | 산지<br>능선부 | 굴참나무   | 굴참나무        | 팽나무           | 예덕나무           | 담쟁이덩굴          |
| 7        | 노만사 뒤<br>(오리바위 부근)  | 산지<br>능선부 | 곰솔     | 곰솔          | 산벚나무          | 사스레피나무         | 마삭줄            |
| 8        | 승봉산 서사면             | 사면        | 곰솔     |             | 곰솔            | 사스레피나무         | 억새             |

[그림 1] 승봉산 일원 식생조사 위치번호(1~8)



〈표 3〉는 승봉산 식생조사 결과 등산로 주변의 주요 식생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치번호 1~5까지는 암태중학교에서 등반을 시작하면서 고도별로 주요 특색 있는 식생을 조사한 것이며, 위치번호 6~8까지는 노만사 일원과 승봉산 서사면의 대표적인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식생개관이다. 승봉산 일원(암태중 방향)의 상당 부분이 해송과 리기다소나무가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랫동안 산림이 화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 리기다소나무 등 조림목으로 식생을 조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3의 위치번호 1, 4).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는 원산지가 미국 동부 뉴저지주 Pine Barren 지역으로 척박한 환경으로 인하여 오로지 리기다소나무만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화목과 벌목 등에 의하여 황폐해진 척박한 산림을 신속하게 녹화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며, 대대적인 조림을 하였다(사진 2). 리기다소나무는 속성수임과 동시에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성장형 수목이라 녹화사업에는 성공하였으나, 리기다소나무 특성인 줄기 비틀림에 의하여 고급 목재로서의 활용은 실패한 비경제성 수종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과거 속성수로 조림된 수목들을 자생 수종으로 개량하는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암태면 승봉산의 조림 계획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실시함이 정확한 정책이다. 자료번호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방조림용 수목이었던 아까시나무가 승봉산 일대에 남아 있으며, 현재 자연천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승봉산의 대부분의 식생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2차림(secondary forest)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서 성숙한 숲으로 바뀔 수 있는 천이과정 초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승봉산 사면부가 조림에 의한 2차림으로 구성되었으나 상층부는 자생 소나무(*Pinus densiflora*)로 구성되어 있다. 소나무 또는 적송(赤松)은 우리나라 자생 소나무로서 리기다소나무와는 달리 잎이 2개이



[사진 2] 승봉산일대의 리기다소나무군락

다(이일구 1976). 줄기가 붉어서 적송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화강암 기질의 토양에서 성장한다(이우철과 이철환 1989). 그러나 염분이 포함된 해풍에는 약하여 대부분 해안가에는 곰솔(黑松, *Pinus thunbergii*)이라는 소나무들이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인위적으로 식재하고 있다(표 3, 위치번호 5, 7, 8). 또한 온대낙엽수림의 대표적인 참나무류(졸참나무, 굴참나무)등이 있어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에 의한 식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능선부와 정상부의 바위에는 부처손(혹은 바위손)이 많이 분포하여 자생하고 있다. 부처손은 부처손과의 상록성 여러해살이풀이다. 이 식물의 성장형태에 따라서 만년송, 만년초, 불사초, 회양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한약명으로는 '권백'이라고 한다. 혈액순환, 여성병, 간경화증, 폐염 등 각종 병에 좋다고 알려지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식생은 노만사 주변의 식생이다. 노만사는 느티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 군락과 송악군락으로 이루어졌다(사진 3). 절 주변은 낙엽활엽수 군락이 둘러싸여 있으며 대웅전 주변은 송악군락으로 둘러싸였는데 송악의 넝쿨이 매우 발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전에 정착하여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몇 그루의 느티나무는 자연군락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진 3] 노만사의 송악군락

데 수목의 배열상태를 보아 사찰 관리 차원에서 오래전에 이식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노만사 뒤쪽의 등산로를 지나면서 굴참나무군락이 발견된다(표 3, 위치번호 6). 단위면적당(15x15m<sup>2</sup>), 흉고직경 40cm이상의 굵은 굴참나무 2개체, 30cm이상의 굴참나무 4개체가 25cm이상의 곰솔 한 개체와 섞이면서 교목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교목층에도 20cm이상의 굴참나무가 존재한다. 이 굴참나무군락 주변에도 상당히 굵은 굴참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예부터 굴참나무의 두꺼운 껍질은 벗겨내어 너와집의 재료(벽, 지붕)로 사용되어왔다. 또한 두꺼운 껍질 때문에 참나무류 중에서도 산불에 대한 내화성이 있고, 구황식물인 도토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부터 마을엔 굴참나무를 많이 심었다.



[사진 4] 노만사 주변 굴참나무군락



[사진 5] 암태도 최초의 입도지 현황

암태도의 전형적인 곰솔군락은 노만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표 3, 위치번호 7). 단위면적당(10x10m<sup>2</sup>), 흉고직경 30cm이상의 곰솔이 3개체, 25cm이상이 3개체, 20cm이상이 2개체가 조사되었다. 또한 25cm이상의 산벚나무 1개체, 자귀나무 1개체가 조사되었고, 20cm이상의 수목으로서 산벚나무, 굴참나무, 10cm이상으로서 산벚나무, 예덕나무, 말오줌때가 각각 한 개체씩 분포하였음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흉고 직경급의 분포로 분석하면, 현재 우점종인 곰솔의 후계목이 없으며, 대신 10cm이상인 산벚나무, 예덕나무, 말오줌때와 같은 활엽수가 곰솔군락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식물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의 수목의 상태와 후계목의 상황을 본 결과는 그러하다. 노만사 뒤쪽으로 연결된 길은 최근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암태도 입도지에 도달하게 된다. 1980년대까지 5가구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집터만 남아 있을 뿐 집의 흔적은 없으며, 식생들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폐쇄되어 가고 있다(사진 5). 암태도를 비롯하여 신안군일원의 최초 입도지에 대한 역사, 문화, 지리, 경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와 더불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식생군락별 주요 식물상

주요 자연식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식물상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표 4>은 <표 3>에서 조사된 동일 장소에서 분석한 식생층상별 식물상의 분포이다. 각 수치는 분포양상을 나타내는 식물사회학적인 값으로 전체 조사 면적에 골고루 100% 분포했을 경우를 가장 높은 값인 5로 하고, 그 이후부터 4, 3, 2, 1, +의 값을 부여하여 식물상의 점유도와 분포패턴을 확인한다(표 2 참조). 마을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위치번호 1, 2)에서는 주로 곰솔이나 아까시나무군락이 우점하고 있으며 관목층에도 청미래덩굴, 담쟁이덩굴, 짚레 등 임연식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초본의 경우, 곰솔군락에서는 억새, 새, 마삭줄 등이 나타났으나 아까시나무군락에서는 개밀, 쑥, 망초, 인동, 사위질빵을 비롯하여 산딸기, 뽕딸기, 명석딸기 등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들이 나타났다. 이 두 군락은 마을과 가깝게 위치하였지만, 지형이 사면이었던 곰솔군락에 비하여 평지에 가까운 서식처였던 아까시나무군락의 경우, 수분공급이 충분한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서남해 해안가에는 예덕나무군락(*Mallotus japonicus* community)이 나타나는데 옛날부터 나무껍질에 타닌이 있어서 진통과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어서 민간에서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어촌 민가에서는 예덕나무군락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예덕나무군락(위치번호 3)은 아직 교목층까지 성장하지 않은채 관목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목 자체의 크기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약재의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 아닐까 추정한다.

승봉산에서 조사된 곰솔군락과 리기다소나무군락에서는 거의 진달래가 분포하였다. 진달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지성식물이며, 소나무군락에 수반종(accompanying species)으로서 거의 확인된다. 곰솔이나 리기다소나무를 포함하는 소나무군락은 단위면적당 밀도가 낮고, 다른 활엽수 군락보다 빛의 투과력이 높다. 따라서 진달래나 철쭉과 같은 식물들이 주로 소나무군락과 함께 성장한다. 노만사 뒤쪽 곰솔군락(위치번호 5)은 서남해의 전형적인 산악형 곰솔군락으로서 이러한 이유로 진달래, 청미래덩굴, 생강나무, 아그배나무, 등나무, 예덕나무, 검노린재나무, 참싸리, 사스레피나무, 노간주나무, 쥐똥나무 등 다양한 관목들이 번성하고 있다. 또한 승봉산 서쪽사면(노만사 뒷길)에서 조사된 곰솔군락에서는 사스레피나무, 노간주나무, 생강나무, 개웃나무, 줄참나무, 오리나무, 산딸나무, 청미래덩굴, 감태

[표 4] 조사지역별 식생층상 구성 식물상과 식생평가 (자료번호는 [표 3]의 위치번호와 일치함)

| 위치<br>번호 | 식생층상구조            |   |   |  | 평가<br>등급 |
|----------|-------------------|---|---|--|----------|
|          | 교목층(Ⅰ)            | 아교목층(Ⅱ)   | 관목층   | 초본층  |          |
| 1        | 곰솔4.4             | 리기다소나무<br>3.3   | 예덕나무3.3, 검노린재나무2.2,<br>청미래덩굴2.2, 등나무1.1, 산벚<br>나무1.1, 진달래1.1, 사스레피나<br>무1.1, 개웃나무1.1  | 억새1.1, 새1.1, 마삭줄1.1, 땃덩이덩<br>굴+, 고사리+, 애기풀+, 등골나물+,<br>씀바귀+, 제비꽃+, 골무꽃+, 잔대+,<br>계요등+, 마+, 미역취+, 그늘사초+   | Ⅳ~Ⅴ      |
| 2        | 아까시나무<br>4.4      | 아까시나무<br>1.1  | 짚레1.1, 담쟁이덩굴2.2, 개웃나<br>무1.1  | 개밀5.5, 썩1.1, 망초+, 질경이+, 산<br>갈퀴+, 뽕딸기+, 사위질빵+, 땃덩이<br>덩굴+, 산딸기+, 뿌리뱅이+, 멍석딸<br>기+  | Ⅳ~Ⅴ      |
| 3        |                   |   | 예덕나무5.5,<br>짚레1.1   | 고사리2.2, 인동+, 사위질빵+, 그늘<br>사초+, 망초+, 뿌리뱅이+, 억새+,<br>장딸기+, 고비+, 썩+, 노박덩굴+,<br>실고사리+, 주름조개풀+, 검노린재<br>+, 꼬들빼기+, 고사리삼+, 쥐꼬리새<br>풀+, 애기풀+                 | Ⅳ~Ⅴ      |
| 4        | 리기다소나무<br>4.4     | 리기다소나무<br>3.3, 곰솔1.1                                      | 사스레피나무4.4, 등나무1.1, 청<br>미래덩굴1.1, 개웃나무1.1, 검노<br>린재나무1.1, 진달래1.1, 짚레1.1,<br>참빛살나무1.1, 노간주나무1.1   | 억새1.1, 새1.1, 고사리+, 엉겅퀴+,<br>골무꽃+, 마삭줄+, 제비꽃+, 그늘사<br>초+, 멍석딸기+, 제비썩+   | Ⅳ        |
| 5        | 곰솔4.4             | 곰솔1.1, 산벚나<br>무1.1, 자귀나무<br>1.1                           | 진달래2.2, 청미래덩굴2.2, 생<br>강나무1.1, 아그배나무1.1, 등나<br>무1.1, 예덕나무1.1, 검노린재나<br>무1.1, 참싸리1.1, 사스레피나무<br>1.1, 노간주나무1.1, 쥐똥나무1.1   | 새1.1, 억새1.1, 참취+, 마삭줄+, 골<br>무꽃+, 잔대+, 쏘팔뚝+, 큰까지수영<br>+, 그늘사초+, 양지꽃+, 제비꽃+,<br>자금우+, 계요등+, 마+  | Ⅱ        |
| 6        | 굴참나무4.4,<br>곰솔1.1 | 팽나무2.2, 굴<br>참나무1.1, 사스<br>레피나무1.1                        | 예덕나무1.1, 노간주나무1.1, 청<br>미래덩굴1.1, 검노린재나무1.1,<br>담쟁이덩굴1.1, 마삭줄1.1, 쥐똥<br>나무1.1, 꾸지뽕나무1.1, 산딸나<br>무1.1, 으름덩굴1.1, 개웃나무1.1,<br>사스레피나무1.1, 짚레1.1, 사철<br>나무1.1       | 담쟁이덩굴2.2, 썩1.1, 인동1.1, 송악<br>1.1, 그늘사초1.1, 쇠뜨기1.1, 방울사<br>초1.1, 땅채송화+, 새+, 골무꽃+, 팽<br>이밥+, 애기나리+, 으아리+, 고사리<br>+, 으름+, 닭의덩굴+, 개구리발톱+,<br>천문동+, 닭의장풀+ | Ⅰ~Ⅱ      |
| 7        | 곰솔3.3             | 산벚나무2.2,<br>예덕나무2.2,<br>자귀나무1.1, 굴<br>참나무1.1, 말오<br>줌때1.1 | 사스레피나무2.2, 노간주나무<br>1.1, 생강나무1.1, 개웃나무1.1,<br>졸참나무1.1, 오리나무1.1, 산딸<br>나무1.1, 청미래덩굴1.1, 감태나<br>무1.1, 검노린재나무1.1, 가중나<br>무1.1, 쥐똥나무1.1, 밤나무1.1,<br>두릅1.1, 등나무1.1 | 마삭줄3.3, 억새1.1, 참취+, 골무꽃<br>+, 등골나물+, 융동굴레+, 사위질빵<br>+, 산국+, 씌바귀+, 새+, 엉겅퀴+,<br>계요등+, 마+, 미역취+, 땃덩이덩굴<br>+, 주름조개풀+                                    | Ⅱ        |
| 8        |                   | 곰솔3.3   | 사스레피나무3.3, 청미래덩굴<br>3.3, 졸참나무1.1, 등나무1.1, 팔<br>배나무1.1, 진달래1.1, 산철쭉1.1,<br>산벚나무1.1, 뽕나무1.1, 산가막<br>살나무1.1, 국수나무1.1   | 억새1.1, 새1.1, 골무꽃+, 참취+, 고<br>사리+, 제비꽃+, 계요등+, 쥐꼬리새<br>풀+, 산국+, 맑은대썩+, 땃덩이덩굴<br>+   | Ⅲ        |

나무, 검노린재나무, 가중나무, 쥐똥나무, 밤나무, 두릅, 등나무 등의 관목이 성장하고 있다. 곰솔군락이라고 해도 모든 식생구조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암태도의 대부분의 소나무군락(곰솔, 리기다소나무)에서는 진달래, 사스레피나무, 검노린재나무, 청미래덩쿨, 참싸리 등이 관목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새, 억새, 쭉, 고사리의 식물들이 초본층에서 발견되었다.

### 3) 마을숲과 노거수

암태도에는 마을별로 노거수와 우실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자연스럽게 조성된 돌담과 함께 어우러진 노거수와 방풍림들은 마을의 생태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마을의 노거수나 당숲은 마을의 과거 생태환경과 기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수목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노거수의 나이테를 측정함으로써 마을의 재해와 기후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마을숲과 노거수는 문화적 보전가치와 더불어 산림유전학적, 생물문화적인 가치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또한 마을의 노거수와 숲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였던 전통지식(돌담 포함)은 세계생물다양성당사국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BD)으로 보전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도서지역의 마을숲과 노거수, 그리고 돌담은 해양환경과 육지환경에 상보적으로 적응하면서 마을의 문화와 농업을 지켜온 인류의 가치있는 문화적 장치로서 국제적인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섬으로 된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마을 전통숲과 노거수에 대한 정밀조사와 더불어 생태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

#### (1) 추포리 마을숲 (추포마을)

팽나무 10여그루(수령 100년 이상, 흉고직경 50cm이상)가 자생하고 있으며, 주변에 건축물이 있고, 오랫동안 관리가 부재하여 고사의 위기에 있다. 특히 주변에 농약병과 같은 위해약품병들의 투기가 심하여 토양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관리를 할 경우, 추포리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방풍림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사진 6] 추포리 마을숲의 현황

## (2) 수곡마을 노거수

수령 4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노거수 1개체. 2009년 1월 5일 신안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15-22-13-1). 크기는 흉고직경 140cm, 수고는 20m에 달한다. 이 노거수 주변은 정리가 되어 마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진 7] 수곡리 노거수의 현황

### (3) 신석리 마을숲(우실)

신석리신마을 숲은 일명 '우실'이라는 문화적 명칭으로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을 전통숲이며 도서해양 지역의 문화원형이다. 해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여 주민의 안녕과 농산물의 풍작을 위하여 설치한 인위적인 방풍림이다. 이것의 생태적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섬 주민들이 해양성 기후



[사진 8] 신석리 마을숲의 현황

후에 대응하면서 자체적으로 지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태문화적 적응장치로서 일본이나 대만, 아시아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화의 특성은 국제성을 갖는다. 그 만큼 생물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아쉽게도 암태도에 있는 신석리 마을숲과 더불어 또한 대표적인 마을숲으로 잘 알려진 송곡리 마을숲도 관리부재의 상태이며, 문화적 가치가 손상될 상황이다. 신석리 마을숲은 2009년 1월 5일 신안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15-22-13-4). 수령 350년, 수고 20m의 팽나무 4개체가 지정되었는데 실제 조사에 의하면 돌담과 주변 일대의 수목을 전부 연결할 경우, 대규모의 마을숲 형태가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주변 20여 개체의 팽나무도 관리가 부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 숲의 문화적 가치나 생태적 관리체계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남게 될 것이다.

### (4) 송곡리 우실 (마을숲)

1905년 조성된 팽나무숲과 돌담으로 된 울타리이다. 2000년 1월 31일 신안군 향토자료 제20호로 지정되었다. 돌담의 높이 2.7m, 길이 90m이다. 돌담과 노거수로 조성된 인조물로서 해풍을 막는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 토지이용 등



[사진 9] 송곡리 마을숲의 현황

에 의하여 돌담이 훼손되고 있으며, 관리부실에 의하여 노거수가 고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문화재로서 지정이 될 경우, 토지매매나 주변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주민들에 의하여 섬지역의 고유한 민속자원, 생태자원을 유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경자원관리의 측면에서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향후 보전, 복원,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 (5) 송곡리 활목마을 노거수

활목마을에는 두 그루의 보호수가 있다. 하나는 수령 200년, 수고 18m이고, 나무둘레는 310cm인 팽나무 1본이 2009년 1월 5일 신안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15-22-13-2, 사진 9). 또한 마을 안쪽에는 수령 200년, 수고 16m, 나무둘레 330cm의 또 다른 팽나무가 보호수로 동일 일시에 지정되었다(15-22-13-3, 사진 10). 이 두 노거수를 중심으로 활목마을에는 2008년에『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팽나무공원)』을 시행하여 노거수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마을 돌담이 아름답고 다른 마을에 비하여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암태도의 돌담의 특성은 붉은 색을 띠고 있는 암태도의 돌을 이용하여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돌의 쌓임 자체도 주변 도서들과 차이가 난다. 활목마을에 돌담은 암태도 마을 돌담의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전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 두 그루의 노거수가 있으며, 마을 주민들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단지 다른 지역의 노거수 관리 형태와 마찬가지로 수목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양의 수분공급과 뿌리호흡이 원활하도록 관리가 요망된다.



[사진 10] 활목마을 노거수 1



[사진 11] 활목마을 노거수 2

#### (6) 신석리 구석마을 노거수

구석마을 노거수는 활목마을이나 송곡리 등 암태면의 다른 마을 노거수에 비하면 크기와 수령에서 노거수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직경 40cm, 수고 12m의 교목인 팽나무로서 구석마을의 대표적인 노거수로 보고한다. 특히 이 노거수를 중심으로 마을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마을 노거수 성장 현황에 비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수목이 제대로 뿌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시멘트를 제거하고, 나무 밑에 돌은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진 12] 구석리 노거수의 현황

## (7) 노만사(露滿寺)

승봉산 산자락에 위치하는 노만사에는 송악군락과 같은 자연 식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엽수들이 성장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느티나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연림에 가까운 낙엽활엽수와 상록활엽수가 혼재하고 있다. 송악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난대성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도서지역과 포항 등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다. (※송악군락: 우리가 일명 '아이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서남해 도서지방의 숲속과 해안에서 성장하는 상록식물이다. 마치 넝쿨이 나와서 바위를 붙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공기뿌리가 줄기에서 나와서 몸을 암반에 부착하여 키워나가는 특별한 생리적 기능을 하는 식물이다. 따라서 송악이 자라는 곳에는 다른 식물이 터를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넝쿨손 식물이 상대를 죽이는 기생식물인데 비하여 송악은 자신이 의지하는 큰 나무가 죽는 것을 막는 共生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남쪽지역과 일본, 대만 등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봐서 난대지역 자생 식물이다. 남쪽 도서지역에서는 소에게 송악을 걸어서 먹이는데 소가 잘 먹는다고 하여 '소밥나무'라고도 하고, 늘 푸른 등나무라는 뜻에서 常春藤이라고도 한다). 노만사 송악군락은 2010년 11월 29일 신안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다(15-22-13-5). 수령은 100년, 수고 6m, 나무둘레는 16cm로 되어 있다.



[사진 13] 노만사 송악

### 3. 자연생태자원의 활용

암태도는 주변의 자은도나 팔금도와 비교하여 산악지대가 많으며 또한 암반이 발달되었다. 도서지역에서의 지역활성화는 각 섬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암태도의 경우는 붉은색의 돌이 매우 특이한 자원일 수 있다. 아래 몇 가지 암태도의 자연자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암태도의 돌과 돌담



[사진 14] 암태도의 돌담

암태도는 타 지역의 암반과 달리 홍도와 같이 붉은색의 돌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마을 돌담도 주변 자은면과 팔금면에 비하여 매우 독특한 색감과 질감을 나타내고 있다. 활목리, 천포리, 송곡리에 있는 돌담을 제대로 보수하고 유지한다면, 타 지역과는 다른 돌담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돌담을 이용하여 돌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암태도에서 제작된 돌 민속도구나

기타 생활도구를 전시하는 것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승봉산 등산로와 정상부근, 그리고 수곡리 일원의 바위들 마당바위, 오리바위 등도 단순히 명칭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바위에 대한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관광 가이드북에 함께 수록하면 등산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암태도를 지속적으로 기억할 것으로 본다.

## 2) 노만사와 낙조경관

노만사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압태도의 대표적인 명품이며, 중요한 포토존이다. 노만사의 명칭과 함께 조용한 암자에서 추포도와 무인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도시인에게는 충분히 힐링을 제공한다. 또한 노만사 뒤쪽으로 연결된 승봉산 서쪽 사면과 오리바위, 마당바위, 최초 입도지가 있는 수곡리에서의 산책은 한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매우 훌륭하다.



[사진 15] 노만사에서 바라본 갯벌

## 3) 추포해수욕장

추포해수욕장은 압태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이다. 100만평의 넓은 자연모래로 된 해변과 주변 송림은 청정 해수욕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소규모의 펜션이나 자연스러운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족단위의 해수욕장을 조성하면 좋겠다. 향후 연륙교가 완공될 경우, 자은면을 찾을 관광객들 중 압태면 추포해수욕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의 관광시설의 유치보다는 현재의 추포의 경관과 자연을 살리는 방향에서 해수욕장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4. 제안

### 1) 우실, 전통마을숲, 노거수의 발굴과 보전

이번 조사를 통하여 보호수와 우실주변의 관리가 매우 부실함을 확인하였고, 또한 미발굴된 보호수나 마을숲, 그리고 우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송곡리나 신석리의 우실(마을숲)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속학이나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모델숲이다. 암태도의 두 우실은 공원화를 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 신안군 일원의 마을 돌담, 노거수, 마을숲 복원을 통한 생태마을조성으로 섬의 문화가치를 풍부하며 휴식할 수 있는 관광상품과 힐링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 최초 입도지에 대한 복원과 활용방안

암태도를 비롯하여 신안군 일원의 도서지역에서 최초 입도지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입도를 통하여 주민들이 생활하게 되었고, 또한 주민들에 의하여 매립, 간척 등에 의하여 토지이용이 진행되었다. 입도지에 대한 역사, 문화, 지리, 경관, 그리고 고고학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지리정보(GIS)등을 이용한



[사진 16] 암태도 최초 입도지의 현황. 역사문화적 복원과 새로운 방향의 활용이 필요함

최초 입도지의 디지털 복원과 함께 <입도 체험마을>을 형성하여 숙박과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현대적 시각에서 활용할 수 있다.

### 3) 도서지역 생물자원이용에 대한 전통지식 보전

세계적으로 섬 지역의 생물생태자원과 전통지식은 보전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CBD: 국제생물다양성협회 등). 기후 변화와 해수온도 상승 등 지구적 변화에 특히 취약한 섬 지역 주민들의 적응방식은 연구자의 학술적 가치 뿐 아니라 미래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과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는 바라보고 있다. 신안군의 많은 섬들에는 아직도 이러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전통지식"이 많이 남아 있다. 섬 지역의 노거수, 마을숲, 돌담을 비롯하여 생물, 생태자원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활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기록, DB가 필요하다. 관련된 국제학술대회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준민, 김철수, 박봉규 (역). 「식생조사법- 식물사회학적 연구법」. 171쪽. 일신사. 1987.
- 김종홍, 이호준. 「한반도 도서의 식물자원연구 I - 동해, 동남해, 서해의 식물상과 식생」.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4.
- 양효식. 「한국 서남해 도서의 소나무림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국생태학회 25(2): 127~134. 2002.
- 이우철, 이철환. 「한국산 소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연구」. 한국생태학회지 12: 257~284. 1989.
- 이일구. 「우리나라 소나무의 분포와 실태」. 자연보존 13 : 5~8. 1976.
- 이창복, 이용보, 이창희. 「신안군 도서지역의 식물상」. 한국자연보존협회 조사보고서 제16호: 31-54. 1980.
- Hong S.-K. "Changes in landscape patterns and vegetation process in the Far-Eastern cultural landscapes: Human activity on pine-dominated secondary vegetations in Korea and Japan". *Phytocoendologia* 28: 45-66. 1998.

# 암태면편

## Ⅱ . 고고유적

최성락

목포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1. 조사개요

- 1) 개요
- 2) 답사일정표
- 3) 고고유적목록

### 2. 고고유적

- 1) 조사현황
  - (1) 암태면 단고리 단고입석
  - (2) 암태면 와촌리 와촌입석
  - (3) 암태면 송곡리 활목입석
  - (4) 단고리 유물산포지
  - (5) 도창리 유물산포지①
  - (6) 도창리 유물산포지②
  - (7) 오산리 고묘군
- 2) 고고유적의 성격

### 3. 보존 및 활용방안



## II 고고유적

### 1. 조사개요

#### 1) 개요

암태면 지역의 고고유적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 현장 지표조사, 자료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고고유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하는 준비작업이다. 현장 지표조사는 기존에 알려진 고고유적의 확인과 새로운 고고유적을 찾고자 한다. 지표조사는 2월 18일~19일간의 공동조사와 두 차례의 개별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이미 알려진 3개소의 입석을 확인하였고, 새로이 3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고묘군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 수습된 유물을 연구실에 가져와 세척하고, 사진을 촬영하면서 유물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고유적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는 홍진석과 김민근(이상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동행하였고, 수습유물의 정리는 이승현(고고학과 조교)이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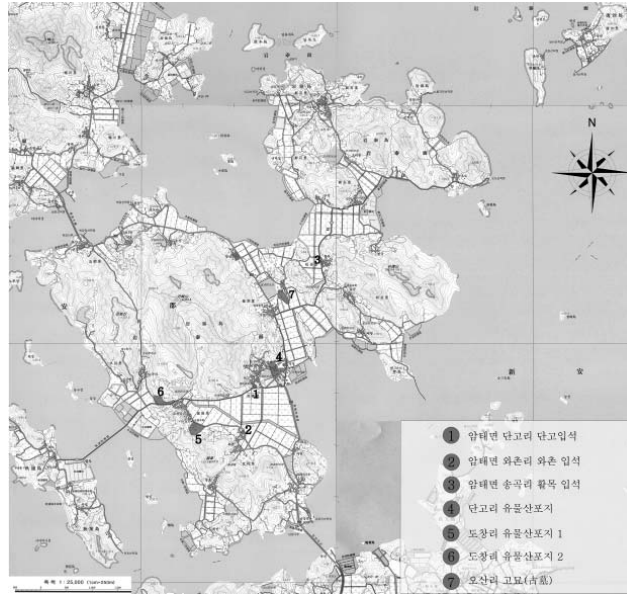
암태면 지역에서 이번에 조사된 유적으로는 거석기념물인 입석을 비롯하여 유물산포지, 고묘군 등이 있다. 그러나 입석의 연대는 선사시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민속학적 자료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물산포지에서는 도기편, 자기편, 옹기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고려시대 이후의 것이고, 고묘군(古墓群) 주변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않아 조선시대의 무연고묘로 추정된다.

## 2) 답사일정표

| 순서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조사자             | 조사내용            | 비 고  |
|----|----------------|------------------------|-----------------|-----------------|------|
| 1  | 13. 02. 18-19. | 암태면 송곡리, 도창리, 단고리, 오산리 | 최성락 · 김민근       | 입석, 고묘 조사       | 공동조사 |
| 2  | 13. 06. 10.    | 도창리, 단고리               | 최성락 · 홍진석 · 김민근 | 유물산포지 조사        | 개별조사 |
| 3  | 13. 07. 01.    | 단고리                    | 최성락 · 홍진석 · 김민근 | 입석 추가조사         | 개별조사 |
| 4  | 13. 07. 15-18. | 목포대학교 연구실              | 최성락 · 이승현       | 수습유물 촬영 및 도면 작성 | 개별조사 |

## 3) 고고유적목록

| 순서 | 명 칭         | 내 용   | 위 치      | 비 고   |
|----|-------------|-------|----------|-------|
| 1  | 단고리 단고입석    | 입석    | 단고리 단고마을 | 기존 유적 |
| 2  | 와촌리 와촌입석    | 입석    | 와촌리 와촌마을 | 기존 유적 |
| 3  | 송곡리 활목입석    | 입석    | 송곡리 활목마을 | 기존 유적 |
| 4  | 단고리 유물산포지   | 유물산포지 | 단고리 단소마을 | 신규 유적 |
| 5  | 도창리 유물산포지 1 | 유물산포지 | 도창리      | 신규 유적 |
| 6  | 도창리 유물산포지 2 | 유물산포지 | 도창리      | 신규 유적 |
| 7  | 오산리 고묘군     | 분묘    | 오산리      | 신규 유적 |



[그림 1] 암태도 고고유적 분포도

## 2. 고고유적

### 1) 조사현황

#### (1) 암태면 단고리 단고입석(사진 1·2, 그림 2)

단고마을에는 2기의 입석이 있다. 하나(①)는 장고마을에서 단고마을로 들어가는 마을입구에 있는 높이 131cm, 너비 30-40cm의 입석이다. 마을 김해김씨의 묘 밑에 위치하고 있어 '산소등 선돌'이라 불리며, 둥근 눈과 코, 귀 등 人面이 조각되어 있다. 현재 새로 세운 단고리 마을 표지석과 함께 있어서 있어 눈에 잘 띄지 아니한

다. 다른 하나(②)는 마을 서남쪽 외곽의 김만석씨 집 앞에서 있다. 크기는 높이 142cm, 너비 35cm, 두께 30cm이다. 마을 모퉁이에 있다고 해서 ‘모테선돌’이라 불린다. 이 두 선돌이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20세기 초까지는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농악놀이 등을 행하였다고 한다.

\* 참고문헌 : 이종철 · 조경만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008



[사진 1] 단고리 단고입석 ①



[사진 2] 단고리 단고입석 ②



[그림 2] 단고리 단고입석(1), 단고리 유물산포지(4)

## (2) 암태면 와촌리 와촌입석(사진 3·4, 그림 3)

와촌 마을에는 큰선돌과 작은선돌이라 불리는 2기의 입석이 있다. 이 입석들은 마을 어귀 '선독거리' 또는 '소꼬팽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한다. 큰 선돌(①)의 크기는 높이 190cm, 너비 60cm, 두께 50cm이다. 작은 선돌(②)의 크기는 높이 85cm, 너비 53cm, 두께 23cm이다. 두 선돌은 원래 와촌마을의 '저돌이'라는 곳에 있다고 40여 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세워졌다고 한다.

\* 참고문헌 : 이종철·조경만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008.



[사진 3] 와촌리 와촌입석 ①



[사진 4] 와촌리 와촌입석 ②



[그림 3] 와촌리 와촌입석(2), 도창리 유물산포지①·②(5, 6)

(3) 암태면 송곡리 활목입석(사진 5·6, 그림 4)

활목마을에는 '선돌' 또는 '선독'이라 불리는 입석이 있다. 입석은 마을 앞 뽕나무 아래에 위치한다. 입석이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현재의 위치에 이르렀다. 현재는 입석에 대한 어떤 의례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으나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입석에 원새끼의 금줄을 치고, 병이 낫기를 기원한다고 한다. 크기는 높이 130cm, 너비 40cm, 두께 58cm이다. 현지조사 결과 선돌과 함께 고인들의 상석과 같은 대석이 하나 놓여있고, 그 옆에 새로운 입석도 하나 더 세워져 있다.

\* 참고문헌 : 이종철 · 조경만 1987,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2008.



[사진 5] 송곡리 활목입석 원경



[사진 6] 송곡리 활목입석



[그림 4] 송곡리 활목입석(3), 오산리 고묘군(7)

#### (4) 단고리 유물산포지(사진 7·8, 그림 2)

단고리 면사무소 북쪽편 구릉으로 일부 소나무 숲과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

수습된 유물은 도기편, 옹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있다. 도기편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도기로 도기 동체부로 판단된다. 외면에는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면에는 물레흔이 확인되며, 고려시대 도기편으로 추정된다. 옹기편은 외면이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내면이 적갈색이다.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자기편은 백자로 잔존부가 작아 그 형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기와편은 윗부분으로 외면과 내면에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측면에 와도흔이 있다. 또 다른 기와편 외면에 시문되어있지 않으나 내면에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된다.



[사진 7] 단고리 유물산포지 전경



[사진 8] 단고리 유물산포지 수습유물

#### (5) 도창리 유물산포지①(사진 9·10, 그림 3)

도창리 마을의 동남쪽 구릉 경사면으로 대부분 경작지이다.

수습된 유물에는 도기편, 옹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있다. 도기편은 경질이며 동체부의 일부로 추정된다. 외면과 내면에 물손질흔이 있으며 색조는 회색 혹은 회청색이다. 고려시대 도기로 추정된다. 옹기편은 외면과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근세에 쓰인 옹기편으로 추정된다. 다른 옹기편은 외면과 내면이 회청색으로 내면의 안쪽이 붉은색의 태토가 확인되어 옹기로 추정하였다.

자기편은 크기가 작아 형태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내면에 사립질이 유약과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바닥으로 보인다. 태토와 색조상 백자편으로 추정된다. 기와편은 잔존하는 크기가 작아 원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외면에는 문양이 확인되지 않고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사진 9] 도창리 유물산포지① 전경



[사진 10] 도창리 유물산포지① 수습유물

### (6) 도창리 유물산포지②(사진 11 · 12, 그림 3)

도창리 북쪽 낮은 구릉으로 대부분 경작지이다.

수습된 유물에는 도기편, 회청색의 경질도기편이다. 연질토기는 회청색을 띠는 연질토기편으로 내면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외면과 내면에 문양이나 손질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도기편은 외면에 사격자의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 물손질흔이 되어있으며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도기편은 동체부로 추정되는데 외면에는 무문이거나 사격자의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이 되어있다. 색조는 회청색을 띤다. 용기편은 흑갈색을 띠는 외면과 내면에 굵은 사립이 확인된다. 자기편은 외면에 연당초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내면에는 물손질이 되어 있다. 유약 처리가 되지 않아 초벌자기로 판단되었으나 외면에 광택이 확인되며, 유약이 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려시대 녹청자로 추정된다.



[사진 11] 도창리 유물산포지② 전경



[사진 12] 도창리 유물산포지② 수습유물

#### (7) 오산리 고묘군(古墓群)(사진 13, 그림 4)

오산리 남쪽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오래된 무덤이 분포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지만 주변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토기편은 수습되지 않았다.



[사진 13] 오산리 고묘군

## 2) 고고유적의 성격

암태면 지역에서는 선사시대나 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거석문화의 하나인 입석이 3개소 5기가 확인되었지만 선사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인접한 도서지역에서 선사시대의 지석묘와 삼국시대의 고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그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즉 지석묘의 경우, 암태도와 인접한 자은면에서 4개군 11기, 안좌면 6개군 47기, 압해면 10개군 44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압해면 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으며 청동기시대 석기가 다량으로 출토된 바가 있다. 그리고 삼국시대 고분도 암태면에서 가까운 자은면 구영리 구영 고분, 안좌면 읍동리 고분군, 대리 배널리 고분군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안좌면 배널리 고분군의 석곽 속에서 철제 투구와 갑옷이 발견되어 주목받고 있다.

만약 선사시대 유적이 있었다면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암태면의 경우, 일찍부터 대대적인 간척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선사유적, 특히 고인돌과 같은 유적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반면 암태면은 대부분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지가 거의 없어 처음부터 선사시대 유적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선사시대이나 삼국시대 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파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는 현재로서 판단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유물산포지에서는 회청색의 경질도기편, 용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다수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의 연대는 고려시대 이후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대를 알 수 없는 고묘군도 일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무연고묘로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암태면 지역에서는 늦어도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번 조사에서 얻은 하나의 작은 성과이다.

### 3. 보존 및 활용방안

현재까지 보존되어야 할 선사시대의 유적은 없다. 거석문화의 하나인 입석은 3개소 5기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선사시대의 유적이라기보다는 역사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마을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이 입석들은 대부분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면서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비록 입석이 선사시대의 거석문화의 하나로 볼 수 없더라도 마을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다. 또한 과거 민간신앙의 일종으로 입석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복원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기에 남아 있는 입석이나마 잘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물산포지에서는 도기편, 옹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고 있지만 고묘군에서는 별다른 유물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유물산포지는 현재 대부분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학술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종철·조경만 1987, 『민속자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신안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3,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 1 -압해면 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5, 『도서 문화유적 자료조사 및 자원화 연구 5 - 안좌·팔금면 편-』.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90, 「서남해도서지역의 선사문화」, 『도서문화』7,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 암태면편

## Ⅲ. 역사문화유적

최 성 환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변 남 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 조사개요
2. 암태면의 주요 역사유적
3. 암태면의 간척지 약식 조사
4.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사적지
5. 암태면의 인물
  - 1) 암태면 출신 대표 인물
  - 2) 암태면 역대 면장
6. 암태도 관련 고문서
  - 1) 암태도 관련 고문서
  - 2) 암태도 관련 생활문서
  - 3) 암태도 ‘염간(鹽干)’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
7. 활용방안
  - 1) 역사유적자원의 자원화 구체 방안
  - 2) 간척자원으로 마을의 특성화 방안
  - 3) 암태도 역사의 길(소작쟁의 관련 히스토리 로드)
  - 4) 암태도 소작쟁의 ‘아사동맹’ 상징물 조성
  - 5) 암태도 소작쟁의 자료집 발간
  - 6) 암태도의 소금쟁이 ‘염간’ 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사업 전개



# Ⅲ 역사문화유적

## 1. 조사 개요

암태도(巖泰島)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1924년에 발생한 암태도 농민들의 소작쟁의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며, 소작쟁의를 계기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사회활동가들이 배출된 역사적인 땅이다.

암태도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조사는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첫째는 암태면의 역사유적 조사이다. 역사유적은 자원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암태도 전체의 역사를 담고 있거나 자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중비, 개인의 공적과 효열비 등은 제외하였다. 하지만 암태면 소통의 통로인 옛 나루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조사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조사하였다.

둘째는 암태면의 간척지 조사이다. 신안군 방조제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28개소를 은암대교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조사하였다. 외측에 있는 방조제 안에 시기별로 축조된 작은 방조제와 미완공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축조자, 시기, 관련 역사, 이야기, 병합된 섬, 활엽지, 노도, 포구 등을 개략적으로 조

사하였다.

셋째는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사적지 조사이다. 압태도 소작쟁의는 이미 1969년 박순동의 논픽션 『압태도 소작쟁의』와 1981년 송기숙의 소설 『압태도』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후 박천우, 박찬승 등 역사학자들에게 의해서도 그 역사적인 가치가 연구되고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현장으로서 의미부여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과업을 통해 현재 압태도에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건립되어 있는 각종 기념물을 비롯하여 역사적인 현장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원천사료를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당대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 중 주요 기사를 갈무리하였고, 압태도 주민이 직접 기록한 회고록을 함께 수록하였다.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기초 자료는 향후 별도의 자료집으로 발간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다만 본고에서는 당대 신문기사에 소개된 내용을 토대로 압태도 소작쟁의가 차지하는 역사적인 위상과 당대 사회의 인식 등을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문자료 위주로 조사 수록하였다. 이외에 당시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투옥된 사람들의 판결문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별도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압태도 출신의 인물에 대한 기초조사이다. 일제강점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압태도가 배출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서태석, 박복영 등 기존에 알려진 독립운동가 외에도 1920~30년대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설준석 등에 대한 인물을 수록하였으며, 인물조사의 경우는 지속적인 보완을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지』(2015년 발간 예정)에 총망라된 인물들의 면모가 정리 될 예정이다. 인물의 경우는 1924년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활동가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와 관련되어 일제강점기 감옥에서 실형을 산 인물들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군과 후손들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신청 심사를 받을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섯 번째는 압태도의 역사와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이다. 압태도와 관련해서 현존하는 역사기록과 근현대 압태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담긴 생활문서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물을 정리하였다. 일제강점기 압태도의 유학자였던 천두생이 남긴 일기인 『각비록』의 경우 당대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고광민 연구원에 의해 확인된 동계와 상두계 등 압태도 지역의 생활문서도 섬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이외에 관찬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압태도와 관련 된 기사 가운데 ‘염간’과 관련된 기사는 압태도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자원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함께 수록 소개하였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은 변남주 연구원이 첫 번째 역사유적과 두 번째 간척지 분야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압태도 사적지, 인물, 고문헌 등에 대한 분야는 최성환 연구원이 담당하였다.

압태도 소작쟁의 관련 자료는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 2. 압태면 주요 역사유적

[표 1] 압태면 역사유적 목록

| 번호 | 명 칭                        | 위 치           | 시 기   | 비고 |
|----|----------------------------|---------------|-------|----|
| 1  | 남강 마을 김처한선정비(金處漢善政碑)       | 와촌리 남강진선착장    | 1799년 |    |
| 2  | 남강 마을 이호준불망비(李鎬俊不忘碑)       | 와촌리 남강진선착장    | 1873년 |    |
| 3  | 압태 송곡리 매향비(巖泰 松谷里 埋香碑)     | 송곡리 해당마을      | 1405년 |    |
| 4  | 압태도소작인 항쟁기념탑(岩泰島小作人 抗爭紀念塔) | 단고리 542-1     | 1998년 |    |
| 5  | 단고리 천두학기념비(新安 短庫里 千斗學記念碑)  | 단고리 단고마을      | 1931년 |    |
| 6  | 노만사(露萬寺)                   | 수곡리 큰봉산 남쪽    | 1873년 |    |
| 7  | 추포 노도비(路道碑)                | 추포리 오도 남쪽 끝단  | 1866년 |    |
| 8  | 수곡리 문진현비(水谷里 文振炫碑)         | 수곡리 마을의 남쪽 길가 | 1943년 |    |
| 9  | 남강진                        | 와촌리 남강마을      | 조선~현대 |    |
| 10 | 북강진                        | 오상리 북강진과 신정마을 | 조선~현대 |    |

## 1) 남강 마을 김처한선정비(金處漢善政碑)

소재지 : 암태면 와촌리 남강진선착장

시 기 : 1799년

**유적현황** : 남강진의 입구에 있다. 19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지금의 위치로 약간 옮겨졌다. 총 5개가 있었으나 3기는 유실되고 2기의 비만이 전하는데, 이중의 하나가 김처한의 비다.

‘김처한선정비’는 1799년(정조 23년)에 나주에 속한 여러 섬 주민의 이름으로 건립된 것으로 당시 전라우수사 김처한의 공덕을 기린 것이다. 김처한은 1796년(정조 20)에 10월 12일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동년 10월 29일에 우수영에 도착하여 1798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였다. 그러므로 남강의 선정비는 그가 이임한 다음해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비의 전면에는 ‘水使金公處漢恤隱善政碑’라는 비명과 사연을 칭송하는 기록이 좌우에 새겨져 있고, 비 뒷면에 흠은 내용이 총 9행 260자로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주요 내용은 섬의 주민들이 5가지 민폐가 심하다는 탄원이 있어 가경 3년(1798)에 조사케 하였고, 그 중 4가지는 개혁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었으나 1가지는 주민이 호소한 것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두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비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60cm, 두께 28cm이다.

**평가 및 의의** : 조선 후기 신안군 여러 섬 주민들의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관에 의한 민폐와 이를 해결하여준 우수사의 공덕을 섬 주민들이 합심하여 기리는 비이기에 더욱 가치가 높다.

\* 참고문헌 : 신안문화원, 2005, 『신안문화』, 『조선왕조실록』, 『전라우수영지』 선생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성환, 2008, 『전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 2) 남강 마을 이호준불망비(李鎬俊不忘碑)

소재지 : 압태면 와촌리 남강진선착장

시 기 : 1873년

**유적현황** : 남강진의 입구에 있다. 1970년대 초 새마을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지금의 위치는 약간 옮겨졌다. 총 5개가 있었으나 3기는 유실되고 2기의 비만이 전하는데, 이중의 하나가 이호준의 비다.

불망비의 이호준(1821~1901)은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홍문관부제학, 이조참의, 전라도관찰사, 형조판서, 궁내부특진관 등을 지냈다. 특이한 것은 1867년(고종 4) 무렵 친척의 자인 이완용(李完用)을 양자(養子)로 입적하였다는 점이다. 1870년에는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전라도지방의 행정에 진력해 외침에 대비한 성의 보수(補修)와 군사훈련에 주력하였다. 3년 여의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뒤 1872년 11월 규장각 직제학이 되었다.

‘이호준불망비’는 관찰사를 지낸 이호준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압태·팔금·기좌·안창·흑산의 주민들에 의해 1873년에 세워진 것이다. 공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석의 앞면과 뒷면에 4언 절구로 새겨져 있다. 비의 전면에는 ‘관찰사이공호준영세불망비(觀察使李公鎬俊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다. 이호준의 불망비는 압태도 이외에도 안좌면 자라도(1872년), 하의면 옥도(1873년), 신의면 상태서리에서도 확인된다. 비의 규모는 높이 143cm, 너비 53cm, 두께 26cm이다.

**평가 및 의의** : 조선 후기 신안군 여러 섬 주민들의 생활상과 고충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관에 의한 민폐와 이를 해결하여준 공덕을 여러 섬 주민들이 합심하여 기리는 비이기에 더욱 가치가 높다. 그런데 선정비는 관찰사의 직에서 이임한 다음해에 세워졌다. 따라서 섬주민들이 스스로 비를 세운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신안문화원, 2005, 『신안문화』,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성환, 2008,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사진 1] 남강마을 이호준 불망비



[사진 2] 남강마을 이호준 선정비

### 3) 암태 송곡리 매향비(巖泰 松谷里 埋香碑)

소재지 : 암태면 송곡리 해당마을

시 기 : 1405년

**유적현황** : 매향비는 송곡마을의 넓은 '알실골들'이라는 간척지와 야산(81.2m) 사이에 있는데, 야산의 동쪽 산자락에 위치해있었으나 수로공사 시 하단 간척지 논으로 옮겨 보호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매향비의 훼손은 심각하다. 상단부는 간척 제방을 축조할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부가 해머로 파괴하였고, 현재 매향비의 압각흔적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 매향비는 정제되지 않은 자연석의 평평한 면에 7행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제1행에 '매향처반사도(埋香處伴巳島)'라 하여 매향의 위치와 방위가 표시되었다. 아울러 사망기준지, 매향시기, 주도집단, 매향과 비를 세운 경위, 참여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매향의 주도층으로 '향도(香徒)'가 명시된 점과 '매향처(埋香處)'를 명확하게 기록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규모는 높이 157cm, 너비 65cm, 두께 30cm이다.

**평가 및 의의** : 압태 송곡리 매향비는 조선시대 초기인 1405년에 세워진 것으로 당시의 불교문화와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높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 발원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 위기감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민간신앙 형태라 할 수 있다. 당시 압태도 주민들의 주된 생업은 어업이 아니라 소금의 생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압태도의 소금생산에 관한 기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압태도에 관한 첫 기록도 염간(염부)에 관한 기록인데 여기에서 당시 압태도 주민들의 극도로 불안한 삶을 엿볼 수 있다. 1408년(태종 8) 2월 3일 기사에 의하면 “왜선(倭船) 9척이 연일 압태도를 도둑질하니, 염간(鹽干) 김나진(金羅進)과 갈금(葛金) 등이 쳐서 쫓아버렸다. 나진 등 20여 인이 혈전을 벌여 적의 머리 3급을 베고, 잡혀 갔던 사람 2명을 빼앗으니, 적이 곧 물러갔다.” 매향이 있는 후 3년이 지난 일이다. 연일 왜구가 침략하고 압태도 주민들을 잡아가 염부 20여 인이 왜구 3명을 죽여야 할 정도였으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매향비에서 매향처는 반사도(伴巳島)라 하였는데, 매향비의 건너편에 있는 반도(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반도의 이칭은 벧섬이다. 즉, 활염의 벧둥이 있는 섬이고 해당마을에서도 활염을 생산하였음을 감안하면 매향 사실과 위의 사건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해당마을 매향비의 역사적 가치는 더욱 높아 보인다.

\* 참고문헌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신안군의 문화유적』, 최성환, 2008,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사진 3] 송곡마을 조선 시기 간척제방과 매향비 보호각



[사진 4] 송곡리 매향비

#### 4) 암태도소작인 항쟁기념탑(岩泰島小作人 抗爭紀念塔)

소재지 : 암태면 단고리 542-1

시 기 : 1998년

**유적현황** : 항쟁기념탑은 '단고들'을 지나 면소재지로 들어서는 삼거리에 조성된 넓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중앙부에 단을 형성하여 잔디를 조성하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 이에 1998년 조성면적 95평에 높이 6.74m의 기념탑을 건립하여 암태도의 숭고한 소작인 항쟁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 5] 암태도소작인 항쟁기념탑과 마명간척지(후면)

**평가 및 의의** :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8월에서 1924년 8월까지 전개되었다. 항쟁은 서태석과 박복용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는 서해안 섬들과 전국적인 소작쟁의의 계기가 되었으며,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 암태면 소작인들 400여 명이 대지주의 수탈과 그를 비호하는 일제에 저항한 항일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참고문헌 : 신안군 2006,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유적』, 최성환 2008,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 5) 단고리 천두학기념비(新安 短庫里 千斗學記念碑)

소재지 : 암태면 단고리 단고마을

시 기 : 1931년

**유적현황** : 암태초등학교 정문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천두학은 암태면에서 손꼽히는 지주였는데, 인품이 온후하고 덕망이 있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

다. 비는 공이 부지를 희사하여 암태초등학교를 건립하도록 도움을 준 덕을 칭송한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고참봉천공두학장학기념비(故參奉千公斗學獎學記念碑)’라 새겨져 있고, 공의 행적에 대해 4언 절구로 ‘乃公一念 興學成鄉 中心恭敬 世物無彰 非曰名豎 非曰形仰 立石頌德 于彼高崗’이라 새겨져 있다.

**평가 및 의의** : 천공이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에 학교 부지를 제공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귀감이라 할 수 있다.



[사진 6] 천두학 기념비와 암태초등학교

## 6) 노만사(露萬寺)

소재지 : 암태면 수곡리 큰봉산 남쪽

시 기 : 1873년

**유적현황** : 노만사는 암태면 수곡리 북서쪽에 있는 큰봉산(222.5m) 남쪽 해발 120여 m에 자리잡고 있다. 노만사는 암태도의 대표적인 사찰로 신안군 향토유적 전통사찰 제 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노만사는 대흥사의 말사로 소속되어 있는데, 1873년 창암 화상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초기에는 초가였으나 1944년 암태 사람 천복운(天福運)이 사재를 들여 중건한 이후 중수,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대지

150여 평에 칠성각, 법당, 해탈문, 종각 등으로 구성된 아담한 사찰이지만 볼거리가 많은 명소이다. 이 사찰의 법당 앞에서 자라 고목이 된 팽나무와 암벽에서 자라고 있는 송악 군락은 오랜 역사를 보여준다. 노만사 주변의 풍광은 빼어난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남쪽에 자리한 추포도와 도초, 안좌 등의 아름다운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적격이다. 또 노만사의 약수는 절주변의 암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여 생성되었는데,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났다. 특히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사찰이 건립된 이후 수차례의 가뭄에도 물이 마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노만사 라는 사찰명도 약수가 떨어지는 모습이 ‘이슬같이 가득하다’ 는 데서 연유한다고 한다.

**평가 및 의의 :** 노만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암벽의 송악 그리고 노만사의 약수에 얽힌 민담은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가치가 있다.

## 7) 추포 노도비(路道碑)

**소재지 :** 암태면 추포리 오도 남쪽 끝단

**시 기 :** 1866년

**유적현황 :** 암태면 추포리 오도(梧島: 속칭 팔망섬)의 남쪽 끝자락과 방조제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 추포 노도는 ‘추포노두’라 칭하는데, 암태면 수곡리와 추포도 간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말하며, 썰물 때만 건너다니던 한시적인 길이다. 그 연원 유래는 분명하지 않으나 신안군의 노도 중에서 많이 남아 있는 노도이다. 노도는 수천 개의 돌을 연결하여 만들어졌는데, 그 폭은 2m 내외에 연장길이는 약 2.5km에 이른다. 이런 노도가 여러 해 동안 해일로 훼손되자 주민들은 힘을 합하여 노도를 보수하고 이를 기념하기위하여 추포 노도비를 세웠다. 비의 규모는 높이 100cm, 너비 43cm, 두께 15cm이다. 병인년 12월에 비를 세웠다. 이 비문에 추엽리 이장 문천수의 6대조 이름(문덕창)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866(병인)년에 노두가 개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의 전면에 노도비명과 그 공덕이 새겨져 있다. 주관자는 문덕창(文德昌)이며, 부주관자는 장응의(張應癸), 참가자는 김삼봉(金三奉), 장여성(張汝成)이다.

**평가 및 의의** : 추포노도는 섬과 섬을 연결한 노도 중에서 흔적이 가장 많이 현존하며, 희귀하게 노도비까지 공존하여 섬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사를 알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과 아울러 보존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木浦大學校博物館, 1987, 『新安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新安郡-』



[사진 7] 추포 노도비의 전면



[사진 8] 추포 노도비의 후면

## 8) 수곡리 문진현비(水谷里 文振炫碑)

소재지 : 암태면 수곡리 마을의 남쪽 길가

시 기 : 1943년

**유적현황** : 문진현 비는 학우 문진현의 집안내력과 행적을 기리는 비이다. 비의 전면에 대학사학우당남평문공지비(大學士學愚堂南平文公之碑)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좌·우측면에는 공의 조상과 후손들의 명단이, 뒷면에는 공의 행적이 기록되었다.

비에 의하면, 문진현의 자는 여옥(汝玉), 호는 학우(學愚)이며, 본관은 남평이다. 아버지 문동구와 어머니 완산이 씨 사이에서 1889년에 암태방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비문은 1943년 임철주(林哲周)가 짓고 썼다. 비의 크기는 높이 126cm, 너비 36cm, 두께 36cm이고, 비의 주변은 붉은 벽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사진 9] 수곡리 문진현비

**평가 및 의의 :** 남평문 씨는 암태면의 유력한 집안이다. 문진현비는 일제시기 재력가로 문태학원을 설립한 문재철 일가인 남평문 씨 집안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 참고문헌 : 木浦大學校博物館, 1987, 『新安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2008, 『文化遺蹟分佈地圖-新安郡-』

## 9) 남강진

**소재지 :** 암태면 와촌리 남강마을

**시 기 :** 조선~현대

**유적현황 :** 생활유적인 남강진 포구는 암태도와 팔금을 연결하는 나루이면서 조선 후기~2005년 무렵까지 암태면의 중심포구였다. 겨울철 북서풍을 막을 수 있고 수심이 깊은 양항으로 팔금과 암태간 남강물길인 '암태도'와 접하고 있다. 목포 등 육지를 비롯하여 비금, 도초, 흑산 간을 오가는 배들이 정박하는 교통요지였다. 이곳 남강에 조선 후기 전라우수사 김처한선정비와 관찰사 이호준불망비 등이 세워진 이 유가 설명된다. 하지만 2005년 중앙대교(팔금도~암태도) 개통으로 나루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이어 2008년 7월 압해면 송공과 압태면 오도간 철부선이 다니면서 포구 기능도 급격히 쇠퇴하였다.

한편 남강마을 한남수 웅(85세)은 60여 년 전에 8년 동안 나룻배를 운행하였다. 당시 나룻배는 돛이 하나인 배였으며, 압태도의 남강에 1척 건너편인 팔금 북진에 1척이 있었으나 별도의 주막은 없었다. 이들은 왕래하면서 배삯을 받았는데 이용료는 1인 당 막걸리 한 잔 값을 받았다. 특별히 결혼식 하객을 운송할 때는 두 척을 동시에 운용하고 도선비로 쌀 한 말 값을 받았다. 나룻배를 김길동(생존 시 82세)에게 팔았는데 그는 5년 정도 운행하였다. 남일회사(지금 대흥상사)의 목포간 철부선이 다니면서 나룻배는 중선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 한 웅은 남강 나룻배에 곡식을 실고 목포의 대흥상사의 나락마당을 왕래하였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들물이 시작하는 초드레에 출발하면 보통 한 물에 목포에 입항하였다. 조류가 느리거나 바람이 적당하지 않으면 달리도 등 인근에다 닻을 내리고 순류를 기다렸다. 목포의 진입은 세 곳의 물길을 이용하였다. 대나리도(화원반도의 왼쪽), 진지리도(울도의 오른쪽), 오얏도(압해와 울도 사이)가 그것인데, 바람이나 조류에 따라 변동되었다. 대나리도 등을 통과하여 고하도의 용머리를 돌아 나락마당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짐꾼인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해방이후에 흑산도 홍어가 날 때면 비금의 원평에서 홍어 파시가 섰었다. 당시 홍어는 탁자만큼이나 컸으며 암컷은 1마리를 한짝이라 하였으나 수컷은 두 마리를 한짝이라하여 수컷이 값이 낮았다. 웅은 돛단배로 남강에서 썰물을 타고 한 물에 원평까지 가서 홍어를 사와서 장사를 하였다.



[사진 10] 남강진과 팔금을 연결한 중앙대교



[사진 11] 제보자 남강마을 한남수(85세)씨 내외

## 10) 북강진

소재지 : 암태면 오상리 북강진과 신정마을

시 기 : 조선~현대

**유적현황** : 생활유적인 북강진은 암태도북쪽과 자은간을 왕래하는 나루가 주요 기능이다. 그런데 북강진은 목도에서 신정으로 한 차례 이동되었다. 조선시기에서 1960년 무렵까지 목도의 북강진과 자은의 구진변간에 나루가 있었다. 당시 목도 북강진에는 10여 호가 거주하였으며, 술집이 3집이나 있었는데, 민어, 간잠이 등 고기를 놓고 장사를 하여 옷판 등 노름판이 성행하였다. 건너 구진변에는 6호가 살았으며 주막도 있었으나 지금은 폐촌 되었다. 당시 신정은 나룻배가 없고 대신 빨땅에는 노두, 중앙의 갯고랑에는 목교가 있어 썰물에 자은을 왕래했다. 1960년대 들어 나룻배사고가 나자 북강진은 폐쇄되고, 나루의 기능은 신정의 북강진으로 이동되어 자은의 남진을 연결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남진에는 파출소와 면소재지가 들어선 이후 목포 간을 왕래하는 자은의 주력항으로 발전한 것과 신정으로 북강진이 이동과도 관계가 깊다. 그러나 1996년 은암대교(자은도 남진~암태도 신정)가 놓이면서 신정의 나루기능도 완전히 정지되었다.



[사진 12] 은암대교에서 바라본 옛 북강진(등대 우측)과 구진변(좌측)

### 3. 신안군 암태면 간척지 약식 조사 결과

- 방조제는 섬주민의 생명줄이다 (윤종열, 송곡리 75세)-

[표 2] 신안군 암태면 간척지 약식 조사 현황표

| 순서 | 방조제 관리대장의 기본 현황 |            |        |        |     |    |     | 조사 주요 내용  |        |  |
|----|-----------------|------------|--------|--------|-----|----|-----|-----------|--------|--|
|    | 방조제 지구명         | 소재지 마을     | 연장 (m) | 면적(ha) |     |    |     | 건설 시기     | 간척지 총수 | 들명, 제방 길이(m), 면적(ha), 간척시기, 간척자, ※소멸한 섬                              |
|    |                 |            |        | 농지     | 염전  | 양어 | 기타  |           |        |  |
| 1  | 신정2             | 오상리 신정     | 290    | 3      |     |    |     | 1903      | 1      | 뒷들(구한말, 김병두: 암태면 노인회장 길섭의 조부)  |
| 2  | 신정              | 오상리 북강진    | 365    | 9      |     |    | 2   | 1901~1907 | 1      | 큰골들  |
| 3  | 천포              | 오상리 천포     | 350    | 6.5    |     |    | 1.5 | 1969~1971 | 2      | ①구안들(2ha) ②새원(1960년대, 2.4 ha, 6인조: 박종진, 박영수, 박대옥, 곽추산, 김재윤, 곽지선, 박복조 |
| 4  | 쪽박섬             | 오상리 북강(현)  | 397    | 13     |     |    | 0.5 | 1900~1904 | 1      | ※ 쪽박섬 소멸   |
| 5  | 오상              | 오상리 오상, 목도 | 1,000  | 28     |     |    | 2   | 1900~1907 | 3      | 안원안들, 오상들  |
| 6  | 나방              | 오상리 당산     | 605    | 17     |     |    | 1.5 | 1800~1808 | 4      | 당산들, 수문 동쪽들 3천평(구한말, 김병두: 암태면 노인회장 길섭의 조부) ※ 미준공된 제방 800m 흔적,        |
| 7  | 목넘어             | 송곡리 당산     | 608    | 5      | 1.5 |    | 1   | 1820~1826 | 2      | ①목너머들  |
| 8  | 구석              | 송곡리 활목, 신석 | 771    | 60     |     |    | 2   | 1902~1907 | 3      | ①활목앞들,, ②노론군지들, ③신석들 ※오도 병합으로 소멸                                     |
| 9  | 익금              | 익금리 복수동    | 1,065  | 19.5   | 14  |    | 4.5 | 1900~1903 | 1      | 1970년대 초반  |
| 10 | 광두              | 익금리 복수동    | 1181   | 14     | 3   |    | 2   |           | 7      | 조선 후기~1960년대 활염지, 객섬 미준공 원, ※ 상하 너벅섬 소멸                              |
| 11 | 오도1             | 오도리        | 224    | 8      |     |    | 2   | 1900~1905 | 2      | ①구원장들 ②새원장들(1960년대 후반) 조루지   |
| 12 | 오도2             | 오도리        | 133    | 0.5    |     |    | 0.5 | 1900~1902 | 3      | 1개소 추가와 석락골 미준공  |
| 13 | 신석1             | 신석리        | 364    | 14     |     |    | 1   | 1820~1825 | 1      | 농협유통공장   |
| 14 | 신석2             | 신석리        | 1,258  | 62     | 21  | 1  | 1   | 1820~1825 | 5      | 조선 후기~1970, 장들 · 신석들 · 신석염전, 신석 미준공 원                                |
| 15 | 큰골              | 송곡리        | 544    | 6      |     |    | 2.5 | 1950~1956 | 3      | ①취어지들 ②큰골 ③큰골2(500m, 김용보 5형제, 1960년대 후반 준공되어 약 5년 후에 폐원).            |

| 순서 | 방조제 관리대장의 기본 현황 |        |        |        |      |    |     | 조사 주요 내용  |         |   |
|----|-----------------|--------|--------|--------|------|----|-----|-----------|---------|---|
|    | 방조제 지구명         | 소재지 마을 | 연장 (m) | 면적(ha) |      |    |     | 건설 시기     | 간척 지 총수 | 들명, 제방 길이(m), 면적(ha), 간척시기, 간척자, ※소멸한 섬   |
|    |                 |        |        | 농지     | 염전   | 양어 | 기타  |           |         |   |
| 16 | 송곡앞             | 송곡리    | 544    | 12     |      |    | 15  | 1950~1952 | 2       | ①알실골들(조선 후기) ②홍일고재단(1950년대 초반) ※ 반도(이칭 벗섬) 소멸, 서쪽에 미준공 원, 해당마을과 벗섬간 노도 소멸   |
| 17 | 해당              | 송곡리 해당 | 940    | 17     | 11   |    | 1   | 1920~1925 | 2       | ①해당앞들 ②양식장, 활염지(윤준식 73세 집 앞 밭)  |
| 18 | 기동              | 기동리    | 1,277  | 85     | 8.6  |    | 5   | 1800~1809 | 9       | 조선 후기~1970, 오상앞들, ·자라난들·기동들, 양식장 ※ 구섬 소멸, 구섬 남쪽에 미준공 원  |
| 19 | 마명              | 단고리    | 986    | 166    |      |    | 6   | 1900~1905 | 10      | 조선 후기~구한 말, 암태 최대 간척지, 이칭 매리원, 단고·장고·도창·와촌·마명·신기 마을 형성과 발전, 소작쟁의 발원, 와촌과 단고간 노두와 활염지, 1951. 7. 7 제방 터져 울력으로 복구, ※ 목섬 소멸   |
| 20 | 신기2             | 신기리 남강 | 188    | 1.1    |      |    |     | 1900~1902 | 2       | 방조제 대장 미등기 1차 첨가  |
| 21 | 남강              | 와촌리 남강 | 101    |        |      |    | 0.6 | 1900~1902 | 1       | 중앙대교 동측 잡종지   |
| 22 | 신기              | 와촌리 신기 | 778    | 8      |      |    | 10  | 1850~1853 | 3       | 1960년대 후반, 활염지  |
| 23 | 중흥2             | 중흥리    | 1,087  | 7      | 6    |    | 3   | 1900~1903 | 9       | 구한 말~1960년 후반, 소로지들①(양봉록 81세와 형이 1년 만에 완공), 소로지들② 5인조 박종국(87세), 박길만(86세), 조연복, 맹대환, 원만주 등이 계를 조직하여 쌀과 보리 100여 가마를 목포에 가서 팔아 자금 마련하고, 매일 인부 30여 명씩을 투입하여 3년 만에 완공하였으나 3~4차례 독이 터짐, 간대들(김진주 80세의 부), 원안들(방정오 1939년생의 조부) ※ 소로지 외측에 미완공 제방(444m) |
| 24 | 중흥앞             | 중흥리    | 2,003  | 28     |      |    | 1   | 1900~1906 | 8       | 남전들(100여 년 전 80대인 제보자의 마을 조부들 15인이 울력으로 막음, 암태면의 울력을 받기도 함) 안동권 씨 염전(1943), 진너머들(4인조 양기호 84세 생존, 김광섭, 권병태, 박종갑) 남이실들 2처(문종길 생존 시 89세), 팔섬~진섬 미준공제방  |
| 25 | 수곡              | 수곡리    | 1,580  | 31.8   | 28.5 |    |     | 1910~1914 | 6       | 조선 후기~1970, 활염지(신변 앞), 동구섬 미준공제방  |

| 순서   | 방조제 관리대장의 기본 현황 |        |        |        |    |    |     | 조사 주요 내용  |        |   |
|------|-----------------|--------|--------|--------|----|----|-----|-----------|--------|---|
|      | 방조제 지구명         | 소재지 마을 | 연장 (m) | 면적(ha) |    |    |     | 건설 시기     | 간척지 총수 | 들명, 제방 길이(m), 면적(ha), 간척시기, 간척차, ※소멸한 섬   |
|      |                 |        |        | 농지     | 염전 | 양어 | 기타  |           |        |   |
| 26   | 추포              | 추포리    | 1,379  | 17     | 9  |    | 3   | 1830~1834 | 4      | ①염전(1970년 무렵 준공), ②남평문씨 제담(1936년 준공 허가 신청), ※ 포도와 추업도의 병합, 오도 소멸 ※ 작은 봉구지 폐원 1처 |
| 27   | 추포3             | 추포리 추업 | 142    | 1.9    |    |    | 0.1 | 1900~1902 | 1      |   |
| 28   | 추포2             | 추포리 추업 | 559    | 2.3    |    |    | 0.2 | 1900~1902 | 2      | 1차(문씨, 박씨 소유), 2차(1960년대, 김진구 생존 시 86세, 문달섭 생존 시 90세)                           |
| 총 28 |                 |        |        |        |    |    |     |           | 99 개소  | = 준공 88 + 미준공 11개소  |

※ '신안군 암태면 간척지 약식 조사 현황표' 일러두기

1. 군에서 작성한 관리대장을 참고로 간척지가 있는 암태면 본섬과 추포도를 대상으로 기본 현황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그리고 구지 형도와 비교하여 조사내용을 작성하였다.
2. 순서는 자은과 암태간 은암대교를 기준으로 해안선을 따라 시계방향으로 하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간척지는 내륙을 먼저하고 해안을 나중에 기술하였다.
3. 대상 간척지는 제방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하였다.

## 1) 간척의 정의

간척은 제방을 수축하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수(潮水)의 유무에 따라 무감조지간척(無感潮地干拓: 호수와 늪)과 감조지간척(感潮地干拓: 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조지간척은 하구간척(河口干拓)과 해면간척(海面干拓)으로 구분된다. 하구간척은 조수의 영향을 받는 주요하천의 하류부에 하구언(河口堰)을 축조하고 하천연변의 간척지를 개답(改畝: 논으로 만드는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해면간척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간척지에 방조제를 설치하고, 해면을 농지 등으로 만드는 일이다.

신안군은 모두 해변 간척에 해당한다. 전체 간척면적은 175.5km<sup>2</sup>로 전체 신안군 면적 중 23.3%를 차지한다. 참고로 이웃 진도군은 122km<sup>2</sup>(28%), 해남군은 284km<sup>2</sup>(27%)인데, 모두 대략 전체 면적 중 약 1/4에 해당한다.

## 2) 간척의 역사와 신안군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한 주요 식량 즉, 쌀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간척을 택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끊 없는 간척이 말해준다. 특히 서남해 지역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넓은 간척지가 발달하여 간척이 용이하였다.

고대의 간척은 삼국시대 전라북도의 벽골제나 황등제 등에서 나타나고,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 피란 시절 군량미 조달목적으로 간척한 사례가 기록으로 전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국력의 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하여 추진하였는데, 특히 인조(1595 ~ 1649)에서 정조(1752 ~ 1800)에 이르는 160여 년 간은 간척사업의 부흥기였다. 신안군 암태면의 경우도 조선 후기에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기도 하였지만, 간척한 사람에게 경작권이나 소유권을 주면서 장려하자 재지사족이나 민간에 의한 간척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구한말 시기 근대적인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의 간척사업은 1907년 7월에 공포된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에 의한 간척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추정된 간척지면적은 20만ha에 달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 간척은 순전히 인력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은 갯고랑이나 해변을 막는 정도이고, 방조제 길이도 몇 백m를 벗어나지 않는다.

본격적인 간척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진행되었다. 일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국가와 일본인 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합법적인 간척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는데, 1911년 국유미간지 이용법의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1910년대 초반에 국유미간지 대여와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4,000건이었으며, 1917년에는 1만여 건에 달하였으나, 그의 실질적인 개발은 1920년부터 1939년에 이르는 산미증식계획과 때를 같이 한다. 1923년 3월에는 <공유수면매립령>이 공포되어 모든 매립, 간척이 진행되었다.

이때 간척은 균량미 조달 등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간척지 마을이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간척의 규모는 갯고랑을 막는 정도로 커졌다. 일제강점기 간척 면적은 전국적으로 178개소에서 약 396km<sup>2</sup>가 되는데,新安군에서는 34.5km<sup>2</sup>가 간척되었다. 이는 해남군의 약 34km<sup>2</sup>와 유사하다. 그런데 특이하게 암태면의 경우는 일제시기에 간척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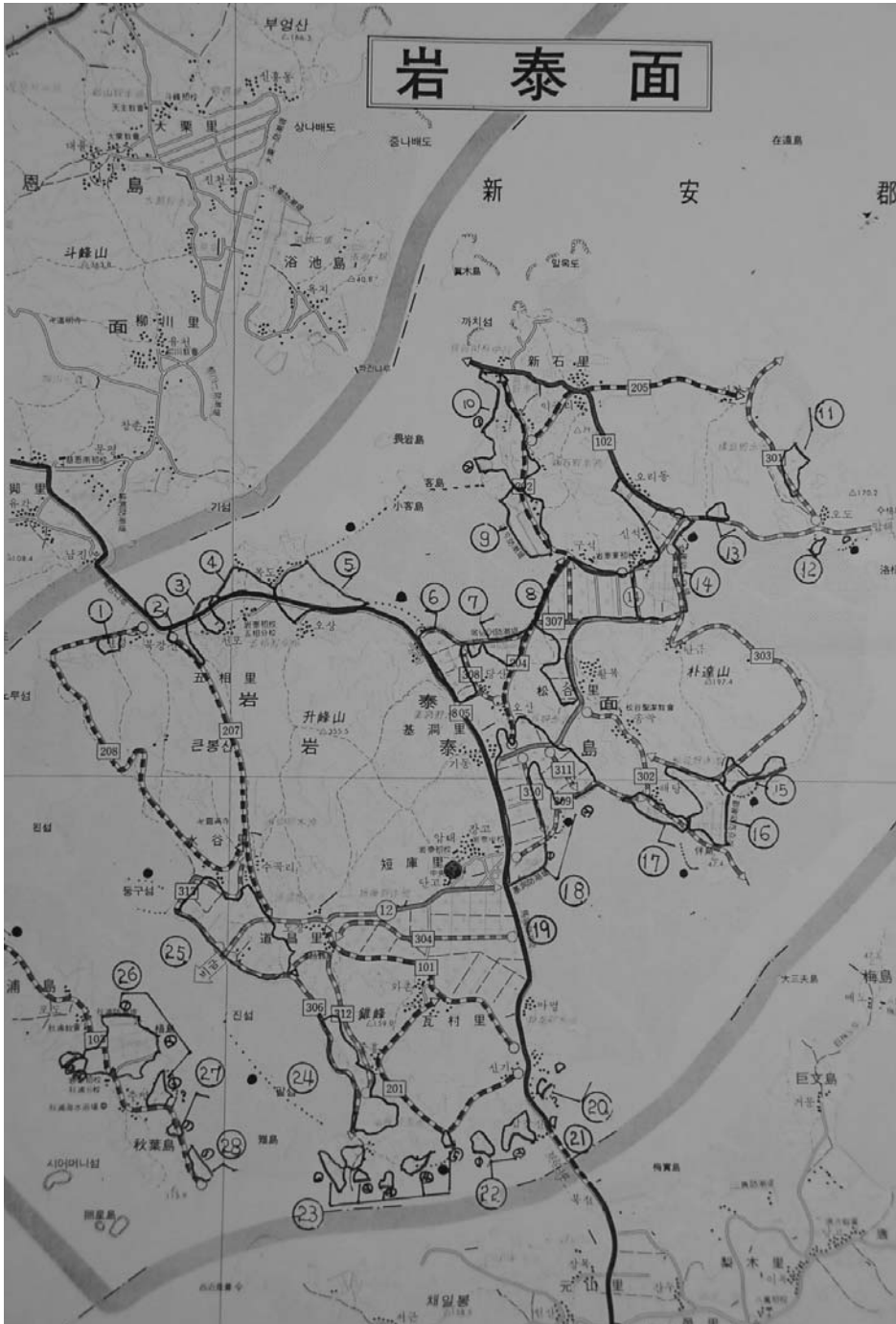
해방이 되어 미국의 원조나 외국 자본을 빌려와 간척은 계속되었으나 부진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되어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의 영향으로新安군 암태면의 경우는 원조에 의한 경우는 없고 대부분 민간 자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간척 규모는 영세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중장비가 등장하면서 대규모 간척이 이루어졌다. 제방 길이는 수 km에 이르고 거대한 물목을 틀어막는 공사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암태면의 경우는 1970년 무렵까지 모두 간척이 완료되어 중장비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진행된 간척지는 없다.

### 3) 암태면 간척지 조사의 주요 실태

新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태면 간척지의 방조제는 총 28개소이다. 이들은 지구단위 간척지의 맨 외측에 위치한 방조제만을 말하며, 해수 이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대상 제방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방의 안쪽에는 시대마다 다른 간척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제방을 포함 한 전체 간척지 제방은 99개소에 이른다. 이렇게 조성된 간척지는 현재 논 중에서 거의 대부분으로, 사실상 모두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결과 암태면은 섬이지만 어촌이 아니라 농촌으로 변모 되었다. 시기별로 간척 진행의 정도는 대략 다음과 같다.

- **조선 후기 간척:** 암태면에서는 소규모이지만 여러 곳에서 진행되었다. 자연마을(32) 모두에서 1~3 개소씩 살피진다. 이는 마을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0여 m 급의 아주 작은 규모이다. 마명 방조제 안 간척지에서는 도창, 단고,



[그림 1] 암태면 간척지 전체 현황(중흥마을 23~24, 마명 간척지 19)  
※ 신안군 방조제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작성함

마명, 신기, 와촌 등 50여 곳에서 살펴진다.

- **구한 말 시기:** 암태면 노령자(80대)의 조부들이 막은 것으로 1910년 이전에 건설한 것이다. 20여 개소로 조사되었다.
- **해방 후:**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 사이에 모두 완료되었는데, 20여 개소가 확인되었다.
- **간척으로 병합된 섬:** 전체 9개소 - 쪽박섬, 오도(구석과 신석2 방조제로 아랫섬과 병합), 상·하너벅섬(복수동 광두 방조제), 반도(해당리 송곡방조제), 구섬(기동방조제), 목섬(와촌리 마명방조제), 오도(추포 방조제), 포도와 추업도 병합(추포)

#### 4) 소멸된 생활유적

- **소멸된 활염지:** 『수산지』에서 “신재(新在 : 신기), 광두(廣頭), 항월(項越: 목너머), 해당(海棠), 점치(店峙), 남강(南江), 소오지(所吾地: 소로지), 중오리(中奧里: 중흥리), 포도(浦島), 장도(長島: 구섬), 장파동(長波洞), 개기(介基) 총 12개 마을에 가마 수는 24개소이고 제염은 530만근이다”고 하였는데, 이중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광두, 해당, 남강, 중흥, 수곡, 오상, 신석 등에서 확인되었다. 특별히 해당리에서는 당시 베타가 지금도 남아 있다.
- **소멸된 노도:** 4개소- 신정~자은 남진, 구석~활목, 단고~와촌, 해당~벗섬
- **소멸된 포구:** 구천포, 도창, 중흥 선창개, 기동리 구섬 선창, 송곡리 벗섬 선창 등
- **미완공 또는 폐기 방조제:** 11개소- 나방리 나방 미완성방조제, 송곡리 큰골 폐방조제, 중흥리 미준공 소로지 방조제, 추포도 작은 봉구지, 수곡리 동구섬~삼

섬, 진섬~팔섬~치도, 하광두섬~객섬~목도, 오도 석락골, 신석 염전 동측, 송곡리 반도 서쪽, 기동리 구섬 남쪽



[사진 13] 송곡리 5형제가 막았던 폐방조제

[사진 14] 해당마을 옛 활염지 베타(마늘밭)

## 5) 암태면 간척의 특이점

### • 간척으로 부흥한 외촌리 중흥마을

중흥마을은 암태면의 남쪽에 있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이다. 면소재지에서 중흥마을을 가는 방법은 현재 신기리로 돌아가는 포장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외촌에서 산능선을 넘어가는 오솔길이 유일한 길이었다. 조선 말 이전까지의 농토는 마을 인근 산비탈에 있는 밭이 전부이고, 논은 거의 없었으므로 생업은 주로 활염이었다. 그러나 구한 말기에 들어와 마을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앞 간척을 시작한 이후에 1960년 후반까지 17개소를 간척하였다. 그 결과 넓은 논을 소유하게 되면서 신흥부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마을 인근에는 미준공된 간척제방도 2개소에 이른다. 간척 주체의 형태는 개인, 형제간, 문중, 마을, 간척계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1960년대 후반 맨손으로 간척한 4명이 생존하고 있기도 하다. 중흥마을 간척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소리지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간척되었다. ①안쪽 간척지의 면적

은 1ha정도로 작는데, 1960년대 전반 양봉록(81세)과 형이 1년 만에 완공하였다. ② 바깥쪽 간척 면적은 약 5ha이다. 1960년대 후반 5인조 박종국(87세), 박길만(86세), 조연복, 맹대환, 원만주 등이 계를 조직하여 쌀과 보리 100여 가마를 목포에 가서 팔아 자금 마련하고, 매일 인부 30여 명씩을 투입하여 3년만에 완공하였으나 3~4 차례 독이 터져 보수하여야 했다. 박종국의 딸도 산에서 돌을 주어와 이를 도왔다. 소로지들 외측에는 미완공 제방(444m)이 있는데, 이는 일본 자금이 들어와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간데들 1ha간척은 김진주(80세)의 부(父)가 간척하였으며, 원안들 간척은 활엽지가 있었는데, 방정오(75세)의 조부가 간척하였고 원안들 외측 양어장은 양기호, 박종갑이 간척을 공사를 하다가 독이 무너져 포기한 것을 권병태(생존 시 90세)가 양도받아 준공하였다. 중흥마을 앞 난전들 17ha 간척은 구한 말시기 중흥마을 전체 17호가 공동 울력으로 제방을 막은 결과이다. 이외에도 원안들 서쪽끝 2ha는 일제 때 안동권 씨 문중에서 막았고, 진너머들은 7.5ha는 1960년대에 김광섭(생존시 84세), 권병태(생존시 90세), 박종갑(사망), 양기호(84세)가 간척하였다. 남이실들, 우미실들 4.5ha는 문종길(생존 시 89세)이 간척하였다. 팔섬~진섬에는 미준공 제방이 있다. 이런 중흥마을의 간척은 모두 정부의 지원 없이 마을민 스스로 이루었다.



[사진 15] 소로지들 외측 미완공 제방



[사진 16] 1차 소로지들(후면)을 맨손으로 간척한 양봉록 씨 내외



[사진 17] 2차 소로지들을 간척한 5인조 중 박길만(86세 좌) 씨와 박종국(87세 우) 씨



[사진 18] 맨손으로 간척한 박종국(87세) 씨의 손

• 암태도 소작쟁의 발원, 마명지구 간척지



[사진 19] 중흥마을(원경) 앞 난전들(마을 공동 간척지)

암태면 최대의 간척지(166ha)로 마명 방조제(986m) 내부에서는 6개소의 간척지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조선 후기~구한 말 시기에 완료되었고, 단고·장고·도창·와촌·마명·신기 마을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준 간척지다. 간척지 상부는 개인

이 간척하였으며 중, 하부는 국가에서 간척한 국유지였다. 일제강점기 이 국유지는 대지주에 매도되었고, 이는 압태도 소작쟁의의 발원이 된다. 간척으로 제방 내부에 있었던 노두와 활엽지가 소멸되고 목섬은 육지화 되었다. 한편, 1951. 7. 7 태풍에 제방 터지면서 간척지는 모두는 다시 바다가 되었으나 인근 마을민들은 울력으로 제방을 복구하였다.



[사진 20] 마명간척지 제방과 간척지

## 4.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사적지

### 1)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사적지

| 번호 | 명 칭                 | 위 치                    | 시 기   | 비고  |
|----|---------------------|------------------------|-------|-----|
| 1  |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       | 단고리 542-1(단고마을 초입 삼거리) | 1997년 |     |
| 2  | 서태석 묘역 및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 | 기동리 서씨문중 선산            | 1999년 | 사적비 |
| 3  |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 기동리 서씨 문중선산            | 1981년 |     |
| 4  | 서태석 생가              | 기동리 오산마을               |       |     |
| 5  | 문재철 생가              | 수곡리길 61-3              |       |     |
| 6  | 아사동맹을 출발한 선착장       | 와촌리 남강선착장              |       |     |
| 7  | 소작인들이 경작한 소작지       | 마명지구 간척지 등             |       |     |

#### (1)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

- 소 재 지 : 암태면 단고리 542-1(단고마을 초입 삼거리)

암태도 소작쟁의는 일제강점기를 대표하는 농민운동이다.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서태석과 박복영 등 독립운동가가 지도자로 참여하였다. 당시 암태도에는 ‘서태석(徐尙楨)’의 주도로 ‘암태소작회’가 결성되어, 지주 중심의 불합리한 소작료를 개선하고자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소작회측에서는 7~8할의 고율



[사진 21]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

소작료를 4할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주 문재철 측에서 이를 묵살하였다. 이에 따라 소작료 불납동맹이 전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작회와 지주 측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지주 측에서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소작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했음에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소작회 간부들을 검거 수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암태 주민 400여 명은 배를 타고 목포로 건너가 경찰서와 재판소 앞에서 집단항의를 펼치는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암태도 소작쟁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결국 일제 관헌이 개입하여 “소작료 4할 인하, 구속자 고소취하” 등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작쟁의가 마무리 되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서해안 도서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소작쟁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주와 그를 비호하는 일제 관헌에 대항한 항일운동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97년 암태면 단고리 장고마을 초입에 “암태도소작인항쟁기념탑(岩泰島小作人抗爭紀念塔)”이 조성되었다. 항쟁기념탑은 ‘단고들’을 지나 면소재지로 들어서는 삼거리에 조성된 넓은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부에 단을 형성하여 잔디를 조성하고 그 위에 6.74m 높이의 기념탑을 세웠다. 하늘 높이 치솟은 기념탑의 모습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단결 투쟁하였던 암태도 사람들의 굳은 기상을 담고 있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단순히 지주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서, 일제하 항일운동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특히 농민들의 승리로 소작쟁의가 마무리되어 이후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항쟁기념탑은 암태도 소작쟁의를 상징하는 첫 번째 사적지이자 탐방코스로서 가치를 지녔다.

## (2) 서태석 묘역 및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

### • 소 재 지 : 암태면 기동리 서씨문중 선산

암태면 오산리 앞의 삼거리를 지나 기동리 가는 길로 오다가 커브길의 왼쪽 언덕 중간부분에 조성되어 있다. 암태도 농민항쟁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독립운동가 서태석의 묘역이며, 그 앞에 항쟁사적비와 서태석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 소작쟁의 운동은 단순히 지주와 소작인간의 생존권 싸움만이 아니라,

일제에 대항하는 항일운동의 성격도 띄고 있다. 따라서 암태도 소작쟁의는 사상적인 면에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서태석이 있었다. 암태도 주민들이 보여준 강한 단결력과 민족의식은 일제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농민운동 승리라는 쾌거를 만들어냈다. 서태석은 암태도 소작쟁의를 승리로 이끈 경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후



[사진 22] 서태석 묘와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지방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 국내의 쟁쟁한 활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지금도 암태도 주민들은 “서태석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웅이었다”고 회상하면서, 그를 기리고 있다.

서태석의 유해는 2008년 3월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사후 65년 동안 고향인 암태도에 잠들어 있다가, 뒤늦게 현충원에 이장되었다. 왕성한 활동에도 예우(현충원 안장)가 늦어진 것은 정부에서 서태석의 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아 독립유공자 지정을 미뤄오다 2003년 8월에서야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고, 그 후손들의 행방도 모연하여 이장에 대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유해는 옮겨졌지만, 현재 기동리 암태도 묘역에는 가묘와 함께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가 세워져 있어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사적지로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묘역에 조성된 ‘암태도 농민항쟁사적비’는 1999년에 건립되었다. 앞면에는 농민항쟁의 내력이 적혀있으며, 뒷면에는 농민항쟁유공자와 적극가담자, 무료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항쟁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농민항쟁 유공자 가운데는 의장을 맡은 서태석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단고리에 있는 기념비의 명칭이 ‘소작인 항쟁 기념비’인 것에 반해 서태석의 묘역에 조성된 사적비는 ‘농민항쟁사적비’라고 명명된 것을 보면, 이비는 암태도 소작쟁의가 단순히 소작 농민들의 소작을 인하를 위한 투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제하 농민들의 항일 운동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 소 재 지 : 압태면 기동리 서씨 문중선산

압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서태석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추모비이다. 전면에 의사 “서태석 선생추모비”라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거룩한 태사(서태석의 호)공이 민족혼을 일으켜 세웠네, 식민지 학정에 들고 일어나 통쾌히 승리했으나 고문에 혼을 짓밟혔다”는 내력이 적혀 있다.

“의사”라는 칭호가 마을 주민들이 농민운동의 영웅인 서태석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비는 1981년에 건립되었다. 서태석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래 전부터 추모비를 세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사상가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추모비를 세우 것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체되다가 뒤늦게야 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회고 하고 있다.



[사진 23] 서태석 선생 추모비

### (4) 서태석 생가

• 소 재 지 : 압태면 기동리 오산마을

압태도 소작쟁의의 지도자였던 서태석(徐邵楨)이 살았던 생가이다. 오산마을 민가 뒤편에 건물이 남아 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다. 서

태석은 1885년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에서 태어나 일제하 대표적인 농민운동인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주민들의 신뢰가 두터워 젊은 나이에 암태 면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일제 식민통치를 직접 겪으면서 조국의 현실을 깨닫고 독립운동가의 길로 나아갔다. 1920년 목포에서 3·1운동 1주기 행사를 준비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된 것이 그 출발이었다. 1923년 12월 고향인 암태도에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에게 독립과 민족사상을 보급하였다. 그 영향으로 일제 하 한국농민운동의 기폭제가 된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본 가옥은 일제하 항일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서태석의 생가로서 많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존 및 보수를 통해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사적지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과업을 통해 알려진 후 현재 신안군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24] 독립운동가 서태석 생가 현황



[사진 25] 서태석 생가 위치도(구글맵)

### (5) 문재철 생가

- 소재지 : 암태면 수곡리길 61-3

암태도 수곡리에서 문태현의 장남으로 태어난 문재철(文在喆, 1882. 12. 24 ~ 1955. 06. 01)은 일제강점기 암태도를 대표하는 지주였다.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사진 26] 문재철의 수곡리 생가 현황

당시 농민들의 투쟁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문재철의 선대는 간석지가 넓게 발달된 압태도의 지형을 이용한 염전 경영으로 재산을 축적하였다. 1897년 목포가 개항이 되자, 목포항에서의 미곡유통을 기반으로 한 상업 활동을 통해 입지를 다졌으며, 목포 인근 섬 지역에 대규모 토지를 집적하여 대지주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목포를 대표하는 자본가이자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1923년에 설립한 남일운수주식회사와 1935년에 설립한 선일척산주식회사 등을 운영하였다. 1941년에는 목포에 사립학교인 문태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육활동에 대한 공로로 1993년 2월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압태도(岩泰島)에서 벌어진 농민 항쟁인 '소작쟁의' 사건 등과 관련하여 반민족친일행위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1941년 이후 흥아보국단 및 조선임전보국단에 참여했던 기록 등이 남아 있다.

고향마을인 압태면 수곡리(水谷里)에 그가 살던 생가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본채만 정면 6칸 규모를 갖춘 비교적 큰 집이다. 지붕 등이 개량되어 있으나, 압태도 지역의 대표적인 민가 건축으로 손색이 없는 건물이며,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역사인물의 생가로서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거주자는 문씨가 아닌 한씨이다. 문재철의 생가 바로 앞쪽에는 정미소로 사용된 독특한 형태의 석조건물이 남아 있다. 이 역시 일제강점기 압태도의 대지주였던 문씨 일가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 (6) 아사동맹을 출발한 선착장

• 소재지: 암태면 와촌리 남강선착장

암태도 소작쟁의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목포경찰서에 감금된 소작쟁의 간부들의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주민들이 바다를 건너 목포로 나가서 단체 투쟁을 펼친 것이다. 당시 일본경찰들은 지주의 편을 들고, 농민대표들을 모두 구속시켰다. 이에 대항한 암태도 주민들의 단결력은 대단했다. 1차로 400여명, 2차로 600여명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포로 나갔다. 목포경찰서 앞에 집결해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투쟁을 펼쳤다. 당시 언론에서는 암태도 주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아사동맹(餓死同盟)”이라고 표현하였다. 굶어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암태도 주민들의 노력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그들의 간절한 싸움이 각종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고, 전국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암태도 농민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왔다.

“아사동맹”은 당시 암태도 주민 김용학씨 등이 발의하여 구속된 암태도 소작쟁의 간부들의 석방운동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소작인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소작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동원되었으며 주민들의 선박 7척이 이용되었다.

소작인들은 각자 지역에서 가까운 포구를 이용하여 준비된 선박에 나눠 탔다. 송



[사진 27] 암태도 소작쟁의의 상징 “아사동맹”을 출발한 남강 선착장

기속의 소설 『암태도』에는 “신석리에서 두 척, 해당에서 두 척, 남강에서 세 척 모두 일곱 척이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첫 번째 원정에서는 대략 4백명 정도가 목포로 출항하였다. 시기는 6월 초순이다. 암태도 사람들은 새벽녘에 출항하여 돛을 달고 목포 꾀보선창에 도착하였다. 목포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암태도 주민들의 투쟁에 동려하고 힘을 보태주었다. 총지휘의 책임자는 김용학(金龍學)이었고, 서광호(徐光浩), 서동수(徐東洙), 고백화(高白化) 등도 동반하였다.

암태도 사람들의 이러한 역사적인 단결투쟁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중심 포구인 신석리 오도 선착장이나 와촌리 남강 선착장 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남강선착장은 암태도 사람들의 육지 나들이에서 조선시대부터 중심 포구 역할을 했던 곳이다. 소작쟁의 당시에도 이곳을 통해 주로 사람들이 왕래하였으며, “아사동맹”을 위한 목포원정길에서도 그 출발지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 암태도 주민들의 단결된 의식을 보여주는 “아사동맹”을 기념하는 상징물과 안내문을 세워 관광객들의 방문코스이자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소작인들이 경작한 소작지

• 소 재 지 : 암태면 마명지구 간척지 등

암태도는 일제시기부터 많은 농지가 간척을 통해 조성되었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소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암태면 최대의 간척지 가운데 하나인 마명 방조제의 경우도 6개소의 간척지가 연결되어 있다. 이 토지들은 암태도 소작쟁의의와 관련이 깊다. 현재 암태도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 가운데, 일제하 소작쟁의 당시 소작인들이 경작하던 장소를 선정하여 관련 안내문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를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역사의 길 탐방코스로 활용하고,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 5. 암태면의 인물

암태면 출신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모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 자료는『신안군지(2000)』에 수록된 인물과 하의면사무소 추천 인물 등을 전거로 하고 있으며, 누락된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추가할 예정이다.(※ 추가된 인물들의 면모는 2015년에 발간될 『신안군지』 인물편에 종합적으로 수록됩니다. 누락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팀에게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암태면 출신 대표 인물

**강방천(姜芳千)** 1960년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현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사의 회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영과 정보를 함께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회계학에 흥미를 느껴, 회계학 공부에 파고들었다. 이때 키운 실력이 훗날 펀드매니저로 일할 때 큰 도움이 됐다. 학교를 졸업 후 쌍용투자증권(現 굿모닝신한증권), 동부증권 등 증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1995년 월급쟁이 생활을 청산하고 동료와 함께 컨설팅 회사인 (주)이강파이낸셜서비스를 설립했다. 이 시절, IMF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가치투자를 실천하여 종자돈 1억으로 1년 10개월 만에 156억을 벌어들였다. 주식 투자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실력,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밀착삼아, 1999년 에셋플러스 투자자문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상식에 근거한 가치투자’를 기본으로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편안한 수익을 드린다는 설립 이념을 가진 에셋플러스는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1위를 달리면서 2005년과 2006년 국민연금 우수운용사로 선정될 만큼 업계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다. 2004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 회장,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운용총괄담당

전무이사, 1989년 쌍용증권 펀드매니저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강방천과 함께 하는 가치투자』(휴먼앤북스, 2006) 등이 있다.(참고자료 :『강방천과 함께 하는 가치투자』, 휴먼앤북스, 2006)

**고백화(高白化)**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태생으로 1922년 8월 암태도 소작인회가 결성되고 동시에 암태도 부인회가 결성되자 초대부인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857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명확치 않다. 일제강점기 암태도 부인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암태도 소작쟁의 당시 여성의 몸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단결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여장부이다. 당대에 보도된 신문기사에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기동리 서씨 묘역에 조성된 농민항쟁사적비에 적극 가담자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구전에 따르면 목포법원 농성 때 “너희들도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거든 죄 없는 간부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고 한다.(참고자료: 신안군지)

**권성남(權成南)** 1956년 12월 1일 암태면 단고리에서 태어났다. 1995년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제2대(임기 : 1995. 7. 14.~1998. 6. 30.), 3대 신안군 군의원(임기 : 1998. 7. 1.~2001. 6. 30.), 제3대 후반 기부의장을 지냈다.(참고자료: 신안군 의회 홈페이지, 한겨레 1995년 06월 30일자 기사)

**김경수** 암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교장과 교육청 학무과장을 지냈다.

**김기천(金棋天)** 1940년 생, 한민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지방의회 정책발전과정을 수료하였다. 신정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서교회 장로이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제2대, 3대, 5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원을 지냈다.(참고자료: 서울시 양천구 의회 홈페이지)

**김신복(金信福)** 1947년 4월 29일에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교육학 학사를 졸업하고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교육개혁심의회 실무위원장을 지냈으며 1987

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지내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였다. 2006년 7월부터는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조인스 인물정보, 네이버 인물정보)

**김신학(金信學)** 1947년 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이다.

**김연태(金淵泰)** 암태면 기동리 출신이다. 암태도 소작쟁의를 주도하여 징역8월형을 언도받았다. 암태청년회에서 암태소작인회를 발기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소작료를 절감시킬 것을 지주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작료의 불납 동맹, 폐작 동맹을 하고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1924년 9월 18일 판결 받았으며, 현재 판결문이 남아 있다. 당시 나이 37세였다.

**김용학(金龍學)** 암태도 출신으로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구속자 석방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의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24년 6월 400명의 인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포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아사동맹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형빈(羅亨彬)** 1915~1978, 암태면 신정리(新亭里) 출신으로 호는 만취(晩翠)다. 그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낙도의 어려운 교통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 1955년 12월 사재를 털어 선박업인 대흥상사를 설립해 도서낙도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 하면서, 다도해 해운업의 개척자로 군림했다. 1977년에는 서울 세종로에 해운업을 목적으로 한 동원산업상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았다. 1978년 타계했으나 대흥상사는 신안군내 도서는 물론 관광지인 흑산, 홍도, 제주도 등지를 운항하는 여객선, 쾌속여객선, 화물선을 보유하는 등 서남해상의 해운교통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그는 1957년 정부양곡 도정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1976년에는 고향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암태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3,000여 평을 기증하였다. (참고자료: 신안군지, 2000; 고경남의 신안이야기 홈페이지)

**문익수(文益洙)** 스포츠심리학자 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에서 체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9대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회장, 한국유소년스포츠학회 회장, 한국체육학회 상임이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암태도 수곡리 출신 문재철의 손자이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인물정보)

**문재철(文在喆)** 1882년(고종 19) 12월 24일~1955년 6월 1일. 일제강점기 소작지주·관리·기업가·친일파. 호는 송원(松園)이며,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암태면 수곡리(水谷里) 출신이다. 문태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대는 간척지가 넓게 발달된 암태도의 지형을 이용한 염전 경영업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지주가로 성장하였다. 1897년 목포가 개항이후 목포항에서 미곡 유통을 장악하고 토지 집적을 늘려 대지주가 되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에 체결된 뒤 식민 통치 자문을 위해 중앙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설치되고, 각 도에는 참여관과 참사관, 각 군에는 참사라는 직책이 신설되었다. 문재철은 지도군 참사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는 전남도회 의원 및 도평의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유지로 활동했다. 이 기간 중 사업도 계속 확대되어 대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1919년 목포창고주식회사 취체역에 취임했고, 1923년 남일운수주식회사 취체역 사장을 지내며 물류업을 겸해, 1920년대 후반 문재철의 지주 경영지는 약 300만 평에 달했다. 1920년대 중반 문재철 일가의 본거지였던 암태도를 시작으로 도초도, 자은도, 지도 등에서 계속 대규모 소작쟁의가 일어났는데, 문재철은 농장식 경영으로 이에 대처하고 1935년 선일척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1930년대 후반 활발하던 간척지 개간사업을 주도했다. 1940년 당시 문재철이 소유한 토지는 약 500만 평으로 집계된다. 1941년에는 목포에 사립학교인 문태중학교를 설립하였다. 교육활동에 대한 공로로 1993년 2월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암태도(岩泰島)에서 벌어진 농민 항쟁인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친일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1941년 이후 흥아보국단 및 조선임전보국단

에 참여했던 기록 등이 남아 있다. 1955년 6월 1일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고향인 암태면 수곡리에 생가가 남아 있으며, 개항 이후 목포에 건립한 가옥이 북교동에 남아 있다.(참고자료 : 위키백과사전, 박천우, 「문재철 암태도 소작쟁의 야기한 친일 거대지주, 『친일파 99인 2』, 돌베개),

**문준경(文俊卿)** 1891. 2. 2~1950.10. 5. 암태도 출신의 개신교 전도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순교자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여성순교자는 그리 많지 않다. 문준경 전도사는 여성순교자로 성결교단의 추앙을 받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신안군의 여러 섬 지역을 돌며 교회를 개척하여 증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등 10여 교회를 설립하였고,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김준곤,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봉성 목사님 등 30여 명)들을 배출하는데 공헌한 인물이다. 선교활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의 집꾼노릇, 우체부노릇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문전도사는 1950년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안타깝게 순교하였다. 증도면에는 1950년에 건립된 기념비와 2001년 순교기념사업회에서 건립한 기념비가 함께 서있으며, 문준경전도사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문진현(文振炫)** 1889년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여옥(汝玉), 호는 학우(學愚)이며, 본관은 남평이다. 고조(高祖)는 문맹동(文孟童), 증조(曾祖)는 문종엽(文宗曄), 조(祖)는 문일주(文一周)이다. 아버지 문동귀(文東龜)이고, 어머니 완산이씨(完山李氏)이다. 고향인 수곡마을 도로변에 ‘太學士學愚堂南平文公之碑(태학사학우당남평 문공지비)’라 새겨진 기념비가 조성되어 있다. 이 비는 194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자료: 신안군지, 신안군 문화유적분포지도)

**박공범(朴公凡)** 1842~1894, 휘는 병모(炳模), 호는 금호당(錦湖堂)으로 박문여의 손자로서 암태면 와촌리에서 출생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갑오농민운동 때 나주 수성장으로 활약했고, 두민의 우두머리로서 면사(面事)를 돌보았다. 성품이 호탕하고 대범하여 나주 회진마을 앞에서

“나주 밖 섬에 사는 박공범이 제 말 저 타고 간다”던 이야기가 전해오는 데, 이는 암태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은 바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설화로 전해지고 있다. 아부를 모르고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암태도 전역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참고자료: 신안군지)

**박두남(朴斗南)** 암태면 추포 출신이다. 1960년대 추포 일대 제방을 축조하여 추포가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오늘날 추포가 발전하기까지 숨은 공로자로 주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다.

**박문여(朴文汝)** 1797~1882, 암태면 와촌리 출신이다. 휘는 준량(準亮), 호는 해룡(海龍), 별명은 해왕(海王), 본관은 밀양이다. 당시 도서 각면(面) 정객들의 총지도자라 불릴 만큼 두민 정치에 명성이 높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참고자료: 신안군지)

**박문호(朴汶鑞)** 현재 서울세병치과 원장이다.(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박복영(朴福永)** 1890~1973년. 신안군을 대표하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암태도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호는 동명(東明)이다. 1월 17일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 암태면(岩泰面) 단고리(短庫里)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박윤규(朴允圭)이다. 1919년부터 1925년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1919년 목포 지역의 3·1운동에 참가하여,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20년 상해로 망명 중 국경선에서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임시정부의 비밀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고향으로 돌아와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정신계도에 힘썼다. 1923년의 암태청년회 회장에 취임하였고,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小作爭議)가 발생하여 주동자들이 투옥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소작인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1926년 발생한 자은면 소작쟁의에도 간여하였으며, 1926년 암태남녀학원장에 취임하고, 동아일보 목포지국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암태도 1935년 신안군 자은면(慈恩面)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1945년 독립이 되자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건국준비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1973년 11월 17일에 사망하였으며,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

서하였다. 1990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 박상만** 부이사관, 국가정보원을 지냈다.
- 박승준** 서기관, 목포시 환경보사국장을 지냈다.
- 박연호** 인천 길병원 일반외과 과장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인턴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일반외과 레지던트와 일반외과 전문의를 지낸 바 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및 장기이식 외과전임의를 지내고, 가천의대 길병원 외과교수가 되었다.(참고자료: 인천 길병원 홈페이지)
- 박인현(朴麟鉉)** 1850~1877, 자는 순겸(順兼), 호는 월단(月潭)으로,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출생으로 암태의 주자라고 칭할 만큼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실학에도 뛰어난 재질을 가졌다. 그러나 아깝게도 요절하였으며, 유고로는 『월단집』이 있다.(참고자료: 신안군지)
- 박정제(朴正題)** 현재 용인 박정제 치과 원장이다.(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 박종배** 암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암태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박종보(朴種甫)** 1936. 03. 13.~?,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고, 제1대 신안군 군의원을 지냈다. 임기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5년 7월 13일까지였다.
- 박종언** 암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교장을 지냈다.
- 박준섭** 암태면 출신의 행정관료이다. 신안군 기획예산실장을 역임하였다.
- 박천우(朴千佑)** 1953년 암태도 출생이다. 수원에 있는 장안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한국사이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을 통해 암태도 문씨가의 지주로의 성장과 변동에 대해 학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수원문화유산답사회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수원 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서상열(徐相烈)** 1920~1977.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에서 출생하였다. 1944년 7월

5일 학도병 출신으로 일본군을 탈출, 광복군에 입대하여 총사령부에서 기간요원으로 활동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한광반을 수료하였으며, 그 후 임정 경위대 대원으로 임시정부 고위요원들의 경호담당 등으로 활약하였다. 1945년 1월부터는 광복군 총사령부 경리처에서 근무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건국 표창을 수여하였다.(참고자료: 신안군지)

**서창석(徐倉錫)** 암태면 기동리 993 번지 출신이다. 당시 나이 33세로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보안법위반 등의 이유로 징역1년형을 언도받았다. 암태청년회에서 암태소작인회를 발기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소작료를 절감시킬 것을 지주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작료의 불납 동맹, 폐작동맹을 하고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한 협의이다. 1924년 9월 18일 판결 받았으며, 현재 판결문이 남아 있다.

**서태석(徐邵皙)** 1885~1943은 신안군이 낳은 독립운동가이다. ‘서태석은 일제하 대표적인 농민운동인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그 이후에는 조국의 독립과 사회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1885년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적에 서당에 다니면서 한학을 공부했고, 한약방을 열어서 일대에서는 명의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마을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1907년부터 약 8년 간 암태면장을 지냈다. 일제 식민통치를 직접 겪으면서 조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 서태석은 면장직을 그만두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된다. 처음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것은 1920년 목포에서 3·1운동 1주기 행사를 준비하면서였다. 그는 목포에서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체포되어 1년 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군자금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로 활동하면서, 독립투사들을 만나 당시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기 시작했다. 1923년 12월 서태석 선생은 고향인 암태도에 돌아와서 ‘암태소작인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에게 독립과 민족사상을 보급하였다. 그 결과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의 기폭제가 된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암태도 소작쟁

의는 사상적인 면에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는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서태석은 암태도 소작쟁의를 승리로 이끈 경력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후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지방에 머물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 국내외 쟁쟁한 활동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독립운동가 서태석 선생의 삶은 불행의 길로 치닫게 된다. 서태석은 암태도 소작쟁의 이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몇 차례 더 옥고를 치러야만 했다. 이때 생긴 고문 후유증이 정신분열증으로 이어져 더 이상의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고향마을인 암태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독립운동가에 대한 일제의 감시가 너무나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태석 선생을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서태석은 특별한 거주지도 없이 걸인처럼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살고 있던 압해도의 어느 논둑길에서 벼 포기를 움켜쥔 채 숨을 거두었다. 선생의 불행한 운명은 일제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서태석 선생은 1920년대 후반에 공산당 관련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 광복이후 우리나라가 사상적으로 분열되면서, 선생의 이러한 전력은 선양의 대상이 아닌 금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선생의 추모비를 세우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았다. 2003년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서 서태석의 독립활동에 대한 공훈이 인정되었고, 지난 2008년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1929년 11월 발생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인물인 박기옥이 서태석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었다. 암태도 농민운동의 영웅인 서태석과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주역인 박기옥이 한 가족이었다는 점은 그동안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서태석 집안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설응화(薛應化)**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에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몰년은 미상이다. “두민 정치의 인물로서 용모가 수려하고, 달변가로써 이름이 높았다.”고 2000년에 발간된 신안군지에 수록되어 있다.(참고자료: 신안군지)

**설준석(薛峻碩)** 1900년에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에서 출생을 했다. 조선일보 목포 지국장을 지내면서 기자이자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다. 그는 단순히 언론인으로 활동한 것뿐만 아니라 1920년대와 30년대 목포와 무안을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목포에서 조선일보 주재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신간회 목포지회 상무간사, 조사연락부장을 역임하는 등 각종 청년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1930년대 전남지역의 언론을 주도했던 《호남평론》에도 그가 집필한 세 편의 원고가 남아 있어 그의 사상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일제하 조선총독부에 의해 검거 투옥된 인사들의 신상기록카드에 설준석과 관련된 수감기록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수감기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설준석은 1900년에 "전남 무안군 암태면 송곡리"에서 태어났다. 수감당시 주소지는 목포 북교동 97번지였다. 경기도 경찰부에 붙잡혀서 1928년 8월 15일에 인치(引致)되었는데, 사유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감기록카드와 함께 1928년 12월 14일 촬영된 사진(정면과 옆모습)도 실려 있다. 한편 당시 발간되었던 각종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설준석의 활동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5. 10. 14. 암태소작 제 14회 임시총회 참여 축사, 1925. 4. 3. 지도소작쟁의 임시총회 참여 격려사, 1925. 6. 17. 목포청년회관에서 열린 목포청년토론회에 강사로 참여, 1926. 1. 14. 무안농조연합(務安農組聯合) 임시집행위원으로 선출, 1926. 2. 16. 목포무산청년회(木浦無産靑年會)에서 전남청맹(全南靑盟) 출석대표로 선정, 1926. 6. 16. 일본경찰 목포전위동맹원(木浦前衛同盟員) 설준석(薛峻碩)의 집 수색, 1926. 9. 7. 목포청년위원회 임시의장을 맡음, 1926. 10. 12. 목포노총(木浦勞總) 창립일주년 기념식 강연, 1926. 10. 16. 무목청년연맹(務木靑年聯盟) 1회 정기총회 사회, 1927. 10. 7 목포청년동맹(木浦靑年同盟) 창립대회에서 조사부장으로 선정, 1928. 6. 11. 목포청맹동맹에서 긴급위원회 사회, 1930. 2. 27. 신간회(新幹會) 목포지회 조사연락부장(調査連絡部長) 선임, 1932. 3. 10. 목포기자단(木浦記團) 발회식(發會式) 참여, 1933. 4. 24. 목포청년회관

(木浦青年會館) 수축위원회 수축설계임원, 1934. 4. 24. 삼차 공산 사건으로 사망한 전도(全濤)씨의 장례위원을 맡음, 1936. 2. 15. 목포유지 좌담회 주최, 1936. 8. 4. 목포고보(木浦高普) 설립위원회 상무위원.

**손몽필(孫夢弼)** 암태도 출신의 기업가이다. 한미건업사장. 1992년 중소기업자협회부회장이 되었다.(참고자료: 매일경제 1992년 04월 29일 19면 기사)

**손장조(孫長條)** 1930년생, 전 광역의회의원, 전 사회기관 단체장을 지냈다. 목포축협조합장을 지냈다. 신안군 군수를 지냈다.(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동아일보 1995년 06월 29일 15면 기사)

**손학진(孫學振)** 암태면 기동리 569번지 출신이다. 암태도 소작쟁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일제에 의해 구속된 인물이다. 당시 나이 28세였으며, 1924년 09월 18일 징역1년형을 언도받았다. 암태청년회에서 암태소작인회를 발기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총회에서 소작료를 절감시킬 것을 지주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소작료의 불납 동맹, 폐작동맹을 하고 송덕비를 파괴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판결문이 남아 있다.

**손한술(孫漢術)** 1922년 신안 암태도 출신의 시조창(時調唱)의 명인(名人). 암태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4세 때 작은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대판 관서공업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21세 때까지 생활하였다. 이후 질병검사를 위해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해방 후 23세 무렵부터 목포지역 한학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시조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시조창은 시조에 곡을 붙인 것으로 전통적인 시조시(時調時)에 3음·4음·5음 음계의 가락을 일정한 장단에 얹어서 느리게 노래하는 음악을 시조창이라고 하는데 조선 영조 때의 가객 이세춘(李世春)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형태에 따라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로 구분하고, 지역에 특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전라도 지방은 완제(完制)라고 부르고, 서울은 경제(京制), 충청도 지방은 내포제(內浦制), 경상도 지방 영제(嶺制)라고 한다. 손한술은 전라도 지방

의 완제를 계승한 명인이다. 그때만 해도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시조창 한 소절 정도는 할 줄 아는 것이 기본교양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시조창의 인기가 매우 높았다. 당시 목포 대성동·죽동·유달동 등 노인당에는 언제나 시조창을 즐기는 이들이 가득하였는데, 시조창을 잘하는 분들은 이들 노인당을 순회하면서 시조창을 선보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한학을 공부하면서 시조창을 연마하는데 매진한 손한술은 1969년 경남 진주 개천예술제 전국 남녀 시조 경창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명인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시조 경창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각종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00차례 이상 심사를 맡았다. 또한 1985년 목포시립국악원 시조부 강사로 위촉되면서 시조창을 일반인에게 보급하는 일에 열성을 다하였다. 손한술의 이러한 공로와 기능이 인정되어 1999년 8월 5일자로 전라남도무형문화재 제33호 시조창기능보유자로 지정 되었다.

- 오세창(吳世昌)** 1955년생, 1974년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하였다. 2005년에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P과정 12기 수료하였다. 현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감사와 한국신문윤리협회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병무청 정책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참고자료: 법무법인로고스홈페이지)
- 이문웅** 제14대 목포교육지원청 교육과장(1996. 9.~1999. 8.)을 지냈다.(참고자료: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이부칠** 압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무안군 무안여중 교장을 지냈다.
- 이상득** 무안교육지원청 임명제 초대 교육장(1964. 04.~1967. 10.)을 지냈다.(참고자료: 무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이승호(李昇鎬)** 1950년 생, 현재 아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 수학전공 교수이다.(참고자료: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조인스 인물정보)
- 장길석** 압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신안군 지도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 장판섭(張判燮)** 압태도 출신의 학자이다. 약학을 전공하였으며, 덕성여대 교수로

서 교무처장을 역임하였다. 1992년 8월 퇴직하면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참고자료: 1992. 08. 22. 동아일보 20면 사회, 1992. 08. 23. 경향신문 20면 사회)

- 정길춘** 암태면 출신의 교육자이다. 교장을 지냈다.
- 정대홍** 암태면 출신의 법조인이다. 목포지원, 인천지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를 지냈다.(참고자료: 신안군지)
- 정대홍(鄭大鴻)** 목포지원 판사이다.(참고자료: 1993.02.23. 동아일보 17면 사회면 기사)
- 정현탁** 암태면 출신의 법조인으로 검사이다.(참고자료: 신안군지)
- 조동석(趙洞皙)** 1905~1981, 암태면 장고리에서 태어나 광주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일제하에 면장을 지내면서 농민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에 공헌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은 수리시설 미비로 하늘에만 의존해 온 천수답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수리 시설은 농토의 젖줄이며, 생명선임을 강조해 왔으나 당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악조건을 극복하고 도창리 저수지 공사를 시발로 단고·중흥·기동·신석·익금·오상·신기 등 저수지를 차례로 신설해 낸 공로자이다. 이 저수지가 신설됨으로 암태면은 논역의 90%가 수리 안전답이 되고 벼 수확이 크게 늘어났다.(참고자료: 신안군지)
- 천두생(千斗生)** 1879년 암태면(岩泰面) 신석리(新石里)에서 태어났다. 암태도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자는 형진(亨震), 호는 석촌(石村)이다. 어려서부터 효자로 이름이 났으며, 예의가 밝았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등 한학에 특출하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만년에는 한학도의 사표로 많은 문하생을 배출했고, 유고로 회심록(會心錄), 각비록(覺非錄) 등을 남겼다. 하의도의 유학자 김연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교류하였다. 2000년에 발간된 『신안군지』에는 문씨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참고자료: 신안군지)
- 천두학(千斗學)** 1865~?, 암태보통학교 설립 독지가이다. 천두학의 본관은 중국

영양(潁陽), 자는 후빈(后彬)이다. 그는 암태면에서 손꼽히는 지주였으며, 인품이 온후하고 덕망이 있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추앙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암태보통학교가 설립될 당시 천두학은 학교부지를 희사하여, 암태도의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현재 단고리에 자리하고 있는 암태초등학교 정문 우측에는 그 공을 기리기 위해 1931년에 조성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비의 전면에는 ‘故參奉千公斗學獎學記念碑(고참봉천공두학장학기념비)’라 새겨져 있다.

**천득엽** 1953년 9월 19일생이다.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입학하여 석사학위까지 마쳤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다. 2007년 대한건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999년~2000년 전남대학교 학생처장, 2006년 문화예술특성화사업단장, 2006년 바이오하우징연구소장, 2004년 영산강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전남도와 광주시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인도 불탑의 의미와 형식』(심미안, 2013), 『광주 건축사』(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등이 있다.

**천상배** 서울 천내과 원장이다.

**천정배(千正培)** 1954년 12월 12일 식석리 출생. 암태동초등학교 14회 졸업생이다. 목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96~2000년에는 제15대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1년 한국 언론인 연합회선정 올해의 정치인 상을 받았다. 2000~2004년에는 제16대 국회의원이었으며, 2004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다. 2004~2007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2007년 제57대 법무부장관, 2008~2011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참고자료: 네이버 인물정보)

**최영** 전 목포홍일중학교, 목포제일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최정웅** 암태도 출신의 중앙부처 행정관료이다. 부이사관, 건설교통부 서울청 관리국장을 지냈다.

최천식(崔天植) 1952년생. 압태도 출신의 중앙부처 행정관료이다. 주로 문화부에서 활동하다 퇴직하였다. 국립중앙극장 진흥부장, 국립중앙극장 과장 등을 역임한 서기관이다.(참고자료: 조인스 인물정보)

## 2) 압태면 역대 면장

|     |            |       |                       |
|-----|------------|-------|-----------------------|
| 문인옥 | 제1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01. 01. ~ 1904. 02. |
| 조경열 | 제2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04. 03. ~ 1907. 04. |
| 서태석 | 제3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07. 05. ~ 1915. 06. |
| 박종은 | 제4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15. 07. ~ 1924. 08. |
| 김상만 | 제5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24. 09. ~ 1929. 10. |
| 김공작 | 제6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29. 11. ~ 1932. 12. |
| 조형석 | 제7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32. 12. ~ 1945. 08. |
| 박봉빈 | 제8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45. 08. ~ 1946. 12. |
| 김봉철 | 제9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47. 01. ~ 1949. 02. |
| 박연옥 | 제10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49. 02. ~ 1950. 06. |
| 박의담 | 제11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0. 06. ~ 1951. 06. |
| 양춘실 | 제12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1. 06. ~ 1952. 12. |
| 박봉빈 | 제13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3. 02. ~ 1954. 04. |
| 천효철 | 제14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4. 06. ~ 1955. 09. |
| 양춘실 | 제15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5. 11. ~ 1957. 05. |
| 고석순 | 제16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57. 06. ~ 1960. 06. |
| 천병채 | 제17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60. 09. ~ 1960. 12. |
| 김봉재 | 제18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61. 01. ~ 1961. 06. |
| 고석순 | 제19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61. 07. ~ 1965. 07. |
| 김수창 | 제20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65. 08. ~ 1970. 09. |
| 박종지 | 제21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70. 10. ~ 1975. 09. |
| 김재구 | 제22대 압태면장, | 재임기간, | 1975. 10. ~ 1985. 06. |

|       |                  |                              |
|-------|------------------|------------------------------|
| 천 정 욱 | 제23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1985. 06. ~ 1988. 02.        |
| 이 승 현 | 제24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1988. 03. ~ 1993. 06.        |
| 박 종 효 | 제25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1993. 07. ~ 1996. 09.        |
| 김 영 민 | 제26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1996. 10. ~ 1998. 05.        |
| 김 철 수 | 제27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1998. 05. ~ 2000. 10.        |
| 김 관 수 | 제28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0. 10. ~ 2002. 09.        |
| 최 강 식 | 제29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2. 10. ~ 2003. 02.        |
| 나 승 민 | 제30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3. 02. ~ 2003. 09.        |
| 장 동 진 | 제31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3. 10. ~ 2004. 10.        |
| 나 승 민 | 제32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4. 10. ~ 2007. 04.        |
| 여 규 옥 | 제33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07. 05. ~ 2010. 12. 22.    |
| 이 종 순 | 제34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10. 12. 23. ~ 2011. 8. 19. |
| 이 태 곤 | 제35대 암태면장, 재임기간, | 2011. 08. 20. ~ 현재(2013. 8월) |

※ 참고자료 : 신안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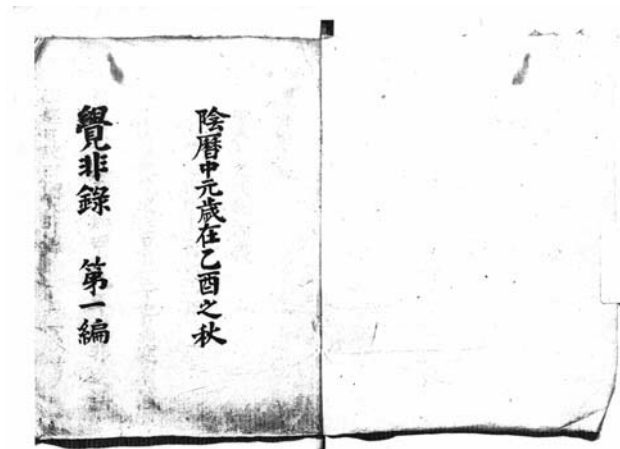
## 6. 암태도 관련 고문서

### 1) 암태도 관련 고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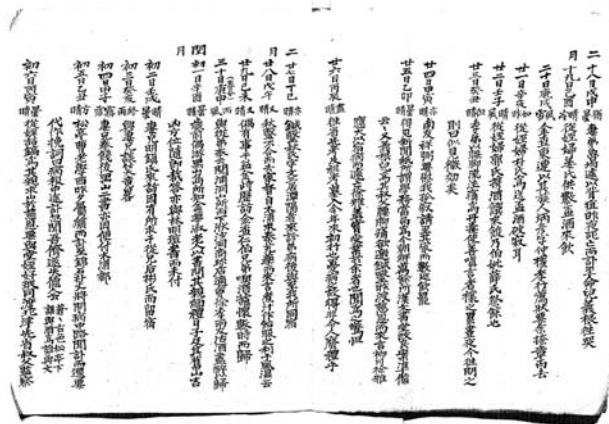
#### (1) 천두생(千斗生)의 『각비록(覺非錄)』

천두생(1879~?) 암태면(岩泰面) 신석리(新石里)에 거주하던 한학자이다. 암태도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이름을 얻었으며, 자는 형진(亨震), 호는 석촌(石村)이다. 한학에 특출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스승인 하의도의 유학자 김연과 교류관계에 있었던 인물이다. 『각비록(覺非錄)』은 천두생이 남긴 일기이다. 1928년(戊辰) 1월 1일부터 1930년(庚午) 12월 29일까지 3년간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다. ‘각비(覺非)는 “잘못이나 허물을 깨달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명한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옳고 어제까지는 글렀음을 깨달았노라(覺今是而昨非)”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 천두생의 나이 50세에 기록한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섬 마을 선비의 지조가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섬 지역의 사회상과 구체적인 생활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기록된 기간은 비록 3년에 불과하지만, 거의 하루도 빠짐없



[사진 28]각비록 표지면



[사진 29] 각비록 내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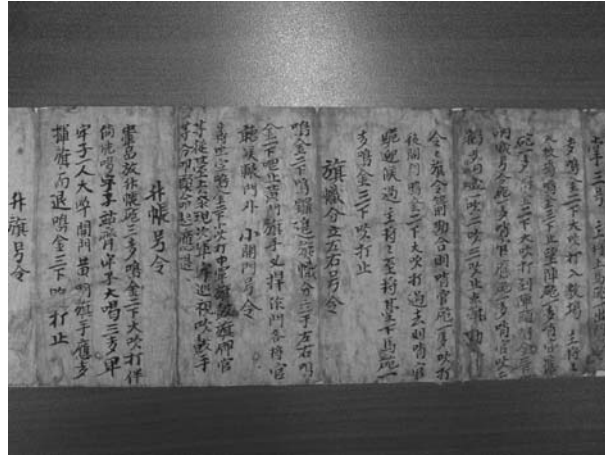
이 꼬박꼬박 일기를 작성하였다. 목포를 비롯한 주변 도서 지역과의 왕래 상황이나 섬사람들과의 교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2) 압태도 초방(哨方) 관련 문서

표지에 손글씨로 “巖泰島哨方 列開三才陣”라 적힌 고문서가 전해온다. 압태도에 초방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해전을 위한 병법을 훈련하기 위한 간이 교본의 성격으로 보인다. 압태도의 해로상의 위치와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 수군 운영과 섬 지역 초방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삼재진(三才陣)은 천·지·인 삼재를 이용해 세 곳에서 힘을 합쳐 상대를 공격하는 전통 진법의 한 가지이다. 이 문서에는 “旗幟分立左右號令(기치분립좌우호령)”, “升旗號令(승장호령)”, “升旗號令(승기호령)”, “聽發放號令(청발방호령)”, “巡視發放號令(순시발방호령)”, “官旗下地方號令(기하지방호령)”, “倭軍趨擊號令(왜군추격호령)”, “起立號令(기립호령)”, “作隊軍趨擊號令(작대군추격호령)” 등 상황에 맞는 작전수행 요령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倭軍趨擊號令(왜군추격호령)”이라는 부분이 있어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초방의 기능을 살필 수 있으며, “作隊軍趨擊號令(작대군추격호령)”을 통해 또한 초방 운영을 위해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대군(作隊軍)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정확한 소장처는 미상이나, 신안문화원에서 촬영해 놓은 사진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암태도와 관련된 희귀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진 30] 암태도초방 열개삼재진 문서(부분)

## 2) 암태도 관련 생활문서

본고에 수록된 암태도 사람들의 생활문서는 도서문화연구원 고평민(HK공동연구원)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1개월 동안 암태도 현지에서 수행한 생활도구 수집과 연구 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평민에 따르면 암태도에는 다섯 개의 동계(洞契), 원계(坑契), 문계(門契), 상두계(喪頭契), 갑계(甲契) 계칙(契則)이 전승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해를 위한 주석도 고평민 연구원의 풀이에 따라 명시하였다.

## (1) 추포도 동계(洞契) 문서

추포도 남쪽 가섬마을 ‘불등’ 운영과 관련된 마을 문서이다. 이곳은 마을 공동소유의 방사지(防砂地)로, 소나무와 아키시아나무가 자란다. 마을 사람들은 서북풍을 막으려고 벌칙(罰則)까지 정해놓고 풀등의 수목(樹木)을 관리하였다. 「대동계칙(大洞契則)」이 전해온다.

동중(洞中) 산림(山林)에 대(對)해서는 서기(西紀) 일구육사년(一九六四年) 일월(一月) 이후(以後)로는 입산(入山)은 일체(一切) 금(禁)하고 낙엽(落葉)이라 할 지라도 개인(個人)은 수득(收得)할 수 없는 것과 벌칙(罰則)을 동계시(洞契時) 결정(決定)함이 여좌(如左)함

벌칙(罰則)

一. 재목(材木)을 남벌시(濫伐時)는 주당(株當) 현물압수(現物押收)하고 벌금(罰金) 오백원(五百元)을 징수(徵收)함.

一. 낙엽송(落葉松)을 수득(收得)한 자(者)는 현물압수(現物押收)하고 벌금(罰金) 백원(百圓)을 징수(徵收)함.



[사진 31] 오상리 가섬마을 대동계칙 문서

## (2) 오상리 원계(坑契) 문서

암태도 사람들은 대부분 원둑 안에 있는 논[畚]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삶을 꾸려왔다. 원둑은 암태도 사람들에게 있어 생명선(生命線)이나 다를 바 없다. 오상리에는 1965년도에 제정된 오상원 원계(坑契)문서가 전해온다.

### 〈오상원 계칙(五相坑 契則)〉

제1조 본계(本契)는 오상원계(五相坑契)라 칭(稱)함.

제2조 본계(本契)는 본원(本坑) 내(內)에 농지(農地)를 소유(所有)한 자(者)로서 조직(組織)함.

제3조 본계원(本契員)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고 융화친선(融和親善)하며 상호조의(相助之儀)의 정신(精神)으로서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의(義)를 함양(涵養)하며 오등(吾等) 계원(契員)의 생활영위상(生活營爲上) 근간(根幹)인 본 계원(堤坑)의 수호(守護)의 철저(徹底)히 하여 원내(坑內) 농지(農地)의 보호관리(保護管理) 등(等) 농지개량(農地改良)에 만전(萬全)을 기(期)함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제4조 본계원(本契員)은 제3조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기 위(爲)하여 하기(下記) 각항(各項)의 의무(義務)와 권리(權利)를 부담(負擔)하여 이행(履行)한다.

1. 본계(本契)의 사업(事業)을 특별사업(特別事業) 및 일반사업(一般事業) 이류(二類)로 구분(區分)하고 하기(下記) 별항(別項)과 여(如)히 차사업(此事業)에 수반(隨伴)한 경비(經費) 또는 사업비(事業費) 등(等) 부력력(賦力力)을 부담(負擔)하는 의무(義務)를 진다.

단(但) 특별사업(特別事業)이라 함은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 인(因)한 본계원(本堤坑)의 개보수(改補修) 또는 총의(總意)에 의(依)한 특수사업(特殊事業)을 특별사업(特別事業)이라고 하고, 일반사업(一般事業)은 정기(定期) 연간사업(年間事業) 춘추기(春秋期)<sup>1)</sup> 및 원혈(坑穴)<sup>2)</sup> 내(內)에 대(對)한 방

1) 춘기(春期)와 추기(秋期) 때 날을 잡아 계원들이 원둑을 보수하는 일을 '원일'이라고 한다.

2) 원혈은 원둑에 뚫린 구멍이라는 말이다. 고평민 주.

혈사업(防穴事業) 및 기타 사업(其他 事業)을 말한다.

2. 일반사업(一般事業) 중(中) 정기(定期) 연간사업(年間事業) 및 원혈(坑穴)에 대(對)한 방혈사업(防穴事業)에<sup>3)</sup> 대(對)하여는 하기(下記)와 여(如)히 정(定)한 의(依)하여 사업(事業)을 시행(施行)한다.

가. 정기 연간사업(定期年間事業) 시행일수(施行日數)를 육(六) 일간(日間)으로 정(定)하고 하기(下記) 비율(比率)에 의(依)하여 각 계원(各契員)이 부역(賦役)을 부담(負擔)한다.

기(記) 농지소유자별(農地所有者別) 각(各) 계원(契員) 부역일표(賦役日表) 1반(反) 미만(未滿)<sup>4)</sup> 1반(反) 이상(以上)<sup>5)</sup>

나. 정기(定期) 연간사업(年間事業)에 대(對)하여는 계원(契員) 소유자별(所有者別) 농지비율(農地比率)에 의(依)하여 사업(事業) 중간식료(中間食料)로<sup>6)</sup> 정규적(正規的) 소요량(所要量)을 부담(負擔)한다.<sup>7)</sup>

제원(堤坑)에 원혈(坑穴)이 생(生)할 때에는 소유(所有)한 계원(契員)으로서 순차적(順次的)으로 방혈사업(防穴事業)에 당(當)한다. 만일(萬一) 사고(事故)가 생시(生時)는 방혈조원(防穴組員)이 책임(責任)을 부(負)한다.<sup>8)</sup>

제5조 본계(本契) 자산(資産)은 본계(本契) 원(坑)의 공유농지(共有農地)<sup>9)</sup> 및 본원(本坑) 내(內)에 격지(隔地)<sup>10)</sup> 및 조류지(潮流地)를<sup>11)</sup> 포함(包含)한다.

단(但) 자산관리(資産管理)에 대(對)하여는 별항(別項)의 정(定)한 바에 의(依)

3) 방혈사업(防穴事業)을 '원일'이라고 한다. 고평민 주.

4) 1반(反)은 300평이다. 300평 미만 소유하고 있는 담주를 '반작인(半作人)'이라고 한다.

5) 1반 이상, 곧 3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담주를 '원작인(作人)'이라고 한다.

6) 중간식료(中間食料)는 새참일을 하다가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 때 먹을 막걸리 따위이다.

7) 농지를 많이 소유한 가호에서 농지의 소유 정도에 따라 새참 때 먹을 막걸리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8) 방혈사업(防穴事業)은 정기적인 사업과 비정기적인 사업이 있다. 비정기적인 사업은 원혈 크기의 정도에 따라 출동 인원의 수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출역(出役)시킨다. 이때 방혈(防穴)한 원둑이 터지는 사고(事故)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 출역한 조원(組員)들이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진다는 것이다.

9) 공동소유의 '원담', 공원(公員) 몫의 '공원담(公員畝)', 보주(保主) 몫의 '보주담(保主畝)', 초사(招使) 몫의 '초사담(招使畝)'이 있다.

10) 격지(隔地)는 지투리땅이라는 말이다. 물도랑도 포함한다.

11) 수구문 안쪽에 있으면서 수구문을 여닫는 동안에 들어온 극소량의 비뒀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다.

12) 물도랑이라는 말이다.

하되 격지(隔地) 중(中) 뜻 갖<sup>12)</sup> 지대(地帶)에는 원(坑)에 필요(必要)한 소요면적(所要面積)을 확보(確保)하여 제원(堤坑) 보수사업(補修事業)의 완벽(完璧)을 기(期)한다.

가. 본원(本坑) 내(內)의 공유지(共有地)는 법정소유권자(法政所有權者) 등(等)들이 수시(隨時)에 따라 임의처리(任意處理)할 수 있다.

제6조 본계(本契)는 제반업무(諸般業務)를 장리(掌理)하기 위(爲)하여 하기(下記)의 임원(任員)을 치(置)함.

공원(公員) 1인(人)

보주(保主) 1인(人)

초사(招使) 1인(人)

제7조 본계(本契) 임원(任員)은 하기(下記)와 여(如)히 책임장리(責任掌理)한다.

1. 공원(公員)은 본계(本契)를 대표(代表)하고 계무(契務)를 총괄(總括)함.
2. 보주(保主)는 공원(公員)의 명(命)에 의(依)하여 본계(本契)의 서무(庶務)를 장리(掌理)하고 하기(下記)와 여(如)히 책임(責任)함.

가. 보주(保主)는 제원(堤坑)의 사업(事業)을 계획(計劃)하고 수시(隨時)로 제원(堤坑)을 순회(巡廻)하여 제원(堤坑) 개보수(改補修) 또는 원혈(坑穴)이 생(生)하였을 때에는 계칙(契則)이 정(定)한 바에 의(依)함.

제8조 본계(本契) 임원선출(任員選出)에 있어서는 춘기(春期) 원역(坑役) 출동명부(出動名簿) 작성(作成)된 자(者)라야 선거권(選舉權) 및 피선거권자(被選舉權者)가 부여(附與)된다.

1. 본계(本契) 보주(保主)는 재산보증(財産保證) 3명(名)의 보증(保證)을 하여야 보주(保主) 자격(資格) 부여(附與)한다.

부칙(附則)

제9조 본계(本契) 정기원역(定期坑役) 시행(施行) 후(後) 만일(萬一) 결자(缺者)가 생(生)할 시(時)는 기(其) 익일(翌日) 시행(施行)하기로 하되 당일(當日)에 있어서도 결자(缺者)가 생(生)할 시(時)는 역원(役員)이 정당(正當)한 노임(勞賃)을 지불(支拂)하고 차해(此該) 역사(役事)를 종료(終了)한 후(後) 결자(缺者)로부터 노임(勞賃)을 징수보상(徵收報償)하기로 한다.

### (3) 익금리 문계(門契)

암태면 신석리 익금마을에는 김해 김씨 ‘도선산(都先山)’이 있다. 도선산에는 소나무를 심어 가꾸는데, 김씨 문중에서는 해마다 이곳에서 땄나무를 채취해서 팔아 문중의 경비로 삼는다. 그 운영과 관련하여 『계유구십월십오일도문중계칙(癸酉舊十月十五日都門中契冊)』라는 문서가 전해온다.

### (4) 상두계 문서

암태면 신석리 익금마을 김명기 어르신(1937년생, 남)은 서기 1968년 7월 15일에 제정한 상두계(喪頭契)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계칙(契則)에는 명칭[喪頭契], 구성자격[이 마을 居住者], 목적[相扶相助], 부의물품(贖儀物品) 목록 등이 들어 있다.

### (5) 익금마을 광두언 계문서

암태면 신석리 익금마을에는 광두언(廣頭堰)을 쌓을 때 참여 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계칙, 예산 사용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철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2종의 문서철이 보존되어 있는 데, 하나는 표지에 『癸酉舊七月廣頭堰作人氏名簿(계유구칠월광두언작인씨명부)』라 적혀있고, 작성년대는 ‘계유년(癸酉年)’이다. 계유년 음력 7월에 암태면 익금리 광두언을 만들 때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계칙·수입·지출 내역 등을 적은 문서이다. 다른 하나는 암태면 익금리에 광두언을 만들기 위해 계를 조직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계칙·수입·지출내역을 적은 문서이다. 하나의 철안에 ‘廣頭堰作人氏名(丙申6월21일)’, ‘益金里廣頭堰作人氏名(己卯11월17일)’, ‘益金廣頭堰作人氏名(庚寅11월10일)’ 등이 한꺼번에 묶여있다. 시기별로 광두언 조성에 참여 마을 주민들의 이름과 관련 내역을 기록해 놓았다. 기타 여러 계문서와 함께 익금리 마을의 공동체 문화와 당대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생활 문서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6) 추포도 문씨가 소장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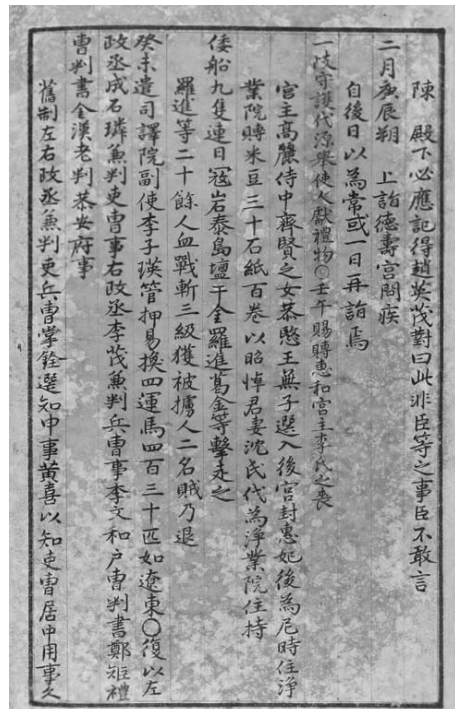
추포도 문천수 이장 문중에는 섬 사람들의 생활사 관련 된 각종 문서가 전해오고 있다. 일제강점기(1940년대~1945년) 「암태면 수곡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무안군수와 문두언(文斗彦) 사이에 오간 공문서가 남아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간의 계문서가 여러 종류 남아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상부상조계(相扶相助契)』이다. 이는 1964년 부인 일곱사람이 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것을 일명 ‘부인일곱사람계’이다. 계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적혀 있다. 이외에도 5인으로 구성된 『위친계(爲親契)』 문서가 있고, 모친상에서 기록한 부의록 등 각종 생활문서가 남아 있다.

### 3) 암태도 ‘염간(鹽干)’ 관련 조선왕조실록 기사

조선 전기에도 현 신안군 암태도에서 소금생산이 활발했으며, 당시 염전 운영 일을 맡아 하던 염간들이 왜적이 침입 시 활약했던 상황을 묘사한 기사가 실록에 실려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역에 전해오는 고문헌이 아니고, 관찬사료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그러나, 암태도와 신안군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성에서 매우 의미가 있으며, 문화콘텐츠 소스로서 활용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본고에 수록하여 소개한다.

• 태종 8년 1408년 2월 03일

- 왜선 9척이 날마다 암태도를 노략질 하니 염간 김나진과 갈금 등이 물리



[사진 32] 1408년 왜적을 물리친 조선 왕조실록 암태도 염간 기사

## 치다

왜선(倭船) 9척이 연일(連日) 암태도(巖泰島)를 도둑질하니, 염간(鹽干) 김나진(金羅進)과 갈금(葛金) 등이 쳐서 쫓아버렸다. 나진(羅進) 등 20여 인이 혈전(血戰)을 벌여 적의 머리 3급(級)을 베고, 잡혀 갔던 사람 2명을 빼앗으니, 적(賊)이 곧 물러갔다.【원전】 1집 429 면

### • 세종 5년 1423년 3월 05일

#### - 전라도 영암 등의 소금 창고에 소속된 염간들을 번서게 하고 신공을 면하게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 수군 안무사(水軍安撫使)의 통첩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영암(靈巖)·나주(羅州)·영광(靈光) 등 각 고을의 소금 창고에 소속된 자은(慈恩)·암태(巖泰)·파지두(波之頭)·완포(莞浦) 등지의 염간(鹽干)으로 일찍이 왜적을 잡은 공로가 있어 공패(功牌)를 받은 사람은 좌우번(左右番)으로 나누게 하고, 공패가 없는 사람은 이름을 써서 초록(抄錄)하여, 적의 변고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달려가서 변방을 방비하게 하고, 그 변방을 방비한 날수를 계산하여 소금을 공바치는 것을 제해 줄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원전】 2집 529 면

## 7. 활용방안

### 1) 역사유적자원의 자원화 구체 방안

- 암태도의 역사 유적 중 개별적으로는 두드러진 것은 없으나 암태면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자원이 많다. 따라서 개별적인 가치 조명보다는 주변의 유적들과 자원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 예컨대, 남강진은 최근까지 암태도의 주요 입출항지로 목포와 도초, 비금, 팔금 등을 오가는 통로였다. 이를 잘 설명하여 주는 것이 수사와 관찰사 비이다. 각종 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또 송곡리 매향비는 암태도에 조선 초기에도 주민이 거주하였음을 보여주고, 이들은 인근 해당리, 반사도 등에서 활엽을 구우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해당리의 활엽지, 송곡리의 우실, 조선시기 간척 제방, 큰골의 폐기 제방 등과 연계하면 좋은 테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그리고 추포노도비는 흔적이 잘 남은 노도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수곡리 노만사는 인근의 풍광과 약수터에 얽힌 지명과 설화는 좋은 스토리텔링의 소재감으로 적합하고, 문진현비는 수곡리의 마을 내력을 설명에 유효한 자료이다. 또 북강진 나루는 자은과 소통하였던 옛 통로이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작은 표석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 2) 간척자원으로 마을의 특성화 방안

- 신안군 암태면의 간척제방은 시대별로 분류하면 총 100여 개소에 이른다. 보기 드물게 미완성 간척제방도 11개소에 이르는데, 맨손으로 간척하다 중단된 것들이다. 간척지 제방은 초기에는 맨손으로 소규모 제방을 막기 시작하여 20여 년 전후부터는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루어 졌다. 맨손으로 축조된 옛 제방은 해일에

대비하여 대부분 보수되었다. 이러한 제방의 축조로 생성된 간척지는 대부분의 논과 약간의 염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 그 결과 암태면 주 산업이 어업에서 농업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토지 생산성의 향상으로 많은 사람이 간척지 주변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노도, 활염지, 포구 등이 소멸되었다.
- 그런데 해당마을의 베타는 잔존하는데 희귀하여 보존과 복원할 가치가 크다. 이러한 유적과 의미있는 제방들은 암태면의 소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그 내력을 새긴 작은 표석이라도 세웠으면 한다.
- 특히 중흥마을의 경우는 간척으로 인하여 빈촌에서 부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마을민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17처에 제방을 막았다. 그 스스로 개척정신은 높이 평가된다. 이러한 정신은 주민자치제에서 매우 필요하고, 주민 주체정신의 표상이다. 신안군에서는 간척역사마을로 지정하고 그 정신을 높이 숭양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스토리화하여 널리 홍보하면 주민 자주정신을 드높이고 신안군과 암태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 또 마명 제방으로 생성된 마명간척지의 경우는 암태면 최대의 간척지이다. 마명간척지에서는 간척지 면적의 확산과 주변 마을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상부의 작은 간척지는 도창, 와촌, 장고, 신기 등 마을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간척지 중부는 암태도 소작쟁의의 발단이 되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3) 암태도 역사의 길(소작쟁의 관련 히스토리 로드)

- 위치 : 암태면 기동리, 수곡리, 와촌 등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사적지
- 활용방안: 일제하 대표적인 소작쟁의인 암태도농민운동을 주제로 테마 탐방코스를 개설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이자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활용장점 :

- 일제하 가장 대표적인 농민 소작쟁의로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음.
- 관련 소설(암태도, 암태도 소작쟁의)이 발간되어 문학작품으로도 유명함.
- 서태석, 박복영, 문재철 등 관련 인물들의 스토리가 다양함.

• 사업 방향 :

- 암태도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적지, 중심인물 관련 생가 등을 연결하는 테마로 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순례 방식의 관광을 유도함.
- 일제하 승리한 농민운동으로 암태도 농민운동의 역사와 상징성을 활용한 이색적인 관광코스로 조성.
- 현재 조성되어 있는 소작쟁의 기념비, 서태석기념비 등을 활용하고,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적지를 포인트별로 설정하여 탐방코스로 활용.
- 사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동선과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인물(SIGN)을 설치.
- 암태도 농민운동 사적지를 안내하는 홍보물 제작 비치.
- 암태도 농민운동의 역사와 사적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가능한 전문가이드 육성.
- 암태도 농민운동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작은 기념관 건립

• 세부안 :

| 도입시설            | 주요내용   |
|-----------------|--|
| 농민운동 현장비 10곳 설치 | 암태도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적지 열 곳을 선정, 기념장소임을 상징하는 안내문 설치.               |
| 역사인물 생가정비       | 서태석, 문재철 등 중심 인물들과 관련된 생가를 정비 및 사적지로 활용.                     |
| 이동 동선과 사인물 설치   | 암태도 농민운동 사적지를 연결하는 동선 및 사인(sign)물 설치                         |
| 홍보물 제작 및 가이드 육성 | 관광객들이 암태도 농민운동의 현장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 전문적인 가이드 육성. |

#### 4) 암태도 소작쟁의 ‘아사동맹’ 상징물 조성

- 위치 : 암태면 와촌리 남강선착장 및 신석리 오도 선착장
- 활용자원 : 일제하 승리한 농민운동인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하여, 관련 드라마틱하고 암태도 농민들의 단결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주민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목포에서 ‘아사동맹’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당시 암태도 주민들은 남강 선착장 등 3곳에서 7척의 배에 분산 탑승하여 목포로 출항하였다.
- 활용방안 : 암태도의 대표적인 포구였던 남강 선착장 혹은 현재 암태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오도 선착장 등에 암태도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사동맹’ 투쟁과 관련된 상징물을 조성한다.
- 활용장점 :
  - 암태도 방문객들에게 암태도의 역사적 의미와 항일정신을 드높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 암태도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탐방코스이자, 포토존으로 활용성이 높다.

#### 5) 암태도 소작쟁의 자료집 발간

- 목적 : 암태도 소작쟁의가 대중 소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집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의도의 경우는 농지탈환운동과 관련된 기초 자료집이 발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암태도 소작쟁의 자료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암태도 주민들의 바람이다.
- 내용 : 암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각종 사료를 집대성하여 하나의 자료집으로 발간한다. 당시 신문자료집, 주민들의 회고문, 법원 판결문, 잡지 등 연재 기사

등을 한권의 책으로 묶고, 압태도 소작쟁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함께 수록한다.

• **활용장점 :**

- 압태도 소작쟁의의 역사성을 알리는 기초 자료집으로 활용한다.
- 보다 많은 학자들이 압태도 소작쟁의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압태도 문화관광자원 개발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 6) 압태도의 소금쟁이 ‘염간’ 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사업 전개

• **위치 :** 압태면 일대

• **활용자원 :** 조선왕조실록 태종8년(1408년 2월 03일) 기록에 등장하는 압태도 염간(鹽干)의 왜적 격퇴 기사를 천사섬 신안군의 소금 생산의 전통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이자, 신안섬이 지닌 국토 경계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료(문화콘텐츠 사업의 원소스)로 활용.

• **활용방안 :** 실록에 등장하는 관련 기사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사업 전개.

• **활용장점 :**

- 천사섬의 소금 생산 전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사업 가능.
- 국토 수호의 요충지로서 신안군 다도해가 지닌 역사성을 보여주는 콘텐츠.
- 압태도 염간을 소재로 한 만화, 소설 등 제작 활용.



## 암태면편

# IV. 민속문화

송기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교수

### 1. 조사개요

### 2. 추포도 노두

### 3. 송곡리와 익금마을 우실

- 1) 송곡리 우실
- 2) 익금리 우실


### 4. 당제, 기우제, 농악, 허새비 띄우기

- 1) 송곡리 당제와 농악, 허새비 띄우기
- 2) 도창리 당제와 농악(걸궁)
- 3) 추엽리 당제와 허새비 띄우기
- 4) 기우제

### 5. 열두 달 세시풍속

### 6. 활용방안

- 1) 노두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의 단결과 관광적 활용
- 2) 우실의 관리와 확대 적용
- 3) 허새비 띄우기와 농악의 축제적 재현



# IV 민속문화

## 1. 조사개요

암태도는 노두와 우실로 유명한 섬이다. 1970~80년대부터 故최덕원 교수가 노두와 우실을 조사하여 자료를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자료를 참고하면서 노두와 우실의 기능과 관리, 유래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당제의 경우 어업이 강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추포도나 송곡리, 신석리 등은 바다의례와 허새비 띄우기를 진행했었고, 도창리처럼 바다가 옆에 있어도 어업을 하지 않는 마을은 제사 날짜도 보름이고 의례도 바다와 관련이 없었다. 당제와 더불어 기우제, 농악 등도 파악하였다. 농악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도 연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2013년 2월 13일     | 사전답사                      |
| 2013년 2월 18일~21일 | 암태도 도창리, 추포리, 단고리, 와촌리 답사 |
| 2013년 7월 6일      | 암태도 익금리, 송곡리, 추포리, 단고리 답사 |
| 2013년 7월 23일     | 암태도 익금리 답사                |

[표 1] 조사목록

| 번호 | 명 칭                    | 위 치                | 현존유무   | 비고 |
|----|------------------------|--------------------|--|----|
| 1  | 추포도 노두                 | 암태면 추포리와 수곡마을 사이   | 일부 잔존  |    |
| 2  | 송곡리 우실                 | 암태면 송곡리            | 현존   |    |
| 3  | 익금마을 우실                | 암태면 신석리 익금마을       | 현존, 관리 요망                                    |    |
| 4  | 송곡리 당제,<br>허새비 띄우기, 농악 | 암태면 송곡리            | 당제(1950년대 중단)<br>허새비 띄우기( )<br>농악(1980년대 중단) | 신규 |
| 5  | 도창리 당제, 농악             | 암태면 도창리            | 당제(1960~70년대 중단)<br>농악(1980~90년대 중단)         | 신규 |
| 6  | 추엽리 당제, 허새비 띄우기        | 암태면 추포리 추엽마을       | 1950년대 중단                                    | 신규 |
| 7  | 기우제                    | 암태면 전체             | 1970년대 중단                                    | 신규 |
| 8  | 세시풍속                   | 암태면 신석리 익금마을(조사지역) |  | 신규 |

## 2. 추포도 노두

조사일시 : 2013년 2월 19일, 7월 6일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추포리

제 보 자 : 김상문(남, 1937년생, 77세), 문천수(남, 1961년생, 53세)

### 1) 유래

추포도 노두의 첫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도와 추엽도로 연결되

는 방조제 끝부분에 오래된 공덕비가 하나 서 있어서 대강이나마 그 역사를 짐작할 따름이다. 이 공덕비에는 '路道碑'이라는 선명한 기록과 함께, 주요 시주자들인 '장씨', '문씨', '김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 내용으로 보아 노두길을 개보수하는데 큰 시주를 한 공덕을 기념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비가 포도리에도 있었지만 유실되었다고 전한다. 이 비문에 병인(丙寅)년이라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고 추엽리 문천수 이장의 6대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800년대 초반에 노두가 개보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와 관련해 구전으로 전하는 이야기도 있다. 과거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섬을 떠나 구걸을 하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갯벌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노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갯벌에 빠져서 죽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노두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어느 병자년(丙子年)에 추포도 사람들은 극심한 흉년으로 기근에 시달렸다고 한다. 당시 추포도는 추엽과 가섬, 오도로 나뉘어 있었고 노두가 놓이지 않아 배를 타고 암태도로 이동하던 시절이었다. 섬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나 둘씩 섬을 떠나기 시작했다. 인근 섬으로 구걸을 가기도 하고 멀리 육지와 제주도까지 나가서 식량을 구하기도 했다. 섬을 나간 사람들은 구걸이라도 했지만, 섬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죽고, 섬을 나가기 위해 갯벌 위를 걷다가 그대로 묻혀 죽었다. 섬을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섬으로 들어왔을 때는 곳곳에 시체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섬에서는 죽은이들을 큰 웅기(독)에 담아서 독다물로 묘지를 조성하고, 사람들이 섬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노두를 놓았다고 한다.

“옛날 병자년 그 후로 했는갑디다. 여기서 모두 탄 데로 나갔는가비여. 먹을 것 없은게. 갔다 온게 노두 뻔로 빠져있고, 저 동네에서 뭐 사가지고 오다가 빠져 죽어서 밀려있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굶어죽은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그때 봄에 얻어먹으러 갔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었답디다. 시체를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동네 지나른 거가 독담이라고 거기다 독으로 묻어났던가비여. 우리 아이들도 독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디 굶어죽어 버려서. 그래서 그 후로 했는 모양입니다. 노두도 없기 때문에 뻔로 빠져서, 보

리쌀 한 말씩 풀아서 이 근처에서 오다 빠져 죽어갔고 집 앞에 시체가 밀려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부 때 이야기여. 우리 조부님이 세 살 먹어 병자였다네.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우리 조부는 제주도까지 얻어먹으러 갔다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거기 먹으러 간다 한사람들은 낫은디, 애가 막 보채면 즈그 엄마가 애기 젓까지 뺏어먹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 살라고.” (2013년 7월 6일 포도리 김상문 씨 구술)



[사진 1] 추포도 노두비

## 2) 위치와 형태

노두의 위치는 현재 추포도와 암태도를 잇는 승봉로(2번 국도) 옆에 조성되어 있었다. 이 노두는 ‘Y’ 자 모양으로 추포도 추엽리와 포도리, 암태도 수곡리를 연결하였다. 갯벌 위에 자연적으로 노두를 놓은 것으로, 2.5km의 길이에 수천 개의 돌이 놓여있었다. 사람에 따라 돌의 개수는 달리 파악하는데, 수를 세어 본 사람에 의하면 3,653개 정도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노두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노두는 중간 중간 갯고랑(개웅)을 건너는 다리도 만들어져 있었다. 큰 돌을 많이 사용하여 개웅 양쪽에서 돌을 쌓아 올리고, 양쪽을 통나무로 연결한 다음 그 위로 돌을 얹은 형태였다. 이 노두는 물때에 따라 썰물 때는 수면 위로 드러나고, 밀물 때는 수면 밑으로 잠겼다. 그래서 노두는 썰물 때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사진 2] 노두 위치도



[사진 3] 1985년 7월 노두 사진(故 최덕원 자료)



[사진 4] 1985년 7월 노두 사진(故 최덕원 자료)

### 3) 관리 및 보수

노두의 보수는 주로 갯벌에 박혀있는 돌을 뒤집는 것이었다. 노두 보수하는 것을 '노덧일 한다' 또는 '뽕을 친다' 라고 했다. 노두를 관리하는 일은 갯벌 위의 노덧돌

을 뒤집어 이끼가 끼는 것을 방지하고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갯벌 흙을 모아주는 일을 말한다. 이 시기에 ‘뽕을 치면 돌덩어리처럼 팡팡하다.’고 하였다.



[사진 5] 1985년 7월 노두 다리 사진  
(故최덕원 자료)



[사진 6] 2013년 현재 노두의 잔존현황

노두는 조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기 때문에 돌 위에 물이끼가 끼어서 노두가 미끄러워지곤 했다. 특히 봄철이면 물이끼가 급속히 자라기 시작해서 노두가 파랗게 변했다. 따라서 물이끼가 많이 자랐을 때 돌을 뒤집어서 안정적으로 노두를 건너기 위해 음력 6월과 7월 즈음에 노두일을 하였다. 추포도에서는 매년 음력 6월 23일 조금이나 7월 초하루 조금으로 날을 받아 노두일을 진행했다. 시기적으로 음력 6월과 7월 사이의 조금 때는 노두일을 하기에 최적이었다. 음력 6월 23일 조금 물때는 간조가 낮 12시 43분이고, 만조가 저녁 8시 14분이어서 낮 시간대에 장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금 물때에는 물이 천천히 차오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 과거 1950년 6·25 전쟁 때에만 8월 23일 조금으로 미뤄서 노두일을 하였다.

[표 2] 2013년 음력 6월 23일 조금시기 목포지역 조석표

▲:고조 / ▼:저조

단위 : cm

| 날 짜       | 음 력   | h:m (height)  | h:m (height)  | h:m (height)  | h:m (height)  |
|-----------|-------|---------------|---------------|---------------|---------------|
| 2013.7.30 | 06/23 | 00:15 (149) ▼ | 07:25 (390) ▲ | 12:43 (114) ▼ | 20:14 (399) ▲ |

출처 : (국립해양조사원 <http://www.khoa.go.kr/>)

“이번 (음력) 6월 스무사흘이나 7월 초하래 조금에 이틀째 와서 뒤집었어. 이 밑에 독(돌)이 크게 산에서 나무가지고 와서 눌러서, 그 큰 독(돌)을 어떻게 했든고 대어섯이 못들 독(돌)을 갖다놔어. 6월 스무사흘 조금에 물이 제일 많이, 물때가 길 때 조금이라, 물이 길어서 아침에 밥 먹고 가면 4시경에나 들어와. 그랬어. 여기 다녀온지가 올해 15년 되었어. 98년 때 그 전날까지 했는데. 돌 안 뒤집으면 봄 되면, 이끼가 퍼렇게 끼면 무지하게 미끄러워. 그러면 자빠져. 뒤집으면 또 안 미끄럽고 좋은데. 아홉 살 때부터 저기 단고리로 학교 다녔어. 걸어다녔제.” (2013년 7월 6일 포도리 김상문 씨 구술)

노뚝일을 할 때는 추포도 사람들 전체가 참여했다.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나와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 노뚝일을 하는 날에는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하였고, 암태면사무소에서 술과 음료수 등을 제공했다.

당시 노두는 ‘Y’자 형태로 되어서 추엽마을과 포도마을에서 시작하여 중간지점에서 만나 수곡마을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추엽마을과 포도마을은 서로의 마을 쪽 노두부터 뒤집기 시작해 중간에서 만났다. 중간부터는 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노두를 뒤집었다. 비교적 큰돌은 지렛대를 이용해 뒤집었고 작은돌은 손으로 뒤집었다. 돌이 너무 커서 지렛대로도 뒤집기 힘들 경우 그대로 두고 바닥을 닦아냈다.

“갯고랑 다리는 저도 이장 할 때 보수를 해봤는데 그건 아무나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무를 길이를 맞춰 잘라가가지고 뿔 위로 꽂고 가던지, 배로 실어다 그 지점에 말뚝을 박어놓고 하고, 돌을 놔요 요렇게. 그러면 돌을 양쪽에서 걷어내요. 하나씩 하나씩 얹어다 놓고 해놓고는 나무를 놓고 다시 그 돌을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는다는 얘기죠. 돌다리가 있었어요. 그런 다리를 할 때는 그렇게 일을 했죠.” (2013년 2월 19일 추엽리 문천수 씨 구술)

노두에서 갯고랑(개웅) 사이의 다리를 보수하는 일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먼저 큰 통나무를 준비하여 갯벌에서 끌거나 배로 실어서 다리 근처로 옮긴다. 그리고는 다리에 놓인 돌들을 제거하고, 연결목으로 사용한 통나무를 교체한 후 그 위에 다시 돌을 놓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 7] 2000년에 개통한 현재의 노두길

### 3. 송곡리와 익금마을 우실

#### 1) 송곡리 우실

- 조사일시 : 2013년 7월 6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 제 보 자 : 김금동(남, 1940년생, 73세), 박정자(남, 1943년생, 70세)
- 참고문헌 : 최덕원, 『남도민속고』, 삼성출판사, 1990.

#### (1) 유래 및 관련의례

우실은 마을 비보와 관련되어 유래담이 전한다. 1980년대 최덕원의 조사에 의하면, 1905년 마을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마을의 번창과 우환을 막으려면 담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어 수목의 우실이 있던 좌우에 석장을 길게 축조했다고 전하며, 당시부터 팽나무 3주가 돌담 속에 끼어 있었다고 한다. 그 스님의 말처럼 이 우실의 축조로 재액과 북풍을 막고 흉산(凶山)이 보이지 않아 더욱 강녕하며 풍요롭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유래는 지금까지 마을에 전한다.

“그 우실, 어르신들 얘기는, 중이 지나가시다가 불품이 없잖습니까. 거기를 쌓아야 동네가 액이 없고 건강하다고 쌓았다고 그래요. 저쪽 (자은도) 유천 쪽에 가면은 여기 바다가 보인다고 그래요. 우실을 안 쌓았을 때는, 그래서 동네가 좋은일이 없으니까 그걸 쌓아야 된다고 해서 그걸 쌓아갔고, 거기까지 걸궁도 치고 뭐도 받고, 거기도 막으니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쪽 마을에서는 인자 자기들이 그 마을에 해가 있다고, 막아놓으니까 그 마을에서는 대우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전에 굿을 치러 가서……. 동네에 액이 있다고 해서 쌓으라 해서 쌓았다고 해요.”

이번 조사에서는 건너편 자은도 유천마을 쪽에서 바라보면 송곡리 일대가 바라다

보일 정도로 뚫려 있기 때문에 마을 입구를 가려야 한다는 유래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905년으로 알려진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 (2) 위치와 형태

송곡리는 북쪽 해안가와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 입구에서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우실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 입구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팽나무를 심고 돌담을 쌓아놓았다. 과거에는 두 직선의 돌담이 교합되는 지점에 나선형(螺旋形)의 출입문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일부분을 헐었다. 좌우 측 돌담의 길이는 90m, 높이 2.7m, 하단 폭 3m~4m, 상단 폭 1m~1.5m, 좌·우 돌담간의 거리는 4m이다.

## (3) 기능 및 관리

우실은 마을 입구를 감싸고 있어서 마을의 대문과 같은 기능을 하고, 환경적으로는 북풍 하늬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마을 입구는 북서쪽이면서 지대가 높아 조금만 가리면 북풍을 막아내기에 적절하다.

우실이 훼손되거나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할 경우 연말 동계 회의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동계는 매년 연말에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자리이자 모임 그 자체이다. 동계 회의가 개최되면 결혼을 한 사람들이나 좋은일이 있는 사람들이 술을 내서 잔치 분위기를 조성한다. 회의에서는 새해의 노동 품삯을 결정하고, 마을 동계에 대한 논의도 하고, 새로운 이장도 선출한다. 이때 우실에 대한 논의를 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날짜를 택일하여 일정을 정리한다. 보통 우실을 보수하는 시기는 봄철이다. 송곡리에서 우실을 마지막으로 보수한 해는 1960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돌담에서 돌이 빠지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발라 고정하고 차량의 소통을 위해 나선형 출입문을 헐어내었다.



[사진 8] 1985년 7월 송곡리 우실 (故최덕원 사진자료) [사진 9] 2013년 7월 송곡리 우실 원 사진자료)

## 2) 익금리 우실

- 조사일시 : 2013년 7월 6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익금리
- 제 보 자 : 김명기(남, 1937년생, 77세), 양유자(여, 1936년생, 78세)
- 참고문헌 : 최덕원, 『남도민속고』, 삼성출판사, 1990.  
신안군,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유적』, 2006.

### (1) 유래

1830년경 오씨가 마을에 와서 익금, 신석 일대를 돌아보고 방풍 및 방파제로 사대문을 건립하여 농치를 동문, 생김을 서문, 오루골을 남문, 익금을 북문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북문인 익금 우실만 남아있다고 한다. 1980년대 최덕원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350여년 전에 오씨가 입도하여 우실을 조성하였다고 한다.

## (2) 위치와 형태

익금마을 우실은 돌담과 나무가 함께 우거져 있는 형태다. 마을 북쪽에 형성된 야트막한 산(72.9m)과 산(61.9m) 사이에 나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내·외의 돌담과 20여 주의 팽나무 노거수림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돌담의 크기와 관련해 80년대 최덕원 교수가 조사했을 당시에는 “내석장(內石牆)은 길이 30m, 높이 2.1m, 폭 1.9m이며 외석장은 길이 35m, 높이 2.1m, 폭 2m, 내외 석장간의 거리는 2.2m이다.”라고 하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서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어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인 크기도 “서벽은 크기 150cm, 너비 154cm, 길이 400cm이다. 동벽은 잘 남아있는데 크기는 높이 236cm, 너비 190cm(하단)~80cm(상단), 길이 33m 이나 양 벽이 끝으로 갈수록 잡목이 우거져 정확한 길이는 확인하기 어렵다. 서벽과 동벽 사이의 트여진 출입구의 폭은 480cm이다.”라고 하여 변화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우실의 입구는 과거에는 나선형(螺旋形)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에 의하면 1975년경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경운기의 소통을 위해 나선형 출입구를 헐어내고 지금처럼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 (3) 기능 및 관리

우실은 마을 북쪽에 조성되어 있어서 북풍 하누바람을 막아준다. 북풍을 바로 받는 위치에 돌담을 쌓고 마을 안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2중으로 바람을 막고 있다. 겨울이면 바다를 통한 북풍이 거세게 불어서 눈발이 우실을 넘어 마을까지 넘어올 정도기 때문에 바람막이로서 우실의 기능이 중요하다. 여름에는 마을 사람들의 피서지로도 기능한다. 나무가 우거져있고 우실 사이로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우실에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곤 한다. 또 앞에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들어와서 쉬기도 한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데 이로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밖에는 바 다니까 그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을 수도 없고, 바람막이. 여름에 가서 피서를

거기서 한 거여 옛날에. 참 시원하거든 한낮에. 그라고 그 바다 장벌이 돌로 되어있어. 거기서 해수욕도 하고. 우리 동네가 사방이 돌리싸여져 있는데 거기 북쪽이 유일하게 알아. 우리 마을에는 북쪽 대문이어.”

우실은 현재까지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동계 회의를 통해 날을 받아 우실을 보수하고 관리해왔다. 대체적으로 음력 3월 봄철에 울력을 하여 우실을 보수한다. 돌담에서 돌이 빠져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쓰러진 고목과 주위의 잡목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 나왔어. 한 사람씩. 돌이 빠질 때가 있어요. 다 채우고 지금 상태는 그때 하고 보면은 아주 훼손되어 있는 상태지. 협동심이랄까 그런 것이 좀 무뎠다 할까? 지금 사람은 없고 농사일 하면서 하기는 힘들고. 옛날에는 협동심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개인적인 예전하고는 다르고. 하루가지고 끝내 일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연중 한 번씩 하니까 행사처럼. 대부분 하루 안하고 끝나. 그 아래 풀 같은 거 베고, 버려진 오물 같은 거 깨끗이 치우고. 우실에서는 그냥 행사 같은 거는 없었어. (우실을 훼손할 경우) 그때는 그런 사람은 벌금을 문다던가 가볍게 넘어갔어요.”



[사진 10] 2013년 7월 익금리 우실

## 4. 당제, 기우제, 농악, 허새비 띄우기

### 1) 송곡리 당제와 농악, 허새비 띄우기

- 조사일시 : 2013년 7월 6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 제 보 자 : 김금동(남, 1940년생, 73세), 박정자(남, 1943년생, 70세)

#### (1) 당제

송곡마을에서는 음력 정초에 당제를 지냈다. 매년 마을의 당과 사장, 우실, 바닷가 등에서 의례를 행하고 축제적 연희를 펼치다가 1950년대 6·25 전쟁 전후로 중단되었다. 1950년대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당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구술을 통해 당시의 당제 내용을 파악해본다.

송곡마을의 당제는 매년 정월 초순에 거행되었다. 당제는 안산의 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사장나무와 우실, 공동우물 등에서 의례를 행한 후 바닷가에서 허새비(허수아비)를 띄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제의 제장은 당과 사장, 우실, 바닷가 등이다. 당은 마을 서남쪽 안산에 위치해 있고 신체는 팽나무로 된 노거수였는데 수령이 오래되어 고사했다. 마을 가운데의 사장에서도 제사를 지냈다. 서남해지역에서는 육지의 당산을 사장이라고 하고 당산나무를 사장나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송곡리에서도 마을 가운데 위치한 당산을 '사장'이라고 하고 그 나무를 사장나무라고 한다. 당 근처에



[사진 11] 송곡리 당제 제보자 김금동, 박정자 씨 부부

는 당쌌이 있어서 당제를 지낼 때 그 물로 제물을 장만하였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관도 별도로 선정하였고, 제관이 되면 당쌌에서 목욕재계를 하여 몸을 깨끗이 했다.

## (2) 허새비 띄우기

당제에서 특징적인 점은 허새비 띄우기다. 허새비 띄우기는 바다제사의 일환으로서 축제극적 연희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송곡리에서는 허새비를 ‘김천지 영감’이라고 불렀다. 당제일이 다가오면 마을에서 짚으로 허새비를 만들었다. 크기는 보통 사람 정도의 크기이고 얼굴을 종이에 눈코입을 그려서 붙였다. 마을의 사장 아래에서 허새비를 만들어 봉안해두었다가 사장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함께 제사하고 바닷가로 이동하여 띄워보냈다. 허새비와 관련된 의례를 사장에서 진행했는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행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응. 김천지영감이라고 허새비를 만들어갖고 거기다 돈도 채우고 해서 잘 가라고 저 바다에 띄웠어요. 그렇게 띄워서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짚으로 만들어갖고 종이를 해서 만들었죠. 얼굴 다 했지요. 그라고 가마에 띠어 가지고 거기다 돈도 많이 채워가지고 바다에 띄어요. 안 뜨면은 옷 벗고 들어가서 밀고 저리다가 밀고, 사람크기로 만들었죠. 허새비한테 ‘이거 먹고 가시오~’ 이렇게 그렇죠. 돈도 놓고 복도 빌어주라 하고 다 얘기를 했지요.

허새비를 들고 이동할 때는 손가마를 하듯이 사람들이 땀다. 사람들이 소리를 하거나 걸긱(농악)을 치면서 바닷가로 이동하여 내려놓고, 허새비에 음식을 먹이고 돈을 채워 띄워 보냈다. 허새비에 대한 의례적 행위는 제사보다는 술과 음식을 권하면서 복을 기원하고, 액을 실어보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현재 구체적인 연행내용은 파악할 수 없지만, 허새비와 주민들이 문답을 하면서 연극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허새비 띄우기는 바다 물때에 맞춰서 진행했다. 물이 만조가 되었을 때 허새비를 띄워보내는데 이때 허새비가 멀리 떠나가야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새비가 잘 뜨지 않을 경우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서 바다쪽으로 끌거나 밀었다. 허새비 띄우기

를 했던 장소는 지금의 송곡리 1번지 정도에 해당한다.

### (3) 농악(걸굿)

송곡리에서는 농악을 ‘걸구’ 또는 ‘걸굿’ 이라고 부른다. 걸구는 당제와 마당밧이를 행하는 제의악으로 기능하였다. 그래서 사장나무나 우실, 공동우물,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면서 걸구로 의례를 행하고 제액초복을 기원하였다. 걸구의 연행은 신명나는 축제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정초부터 보름까지 이어지는 당제 기간에는 마을 전체가 걸구 소리로 넘쳐났다. 당제는 일찍이 중단되었지만 걸구는 1980년대까지 연행되었다.

“그 인자 동네에서 필요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했지요. 돈 내놓기도 우리가 찬조를 받으려 하면 얼른 줍니까? 자꾸 주라하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십시일반으로 하자해서 그렇게 했지요. 잘 산 사람들은 많이 냈지요. 그 집에 가서 주인네는 술도 내놓고 어디가서는 부잣집가면 대접해주고 그라제. 옛날이 좋았어. 인심이 못 먹고 못 살아도 콩 한조각도 나눠먹었어 지금은 인심이 각박해졌어. 상쇠가 아무튼 그것을 다 맡아서 했어요. 창부쟁이가 다 맡아서 했어. 가운데 선 사람이 돈 뜯은 사람이 그 사람이여. 돈 뜯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도 못하면 하도 못해. 연습도 해야제. 그거 할라고 꼬깔 만들고 색칠하고 전부 만들고, 띠 만들고. 옛날에는 한복이 있었잖아. 한복에다가 띠하고 했제.”

걸구의 연행 기간을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월 당제를 시작으로 길게는 보름에서 짧게는 3~4일간 걸구를 쳤다. 걸구의 연행의 길고 짧음은 마을의 공동기금 마련과 관련되어 있었다. 마을에서 공동기금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마을에 속한 가정집 전체를 돌면서 마당밧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잣집이나 새로 성주를 올린 집 등을 대상으로 마당밧이를 했기 때문이다. 마당밧이는 집의 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마래와 부엌, 장독대, 곳간, 마당 등을 돌면서 행했다. 간혹 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마을에 협조를 구하고 걸구패를 꾸려 마당밧이를 하고 쌀과 돈을 건넸다. 다른 마을로 걸립을 갈 경우에는 마을에서 나갈 때 날당산굿을 치고, 다

시 들어올 때 들당산긔을 친다.

걸구의 연행을 마친 후에는 전체 결산보고를 했다. 걸구의 악기와 복색 등을 마련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마당밧이를 통해 모금한 수입을 정산하여 마을에 보고를 하였다. 걸구패의 악기와 치배 구성을 간략히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 영 기 : 기수 2명이 ‘슈’이라고 쓰인 깃발을 각각 1개씩 들고 다닌다.
- 나 발 : 나발수 1명이 걸구의 연행 시작과 끝을 알리며 나발을 분다.
- 쇠 : 쇠잡이는 보통 3~4명으로 구성되고, 쇠잡이의 우두머리를 상쇠 또는 설쇠라고 한다. 상쇠는 머리에 상모를 쓰고 흰색 한복에 삼색띠를 맨다. 나머지 쇠잡이는 머리에 고깔을 쓰고 흰색 한복에 삼색띠를 맨다.
- 징 : 징잡이는 보통 1~2명이 편성되고 가락의 주요 박자에 맞춰 징을 친다. 복색은 일반 쇠잡이처럼 고깔을 쓰고 흰색 한복에 삼색띠를 맨다.
- 장 구 : 장구잡이는 보통 1~2명이 편성되고, 복색은 징잡이와 같다.
- 북 : 북잡이는 1~2명 정도로 편성하거나 악기 자체를 편성하지 않기도 한다. 복색은 징잡이와 같다.
- 소 고 : 소고잡이는 다다익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편성한다. 그래서 보통 열댓 명 정도 참여한다.
- 포수쟁이 : 얼굴에 광대(가면)를 착용하고 목총을 들고 다닌다. 가면은 두꺼운 종이에 구멍을 뚫고 분장을 한 형태다.
- 창부쟁이 : 얼굴에 광대를 착용하고, 각설이처럼 옷을 ‘벌렁벌렁하게 입는다’고 한다. 마당밧이를 할 때 우스개짓을 하여 집주인을 웃기고 쌀과 돈을 받아낸다.
- 빼비각시 : 남자가 여장을 하는 것으로, 얼굴에는 스카프나 수건을 쓰고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얼굴을 여자처럼 예쁘게 화장하여 여자처럼 보이게 한다. 웃고름을 잡고 춤추고 놀면 주위에서 장난을 치며 놀린다.
- 양 반 : 양반처럼 꾸미고 담뱃대 들고 다닌다.

## 2) 도창리 당제와 농악(결궁)

- 조사일시 : 2013년 2월 18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 제 보 자 : 조은식(남, 1935년생 79세), 박박지(남, 1936년생, 78세), 허창식(남, 86세), 고준태(남, 70세), 김귀남(남, 70세), 고영규(남, 76세), 박성원(남, 72세)
- 참고문헌 : 최성환,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신안문화원, 2008.

### (1) 당제의 중단과 당집의 보존

도창리 당날산 자락에 당집이 잘 남아있다. 당집은 2칸 규모의 당집과 당을 둘러싼 돌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건물은 내부 상량문 기록에 따르면 1884년 이전에 중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원래 위치는 도창마을 당동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근을 지나가는 배들이 이곳에 치성을 드리지 않으면 해를 입는 등 영험함이 남달랐다. 그 영험함과 엄격함에 두려움이 작용했는지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앞 산자락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당집을 새로 건립했다고 한다.

당을 이전할 당시 감독관은 고정수(高廷洙)였고, 도편수는 손준석(孫俊錫)이었다. 이후 1946년(병술)에 한차례 더 중창한 것으로 보인다. 제당의 지붕 기와는 원래 노만사의 사찰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을 노만사 중창시 이곳 제당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제당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번은 주변 산에 큰 불이 났는데도 불길이 당을 보호하고 있는 돌담 안으로는 근접하지 못해



[사진 12] 도창리 마을회관 면담장면

당이 무사했다고 한다.

당제는 정월 대보름에 지냈다. 마을에서 운 때가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제주로 선정하였다. 제주로 선정된 사람은 2~3일간 목욕재계하여 공을 들이고, 집 앞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걸어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였다. 당에도 황토를 놓고 금줄을 걸었다. 당제의 제물은 소머리를 비롯한 각종 고기와 나물, 생선 등이었다. 이들 제물은 당샘의 물을 이용하여 요리하였다.

## (2) 마을의 기금마련과 걸궁

제주들이 당제를 마치고 나면 마을에서는 걸궁(농약)패를 집집마다 마당뵈이를 했다. 당제를 지낼 때 걸궁을 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걸궁패가 마을 저수지까지 올라가서 당을 향해 인사하는 당굿을 쳤다는 것은 확실하다. 당굿을 친 다음에는 공동샘으로 이동해서 샘굿을 치고 마을의 각 가정을 돌며 마당뵈이를 하였다. 마당뵈이는 대문에서부터 시작해 마루굿, 부엌굿, 마당굿, 장독대굿 등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액막이를 하였다. 걸궁패가 집으로 들어서면 집주인은 고사상과 음식상을 준비했다. 그러면 포수나 창부쟁이 등이 앞으로 나서서 집주인을 웃기고 덕담을 하며 춤추고 놀았다. 걸궁이 왕성했던 1960~70년대에는 가가호호 전체를 돌면서 마당뵈이를 하고 인근 단고리까지 가서 걸궁을 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젊은층이 줄어들고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쇠락하다가 80~90년대 들어서면서 중단하게 되었다.

도창리의 경우 타 마을에 비해 저수지가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고, 유지와 보수가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도창리 앞 들녘은 저수지 물로 인해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저수지 물은 도창리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고 단고리 사람들도 일부 이용했다. 들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유한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저수지 물을 공유하는 단고리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여 걸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수지를 이용하는 대가'였던 셈이다.

도창리에서는 걸궁을 통해 추가로 있던 청년회관을 돌로 짓고, 마을자금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공공사업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걸궁을 꾸려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걷히도록 하였다. 보통 사람들에게 돈을 각출하자고 하면 잘 내지 않지만, 걸궁을 하면서 돈을 거출하면 부잣집은 많이 내고 가난한 집은 적게 내어

더 공평하게 돈을 걷을 수 있었다. 걸궁패의 악기와 치배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 기 : 영기수 2명이 걸궁패 앞에 서서 ‘슌’이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다닌다.

새납(쇄납) : 걸궁을 치는 동안 장단에 맞춰 새납을 분다.

농 기 : 농기수 1명이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만장형식의 기를 들고 다닌다.

쇠 : 2~3명 정도로 편성되고, 제일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한다.

징 : 2명이 편성되어 주된 박자에 징을 친다.

장 구 : 1~2명 정도로 편성되고 장구를 치는데, 상황에 따라 편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북 : 1~2명 정도로 편성된다.

소 고 : 보통 열댓 명 정도로 편성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

포 수 : 걸궁패의 제일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마당밧이를 할 때에 축원과 덕담을 한다. 나무총 메고 다니면서 총 쏘는 흉내를 낸다. 머리에는 과일망태를 이용해 만든 관을 쓰고, 등에는 망태를 짊어진다.

뼈비각시 : 젊은 남자가 치마저고리를 입고 여장을 한다. 머리는 수건으로 감싸고 얼굴은 여자처럼 화장을 한다. 판을 벌여서 놀 때는 무동처럼 다른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가서 춤을 춘다.

창부쟁이 : 각설이처럼 ‘더풀더풀하게’ 옷을 험하게 입고 다닌다. 얼굴에는 노루가죽으로 만든 광대를 착용하고 우스개짓을 하면서 논다.

양 반 : 양반 복색을 하고 점잖게 논다.

### 3) 추엽리 당제와 허새비 띄우기

- 조사일시 : 2013년 7월 6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추포리
- 제 보 자 : 김상문(남, 1937년생, 77세)

추엽리는 마을 서쪽 산자락에 당집이 있었다. 매년 제관을 선정해서 당제를 지내고 바다에서 허새비(허수아비)를 띄워보냈으나 1950년대를 지나면서 중단되었다. 그 후 당집을 헐고 그 돌로 교회 종각을 세웠으나 그 교회와 종각도 헐리고 없다.

추엽리의 당제와 관련해 마을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허새비(허수아비) 띄우기다. 허새비는 짚을 이용해 사람 크기로 만들었다.

얼굴은 종이나 천으로 감싸서 숯검정으로 눈코입을 그려 인형의 형상을 갖췄다. 허새비 띄우기는 당제의 맨 마지막 행사로서 마을 사람들이 갯가에 집집마다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후 허새비를 띄워보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갯가에서 진행된 제사와 허새비 띄우기는 물때에 맞춰 진행했다. 먼저 들물 때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썰물로 전환되는 시점에 허새비를 바다에 띄워보냈다.

갯가에서 지내는 제사는 매우 성대했다. 대부분의 집에서 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정에 따라 2~3개씩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갯가가 제상으로 준비하게 늘어선 상태에서 걸구(농악)를 치면서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마치고 허새비를 띄우러 갈 때는 2~3명이 허새비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서 띄워보냈다. 추포도와 암태도 사이의 수로가 좁기 때문에 특별히 밀어내지 않아도 빠르게 떠내려갔다.



[사진 13] 추포도 노두와 당제 제보자 김상문 씨.

## 4) 기우제

- 조사일시 : 2013년 7월 6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 제 보 자 : 김금동(남, 1940년생, 73세), 박정자(남, 1943년생, 70세)

암태도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여름 농사철에 가뭄이 들면 암태면의 전체 마을이 협의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를 지냈다. 대개 마을과 가까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봉화불을 피운 것처럼 곳곳의 산 정상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암태도에서 가장 높은 승봉산(355.5m)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것을 보고 동쪽으로는 박달산, 남쪽으로는 신기마을 뒷산 등에서 불을 피우며 기우제를 지냈다.

“아니 인자 몇 시에 피우자는 게 아니라 대봉산이 높으니까 피워놓은 거 보고 피우고 하제. 다 연락해서. 나도 이장일 할 때 데리고 가서 했어. 이 산 꼭대기에 비행장 만들어놨어. 다 한 번에 피우니깐. (그럼 이때 자은도 같이 피웠을 거고?) 같이 피제. 다 가문께. 여자들도 가 집집마다 한명씩.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 〈기우제 장소와 마을〉

대봉산 기우제 : 단고리, 도창리, 기동리 등등

박달산 기우제 : 신석리, 송곡리, 활목 등등

신기 뒷산 기우제 : 와촌리, 신기 등등

기우제를 지낼 때에는 집집마다 나뭇짐을 만들었다. 마을과 섬 주민 전체의 염원을 담은 행사이기 때문에 가정마다 나뭇짐을 만들고 1명씩 참가했다. 그래서 나뭇짐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로 지고 행렬을 이루어 산으로 올랐다. 산에 오르면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기우제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후에 나뭇짐을 모아 불을 붙였다.

## 5. 열두 달 세시풍속

- 조사일시 : 2013년 7월 23일
- 조사장소 : 신안군 암태면 익금리 마을회관
- 제 보 자 : 양유자(여, 1936년생, 78세), 정금덕(여, 1936년생, 78세), 강옥자(여, 70세), 성애순(여, 73세), 안소임(여, 74세), 강순매(여, 1936년생, 78세), 김종례(여, 73세)

익금리의 세시풍속은 농촌 절기를 중심으로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절의 차례는 설과 보름, 2월 초하루, 유두, 백중, 추석, 중구, 동지 등을 쇠었고, 이들 명절의 의례나 놀이가 대부분 농사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농사의 기후예측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모든 명절의 차례를 하루 전날 저녁에 지내고 있어서 서남해 도서해안지역의 전형적인 특징 또한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설 차례는 선달그믐 저녁에 차리고, 보름차례도 음력 1월 14일에 진행한다.

지금은 과거에 전승되던 다양한 세시풍속이 중단되고 축소되었다. 명절도 설과 추석만 쇠고 있고, 보름을 중심으로 행하던 마을굿과 각종 놀이들도 중단되었다. 그 와중에도 새로이 변화된 양상이 발견되는데, 어버이날이나 복날에 마을잔치를 벌이고, 피서철에 마을 대청소를 하는 등의 새롭게 행사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 ▷과거의 주요 명절과 행사

- 1월 1일 설 : 마래에 차례상, 세배, 성묘, 떡국, 설빔
- 1월 15일 보름 : 마래에 차례상, 찰밥(오곡밥), 불싸움, 더위팔기, 진대긋기
- 2월 1일 하루달 : 마래에 차례상, 콩볶아먹기, 영등(비영등, 바람영등, 불영등)
- 6월 15일 유두 : 마래에 차례상, 밀문지(밀을 갈아서 만든 전), 보리떡, 수수떡, 찐 옥수수
- 7월 15일 백중 : 마래에 차례상, ‘깨끗이 피면 머슴 상에 반찬 접시 하나 내린다.’
- 8월 15일 추석 : 마래에 차례상, 송편, 성묘, 강강술래
- 9월 9일 중구 : 안방에 차례상, 울며심리의 의미로 성주동우의 나락과 지양단지의 쌀을 교체

11월 동지 : 마래에 차례상, 11월 초의 애기동지에는 팔떡, 11월 중하순의 동지에는 팔죽

12월 말 : 마을 동계를 열어서 마을 대소사 결산. 품삯 결정, 공동자금 결산, 이장 선출, 결혼한 사람들은 술동우 내서 잔치, 풍기문란자 덕석말이

\* 모든 명절의 차례상은 하루 전날 차림

▷전승이 지속되는 주요 명절과 행사

1월 1일 설 : 차례상, 세배, 성묘, 떡국

8월 15일 추석 : 차례상, 송편, 성묘

12월 동계 및 결산회의 : 마을 공동자금 결산보고, 이장 선출, 품삯 결정

▷근래에 확장된 행사

양력 7~8월 : 휴가철을 맞이하여 마을별 청소 진행

여름철 복대림 : 초복, 중복, 말복을 기해 마을단위 복대림(과거에는 개인이나 모임 위주)

[표 3] 세시풍속 목록

| (음력) 월 | 시기       |                                       | 음 식     |
|--------|----------|---------------------------------------|---------|
|        | 절 기      | 내 용                                   |         |
| 1      | 선달그믐과 설  | 차례, 성묘, 세배, 윷놀이, 샘 고사                 | 떡국      |
|        | 초순       | 토정비결 보기, 연날리기, 당제, 복조리 걸기             |         |
|        | 보름       | 보름차례, 찰밥먹기, 불싸움, 더위팔기, 진대끗기           | 찰밥(오곡밥) |
| 2      | 초하루      | 차례, 콩북아먹기, 썩은 새끼줄에 목매달기, 바람영등·물영등·불영등 | 볶은 콩    |
|        | 입춘       | 입춘 붙이기                                |         |
| 3      | 삼진날      | 제비가 돌아오는 날                            |         |
|        | 경칩       | 도롱뇽알·개구리알 먹기                          |         |
| 4      | 초파일      | 절에 가기                                 |         |
|        | 한식       | 성묘, 산일                                |         |
|        | 양력 5월 8일 | 어버이날 마을잔치                             |         |

|    |     |                              |                   |
|----|-----|------------------------------|-------------------|
| 5  | 단오  | 풀썰질, 익모초즙 마시기                | 익모초즙              |
| 6  | 유두  | 유두차례, 밀문지 부쳐먹기, 보리떡, 수수떡, 개떡 | 밀문지, 보리떡, 수수떡, 개떡 |
| 7  | 칠석  | 까마귀와 까치의 오작교                 |                   |
|    | 백중  | 차례, 보리떡                      | 보리떡               |
|    | 월중  | 마을청소, 복놀 복대림, 벌초             |                   |
| 8  | 추석  | 차례, 성묘, 강강술래                 | 송편                |
|    | 월중  | 올벼심리                         | 올벼쌀               |
| 9  | 중구  | 중구차례(올벼심리)                   | 올벼쌀               |
| 10 | 월중  | 시제 모시기                       |                   |
| 11 | 동지  | 동지차례, 팔죽 점보기                 | 팔떡, 팔죽            |
|    | 성탄절 | 교회 행사                        |                   |
| 12 | 월중  | 동계 결산회의, 마을청소                |                   |
|    | 윤달  | 수의 만들기                       |                   |

## 1) 1월

### 설 차례와 성묘

설 차례상은 선달그믐 마래에다 차린다. 마래는 조상과 성주 등의 가정신이 좌정해 있는 곳으로, 조상의 위패가 담겨있는 조상독, 나락을 담아놓은 성주동우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창고처럼 곡식을 저장해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옥의 구조가 바뀌어서 별도의 마래가 없이 모든 공간이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특별히 마루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달그믐 저녁에 차례상을 차리면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절을 올린다. 특별한 유교식 제차(祭次)를 강요하지 않고 대개 간단히 절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한다. 차례상은 조상상과 성주상을 놓는다. 조상상에는 제사를 모시는 조상 수만큼 메와 국을 올리고, 나물, 육고기, 생선 등등을 차린다. 떡국은 설날 아침에 가족들끼리 먹지만 차례상에 올리지는 않는다.

설날 아침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고 산소에 성묘를 간다. 과거에는 마을 어른들과 친척 집을 찾아서 세배를 했지만, 지금은 가족들끼리만 세배를 한다. 설날을 기해 설빔으로 새옷을 마련했으나, 지금은 옷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다. 자녀들이 귀성하여 모이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화투나 윷놀이 등의 놀이도 하지 않게 되었다.

### 쌈 고사

선달그믐 설 차레를 지낼 때 마을 공동쌈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쌈 앞에서 간단히 고사를 지냈다. 간단히 짚을 펴놓고 그 위에 나물 등의 음식을 놓아두는 것이었다.

### 토정비결 보기

새해가 시작되면 가정이나 개인별로 토정비결을 보고 1년 운수를 점치는데, 30여년 전부터는 풍속이 사라졌다.

### 연날리기

정초가 되면 연날리기를 하고 액을 날려보낸다고 하여 연을 날려보냈다. 주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대나무와 창호지로 연을 만들어 연날리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학생들도 거의 없고 있더라도 연날리기를 하지 않는다.

### 복조리 걸기

정초에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마래에 복조리를 걸어둔다. 대개 외지에서 상인들이 들어와 복조리를 파는데, 그것을 사서 돈을 끼워 마래 기둥에 걸어놓는다.

### 보름차레와 찰밥먹기

보름에는 팔, 조, 수수, 좁쌀, 땅콩, 대추, 밤 등등 오곡을 시루로 찌서 찰밥을 하고 갖가지 나물을 만들어 먹는다. 찰밥과 나물을 먹으면 1년 동안 잔병이 없고 피부병이 낫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보름에는 나무 아홉 깎지를 하고, 나물 아홉 바구니를 캐고, 아홉 접시의 나물을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는 처녀와 부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오후에는 나물을 뜯고, 저녁에는 찰밥과 나물을 먹었다. 보름차레는 20여년 전부터 중단되었고, 찰밥과 나물은 가정에 따라 현재 까지도 만들어서 먹고 있다.

### 불싸움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청소년들이 논두렁에 불을 붙이고 불깁통을 돌리며 불싸움

을 했다. 익금리에서는 내부적으로 중촌과 셋골마을로 구분되어 있어서 두 마을의 청소년들이 서로 멀리서 마주보고서 불을 붙여가며 불싸움을 했다. 현재는 젊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불싸움도 하지 않는다.

### 더위팔기

보름날 아침에 친구를 만나면 서로 먼저 이름을 불러서 대답하게 한다.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내 더우!”라고 외쳐서 더위를 판다. 상대방이 불렀을 때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니 더우!”라고 하면 반대로 더위를 팔 수 있다.

### 진대꽃기

보름날 아침에 뱀을 쫓는다고 왼새끼줄에 피마자대와 머리까락과 고추 등을 끼워서 ‘진대 꽃자’라고 하며 마을길에서 끌고 다녔다.

## 2) 2월

### 하리달 콩볶아먹기

2월 초하루를 하리달이라고 하여 차례를 지낸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날 저녁에 마래에 차례상을 올린다. 초하루 아침에는 콩을 볶아서 먹는다. 이것은 여름철 논매기 때 손에 거스러미가 일지 않기를 기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인지 콩을 볶을 때도 손으로 지으면서 볶는다.

### 썩은 새끼줄 목매달기

2월 초하루가 지나면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들어간다. 겨울 내내 쉬다가 일을 하러니 마음이 잡히지 않아 ‘썩은 새끼줄을 들고 산에 가서 목매단다.’고 하여 그 흉내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 영등

영등은 2월 초하루에 내려서 20일에 올라간다고 한다. 초하루에 영등이 내리는 날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렸다고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영등이 내렸다고 하며, 햇볕이 뜨거우면 불영등이 내렸다고 한다. 이날의 날씨로 한 해의 기상

을 점친다. 만약 바람영등이 내리면 그 해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물영등이 내리면 비가 많이 오고, 불영등이 내리면 맑은날이 많을 것으로 점친다.

### 입춘

입춘이 되면 집 대문이나 방문에 '立春大吉'이라고 써서 붙인다.

## 3) 3월

### 삼진날

삼진날은 '강남 갔던 제비가 오는 날'이라는 말이 전한다.

### 경칩

경칩에는 산기슭을 찾아 도롱뇽알이나 개구리알을 찾아서 먹기도 했다. 부화하기 전의 알들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여 먹는 사람이 있었다.

## 4) 4월

### 5월 8일 어버이날

7~8년 전부터 어버이날이 되면 마을의 연장자들을 모시고 마을잔치를 한다. 마을 회관에 모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돼지고기 등의 음식을 장만하여 즐겁게 하루를 보낸다.

### 석가탄신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간다. 주로 암태도에 있는 노만사에 가서 시주를 하고 절을 올려 공을 들인다. 석가탄신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소망을 빌고, 돈을 들여 자녀들 이름을 써서 등을 건다.

### 한식

집안에 따라 성묘를 하고 묘 이장 등의 산일을 한다.

## 곡우

곡우물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전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한다.

## 5) 5월

### 단오 풀썸질과 익모초즙 마시기

‘100가지 풀을 뜯어서 풀썸질을 한다’ 고 하여 산에서 풀을 베어와 살짝 찌서 몸 위에 올려놓고 썸질을 했다. 풀썸질을 하면 삭신 아픈데 좋다고 한다. 단오에는 익모초를 뜯어서 즙을 내어 마시기도 했다. 여름에 밥맛이 없을 때 익모초즙을 내어 마시면 좋다고 하여 보관해놓고 먹기도 했다.

## 6) 6월

### 유두차례와 밀문지 부치기

유두는 명절로 생각해서 차례상을 올렸다. 유두 때에는 농사일로 한참 바빠서 저녁에 제상 차리기 위해 잠을 설치면 다음날 아침 논의 지심(김)을 매면서 꾸벅꾸벅 졸았다. 유두가 되기 하루 전날 저녁에 차례를 지내고 유두날에는 멧돌에 밀을 갈아서 밀문지(밀전)를 부쳐먹는다. 이날 옥수수를 찌먹기도 하고 보리떡과 수수떡, 개떡 등을 만들어 먹는다. 유두 차례는 중단되어 현재 진행되지 않는다.

## 7) 7월

### 칠석

까마귀와 까치가 오작교 다리 놔주다가 머리 벗겨졌다는 말이 전한다.

### 복대림

복날 음식을 잘 차려서 먹는 것을 ‘복대림’ 이라고 하는데, 최근 7~8년 전부터 마

을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함께 복대림을 하고 있다. 익금리의 경우 초복에는 닭을 삶아서 먹었고, 중복에는 돼지고기를 삶아서 먹었다.



[사진 14] 2013년 7월 23일 암태도 익금리 중복 복대림

### 백중

백중에는 차례를 올리고 떡을 해먹는다. 쌀이 귀하기 때문에 보리떡을 해서 나눠 먹는다. 백중이 지나면 농사일이 한풀 꺾이기 때문에 '깨꽃이 피면 머슴 상에 반찬 접시 하나 내린다.'는 속담이 전한다. 백중 무렵에 깨꽃이 피는데, 이때까지 머슴이 일을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반찬을 많이 올렸지만 이후에는 농사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반찬 가짓수를 줄인다는 뜻이다. 20~30년 전부터 백중 차례가 중단되었다.

### 휴가철 마을청소

양력 7월~8월이면 휴가철이 되어서 물으로 나가있던 자녀들이 휴가차 고향을 찾고, 외지 사람들이 섬을 찾는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마을청소를 하고 있다. 주민들이 모여 풀을 베고, 길도 쓸고, 쓰레기를 치운다.

### 별초

7월에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산소에 가서 별초를 한다.

## 8) 8월

### 올벼심리

새쌀이 추석 전에 생산될 경우에는 쌀을 찌서 올벼쌀을 만들고, 메를 지어서 차례를 지낸다. 보통의 차례는 마래에서 지내는데 올벼심리를 할 때는 안방의 아내오가리(지양단지) 앞에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낸다. 근래에 들어서는 올벼심리를 행하지 않는다.

### 추석 차례와 강강술래

추석에는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한다. 14일 저녁에 마래에 차례상을 올리고 15일 아침에 가족들이 모여 성묘를 간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다. 추석은 설과 함께 유일하게 명절로 쇠는 절기인데, 요즘에는 설만 쇠고 추석은 쇠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추석날을 전후하여 처녀들과 새각시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했다. 강강술래의 놀이로는 느린강강, 자진강강, 청어엮자, 고사리격자, 기와뵈기, 남생아놀아라, 남원골은골 성춘향이 등등이 있다. 과거에는 암태면 사람들이 암태초등학교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때 강강술래도 대회처럼 마을별 겨루기를 했다. 강강술래를 안 하게 된 것은 40여년 전으로, 과거에는 정월 보름과 8월 추석에 강강술래를 하며 신나게 노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 9) 9월

### 중구차례와 올벼심리

9월 9일 중구날에는 가정에 따라 차례를 지내는데, 이때의 차례는 올벼심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주오가리에 새 나락을 넣고, 아내오가리(지양단지)에 새쌀을 넣는다. 이날 차례는 올벼심리나 생일상처럼 안방의 아내오가리(지양단지) 앞에 차린다. 현재는 성주오가리나 아내오가리도 없고 중구차례를 지내는 집도 없다.

## 10) 10월

## 시제

성씨 집안별로 선산에 가서 시제를 지낸다. 현재도 각 성씨별로 선산이 있어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 11) 11월

## 동지

동지는 날짜에 따라 애기동지와 동지(중동지)로 나뉜다. 동지가 11월 초순에 들면 애기동지라고 하여 팔떡을 해먹고, 중순과 말엽에 들면 그냥 동지 또는 중동지라고 하여 동지죽을 해먹는다. 이날에는 마래에 열두 달을 상징하는 12그릇의 팔죽을 놓고 차례를 지낸다. 12그릇의 팔죽을 관찰하여 물기가 많은 그릇의 순서를 헤아려 강우량을 점친다. 그릇에 물기가 많이 도는 것을 보면서, '어느 달에는 물기가 많이 도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점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액막이를 한다고 하여 팔죽을 썰서 방 벽과 집 울타리에 뿌리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 성탄절

양력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교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큰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교인들의 비율이 높아 성탄절만큼은 교회에 가는 사람이 많다.

## 12) 12월

## 동계 결산회의

보통 12월 20일 경이 되면 마을 동계 회의를 열어 한 해의 대소사를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자금의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장을 선출한다. 또 논일과 밭일의 품삯을 비롯해 마을 공공의 일을 결정한다.

## 마을청소

연말이 되면 설 준비를 위해 마을 청소를 진행한다. 마을길을 쓸고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마을 전체의 미관을 점검한다.

## 13) 윤달

### 수의 장만

과거에는 윤달에 수의를 만들면 오래 산다고 하여 수의를 장만했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진 풍속이다.

## 6. 활용방안

### 1) 노두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의 단결과 관광적 활용

#### (1) 복원과 활용의 필요성

추포도의 노두는 노두비와 노덧돌 등이 현존하고 있다. 10여년 이상 방치되어서 훼손된 부분이 많지만 과거 사진과 기억을 토대로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노두와 관련된 마을공동체의 활동도 동시에 복원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

#### (2) 공동체의 단결과 관광적 활용을 염두에 둔 복원

복원의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둘 것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하

면 안되는 점이다. 노두의 복원은 섬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야하고, 관리와 보수 또한 추포도 사람들이 스스로 진행하게 해야 한다. 물론, 복원이나 관리 전반에서 지자체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노두가 지역민의 문화로 자리매기하기 위해서는 마을잔치나 면민의날 등과 결합하여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해, 지자체에서 업체에 맡겨 복원하고 관리하게 하면 노두는 주민들의 문화가 되지 못할 것이다.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을 받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유지보수하면서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2) 우실의 관리와 확대 적용

### (1) 현존 우실의 보수와 정비

우실은 1차적으로 방풍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안을 비롯한 도서해안지역에서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마을을 보호하였다. 현재까지 우실이 갖고 있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차량의 통행을 위해 일부 헐어내기는 했으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마을 주민들이 연로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어야 한다.

### (2) 암태도 우실문화의 확장과 활용을 위한 우실 조성

우실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준다. 따라서 송곡리와 익금마을 외 지역에도 새로이 우실을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오도선착장과 암태면사무소, 추포해수욕장 일대에 팽나무와 돌담으로 우실을 조성하여 경관적인 효과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허새비 띄우기와 농악의 축제적 재현

#### (1) 암태면 사람들의 축제적 기억

현재 당제와 허새비 띄우기, 농악 등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암태면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속에는 축제적 신명으로 살아있다. 지금도 농악(걸궁) 이야기를 꺼내면 흥에 겨웠던 당시를 회상하며 분위기가 달아오른다. 암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당제와 농악의 신명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언제든 판이 벌어지면 즐겁게 놀 수 있다.

#### (2) 지역민을 위한 축제콘텐츠로서 활용

면민의날이나 암태면 단위의 축제를 기획할 때 마당뺨이를 변용하여 신명나는 길의 축제를 재현하고, 바다를 향해 기원하고 액을 띄워보내는 허새비 띄우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축제는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인 연대와 참여, 주민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허새비 띄우기와 농악은 암태면 단위의 축제를 기획할 때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 암태면편

## V. 어로문화

김 경 완  
신안문화원 사무국장

### 1. 조사개요

### 2. 갯벌어로와 어선어업

- 1) 갯벌어로
- 2) 어선어업

### 3. 주민생애와 어민조직

- 1) 어민의 생애를 통해 본 토착지식
- 2) 어민조직(어촌계)

### 4.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 1) 추포도 해변과 추포빨을 활용한 갯벌생태교육장
- 2) 섬의 로컬푸드 체험 및 안정적인 판로마련



# V 어로문화

## 1. 조사개요

암태도는 과거 소작쟁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간척농경지가 많아 농업이 주를 이루는 섬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업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익금리를 비롯해 포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갯벌도 넓게 펼쳐져 있어 오랫동안 섬 주민들에게 바다와 갯벌은 소중한 삶터로 존재해 왔다.

암태도는 2012년 말 현재 1,116가구, 2,22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인도 4개(암태, 추포, 당사, 초란도)와 무인도 39개로 이루어졌으며, 해안선의 길이가 94.49km로 인근 자은면(90.65km)보다 조금 더 길다.

암태도 본도 이외의 유인도로 당사도가 97세대 180명이 거주하는 가장 큰 섬이다. 추포도는 암태 본도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본도와 약 1km 길이의 노두로 연결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55세대 120명이 거주하고 있다. 초란도는 당사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당사도와는 0.5km, 본도와는 1.3km 떨어진 섬으로 현재 한세대만 거주하고 있다.

암태도는 연도교로 이어진 자은도, 암태도, 팔금도, 안좌도 4개 섬 중에서 가장 규

모가 큰 어선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어선 척수(2011년 기준)로는 안좌도가 280척으로 가장 많고, 암태면 195척, 자은면 93척, 팔금면 50척 순이다. 안좌도가 선박 수로만 따지면 월등하게 많지만, 195척이 1톤 미만의 소형어선인 반면, 암태도는 1톤 미만이 84척에 불과하며, 1~5톤 규모가 104척, 5~10톤이 4척, 10~20톤 규모도 3척이나 운행될 정도로 어선어업, 특히 유자망을 이용한 병어, 민어, 농어잡이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암태도의 갯벌면적은 28.2km<sup>2</sup>로 신안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갯벌이 분

[표 1] 암태면 어로문화자원 목록

| 구분     | 자원       | 개요   |
|--------|----------|--|
| 바다특산물  | 민어       | 400년 전 동의보감, 200년 전 자산어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간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중요한 토착어류이자 여름철 복달임의 중요한 음식문화임            |
|        | 병어       | 5~6월 암태 북쪽 자은해역에서 어장이 이루어지며, 손질한 후 냉동 보관해 두면 일 년 내내 찜이나 회로 먹을 수 있는 어류이다.                       |
|        | 농어, 송어 등 | 가을에 살이 오른 농어와 추운 겨울 송어를 잡아 회로 먹거나 말려 먹는다. 저렴한 만큼 서민들에게 중요한 먹을거리임                               |
|        | 낙지       | 갯벌에서 맨손어업으로 채취하는 것 외에도 주낙으로 낙지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음. 신안을 대표하는 갯벌생물로 중요한 소득원임                            |
|        | 김과 해조류   | 과거에 비해 김양식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당사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김양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친환경 지주식 김양식으로 한때 사라졌던 뜬북과 가사리, 툇 등장함 |
| 연안갯벌   | 추포빨      | 암태도의 대표적인 갯벌로 노두 북쪽의 큰빨에서 낙지가 많이 잡힌다.  |
|        | 희여지빨     | 동쪽의 희여지빨에는 큰개가 있어 과거 목포와 연결되는 포구도 있었던 곳임. 낙지, 갯지렁이가 서식하기 좋은 곳임                                 |
|        | 마명빨      | 희여지빨과 연결되어 있으며, 송곡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갯벌임   |
|        | 돌석리빨     | 자은-암태간 수로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활용도가 비교적 낮은 갯벌임   |
| 섬 속의 섬 | 추포도      | 노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는 섬,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추포해수욕장과 여춘체험마을이 운영되는 섬. 여름철 개미귀신을 만날 수 있는 신비한 섬           |
|        | 당사도      | 김양식과 어선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 남아 있고, 갯벌 연안에서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관찰가능                         |
|        | 초란도      | 푸녕이파시로 유명했던 작은 섬   |

포된 지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넓은 갯벌지역은 압태도의 서쪽으로 압태 본도와 추포도 사이 갯벌인데, 흔히 '추포빨'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권역은 동쪽의 '희여지빨'과 '마명빨'로 각각 별도의 만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송곡의 해당마을 앞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어 크게 한 개의 권역으로 볼 수도 있다. 이곳 또한 갯벌어로 작업이 매우 활발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북쪽 익금리와 오상마을 사이 만에 형성된 '돌석리빨'이 있다. 이곳은 규모가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갯벌 생산물이 적은 곳이다.

이 장에서는 어업문화를 중심으로 바다와 갯벌을 활용해 압태도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갯벌어로와 어선어업

### 1) 갯벌어로

압태도의 대표적인 갯벌인 추포빨은 추포노두를 기준으로 북쪽의 '큰빨'과 남쪽의 '작은빨' (중흥리빨)로 구분된다. 큰빨은 대표적인 낙지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섬, 둥구섬, 삼섬 등이 갯벌 가운데 자리 잡은 형국이다.

작은빨에도 진섬과 팔섬, 치섬 등이 있으며 큰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작은빨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작은빨의 동, 서, 북쪽 모두 인공적인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어 갯벌의 생태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흥마을 주민들이 작은빨을 활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1998년 추포 노두가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뀌면서 작은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민들은 기억했다. 작은빨에는 굴, 맛조개, 낙지, 칠게를 비롯해서 지금은 사라진 '우럭' 조개도 생산되었던 곳이다.

돌석리빨은 생기미의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는 마명빨이나 희여지빨 같이

갯벌생물들이 많이 생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낙지를 비롯해 기본적인 어업은 유지되는 갯벌이다.



[사진 1] 추포빨에서 낙지를 잡고 있는 주민

희여지빨에서 맛조개가 생산되는데, 종패를 뿌리거나 대규모의 수입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 주민들이 반찬거리로 이용할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이곳이 대표적인 갯지렁이, 시라시 면허지로, 쇠스랑을 가지고 갯벌을 파 갯지렁이를 채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갯지렁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어도 어촌계 수입은 연간 2~3백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라리 갯지렁이를 보전하

고, 이를 통해 다른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갯지렁이가 많으면, 갯벌의 물리적 상태가 호전되고, 낙지와 기타 어류들이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생물종다양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40년 전 익금리 168호 중 128호가 김양식을 했었다. 각 세대별로 규모는 작았지만, 직접 손으로 채취하고 말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 가능했다. 무엇보다 김 값이 비쌌기 때문에 당시 섬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 값이 떨어지고, 빛이 늘면서 한두 가구씩 김양식을 포기하고 어선어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 때 익금리 선착장에 4개의 김가공 공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김생산자도 물김으로 판매하는 실정이다. 익금리 뿐만 아니라 압태 본도에는 더 이상 김가공 공장이 운영되지 않고, 당사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김양식이 활발할 때 연안 바위에서 자랐던 해조류들이 사라졌는데, 다시 친환경으로 지주식 김양식을 진행하면서 듬북, 가시리, 툫이 다시 자라고 있다. 섬 사람들은 예로부터 해조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반면 서양에서는 해조류를 바다쓰레기라는 의미로 'seaweed'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해조류 음식이 건강식품으로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sea vegetable(바다 야채)'라고 부르며 즐기기 시작했다. 과학이 발달한 서구인들도 이제야 해조류의 맛과 기능을 알았다니, 우리 섬사람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지역자원을 활용해 왔는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사진 2]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김가공 공장들이 익금포구에 방치되어 있다.



[사진 3] 칠게가 많은 펄 갯벌에 주민들의 중요한 소득원인 낙지가 서식한다.

## 2) 어선어업





[사진 4] 민어잡이 동행 취재 사진

### 〈민어잡이 동행취재기〉

2013년 7월 21일 아침 8시30분 익금포구에 도착했지만, 어제 보았던 다섯 척의 민어 배들 중 단 한척만 남고 이미 바다로 떠난 후였다. 나를 기다리던 배가 8시40분이 되자 드디어 민어를 잡기 위해 포구를 떠났다.

오늘이 음력 14일로 다섯물이다. 이제부터 물이 살기 시작하니 민어들이 그물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사리가 되어야 물살도 세고, 흙탕물이 일어 민어들이 움직이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했다. 선장님은 어제도 물때가 좋지 않았지만 어장을 살피기 위해 출항을 했다고 했다. 아쉽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웃 배들도 대부분 허탕을 쳤고,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씩이나 잡은 배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기름값은 쟁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도 kg당 5만원을 받았으니, 한 마리당 6~7kg 정도였다면 30만원, 혹은 60만원이지 않은가.

지난 초복사리에는 민어를 구경하기 힘들어 kg당 5만원이 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정도 수준이면 소비자들은 kg당 10만원은 쥐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비싸기는 하지만 어찌란 말인가, 바다에서 민어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번 중복사리에는 뭔가 기대를 해 본다. 내일 모레가 중복이다. 민어 잡이 어민들은 하나 같이 중복사리에 맞춰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제만 하더라도 자은해역을 넘어 입자도 쪽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오늘 생각을 바꿔 가까운 당사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당사도 서쪽으로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곳에 배를 세웠다. 9시다. GPS에서는 재원도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은 바구니를 얹어놓은 모양이라고 ‘바구리섬’이라고 불렀다.

익금 배들이 대부분 이곳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직 그물을 내려둔 배는 보이지 않았다. 어장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곧장’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 먼저, 1.5미터 내외의 대나무를 꺼내 바다 속에 담그고 한쪽 끝에 귀를 대 본다. 대나무속의 칸막이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민어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선장은 한참 동안 대나무를 바다에 넣었다가 뺐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함께 탄 선장 부인도 자꾸 기관실에 머리를 내밀곤 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기관실에 귀를 갖다 대면 물속에서 민어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민어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9시30분이 되자 저쪽에서 민어그물을 끌어올리는 배가 접근한다. 유심히 올라오는 그물을 봤지만 민어는 보이지 않았다.

10시20분이 되어서야 민어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선장이 기대에 들뜬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오늘 민어 얼굴은 보겠지”

그리고 깃발이 꽂힌 부표를 먼저 던지고,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 검은 그물은 자연스럽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만, 추로 이용하는 원형 시멘트 덩어리는 직접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선장 부인의 어깨에 무리가 생겨 얼마 전 어깨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바다 일이 남자들에게도 힘든데, 여성들에게 오죽할까 싶었다.

약 250미터 정도 되는 그물을 던져두고, 그물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 배를 이동시켰다. 넓지 않은 바다에서 암태배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몰려든 배들이 모두 유자망 그물을 던져두었기 때문에 서로 엉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30분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나도 카메라를 들이밀고, 잔뜩 기대에 찬 눈으로 그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10킬로그램에 가까운 민어가 올라온다면 얼

마나 장관일까 싶은 생각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올라오는 것은 쓰레기와 꽃게 몇 마리뿐. 마지막 부표가 올라오고 나서야 실패했다는 낙담에 아쉬움이 컸다.

다시 한참을 기다리며 대나무통에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점심을 미리 먹기로 했다. 11시40분이었다. 선장 부인이 밥과 김치, 송어건정을 가져와 선상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에는 버너에 불을 피워 일회용 커피믹스까지 타 주셨다. 선상레스토랑에서 선상 카페로도 변화되는 모습에 커피 맛이 더욱 좋았다.

1시에 두 번째 그물을 던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꽃게와 민꽃게만 몇 마리 건졌을 뿐이다. 결국 선장님은 '민어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1시 40분에 다시 익금항으로 돌아와 그물을 손질했다. 역시나 이웃 배들의 성적도 좋지 못했다. 어느 배가 한 마리 잡았다는 소식만 들었다. 이렇게 익금항의 하루는 저물었다.

**후기:** 이틀 후인 7월23일부터는 민어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장님도 며칠 동안 하루 50kg 정도씩은 잡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비싼 민어값 때문에 소비자들이 놀라 구매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민어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셨다. 마침 주위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 13kg을 팔아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2013년 여름 민어는 정말 귀했다.

### 3. 주민생애와 어민조직

#### 1) 어민의 생애를 통해 본 토착지식

- 일 시: 2013. 2. 20.(수) 오전10~12시
- 성 명: 송복천(65세)
- 장 소: 압태면 익금리 자택

(익금 이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이 집은 아니고, 이 너머에 생가가  
있어요. 여기서 한 300미터 나가면  
선창, 이 마을 끝이에요.

(몇 대째 암태도에 사셨나요?) 저  
희 할아버지 대부터 암태에 정착하  
셨죠. 할아버지들은 당사도라고 있  
지요. 당사도에서 할아버지들은 청  
년기를 보내셨든만, 제 출생도 당사  
도예요. 한 살 때 암태 본도로 나왔  
으니까. 아버지 형제가 5형제인데,  
아버지가 넷째. 거기서도 바다 일에  
종사하셨고, 여기 익금리에 정착해서도 바다 일을 하셨고.



[사진 5] 자택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송복천 선생

(언제부터 바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한 열다섯 살 정도에 초등학교 졸업  
하고, 육촌간인데 작은아버지 배가 풍선, 돛단배가 있어서 따라 다니면서 고기를 잡  
는 경험을 했고, 직접 내 배를 가지고 어장을 한 것은 85년부터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해태 김을 청년시절에 한 20년을 했지요. 나도 영종도 신공항에 김공장을  
가지고 운영도 해 봤어요. 당시 이쪽에 흥작이 드니까. 88년도에 김공장 기계를 가  
지고 용유도란 곳에 가서 김을 했는데, 한 4-5년을... 겨울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았죠.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닐 때. 그란디, 내가 옮겨 가버리니까 이쪽에  
풍년 들어 붙디다. 거기는 서해안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가서 보니까 시행착오를  
했는데 물때가 안 맞아서 기계가 썩다 돌다가 하니까 원하는 김생산량이 안 나와요.

(인천 쪽은 간만의 차이가 9미터까지 나오니까요) 그 당시에는 기계에 관한한 이  
쪽 기술만한 것이 없었죠. 거기도 지주식 김이었고. 간만의 차이가 크면 물때 잘 못  
맞추면 쉬어야 해요. 김을 채취해 와도 선창에서 밀물까지 기다려야하니까 기계가  
늘어 붙고 늘어 분가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항 보상이 나온 거여. 그때 같은 무렵에 충청도 대천에서 한 사  
람이 올라왔었는데,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 떼돈 벌었지. 어촌계 가입도 하고,

작은 배도 사고, 저는 그 기계만 붙들고 있었던 거요. 낚은 오두막집이라도 사서 가족 퇴거를 했다면 그때 기반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기계만 가지고 버티다가,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했는데, 전기 사용량이 얼마 안되니까 보상이 얼마 되겠어요? 4천 얼마 되었나? 현지 사람이 건물 대고, 난 기계 대고. 결국 반으로 나누니 이천 얼마 밖에 보상 못 받았어요.

(그럼, 보상 받고 다시 고향 암태로 오셨나요?) 그래 가지고 한 오년 고생 죽어라고 하고 내려와서 기계 다 중고로 정리해 불고, 와가지고 총각시절에 안 것이라 어장을 했제. 그래도 한 30년은 했제. 93년도에 정리하고 내려왔지요. 그 기계 보상만 잘 받았으면 여기 안 내려왔지요. 집사람은 안내려올라고 하는데, 달래서 내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요.

(여기서 어장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인가요?) 고정자망이라고 고정해서 가에서 배로 고기만 떨어오는 것이 있어요. 고정자망 하는 것은 2톤 미만으로 작은 배들이 물만 보러 다니니까. 여기는 몇 척이 해요. 소재지 00식당은 여기 북풍받이. 지도 중도 보인 해역에서 하고, 00관.. 거기도 고정자망을 하고, 거기는 남쪽 추포 거기다 하고. 원래 생가가 추포지요.

(선생님은 93년도에 내려오셔서 배를 구입하셨나요?)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톤 반짜리. 민어잡이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 민어를 주업으로 하기 위해 시작하셨다고요?) 네.

(암태도에서 민어잡이 어장은 어디인가요?) 자은 북쪽, 입자도 아래 그 사이에서 요즘은 배가 더 커져서 입자도 위쪽으로 가지요. 영광 쪽으로. 그 해역, 재원도 뒤에서 낙월도 밑으로 거기가 민어 서식지여. 산란하러 들어온 지역.

(그 먼 낙월도까지 가신다고요?) 여기서 밀물에 물 따라 갈 때 우리들 배로 1시간 반. 조업지까지 한 시간 반 가지요. 밀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재원도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밀물. 사이로 들어와서 올라가고. 저항을 안 받고 빨리 가죠. 그 전에는 아

쉬운 대로 배가 작으니까 암태 근처에서 잡았고.

(월별 어장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6월 달은 병어 잡고, 7-8월은 민어잡고, 9-10월은 농어잡고, 11월달 부터 한 5-6개월은 놀죠. 가(연안)에서 작은 어장들 송어를 잡는다거나,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주 어장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뿐이지라.

(물때는?) 병어는 바람만 안 불면 날마다 하고, 민어는 물때에 따라서 한 사리에 일주일에서 8일. 사리 중심으로 한 달에 15일 정도 하죠. 병어는 조금 중심으로 가까운 바로 자은해역. 바로 위 자은 뒤에 가 쪽. 바다로 나가면 항로에 걸리니까. 뜬 그물이라, 배들이 걸려. 바위 쪽으로 가 쪽으로 붙여서 하지라.

(뜬다는 것은 유자망인가요?) 흘러보내는 거지. 그물이 바다 표면에 떠 있어.

(조금이면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데요?) 병어 그물은 떠 있으니까 조금에도 상당히 빨리 떠가지요. 민어는 조금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몇 백 미터 못가죠. 농어도 조금 중심. 민어만 사리 중심으로 잡아요.

(병어잡이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그물은 배에서 그대로 손질해서 놔요. 하루에 많이 잡혀야 두 서너 짝 잡히니까. 그물 그대로 쌓아 뒀다가 다음 물때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나가는 시간은 물때에 따라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차근차근 느려지죠. 어짜피 조금 물때라 새벽에 걸리는데, 나갈 때는 조금물때는 하루 종일 있는 거라. 바로 이동해서 그물을 띄어 놓고, 상황에 따라 남의 그물하고 서로 붙는다거나 잘못 되어서 길게 놔뒀는데 저 혼자 좁아진다거나 할 때 다시 걷어 올리고 다시 논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건만 좋으면 한 물때에 놔 뒀 버릴 수도 있어요. 6시간. 초물에 놔뒀다가 그물하고 배하고 같이 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항로로 들어가면 큰 배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배로 거둔 다음에 가로 와서 다시 내려야하고. (끌고 갈수는 없음) 보통은 두 서너 시간에 올리는 거죠. 배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늦게 논 그물이 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야해요. 우선권이 있으니까. 예의상 늦은 배가 거뒀야 해요.

(병어라는 물고기의 생태적인 특징은? 어떻게 다니지요?) 그런께요. 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자우지간 병어나 민어 같은 어종은 회귀성 어종이라 산란기에 올라 오거든요. 산란하기 좋은 자기들에게 맞는 지역이 아닌가. 쪽 올라오면서 산란을 하고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남쪽에서 올라오고...

(더 이상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나요?) 네. 주로 많은 양이 잡히는 곳은 여기라. 낙월도 앞하고, 산란하기 적정한 지역인 것 같아요. 서해안 갯벌 쪽으로..

(남쪽 어디에서 올라올까요? 민어의 생태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해인데, 민어가 여기서 7월 초복, 7월 초순이나 중순인데, 초복 때 되어야 본격적인 민어잡이를 하거든요. 병어 나기 전에 봄에 4-5월 달에 그 광경을 보지는 못했는데, 추자도 근해에서 민어를 잡아가지고 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잡아온다고 하요. 그런데, 4-5키로 된 민어들을 3-4만원에 시장에서 팔고 있드라고. 키로에 만원도 안 되게. 같은 민어라도 싸니까. 시장에서 그런 민어를 갖다가 요리해 먹으면 살도 무르고 맛이 없다는 거여. 거기서부터 차츰 올라오는데, 큰 배들은 올라오는 입구에서 어장을 해 부러. 그런디 맛이 없어. 추자도 근해에서 잡아온 민어들이라고 소문만 들었고, 요즘 조기도 추자도 부근에서 많이 잡잖아요. 조기와 민어는 같은 곳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육촌동생이 히라시를 잡다가 여름, 가을철에는 히라시 그물을 내리고 고정 자망과 비슷한 안강망 그물을 달고, 민어잡이를 하거든요. 이 동생 작년엔 밤에 주로 그 그물에서 고기를 잡든만. 수로 같은 데서 하는데, 추포 수로 같은 좁은데, 하루 저녁에 한 3천 키로를 넘게 잡았드라고. 그런데 고기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대장이 있고 씨웃(스)자 순으로 날잖아요. 고기들도 좁게 움직인가 부든만. 민어를 잡은 것을 보면. 왜 그러냐면 배가 옆에 나란히 네 척이 있는데, 수로에 서로 배만 안 닿게, 그런데 재작년에는 자은배가 그랬다는데, 옆 배에서 난리드라는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그물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민어를 잡은 거야. 비린내도 나고, 민어는 우니까.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지, 발디딜 틈은 없지. 구역질이 날라고 하드라는 거야. 구도가 날 정도로. 그래서 넓게 좀 들어가면 느그들 배에도 들 텐디.... 그런 우스개 소리도 했는데. 민어는 그렇게 움직이는가봐. 배 GPS를 보면 굴곡이 있는데, 조금 깊은 고랑창 같은 데를 지나가는가봐. 수심이 조금 깊은 데를 찾아서 맞을

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물의 구분은?)** 병어그물은 경심. 민어그물은 나이론이죠. 경심은 아주 약하고 낚시줄 같은 소재인데, 머리카락처럼 약해 고기한테 상처도 안 주고, 그물이 가벼워야하니까. 옛날에는 민어그물 소재로 병어그물을 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가지고 경심으로 쓰네요.

유자망도 밑에는 추라 바닥에 닿지요. 그런데 그물은 세발 높이인데, 가운데 줄을 넣어 세발로 줄이지요. 물이 좀 세면 거의 누워서 가붙지요. 높이가 1미터도 안되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 꽃게 같은 것이 바닥에 있는데 이 위에 걸려있을 때가 있어요. 추 있는데 있어야 할 고기가 위에 있다는 것이여. 그것을 보면 상당히 누워버리는구나. 그 정도로... 부표와 그물하고 바짝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 위에서 3발(4-5미터)이예요.

여기는 무조건 땅에 닿아요. 수심이 10미터는 다 넘어요. 부표가 물에 잠겨요. 병어는 추를 약하게 쓰니까 그물이 서기만 해요. 민어는 반드시 땅에 닿아야 해요. 물에 뜨는 부표는 200발, 250발 그물에 양쪽에 하나씩만 있어요. 자기만의 표시를 해서. 민어와 놓어는 한 그물이고, 병어그물만 다르지요.

**(병어가 날로 귀해지는 물고기 같네요)** 3-4년간 병어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20몇 만원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안 잡힐 때는 개수로 셀 정도로 안 잡히고, 하루 종일. 세 번 네 번 올리는데도. 그때가 꽃게 산란기에 걸리는 거라. 불법은 아니지만, 꽃게 개수보다 병어개수가 적을 때가 훨씬 많아. 꽃게 개수 만큼 병어를 잡아도 좋겠다고 선창에서 말하기도 하지요. 어장은 돌쭈 날쭈 하니까 공치기도 하고 하루 얼마씩 잡는다고 할 수 없어요. 병어도 때로 다닌다고 봐야지요. 빈 그물이 다가 여나무 마리씩 있기도 해요. 우리지역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회로 먹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러드라 다른 회를 먹다가 병어를 먹을 수 있지만, 병어회를 먹다가는 다른 회를 먹을 수 없다고.

30미 짜리는 한 마리 두 마리씩 냉동 보관했다가 겨우내 찹해먹어도 되고, 살짝 해동해 먹어도 먹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생선은 해동하면 못 먹잖아요. 병어는 그래도 괜찮아.

**(판로는?)** 병어는 가에서 일반소매가 없어서 못 팔지요. 100%로 익금으로 들어오지요. 개인적인 주문이 밀려있으니까. 아이스박스는 배에 싣기도 하고, 바로 배에서 추려 넣어버려요. 얼음까지 싣고 다니면서. 지도 송도 위판장에 갈 이유가 없지요. 갈 정도로 고기가 안 잡히니까. 여기서도 부족하니까. 제재가 불가능해요. 민어, 농어는 신안위판장을 이용하지요. 오는 길에 들러 위판하고.

**(민어 요구도 많을 텐데요?)** 여기 배 5척이 한 사리에 적당 한 300키로 잡는 것은 나름대로 소매하는데, 개인들이 택배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그 이상을 잡으면 수협 위판을 하고 다른 사리 준비를 하죠. 중복 휴가철에는 가격도 괜찮고, 엄청 팔려요. 피서객들 많이 오니까. 익금리에서 잡은 고기는 서울로 많이 가고, 자은에서 많이 사고, 암태에서는 잘 안 사요. 저는 자은에 많이 보내고, 개인들... 자식들이 보내라고 하거나. 휴가 내려오면 사다가 먹이고.

**(작년 민어 시세는?)** 시세에 따라 다르죠. 4-5월 달에 밑에서 올라오는 민어를 제외하고, 병어 잡기 직전에 5월 중순 넘어서 어떻게 해서 잡는 민어 배들은 작년에 키로에 56,000원까지 했고요. 수협위판가가. 그럼 소비자가 얼마에 먹을까 걱정인데.... 초복 사리 되어야 우리는 시작하는데. 초복사리에도 꽤 비싸고, 중복사리에도 괜찮고. 민어가 보통 여섯물 때부터 12물까지 약 1주일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7-8 물때에 걸린 민어 가격은 좀 좋고. 한 3만원 대까지 가고. 9-10-11물은 객기물이라고 하는데, 늦어진 물때는 민어가 많이 잡혀요. 참 희안하게. 그때는 2만원, 15,000원 대로 가격이 팍 떨어지고. 한 사리에서도. 그리고 말복이 지나서 민어 파살이 되죠. 이 살하면 끝난다. 그런 사리에는 민어가 산란을 마치거나, 산란 직전의 암놈들. 그런게 잡아 올려놓으면 난을 막 줄줄줄 싸는 것들은 그럴 때 암치 가격은 만원 미만도 해 불고, 수놈들은 한 2만원, 2만5천원 할 때 그렇게 산란기에 들어서 난을 쥐분 놈들은 살이 물러부니까. 다시 가을에 살이 붙을 때라 다시 살이 단단해져. 그런데 제철에 산란한 민어는... 그러니까 연어. 텔레비에서만 보지 직접 봤습니까. 연어를 산란하러 와서 살 물러지는 것을 본게 이해가 되든만. 민어도 마찬가지로. 알을 낳고 한 두달 지나면 살이 탄탄해지고.

여기서 나는 가격은 지도위판장에 준해서 결정해요. 소비자들이 그냥 전화 한통으로 알아 부니까. 그러니까 산지 가격이 수협 위판장보다 비싸다고 하는 것이 전화로

가격을 대비해 보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산지에서 어제 시세 다르고, 오늘 시세 다르게 팔 수 없지요. 산지에서는 초살 가격, 초복가격, 중복가격, 말복가격이 틀리죠. 그렇게만 나누고, 한번 가격이 정해지면 그 한 사리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지요. 한 삼만원에 솟놈 3만원, 암놈 2만원으로 정해지면 그것은 그 사리 끝까지 가는 거여.

(아이스박스도 여기서 주문해 쓰세요. 얼음도?) 차가 실어다가 밖에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지요. 한 번씩 몇 십 포대씩 실어요. 박스는 100개, 200개씩 실어와요. 내 차로 실어와요.

막 올라온 민어는 바로 피를 빼내죠. 피 빼고. 배에서 바로 비닐에 싸요. 양이 많이 잡으면 피 안 뺀 배들이 많을 거요. 민어도 살아서 움직일 때 피를 빼야 피가 쭉 빠지지, 덜 빠진 것은 뼈 쪽에 피가 빨갱게 있어. 5~6키로에서 피가 그렇게 나오면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 싶어요. 피가 한참 나와요. 그런데 죽어분 늪은 몇 방울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피를 빼드라도 살아있을 때 빼야 돼. 살, 뼈, 가운데 통뼈 그쪽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가끔 회에도 묻어 나오디, 거즈 같은 것으로 닦으면 빨갱게 묻어 나와요. <끝>

## 2) 어민조직(어촌계)

### (1)오상어촌계

1962년 9월 28일 목포수협 오상어촌계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2월 26일 무안군어협 오상어촌계로 개편 발족되었다. 1977년 4월 1일 신안군수협 오상어촌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할구역은 장고, 단고, 와촌, 신기, 중흥, 도창, 수곡, 당산, 오산, 기동마을이다. 어촌계를 구성하는 마을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갯벌어장도 마명뺨, 추포뺨, 독석리뺨을 아우르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은 오상리에 거주하는 박귀진이다. 어촌계원은 42명이며, 어장면적은 219.65ha이다. 이중 양식어업이 100.65ha, 마을어업이 119ha이다. 마을어업으로 낙지, 갯지렁이,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취한다. 독특한 사례로 매생이 양식장이 2ha 조성되어 있지만, 잘 자라지 않아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 (2)익금어촌계

1962년 9월 28일 목포수협 익금어촌계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2월 26일 무안군어협 익금어촌계로 개편 발족되었다. 1977년 4월 1일 신안군수협 익금어촌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은 신석리에 거주하는 송영석이다. 어촌계원은 64명이며, 어장면적은 188.34ha이다. 이중 양식어업이 138.34ha, 마을어업이 50ha로 낙지와 바지락, 갯지렁이 등을 채취한다. 익금어촌계는 어선어업도 매우 활발하여, 암태도 인근은 물론, 자은과 임자도 해역까지 진출해 계절에 따라 병어, 민어, 농어, 꽃게 등을 잡아 올려 수입을 올리고 있다.

### (3)추포어촌계

1989년 4월 19일 신안군수협 오상어촌계에서 분계되어 추포어촌계를 형성했다. 현재 어촌계장은 추포리에 거주하는 손성배이다. 어촌계원은 23명이며, 어장면적은 109ha이다. 이중 양식어업이 59ha로 암태도에서 유일하게 전복을 양식하고 있다. 전복양식을 위해 일부 다시마를 양식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김양식이다. 마을어업은 50ha으로 갯지렁이와 낙지 등을 채취한다. 추포도 일대에는 일명 ‘캠퍼스’라고 불리는 고정자망 어업이 진행되고 있어 치어까지 모조리 잡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4)송곡어촌계

1981년 신안군수협 오상어촌계에서 분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어촌계장은 송곡리에 거주하는 조후영이다. 어촌계원은 12명이며, 어장면적은 236.7ha이다. 이중

김양식어업이 42.7ha, 마을어업이 194ha이다. 마을어업은 마명뺨에 대부분 위치해 있으며, 갯지렁이와 낙지, 고막, 굴 등을 채취한다.

#### (5)당사어촌계

1962년 9월 28일 목포수협 당사어촌계로 설립인가를 받아 1965년 2월 26일 무안군어협 당사어촌계로 개편 발족되었다. 1977년 4월 1일 신안군수협 당사어촌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은 당사도에 거주하는 김준옥이다. 어촌계원은 모두 84명으로 암태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촌계이다. 어장면적은 275ha로, 모두 김양식어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다시마가 일부 있다. 암태도에서 유일하게 김 가공공장이 남아 마른김을 생산하고 있다. 마을어업면허는 전무하다. 마을어업면허가 없는 것은 주민 대부분이 김양식과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갯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반찬거리 정도만 채취하기 때문이다.

## 4. 해양생태자원 활용방안

### 1) 추포도 해변과 추포뺨을 활용한 갯벌생태교육장

추포도는 노두로 연결되어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섬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섬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추포뺨을 이루고 있는 큰뺨과 작은뺨이 광활하게 펼쳐 있고, 뺨 위로 드러나 있는 작은 섬들도 멋진 경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조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갯벌생태교육장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추포도 동쪽연안이 암반으로 되어 있고, 서쪽 해안은 모래사구로 다양성을

떠고 있어, 암반의 저서생물 뿐만 아니라 사구식물들까지 관찰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초여름 사구지역에서 명주잡자리 애벌레인 개미귀신과 개미지옥을 대구모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추포도에서 기존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운영 노하우가 있어 이곳에서 모범적인 생태교육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사진 6] 추포도에서 개미지옥을 호기심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어린이들

## 2) 섬의 로컬푸드 체험 및 안정적인 판로 마련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원산지 음식을 먹음으로서 먼 거리를 수송하는데 소요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크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안전한 지역 먹을거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암태도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병어, 민어, 낙지, 각종 해조류를 활용한 지역음식을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요리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으로 식당이나 매장에서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 외에도 된장

과 간장, 유기농 농산물등의 안정적인 재료를 제공, 판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시민과 섬 주민들간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도시와 농촌 교류의 활성화로 지역에는 경제활성화,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섬의 청정성이 웰빙시대에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 암태면편

## VI. 구비전승

홍순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1. 조사개요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 1) 암태도의 이야기(설화, 생애담 및 경험담)
- 2) 암태도의 민요
- 3) 암태도의 속담 및 언어
- 4) 암태도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달야(밤달애)

### 3. 활용방안

- 1) 구비연행자의 이야기와 노래 구연
- 2) 지주와 소작인(임대인)의 갈등과 현재
- 3) 추포 노두 이야기와 가마꾼소리
- 4) 암태면의 생태경관과 암태사람들의 지리관
- 5) 마을의 지명·인물 이야기와 마을사람들의 스토리텔링



# VI 구비전승

## 1. 조사개요

### 1) 개요

필자는 암태도의 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채록했다. 특히 필자는 현지조사와 함께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공동조사(2013.02.18.~21.) 때 암태도<sup>1)</sup>의 수곡리(추엽=포도=추포), 도창리(도창), 기동리(기동), 와촌리(와촌), 신석리(탄금) 등의 사람들을 면담했고, 개별조사(2013.05.30.) 때 송곡리(송곡) 사람들과 면담하고, 암태도인 손한술씨를 목포(송림)에서 면담하고자 시도했다. 단고리, 와촌리(신기, 중흥), 수곡리(수곡), 오상리, 기동리(당산, 오산), 송곡리(활목), 신석리(신석, 오도, 익금), 당사리(당사) 등의 사

---

1) 암태면은 법정리 20개, 행정리 32개, 자연마을 24개로 이루어져 있다.

람들은 공동조사 때인 2013년 2월 20일(암태면사무소 2층), 2013년 ‘찾아가는 섬포럼’장에서 각 마을 이장들을 만나 토론한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보고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자 했다.

조사자는 조사시 「암태도의 민속공동체와 구비전승물」을 주제로 암태도의 구비전승자원을 조사하여 조사목록, 내용, 활용 등을 작성하고자 했다. 타분야인 생태, 고고, 역사, 민속, 문화인류학, 방언, 건축, 경제, 관광자원화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활용이라는 자원화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얻은 자료는 제보자별, 구역별, 주제별로 유형화된 후 주제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주제별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으로 구분되는데, 암태도의 구비전승자원과 관련하여 암태도의 이야기(설화, 경험담), 암태도의 민요, 암태도의 속담(구조어)·언어(인지어, 속신어), 암태도권 구비연행자의 민요 공동체(산다이)와 달야(밤달애) 등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그 결과 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암태도민의 섬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의 구비전승물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살피고자 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암태도사람들의 해역·지역의 정서를 연구하는 토대가 되고자 했다.

이번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암태면 편)”(기간 2012.12.27.~2013.09.23.)의 성과물은 각종 지역개발계획과 신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의 제1차 압해도·비금도·흑산도(2003.03.03.~12.31.), 제2차 도초도·안좌도·팔금도(2005.01.05.~09.30.), 제3차 지도·중도·임자도(2006.01.12.~06.11.), 제4차 하의도(2010.07.28.~2011.01.23.), 제5차 신의도(2011.07.13.~2012.04.12.)의 같은 사업을 이어받고, 이후에도 계기가 된다면 장산도, 자은도에서 같은 사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 전남 신안군 암태도사람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자원화 연구단 참여연구자, 신안군청·암태면사무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 2) 답사일정표

[표 1] 답사일정표

| 번호 | 일시                 | 지역   | 조사자 | 제보자   | 제보내용           | 비고   |
|----|--------------------|--|-----|---|----------------|------|
| 1  | 2013.02.18<br>~21. | 수곡리(추엽=포도=추포), 도창리(도창), 기동리(기동), 와촌리(와촌), 신석리(탄금) 등 암태면 일대 | 홍순일 | 전시월(여,68), 김달심(여,71), 박한임(여,72), 조은식(남,79), 배순풍(남,77), 문동섭(남,75), 김인남(여,81), 윤명월(여,73), 서재담(남,75), 김영선(여,81), 최천산(남,77) 외 | -〈암태도의 구비전승자원〉 | 공동조사 |
| 2  | 2013.05.30.        | 송곡리(송곡) 등 암태면 일대(출향민의 목포 포함)                               | 홍순일 | 김금동(남,미상), 김범웅(남,미상) 외  | -〈암태도의 구비전승자원〉 | 개별조사 |

## 3) 구비전승자원목록

### (1) 설화 목록

[표 2] 설화목록

| 순서 | 분류   | 제목  | 제보자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참고문헌                                |
|----|------|---|-----------|--------------|-----------------|-------------------------------------|
| 1  | 지명설화 | 장고, 단고, 와촌, 신기, 마명, 중흥, 도창, 수곡, 신변, 가섬, 추엽, 오상, 목도, 천포, 신정, 당산, 오산, 기동, 송곡, 해당, 활목, 신석, 오리동, 구석, 탄금, 남촌, 북촌, 돌석, 오도, 진작, 당사, 초란 | 최천산(남,77) | 암태면 신석리 탄금마을 | 2013.02.21.     | 최천산<br>년도미장:39~56쪽;<br>최성환 2008:116 |
| 2  | 인물설화 | 소가 된 스님   | 정금례(여,55) | 암태면 단고리 단고마을 | 1983.08.05.~10. | 허경희<br>1983.10:121~123              |
| 3  | 인물설화 | 천부자 이야기, 문참사의 망신  | 곽성례(여,64) | 암태면 단고리 단고마을 | 1983.08.05.~10. | 허경희 1983.<br>10:137~138, 139~140    |
| 4  | 인물설화 | 바보 이야기, 효자 이야기  | 김인남(여,81) |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 2013.02.19.     | 현지조사                                |
| 5  | 인물설화 | 서태석 이야기   | 서재담(남,75) | 암태면 기동리 기동마을 | 2013.02.20.     | 현지조사                                |

## (2) 경험담

[표 3] 경험담 목록

| 순서 | 분류  | 제목  | 제보자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참고문헌                |
|----|-----|---|-------------------------------------|-----------------|-------------|---------------------|
| 1  | 경험담 | 추포 노두 이야기                                       | 김영선(여,81)<br>곽월심(남,73)<br>곽일순(남,73) | 암태면 와촌리<br>와촌마을 | 2013.02.20. | 손광섭<br>2008:210~211 |
| 2  | 경험담 | 와촌마을의 소이야기-<br>이복동(남,84)이 소 오른쪽<br>눈에 흙을 붙인 이야기 | 김영선(여,81)<br>곽월심(남,73)<br>곽일순(남,73) | 암태면 와촌리<br>와촌마을 | 2013.02.20. | 현지조사                |
| 3  | 경험담 | 암태면지리답산래력<br>(巖泰面地理踏山來歷)                        | 최천산(남,77)                           | 암태면 신석리<br>탄금마을 | 2013.02.21. | 현지조사                |

## (3) 민요 목록

[표 3] 경험담 목록

| 순서 | 분류  | 제목                 | 제보자                                 | 조사지역            | 조사일시                | 참고문헌                                 |
|----|-----|--------------------|-------------------------------------|-----------------|---------------------|--------------------------------------|
| 1  | 노동요 | 〈논맨절래〉,<br>〈모심기노래〉 | 곽성례(여,64)                           | 암태면 단고리<br>단고마을 | 1983.08.05.<br>~10. | 허경희 1983.<br>10:143~144,<br>146~147. |
| 2  | 의식요 | 〈상여소리〉             | 김영선(여,81)<br>곽월심(남,73)<br>곽일순(남,73) | 암태면 와촌리<br>와촌마을 | 2013.02.20.         | 현지조사                                 |
| 3  | 유희요 | 〈동덩이타령〉            | 곽성례(여,64)                           | 암태면 단고리<br>단고마을 | 1983.08.05.<br>~10. | 허경희 1983.10:<br>146~147.             |
| 4  | 응원가 | 〈도창리 응원가〉          | 조은식(남, 79)<br>외 10인                 | 암태면 도창리<br>도창마을 | 2013.02.19.         | 현지조사                                 |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 1) 암태도의 이야기(설화, 경험담)

#### (1) 설화

설화에는 지명설화<sup>2)</sup>, 인물설화 등으로 구분된다.

#### ① 지명설화

암태도의 설화 중 지명설화는 각 마을마다 유래가 있다.

##### • 장고/마을(長庫里)

지금의 단고리, 장고리를 합하여 '진구지'라 하였는데, 마을형태가 길다는 데서 온 것이라 추측되며 또 다른 얘기로는 단고리는 '큰짜', 장고리는 '작은짜'이라 부르고 있다.

##### • 단고/마을(短庫里)

'진고(振庫)' 또는 '진고(眞庫)'로 불리오다가 일제시대 씨족간의 파벌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씨, 박씨(장고)로 나뉘었다고 한다.

##### • 와촌/마을(瓦村里)

예전에 마을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하여 '와촌' 또는 '지와골'이라 부르나, 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 신기/마을(新基里)

처음 마을이 형성될 때는 현재의 위치에서 500m 안쪽 '등바골'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으나, 그곳은 회오리 바람이 심하여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새로운 터라 하여 '신기'로 부르고 있다.

---

2) 「암태면 지명 유래」, 『신암발전봉사협의회』, 신안군 암태면, 년도 미정, 39~56쪽 참조.

• **마명/마을(馬鳴里)**

지형이 말의 머리처럼 생겨서인지 옛날 이곳을 지나는 말들은 한결같이 심하게 울곤하여 마을이름을 ‘마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마명’이라 마을 이름을 지은 이후로부터는 말들이 울지 않았다고 한다.

• **중흥/마을(中興里)**

옛날 마을에서 금이 나왔다고 하여 ‘황구리’, ‘황금리’라 부르다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자주 일어나 일제시대 때 ‘중흥’으로 바꾸었다.

• **도창/마을(道昌里)**

운현구의 봉지가 되자, 이 마을이 궁정을 세우고, 그곳에 창고를 두었는데, 그 중 큰 도(都)머리 창고가 있다 하여 ‘도창리(都倉里)’라 부르다가 ‘도창리(道昌里)’라 하였다.

• **수곡/마을(水谷里)**

마을에서 북동쪽 3km 지점에 있는 승봉산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 서해바다로 연중 마르지 않고 흐른다 하여 ‘수곡’이라 하였다.

1873년(고종 10) 창건된 노만사<sup>3)</sup>가 있는데, 약수가 있는 절로 유명하다. 사찰 건립 이후 수차례의 한발을 겪었으나, 이 약수는 한 번도 마른 일이 없었다고 한다. 노만사라는 절이름도 약수가 떨어지면서 이슬같이 가득하다는 데서 연유했다고 전한다.

• **신변/마을(水谷里)**

처음에는 ‘신범’이라 하였으나, 바닷가이므로 주민들이 ‘신변’으로 개칭하였다고 전한다.

• **가섬/마을(秋浦里)**

섬의 생김새가 개와 흡사하게 생겼다 하여 ‘개섬’이라 하였다가,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가섬’이라 하였다.

3) 최성환 편저, <암태면>, 한국 도서해양 문화의 산실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신안문화원, 2008, 104~119쪽 중 116쪽 참조.

• 추엽/마을(秋浦里)

수곡리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섬으로 마을의 형태가 범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고, 주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인동장씨가 입향하면서부터 '추엽'이라 하였다.

• 오상/마을(五相1里)

옛날 어느 정승이 이곳을 지나면서 마을 뒷산의 산세를 보고 다섯 정승이 나오겠다고 하여 '오상'이라 하였다.

• 목도/마을(五相1里)

마을의 생김새가 낚시형태(벽수)라 하여 '목도'라 하였다.

• 천포/마을(五相2里)

입향자의 천(川)자와 나루터의 포(浦)자를 따서 '천포'라고 부르고 있다.

• 신정/마을(五相2里)

옛날 어느 정승이 이곳을 지나면서 산세를 보고 새로운 정거장(新亭)이 생긴 곳이라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당산/마을(堂山里)

마을 뒷산에 당이 있어 '당산'라 하고 있으며, '나방'이라 하기도 한다. 1979년 취락구조사업으로 30동의 가옥을 건너편으로 옮기어 '당산'이라 하였다.

• 오산/마을(五山里)

마을의 형태가 거북이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어서 '구룡동'이라 부르다가 근래에 크고 작은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여 '오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 기동/마을(基洞里)

지형상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다 하여 '텃골' 또는 '기동'이라 부르고 있다.

- 송곡/마을(松谷里)

아리실로 불리오다가 1880년경 소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송곡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 해당/마을(松谷里)

마을 앞에 있는 벚섬(별섬)에 해당화 나무가 많다 하여 마을이름을 ‘해당’ 이라 하였다.

- 활목/마을(活目里)

마을 형태가 활의 목과 같다 하여 ‘궁항’ 으로 부르다가 일제시대부터 ‘활목’ 으로 하였다.

- 신석/마을(新石里)

최초로 해남윤씨가 입도하였다 하여 ‘윤동’ 이라 하였다가 새로 옮긴 곳이란 뜻에서 ‘신석리’ 라 하였다.

- 오리동/마을(新石里)

마을의 생김새가 오리 목처럼 길게 생겼다 하여 ‘오리동’ 이라 하였다. ‘장뜰’ 이라고도 불린다.

- 구석/마을(新石里)

마을에 크고 오래된 돌이 많다 하여 ‘구석’ 이라 하였다.

- 탄금/마을(彈琴里)

마을의 생김새가 거문고와 비슷하며 옛날 앞산의 선녀들이 거문고를 쳤다 하여 ‘탄금’ 이라 하기도 한다. 또한 숲을 구었다 하여 ‘숲구미’ 라고도 한다.

- 남촌/마을(益今里)

1880년경까지도 곡창지역의 일부로서 ‘익금’ 이라 불리다가 1953년부터는 ‘익금’ 이라고 불리었다. 남촌은 익금마을의 남쪽에 위치한다 하여 ‘남촌’ 이라 하였다.

• 북촌/마을(益今里)

북촌은 익금마을의 북쪽에 위치한다 하여 '북촌'이라 하였다.

• 돌석/마을(益今里)

익금마을 형성 후 변두리인 생김선착장 일대를 김해김씨가 1692년 입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이 곳을 '돌석마을'이라 부른다.

• 오도/마을(梧島里)

장고의 재료가 되는 오동나무가 있다는 데서 연유하여 '오도'라 하였다.

• 진작/마을(梧島里)

마을 뒤편에 있는 짝지(모래사장)가 길어서 짐작이라 하였다 하여 진짜로 짝지가 길다 하여 '진작'이라고 하였다.

• 당사/마을(唐沙里)

당(堂)이 두 개 있고 마을 뒤에는 모래가 많아 당사(堂沙)라 하였다고 하며, 당나라 때의 양자강 모래가 이곳까지 흘러와 섬이라 하여 '당사'라고도 한다.

• 초란/마을(唐沙里)

섬 전체가 풀로 덮여 있어 숲속 깊은 곳은 석란, 춘란 등 난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초란도'라 하였다.

## ② 인물설화

암태도의 설화 중 인물설화는 <소가 된 스님>, <천부자 이야기>, <문참사의 망신>, <바보 이야기>, <효자 이야기>, <서태석 이야기> 등이 있다.

---

4)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정금례(여,55) 제보, 조사내용 <소가 된 스님>,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3.10, 121~142쪽 중 121~123쪽. 필자가 원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그랬습니다(필자: 그랬습니다)' 등'

• 소가 된 스님<sup>4)</sup>

-개요: 스님이 무 세 개와 배추 세 폭을 뽑은 죄 다텼을 하기 위해 짐승의 소감투를 쓰고 육 년간 산 후 사람들이 본 데서 허물을 벗고 다시 절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길가에 가다 배추도 안 뽑아야 쓰고, 무시도 안 뽑아야 쓰고, 도둑질도 안 해야 쓴다.

인자 애려서 애려서 즈그 어매가 시살 묵어서 죽어 불고, 즈그 아버지가 죽어 불고, 그래서 인자 스님될라고 절로 갔든 것이드라. 진짜 스님이 델꼬 땡기면서 탁발을 해 날랐는디 인자 요만하믄 쓰것다 하고 혼자 탁발을 가라고 보내농께, 아 동냥을 디지게 해서 지고 올라 오다가는 무시도 싯뽑고, 배추도 시폭 뽑아 가지고 절로 왔든가 보드라. 그랑께

“너 이새끼 어째서 이것을 뽑아 가지고 왔냐?”

그랑께,

“스님 반찬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라믄 너는 그 집으로 도로 가서 머심을 삼 년씩 삼 년씩 육 년을 살고 와야 된다. 배추 시 폭, 무시 시 개를 뽑았응께 육 년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랑께 한나 서러 말고 살고 오니라.”

하고 보냈어.

그랬다우? 소 감투를 씌워서 보냈제? (칭중)

그랑께 소 감투를 씌워 가지고 밭에다 매 났어.

매농께 쥘네가 보더니,

“워메 으튼 소가 이렇게 우리 곡식 다 묵네 다 묵네.”

윗소리를 하는디, 그래도 암말도 안하고 생각항께 눈물이 제대로 나오제.

앉았응께 쥘네가 딱 꺾고가

“뭘 소가 이렇게 있는고? 인자 우리 곡식 덜 묵어서 매 났다가 냈은 전부 돌려서 가져 가라고 해야 쓰것다.”

소 칭에다 매 놓고는 암태 섬 같은 데로 다 돌려서 보내농께, 다 안가져 가져든 그랑께,

“별 수 없이 우리 소를 맨들어야 쓰것응께 너는 몇 년이고, 우리 집에서 살아야 쓰겠다.”

그랑께 소가 고개만 끄덕 끄덕함께는 그렇게 해 놓고 늘 밥을 해서 먹이고, 쟁기질을 하고 못을 하고, 한 육 년을 살고 낭께는 밤에 스님이 몰래 와겠어. 몰래 와서는,

“네가 허물을 벗고 나오려면 상을 백 상을 차려서 과일 백 접시, 노물 백 접시, 떡 백 접시, 그렇게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어라, 그래서 덕석 깔아놓고 백 상을 딱 해 놓으므는 껍딱을 벗긴다. 그 자리에서 뺏긴다. 그라고 너는 곧 돌아서고 그 사람들에게 닦음이다 났응께 너는 그렇게 알고 오니라.”

그랬어,

그랑께,

“이제 육 년을 살았응께, 나는 아모 날 아모 시에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원래 짐상이 아니라 사람이요, 그란디 당신네 뒷 밭에서 무시 싯하고 배추 시 폭을 뽑아 가지고 여그다 지고 갔는디, 우리 스님이 그 죄 닦음으로 육 년을 살고 오라 해서 내가 육 년을 살았응께, 과일 백 접시, 노물 백 접시, 떡 백 접시, 밥 백 접시만 해서 마당대로 딱 차려 놓으믄, 내가 그 죄를 닦고 당신네들 본 데서 허물을 벗고 절로 도로 가겠으니 당신들은 다 할 수 있겠소?”

“아 육 년을 살았는디 그것 못하졌냐?”

그라고는 대체 다 백 접시씩 장만해 가지고는 덕석 펴 놓고 짚 깔아 놓고 딱 주터란다. 그래서 그 놈 다 묵고는, 인자 사람들 본 데서 허물을 싹 벗거든. 그라니까 등거리를 따뚝 다뚝하고 돈을 천 냥을 갖고 와서,

“이 놈 가지고 가서 스님한테 바치고 잘 묵고 잘 살어라.”

함께는,

“아니라우, 그것 가지고 가믄 도로 여그 와서 또 육년을 사요. 그랑께 다시 육 년 안 살기 위해서 나는 이대로 가요. 내 죄를 다 닦으고 죄를 벗어 놓고 강께, 그렇게 알고 편히 잘 살으시오.”

그라고 절을 곧 백 자리나 하고 가터란다. 그랑께 스님한테 가서 닦음하고 평생 늙도록 중노릇을 했어.

• 천부자 이야기<sup>5)</sup>

-개요: 투전에서 판 돈을 장사 잘하는 사람에게 대주어 소금을 모은 천부자는 나주 근방의 다리 밖이 아니라 다리 안으로 들어가서 큰 대맹이(구렁이)인 닳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고 소금을 푼다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소금을 구웠는데, 어디서 구웠는가 하면, 참 그 소금도 신석리 앞쪽박섬 소금이 유명해졌다 하드만. 옛날에도.

그 쪽박섬 소금은 찌런디 가문 다른디 소금보담 단 일전이라도 더 받았드라여. 소금이 좋응께. 그래서 거그 소금을,

청중: 평상 그런디는 화렴이제?

전부 화렴이제. 태양염이 있었드랑가? 태양염이 중간에서 있었제.

그란디 그 천부자가 투전에서 판돈으로 그 화렴 뒷을 대 갖고는 고놈을, 거그서 인자 그랑께, 중간이 차꼬 나올라고 해쌌네 그려.

청중: <웃음>

소금구이를 거그서 연구리한테서 뒷을 대갖고, 전부 그때는 연구리하던지 장사를 하던지 하든, 다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이 없거든. 전부 놈한테 빚 얻어갖고 하는디, 그 돈있는 사람이 그 장사 잘하고, 일 부지런히 하고 그란 사람의 뒷을 대줬어. 뒷을 대줬어. 뒷을 대주는데, 천부자가,

“일반이면 나를 주라. 소금을 구워서 다른데 주지 말고 나를 주라.”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 뒷을 대갖고는 한 배를 그렇게 쳐실었는데, 쳐실코 나주 근방으로 들어 가서 보니께, 다리 안에서는 2원한디, 다리 밖에서는 일원도 못 하고 그랬든 모양이여. 그래갖고, 그 놈을 돈을 더 받고 풀라고 배 주인한테,

“다리 안으로 들어 감시러 배가 다치게 되든 내가 다 배상할텐께 다리 안으로 들어가 주라.”

그래갖고, 다리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여. 대차 다리 밖에서 1원도 못가던 소

5)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광성례(여,64) 제보, 조사내용 〈천부자 이야기〉,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3.10, 121~142쪽 중 137~138쪽. 필자가 원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구웠는가하면(필자: 구웠는가 하면) 등'

금가마가 다리 안에서는 2원 한단 말이어.

인자 그레 풀라고 보니께, 뜸 우께가 큰 대맹이(구렁이)가 떡 누워있드란 말  
이여. 큰 대맹이가. 그레,

“내가 이 소금을 풀르는 천벌을 받을 것이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소금을 못 팔았어, 그런디 한참 되갓고 소금값은 점점 올  
라 가는디, 곰곰이 생각해보니께, 그것이 아니란 말이어. 그레,

“에따, 모르것다. 내가 저 놈을 잡아 저 놈의 간을 찢라서 한 점 묵고, 소금을  
풀른 죄가 덜 되고 돈을 안 벌것냐?”

그라고 다시 올라가서 보니께, 대맹인 줄로 알았던 것이 바로 뜸을 못 날아가  
게 얹어 놓은 닷줄이였드란 말이어.

고 놈이 대맹이로 보였단 말이어, 히히.

청중 : 부자 될라고 하늘이 도운 계비여.

그레, 그 사람이 부자 될라고 그랬던 모양이여.

#### • 문참사의 망신<sup>6)</sup>

-개요: 문참사가, 단체가 좋은 들을 보러 갔다가 단체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한  
후 그쪽에 다시는 소작료를 받으러 다니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전에 저그는 어뜨케 단체가 좋았던지, 저그로 소작료 치러를 안갈라 하거든.  
왜 그라냐 하면, 논이 요렇게 마당만히로 생겨갓고는 논두렁없이 말논을 해묵  
었드라여. 우리 어털 적 댕기다 보문 그레.

와서 논을 둘러 볼라문, 저그 인자 들녘을 돌 것인디 아니, 이 논도 이 논이  
고, 저 논도 이 논 잉께, 모두 한 논으로 되어 있음께, 그 들 보러 간 사람이 신  
을 벽장제를 신고 들을 보러 갔었는 갑디다. 부자잉께 요새는 구두 신고 그라  
제만. 다둘러 보는다.

---

6)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광성래(여,64) 제보, 조사내용 <문참사의 망신>,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3.10, 121~142쪽 중 139~140쪽. 필자가 원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왜그러냐 하면(필자: 왜 그러냐 하면) 등'

“아니 참사 영감님! 므시기 눈을 돌려 볼라든 가운데를 봐야 할 것인데, 가운데로 와서 보시이쇼.”

“우찌께 들어가겠냐?”

그랑께

“내게 엽히이쇼. 엽혀서 갑시다.”

엽고 풍풀 빠진 데를, 거그 물이 허벅다리를 차고 그란디, 거그를 풍덩 풍덩 엽고 가거든.

청중 : 그때가 말하자든 옛날에 양반 쌍놈 구분할 때여.

그란디, 거그는 물이 씨여서(휼싸이다) 둥빙지고 해갓고는, 아 눈이 고를 것인가? 그렇게 크닥신한 눈이 둥빙져갓고 다 노으라져별고는 꼭 방죽만히로 생겼거든. 그냥 물에다 탁 부러버림시로,

“이 눈구녕 빠진 자석아! 요봐라여. 여가 므너므 나락 한 포각지나 있냐? 가운데를 보제, 저 갓만 둘러보고. 이 자석아! 소작료 얼마? 눈구녕 빠진 자석아! 요봐라.”

하고 혼자 나와 버리거든.

그랑께 사방에서 인자 책인들이 문참사를 보고,

“저 놈의 자식, 나오른 패죽인다.”

고 하니께 찢찢히 빌었어.

“나 좀 살려 주라.”

하고, 저 죽어 버리든 다 쓸데 없응께, 그렇게 쫓겨 갔드라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쪽에 댕기지 못했다여.

#### • 바보 이야기<sup>7)</sup>

- 개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바보 아들한테 장사를 시키려고 말없는 사람한테 베를 팔라고 하자, 바보 아들이 사람이 아닌 망부석한테 돈을 받지 않고 팔았다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김인님이 교회 담임목사로부터 들은 바보 이야기라고 한다.

7) 홍순일 조사, 김인님(여,81) 제보, 조사내용 〈바보 이야기〉,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경로당, 2013.02.19(화) 16:51.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바보 아들과 둘이 살았어. 바보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바보 아들을 내가 평생 데리고 살지는 못하고 조금 무엇을 가리켜 놓고 죽어야 겠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하루는 장사를 좀 시켜볼라고 “베를 한 자루 짊어져서 장에 가 팔아가지고 온나” 그랬단 말이요. 그랬는디 팔로 가서 ”말 많은 사람한테는 팔지 말고, 말이 없는 사람한테 팔아라” 그랬어.

그래서 인자, 베를 가게에다 놔두고 베를 팔려고 앉았는디. “이 베 얼마요? 베 달겠소. 베 달겠소, 얼마요?” 말 많다고 안팔어. 말 많은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해놔서. 누구든지 와서 말이 많다고 그래 못팔았어.

그래 못팔아 가지고 인자 할 수 없이 해가 지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도로 즈그 집으로 온단 말이요. 도로 그것을 짊어지고 온디.

그 오둔 길가세가 뒤편이 있는디, 선산이 있는디. 거기가 망부석이 서 있거든. 그래서 망부석보고 그것도 사람한테 샀은게. 베를 사라고 그랑께 아무 말이 안하니까 그래서 “옳다, 됐다” 니가 말이 없은게. 망부석한테다가 베자루를 돌려서 메웠어. 딱 짬매 줬어.

그라고 즈그 집에 빈지게 지고 간께. 저기 어매는 하루 종일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어. “저는 어떻게 팔아가지고 온다? 못팔고 온다?” 걱정하고 내다 보고 있는디, 빈 지게만 지고 오거든. 그래서 “다 팔았구나” 인자 그렇게. “어떻게 팔았나” “예, 다 팔았어” 그렇게 “어떻게 팔았나?” “다 팔았어.” “돈은?” “어매 돈 안받았었네” “가서 돈 받아 갖고 온나” 그렇게

도로 갔어.

도로 가서 망부석한테 간께는 아 누가 베는 가져 가버리고 거시기가 베는 가져 가지고 망부석만 남았거든. 오메 어떤 놈이 돌 비석을 막 흔들면서 내 돈 내놓으라고 막 흔들니까 비석이 자빠졌어. 그 속에 돈이 한나 차 버렸어. 그놈 지고 와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

---

8) 홍순일 조사 김인남(여,81) 제보, 조사내용 <효자 이야기>,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경로당, 2013.02.19(화) 16:51.

• 효자이야기<sup>8)</sup>

- 개요: 옛날에 누가 편찮으신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에게 송장다리를 잘라다가 자기 아버지를 과드리면 속회 쾌차(快差)하신다고 하자, 효자가 내다리를 내놓으라는 도깨비한테 쫓기면서까지 송장다리인 삼을 과드려 아버지를 깨끗이 쾌유케 한다는 이야기이다. 김인님이 친할아버지한테서 들은 효자 이야기라고 한다.

옛날에 또 효자가 살았어. 즈그 아버지가 아픈디, 효자가 인자 하나가 살았는데. 즈그 아버지가 하도 온 몸이 다 두드러기가 나갓고 그 부스럼 부스럼병이 나갓고, 천삼을 먹고, 별 좋은 약을 먹었는데.

하루는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산 속에 가서 아주 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무서운 곳인디, 도깨비도 많이 나고 그런텐디, 거기 가서 송장을 송장다리를 잘라다가 즈그 아버지를 과드리면 나순다고.

그래서 비는 또 비한나 철철 오는디 그걸 갓단 말어. 즈그 아들이. 거기를 가서 인자 어떤 디를 파니까 송장이 있거든. 다리 하나를 잘라가지고 들쳐메고와. 그런디 막 도깨비가 쫓아오면서 내다리를 내놓으라고 쫓아와 내다리를 내놓으라고 쫓아와 그랑께 얼마나 무서워서 비는 오고. 그놈 갖고 와서 대문을 열른 달아 버렸어. 그랑께는 들어와서 대문까지 달아 버리니까 대문밖에가 못들어왔어. 도깨비는 못들어 왔는데. 그놈 갖고와서 밤에 솔에다가 대려서 해드렸어.

그랬는데 아 그 이튿날 아침에 즈그 아버지가 거짓말같이 나서 버렸거든. 아무시랑께 깨끗이 나셨어. 그래서 인자 즈그 아버지가 “나가 뭘 약을 해가지고 와서 그랬냐?” “아버지! 죄송한 말로 이러 이러 해서 이러 이런 사람이 가르쳐 줘서 가서 아무 산골에 가서 그 송장을 파갓고 송장 다리를 잘라가지고 그랬는데 시방 이 대문 밖에가 그 송장이 와서 그 신체가 내 다리 내놓으라고 쫓아와서 밖에가 있는데 무서운게 열른 문닫아버렸다고 그랬당께. 즈그 아버지가 ”그라든 따듯한 곳에 장사나 잘 모셔주어라“ 그랬어.

그래 나가 본께는 송장이 아니고 큰 동삼이 다리 한 짝이 없거든. 그렇게 삼이 그랬어. 그래서 인자 그래서 인자 삼잉께 인자 들어와서 송장을 넣고 그께

삼이여, 술을 떠들어 보니께 삼을 하나를 잘라다 삼아서 그랬어. 그렇게 효자라 나서 그렇게 시어내서? 잘 나서서 효자가 아주 우리나라 세계에 다 효자가 나타나 버렸어, 이름이 나 버렸어. 효자라고.

### • 서태석 이야기<sup>9)</sup>

- 개요: 지도군수 조씨가 서태석에게 임명장을 주었지만, 서태석은 3년이 되어서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분이 농민항쟁을 하기 이전에 20대 초반에 그 당시는 신안군이 지도군으로 되어 있다가 무안군으로 분군되었다가 무안군에서 60년대에 신안군으로 분군되었어. 지도군으로 있을 때 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양서씨라고 조 누군지 모르겠어. 근디 우리 연혁지가 있어요. 이대면장을 조씨를, 지도조씨를 여기 암태다 면장으로 임명을 했어. 서태석씨가 찾아간 거여 하자 군에 가서 아주 신랄하게 따지고 우리 암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고 면장감이 많이 있는데 왜 외지에서 남을 의식해서 왜 우리 면사람을 의식않고 그때는 말하자면 별정 직식이라 면장을 다 그 지역에서 임명을 했거든요. 근디 지도 어떻게 연계가 돼서.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맞거든 대답할 만한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면장 했으면 쓰겠다고 말도 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바로 거기서 해임을 하고 지도조씨를 그리고 바로 그분한테 임명장을 줬어. 그래서 지도조씨는 면장을



[사진 1] 기동리 기동마을 서재담(남, 75) 어르신 모습, 2013. 02. 20. 촬영

9) 홍순일 조사, 서재담(남, 75) 제보, 조사내용 〈서태석 이야기: 임명장을 주다〉, 암태면 기동리 기동마을 청수가든(식당) 장(여관), 2013.02.20(수) 1127.

얼마 못했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일합방. 그래서 식민통치하로 1910년에 마지막 조선족 순종 그때에는 로봇였지. 27대.

고종 때 나라를 뺏겨버리고 1910년부터 완전히 일본통치하에 기승을 부릴 때 그분이 면장을 하게 된 거여,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서태석씨가 면장임명을 받아갖고 와서도 우리 면민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면장을 하면 우리면민을 괴롭히고 일본의 지시를 받아야 하니까 정말로 고통스럽다 면장하는 것이. 그래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면장을. 그래서 3년 몇 개월만에 스스로 사퇴하고 있다가 1919년도 기미삼일운동 때 연락을 받고 서울로 대표로 갔어. 서태석씨가 면장 그만두고.

## (2) 경험담

암태도의 경험담은 추포 노두 이야기, 와촌마을의 이야기, 암태면지리답산내력 등이 있다.

### ① 추포 노두 이야기<sup>10)</sup>

추포 노두는 섬사람들이 매년 공동으로 노둑길을 뒤집어준다. 그리고 이 길을 이용한다. 특히 신부가 가마타고 이 노둑길을 건넜다.

### ② 와촌마을의 소 이야기<sup>11)</sup>

와촌리 중흥마을은 간척지의 방조제가 있는 곳이다. 이곳의 실제 인물 이복동(남, 84)이 소 오른쪽 눈에 흙을 붙인 이야기이다.

10) 손광섭, 「암태도 징검다리, 옛길 따라-세상의 통로, 다리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II』, JY 진양문화, 2008, 203~213쪽 중 210~211쪽.

11)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 81), 광월심(남, 73), 광일순(남, 73)제보, 조사내용 〈이복동(남, 84)이 소 오른쪽 눈에 흙을 붙인 이야기〉,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집 2013.02.20(수) 2124, 21:25.

12) 홍순일 조사; 최천산(남, 77) 제보, 조사내용 〈암태면지리답산내력〉, 암태면 신석리 탄금마을, 2013.02.21(목) 11:50, 13:33, 13:48. 필자가 원본에서 자간 띄어쓰기(행간 포함)를 했다. '불원간(不遠間)에 생(生)긴 혈(穴)이'→'불원간(不遠間)에 생(生)긴 혈(穴)이' 필자가 원본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 '제명(命)미요(필자: 제명(命)이요)'

③ 암태면지리답산래력(巖泰面地理踏山來歷)<sup>12)</sup>

신안암태작로(新安巖泰作路)하니

삼봉삼달래한맥(三峰三達來限脈)이  
조승봉(租升峰)이 되어 있고

불원간(不遠間)에 생(生)긴 혈(穴)이  
박공범(朴公範)이 생(生)겨 나서

라주(羅州)에 도착(到着)하니  
라주목사하마호령(羅州牧使下馬號령)하니  
박공범(朴公範)이 하는 말이  
제말 저 타고 간다 하고 지나 갔네

박달산(朴達山)의 건기봉(乾起峰)은  
장군봉(將軍峰)이 옆에 있어  
활목(活目)에다 활(活)을 놓고  
오봉산(五峰山)은 활통(活筒)이요  
투고(鬪毆)벗어 팔금(八禽)에 다 놓아두고  
동방(東方)의 로적봉(露積峰)은  
군양미(軍糧米)로 알아두고  
쇠바위제를 물어보소  
그 위에 암석(巖石)에 가  
솥 이개(二個)가 생(生)겨 있네  
서방(西方)의 옥녀봉(玉女峰)은  
옥녀탄금(玉女彈琴) 분명(分明)하네

정렬부인(貞烈婦人) 소생(小生)하여  
정려각(旌閭閣)이 세워 있네

동방(東方)의 운중반월(雲中半月)  
 옥녀(玉女)를 비취주고  
 희여지(希餘志)를 물어보소  
 요강암(凹강巖)이 있으니까  
 주식(酒食)을 배(輩)풀어서

만군(萬軍)에 대접(待接)하면  
 승전고(勝戰鼓)를 울리면서  
 사대문(四大門)이 있는 곳에  
 성군(星君)이 없을소냐  
 금성산(錦城山)은 군왕(君王)이요

익금리(益今里)는 성지(城址)로다  
 신석리(新石里) 저 곤방(坤方)은  
 석태(石台)가 점(點)박혔으니  
 나부병(病)이 나는지라  
 신석(新石)에 저 동(東)매야  
 수중로치(水中老雉) 쫓지말라  
 박달산(朴達山)의 정기(精氣)받아  
 최영장(崔營將)과 박선달(朴善達)이  
 탄생(誕生)하고  
 옥녀 탄금(玉女彈琴) 좋다마는  
 손봉(巽峰)이 고압(高壓)하니  
 주(酒)로 급사자손(急死子孫) 많이 나네

오동지(梧桐枝) 있는 곳에  
 단구(丹邱) 아래 비봉(飛鳳)은  
 금금포란(金禽抱卵) 하 좌(座)하며  
 북흥봉(北興峰)이 단정(端正)하야

절죽장혈래한맥(節竹長穴來限脈)이  
황우도강(黃牛島江) 누워있네

수중(水中)에 황사출초(黃蛇出草)  
초란도(草蘭島)로 알아주소

활목(活目)으로 들어가니  
천복운(千福運)이 성장(成長)하여  
천석궁(千石宮)을 받았으면

어와 청춘소년(青春少年)들아  
백골난망(白骨難忘) 하였으니  
청춘과부(青春寡婦) 많이 나네

송곡죽장(松谷竹杖) 들어서니  
라기안산상응(羅棊安山相應)한대  
매화낙지(梅花落地) 생(生)겨 있고  
이수동초과협(二水洞初過峽)에  
곡읍수회동(哭泣水回同)하니  
겁탈음란패가허다(劫奪淫亂敗家許多)하네

해당리(海棠里)로 넘어가니  
팔라연화단석중(八羅烟花短石中)에  
련주맥(聯珠脈)의 해당화(海棠花)에  
봉접(蜂蝶)이 날아들고  
안산(案山)에 상서구성(祥瑞九星)  
봉황태상한림(鳳凰台上翰林)이요  
오산(梧山)을 바라보니  
금고개혈(金口開穴) 생(生)겼으며  
서태석(徐邵皙)이 성장(成長)하여

일제말(日帝末)에 소작항쟁(小作抗爭)  
합방(合放) 해놓았네

승봉(升峰)의 래한맥(來限脈)을  
절요수(絶凹水) 막(幕)혔으니  
불상(不祥)타 당산리(堂山里)야  
일도(壹島)에 패망(敗亡)했네

구도(尿島)를 바라보니  
구강일분(尿江一分) 세지맥(細枝脈)의  
련주(聯珠)하나 선도(船島)로다

기동(基洞)을 도착(到着)하니  
수장연화(手掌烟花) 벌려있고  
당국평순(堂局平順) 하였도다  
팔요방(八曜方)의 도일석(刀鋸石)은  
헌법주참(憲法誅斬) 떨어질까  
대로(大路)는 재전(在前)하고  
응천상지(應天上之) 광명(光明)이요

단고리(短庫里)로 작로(作路)하니  
사사혈장(死蛇血長) 뉘였으니  
소년참상(少年慘喪) 많이 나네  
장군(將君)이 있는 곳에  
마명(馬鳴)이 없을 소냐  
갈마음수(渴馬飲水) 먹고 있네

신기(新基)로 들어가니  
구침장구회동(毬檐長口回洞)하며  
토복일맥굴곡상(土覆一脈屈曲上)의

미미(微微)하게 숨은 혈(穴)은  
복지도화(覆地桃花) 분명(分明)하네

중흥리(中興里)로 돌아가니  
굽이굽이 계곡(溪谷)이라  
라기혈벽금차형(羅基혈벽금차形)에  
중흥리(中興里)가 안좌(安座)으니

복귀지심령(福貴至心靈)이로다  
부락명(部落名)을 변경(變更)하면  
일조(壹朝)에 패망(敗亡)하네

와촌(瓦村)을 넘어가니  
와우(臥牛)가 생(生)겨나서  
혈낙평지(穴落平地) 유돌(乳突)하여  
유목고모(乳犢顧母) 하고 있네

도창리(道昌里)로 들어가니  
승봉(升峰)에 래한맥(來限脈)이  
일맥청산경색유(一맥靑山景色幽)에  
황우(黃牛)가 생(生)겼으며  
저 건너 살펴보니  
다개화(多皆花)가 생(生)겨 있네

수곡(水谷)을 돌아가니  
산진수회(山盡水回) 하는 곳에  
대소혈(大小穴)이 없을소냐

저 건너 바라보니  
금강일맥기복호(金江一脈起伏虎)에

문치명(文致明)이 생겨나서  
만석궁(滿石宮)을 받았었네

로만사(露滿寺)를 당도(當到)하니  
산맥(山脈)이 수려(秀麗)하고  
수세(水勢)가 명랑(明朗)하니  
기기묘묘(奇奇妙妙) 생(生)겼구나  
석간수(石間水)가 약수(藥水)로다  
목도(木島)로 들어가니  
쌍목래(雙木來)근 더욱 좋다  
저 선인거동(仙人舉動) 보소  
고(固)든 조(釣)낚시 물에 넣고  
좌어기상(坐魚氣像) 하고 있네  
불원간(不遠間)에 생(生)긴 혈(穴)이  
주인성명운로(主人姓名運路) 보니  
목화성(木火姓)이 지키리라  
라형빈(羅亨彬)이 차혈(此穴) 받아  
수만금(數萬金)을 받았으며

어화청춘(青春) 벗님네야  
이네말을 들어보소  
부모길지(父母吉地) 택(擇)할려면  
적선적덕(積善積德) 많이 하소  
부귀(富貴)도 제명(命)미요(필자: 제명(命)이요)  
빈천(貧賤)도 제명(命)이요  
물욕다탐(物慾多貪) 직우(則憂)하면  
부귀역우심(富貴亦憂心)이니라

서기(西紀) 1997년(日九九七年)  
정축춘절(丁丑春節)

학청산역리지리운명철학(鶴靑山易理地理運命哲學)

편집인(編輯人) 최청산(崔靑山)

## 2) 암태도의 민요

### (1) 민요

민요는 주요 기능에 따라 기능요와 비기능요로 양분되고, 앞의 기능요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하위구분된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에서 암태도의 민요자료를 구분할 때 나승만의 원도지역의 민요분류체계<sup>13)</sup>를 참고했다. 이것은 위의 주요 기능에 따라 구분하되, 암태도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가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태도의 민요는 생업 때 부르는 노동요, 의례 때 부르는 의식요, 놀이에 따르는 유희요(가창을 위한 창민요 포함), 마을에서 부른 응원가 등의 유형별<sup>14)</sup>로 소개하기로 한다.

암태도의 민요는 〈논맨 절레〉, 〈모심기 노래〉 등 생업 때 부르는 노동요, ‘북망산 천~’ 등 의례 때 달야에서 부르는 의식요, 〈동덩이타령〉 등 놀이에 따르는 유희요(창민요 포함), 〈도창리 응원가〉 등 마을에서 부른 응원가가 있다.

---

13) 나승만 『Ⅳ. 원도지역의 민요와 민요사회』, 허경희·나승만 『원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7-97쪽 중 67-97쪽. 자료 편은 보길도, 청산도, 평일도, 소안도의 설화와 민요자료, 방언풀이, 현지상황 통계도표와 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도지역의 민요는 주요 기능에 따라 노동요, 의례요, 유희요, 창민요, 향쟁요, 기타(타령류, 상업민요, 학습요) 등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었다.

14) 허경희·나승만 『원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70쪽.

15)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박성례(여,64) 제보, 조사내용 〈논 맨 절레〉,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3.10, 143~147쪽 중 143~144쪽.

## ① 생업 때 부르는 노동요,

• 논 맨 절래<sup>15)</sup>

어허라 절래  
 이 절래가 누 절래가  
 어허라 절래  
 김 동주네 절래로고나  
 어허라 절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어허라 절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어허라 절래  
 저기 저기 저 달속에  
 어허라 절래  
 계수 나무 백혔으니  
 어허라 절래  
 은도끼로 찍어 내어  
 어허라 절래  
 옥 도끼로 잘 다듬어  
 어허라 절래  
 초가 삼 간 집을 지어  
 어허라 절래  
 양친부모 모시다가  
 어허라 절래  
 천년 만년 살고 지가  
 어허라 절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허라 절래  
 입을 따라 나는 간다  
 어허라 절래

하늘과 같이도 높은 사랑  
 어허라 절래  
 바다 같이도 지픈 사랑  
 어허라 절래  
 일 년을 열에 두 달  
 어허라 절래  
 삼백에 육십 오 일  
 어허라 절래  
 하로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어허라 절래  
 인생 일장 춘몽인디  
 어허라 절래  
 아니 먹고 아니 놀까  
 어허라 절래  
 얼씨구나 절씨구나  
 어허라 절래  
 이렇게 좋은 딸 낳겠네  
 어허라 절래

• 모심기 노래<sup>16)</sup>

이 논배미를 심그고 저 논배로 가세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네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패랭이 꼭지에 개화를 꺾어라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

16)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주, 광성례(여,64) 제보, 조사내용 〈모심기 노래〉,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1집, 목포대 도서관연구소, 1983.10, 143~147쪽 중 145~146쪽.

마고자 춤이나 추워 보세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여보소 소년들아 백발 보고서 웃들 마소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어제 청춘 오난 백발 무리한들 막을 수 있는가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마라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아깁 청춘 다 늙은다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원수가 따로 있나 백발이 모도 다 원수로세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백발 원수를 잡으려고 한 손에는 줄을 들고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또 한 손에 망치 들고 메고 치고 하여 봐도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백발 원수를 잡을 수가 없구나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우리 같은 이 청춘이 한 번 아차 죽어지면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호방산 땃돌 위에 등근 어깨 얹어 놓고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북망 산천 먼 줄을 북망 산천 여그로세  
 어기야 어허여로 상사디요

17) 홍순일 조사, 배순풍(남,77) 제보, 조사내용 <상두계>,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경로당, 2013.02.19(화) 15:23.

18)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81)·곽월심(남,73)·곽일순(남,73) 제보, 조사내용 <딜애(명칭, 양상, 북망 산천이~)>,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정, 2013.02.20(수) 19:28.

② 의례 때 부르는 의식요<sup>17)</sup>,

배순풍(남, 77)은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의 <상두계>을 언급했다. 구상두 2개, 신상두 1개 총 3개이다. 이에 따른 계칙도 있다. 이는 상여소리를 부르는 터전인 것이다.

상여소리<sup>18)</sup>는 달야에서도 들을 수 있다.

③ 놀이에 따르는 유희요(가창을 위한 창민요 포함),

• 동덩이 타령<sup>19)</sup>

옥절구라 쟁기논에  
짐생들이 잠들었냐  
옥등에다 불을 밝혀  
연등에다 걸어놓고  
심지없이 타는불은  
팔만곱게 다비친디  
우리어메 어디가고  
저불같이 못비치는가  
풍등에다 풍등에다  
당기 동등에 동등에다

저기가는 저신부는  
울옆에서 가네마는  
징애소리 가득하네  
지넘상에 지넘하고  
에사청에 예사하고

---

19)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민요조사내용 <동덩이 타령>,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집,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 1983.10, 143~147쪽 중 146~147쪽.

신부방에 들어가니  
 하릴 없이 꼭죽었네  
 잔등너머 산마루는  
 앵두보담 곱다해도  
 앵두야 간장 다늑인다  
 당기 동덩에 동덩에다

잔등잔등 저무덤은  
 남방초가 다늑이고  
 젊은가슴 이내피는  
 남방초가 다늑인다  
 동덩에다 동덩에다  
 당기 동덩에 동덩에다

꽃아꽃아 풍달꽃아  
 봄에 피는 수정화야  
 뒤뚱에는 더두피고  
 진뚱에는 새도진다  
 석야석자 요나비는  
 감감돈다 서러마라  
 풍덩에다 풍덩에다  
 당기 동덩에 동덩에다

#### ④ 마을에서 부른 응원가<sup>20)</sup>

조은식(남, 79)은 마을별 축구대회할 때 응원가를 부르는데, 도창초교 교가도 지은 박승채(생존시 102살)가 지었다고 했다.

20) 홍순일 조사, 조은식(남, 79) 제보, 조사내용 〈도창리 응원가〉,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경로당, 2013.02.19(화) 15:23.

•〈도창리 응원가〉

발상개세 대용가 신상기묘도  
정의로써 싸우는 힘은 못당해  
인지애심 밝음속에 으로 쏘사는  
신성하다 배달민족 우리 얹이야

천지정기 무릅쓴 도창 건아야  
우리앞에 대들자 누가 있느냐?  
무적진 전광말야 모라모라다  
꿀숯꿀숯인 만세 만만세  
푸렛창 푸렛창 푸레 푸레 도창리



[사진 2] 도창리 도창마을 조은식(남, 79) 외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  
2013.02.19. 촬영

### 3) 암태도의 속담 및 언어

암태도의 속신어에는 “집모릿대 위로 가마, 생애(승어)는 못간다.”가 있다.

• 집모릿대 위로 가마, 생애(승어)는 못간다<sup>21)</sup>

와촌리 사람들은 가마를 타고 다닐 때 산넘어 다니는 길로 간다.

그러나 옷길 즉 집의 위쪽으로 난 길은 금지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집모릿대 위로 가마, 생애(승어)는 못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니면 해가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이나 학생들은 다니기도 한다.

---

21)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81)·곽월심(남,73)·곽일순(남,73) 제보, 조사내용 〈가마 못다니는 이야기〉,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정, 2013.02.20(수) 19:28.

## 4) 암태도의 민요공동체(산다이)와 달야(밤달애)

### (1) 민요공동체(산다이)

암태도의 산다이는 수곡리 포도마을(전시월, 김달심, 박한임), 도창리 도창마을(문동섭(남, 75) 외 10인), 외촌리 외촌마을(김영선, 곽월심, 곽일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수곡리 포도마을<sup>22)</sup>

산다이는 춤추고 노래부르고 노는 것이다. 명절에 노는 것은 산다이이고, 초상날 때 불피고 노는(유족들 위로해 주는) 것은 밤달이이다. 한 16~7년 전인 장승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까지 했다.

산다이는 지금은 없지만, 정자나무 옆 창고에서 했다. 남자도 같이 했다. 약 40년 전이다. 설, 추석(가위), 정월 보름, 2월 초하루날, 6월 유두, 7월 백중 때 한다. 시장에서 놀 때 술 마시고 놀기도 하는데 설에서 보름까지 하기도 한다. 노래를 하다가 놀이를 한다. 수건돌리기, 봉사치기 등이다.

“놀자”고 하는데, <도라지타령>, 낙동강~ 등 노래하다가 춤춘다. “재미나면 팽사, 소구, 징, 북, 장구(가 기어나와)” 등을 다룬다. 요즘에는 어버이날에 어머니들은 학생들과 경기하고, 학교 교실에서 춤추고 논다.

#### ②도창리 도창마을의 산다이<sup>23)</sup>

산다이는 사람이 죽으면 세인(죽은이 직계가족)을 위로하는 달야와는 달리, 술먹

22) 홍순일 조사, 전시월(여, 68) · 김달심(여, 71) · 박한임(여, 72)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1)(2)>, 암태면 수곡리 포도마을 추포 경로당, 2013.02.18(월) 16:33 · 17:33.

23) 홍순일 조사, 고영규(남, 76), 김영호(남, 73), 박성연(남, 78), 조은식(남, 79), 허창식(남, 86), 박성원(남, 72), 고준태(남, 70), 김귀남(남, 70), 배순풍(남, 77), 문동섭(남, 76), 김진환(남, 66) 등 11인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 암태면 도창리 도창마을 도창 경로당, 2013.02.19(화) 15:23.

고 노는 것이다. 아무 때나 마을사람들이 모여 논다. <도라지 타령>, <노들강변>, <진도아리랑>, <청춘가>, <흥타령>, <강강술래> 등 민요와 유행가를 한다.

### ③와촌리 와촌마을의 산다이<sup>24)</sup>

산다이는 명일(설, 추석)이나 하고 싶은 날에 모여서 상을 두드리며 술먹고 노는 것이다. 와촌마을 사람들은 산다이하고 놀자고 한다. 굿치고 놀러 다닐 때도 한다. 물레야~를 부른다.

### (2) 달야(밤달애)<sup>25)</sup>

암태도의 달야(밤달애)는 와촌리 와촌마을(김영선, 광월심, 광일순)에서 조사되고 있다.

암태도 사람들은 밤달애를 '달야'라고 한다. 상례시 상주와 유족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등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북망산천이~' 등이 불려지나 <육자배기>는 불려지지 않는다.

---

24)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81)·광월심(남,73)·광일순(남,73) 제보, 조사내용 <산다이(명칭, 연행시기)>,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정, 2013.02.20(수) 19:28.

25)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81)·광월심(남,73)·광일순(남,73) 제보, 조사내용 <달야(명칭, 양상, 북망 산천이~)>,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정, 2013.02.20(수) 19:28.

### 3. 활용방안

#### 1) 구비연행자의 이야기와 노래 구연

①자원: 수집된 구비전승물 자체, 이를 구연하는 터전인 마을, 이를 구연하는 주체인 연행조직이나 개인<sup>26)</sup>과의 유기적 관계를 살피면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암태도 사람들의 농업, 수산업 등 농경·어로문화를 살피고, 특히 민속공동체 속 구비전승물의 지속과 변화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동시에 구비전승물에 나타난 암태도 사람들의 지역·해역의 정서를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암태도 사람인 구비연행자의 구연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구연기회란 내외부의 필요를 말한다.

②상태: 〈바보 이야기〉, 〈효자 이야기〉, 〈서태석이야기〉, 〈도창리 응원가〉, 최천식(남,77)의 〈웃기는 소리〉<sup>27)</sup>

이야기의 경우 김인남(여,81)이 바보 이야기, 효자 이야기 등을, 서재담(남,75)이 서태석 이야기를 구연하고 있다.

노래의 경우 조은식(남,79)과 도창마을 사람들이 〈도창리 응원가〉을 제보·가창하고, 최천산(남,77)이 〈성주풀이〉, 〈청춘가〉, 〈웃기는 소리〉 등



[사진 3] 도창리 도창마을 김인남(여,81) 할머니의 모습, 2013.02.19. 촬영

26) 허경희·나승만 『완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69쪽 참조

27) 홍순일 조사, 최천산(남,77) 제보, 조사내용 〈승봉산대봉산, 말봉산〉, [암태면지리답산내례과 그 후, 입도, 지역이동, 지리, 박달산, 문만석공과 천만석공, 노루섬, 비금 떡매산, 안좌 반월도 어깨산, 용 이야기, 퇴임이장단의 신암발전봉사협의회, 사진들(박달산, 금정산)], 암태면 신석리 탄금마을, 2013.02.21(목) 11:50 · 13:33 · 13:48.

민요를 불렀다.

- ③활용: 특히 산다이, 달야 등이 존재했으므로 이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는 자체적인 전승을 말하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전승도 포함된다. 섬여행 프로그램의 접점에서 무형의 구비전승물이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한다.

## 2) 지주와 소작인(임대인)의 갈등과 현재

- ①자원: 암태도에는 농민항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암태도 소작인항쟁기념탑이 있다. 암태소작회 측에서는 7~8할의 고율소작료를 4할로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주측에서는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소작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방해한 것이다.<sup>28)</sup> 지주와 소작인(임대인)의 경우 소작쟁의 전 2(소작인):8(지주)의 소작료를 소작쟁의 때 4:6 소작쟁의 때로 인하하고자 한 것이다.
- ②상태: 광성례의 <천부자 이야기>, <문참사의 망신> 등의 이야기가 있다.
- ③활용: 암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농민항쟁과 관련 서태석 생가와 소작인항쟁기념비, 문재철 생가와 천두학 기념비 등을 이야기를 하되, 섬의 역사에서 자기들의 생업과 관련된 소작료와 그후 지주들의 흥망을 예로 들어 말하는데 이용한다.

## 3) 추포 노두 이야기와 가마꾼소리

- ①자원: 행위에 따라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을 나눈다.  
추포 노두는 갯벌의 돌 징검다리인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노뚝길 탄다’고 한다.

---

28) 최성환 편저, <암태면>, 한국 도서해양 문화의 산실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신안문화원, 2008, 104~119쪽 중 108~109쪽.

②상태: 가마꾼소리

특히 신부가 가마타고 노  
 듯길 건너는 이야기는 구  
 전소리<sup>29)</sup>와 함께 인상적이  
 다.

뛰었냐?

뛰었다!

뛰었냐?

뛰었다!

뒤쪽의 가마꾼이 (발을) 띄었냐?

앞쪽의 가마꾼이 (발을) 띄었다!



[사진 4] 수곡리 포도마을 전시월(여,68) · 김달심(여,71) · 박한임(여,72) 할머니의 모습, 2013.02.18. 촬영

- ③활용: 암태도 사람들은 마을공동체에서 농경 · 어로행위를 하면서 구비전승물을 연행했다.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이야기하되,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자기들의 바다, 섬, 들, 산 등 생태경관을 말하는데 이용한다.

#### 4) 암태면의 생태경관과 암태사람들의 지리관

- ①자원: 바다, 섬, 들, 산(노만사가 있는 승봉산(대봉산, 말봉산), 박달산, 금정산) 등 생태경관과 인문지리 등이다.
- ②상태: 최천산(남,77)의 <암태면 지리답산내력>이 있다.
- ③활용: 암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이야기하되,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자기들의 바다, 섬, 들, 산 등 생태경관을 말하는데 이용한다. 안좌도의 승봉산(대봉산, 말봉산), 박달산, 금정산 등을 거론하고, 비금도 떡매산, 안좌면 반월도 어깨산 등과 대비할 수 있다.

29) 손광섭, 「암태도 징검다리」, 옛길 따라 세상의 통로, 다리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II』, JY 진양문화, 2008, 203~213쪽 중 210~211쪽.

## 5) 마을의 지명·인물 이야기와 마을사람들의 스토리텔링

### (1) 와촌마을의 지명과 마을사람들의 소 이야기

①자원: 와촌리 중흥마을 간척지 관련 마을사람들의 마을유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

와촌리(瓦村里)는 전에 기와를 구웠다고 하여 ‘와촌’ 또는 ‘지와촌’이라고 불렀다. 암태도 농지항생사의 근간이 간척지라고 할 때 와촌리 중흥마을 간척지는 신석들 간척지, 마명지구 간척지와 함께 암태도를 대표한다.

②상태: 정금례의 <소가 된 스님>, 김영선·곽월심·곽일순의 <이북동(남,84)이 소 오른쪽 눈에 흙을 붙인 이야기><sup>30)</sup>가 있다.



③활용: 암태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섬생활을 이야기를 하되, 마을사에서 자기들의 생업과 민속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용한다.

[사진 5] 와촌리 와촌 마을 김영선(여,81) 할머니의 모습, 2013.02.20. 촬영

### (2) 암태도 사람들의 수곡인 문준경 전도사 이야기

①자원: 암태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섬인물이 있고, 이를 토대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

---

30) 홍순일 조사, 김영선(여,81)·곽월심(남,73)·곽일순(남,73) 제보, 조사내용 <이북동(남,84)이 소 오른쪽 눈에 흙을 붙인 이야기>, 암태면 와촌리 와촌마을 노인정, 2013.02.20(수) 21:24·21:25.

31) 홍순일 조사, 김금동(남,미상) 제보, 조사내용 <문준경 전도사의 출생지 이야기>, 암태면 송곡리 송곡마을 김금동씨택, 2013.05.30(목) 15:00 홍순일 조사, 김범웅(남,미상) 제보, 조사내용 <문준경 전도사의 생애에서 유의사항>, 암태면 송곡리 송곡마을 암태제일교회 당회장실, 2013.05.30(목) 17:05.

- ②상태: 김금동·김범웅의 문준경 전도사의 출생지 이야기 및 생애에서 유의사항<sup>3D</sup>이 있다.
- ③활용: 암태도 사람들이 섬의 인물을 이야기를 하되, 마을공간에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용한다.

## 참고문헌

- 손광섭, 「암태도 징검다리」, 옛길 따라-세상의 통로, 다리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II』, JY 진양문화, 2008, 203~213쪽.
- 신동훈, 「설화(이야기)」,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278~307쪽.
- 「암태면 지명 유래」, 『신암발전봉사협의회』, 신안군 암태면, 년도 미정, 39~56쪽.
- 이창식, 「민요」, 임재해 외, 『민속조사의 현장과 방법』, 2010, 308~331쪽.
- 청주MBC, 다큐 〈천년의 다리〉, 2010.11.
- 최성환 편저, 한국 도서해양 문화의 산실 『천사의 섬 신안의 문화유산』, 신안군·신안문화원, 2008.
- 허경희 조사, 김복희 보조, 「암태도의 설화와 민요」, 『도서문화』 제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3.10, 설화는 121~142쪽이고 민요는 143~147쪽.
- 허경희·나승만, 『완도지역의 설화와 민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2.
- 홍순일, (고)문헌자료 조사, 2012.12.24~2013.08.23.
- 홍순일, 암태도 공동 현지조사 자료, 2013.02.18~21; 암태도(송곡) 개별 현지조사 자료, 2013.05.30.
- 홍순일, 『도서민요의 공동체와 구비연행』, 민속원, 2012.



# 암태면편

## VII. 방언문화

이 기 갑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조사개요

### 2. 어휘설명

- 1) '이갑' 과 '이늘'
- 2) '능깨다' 와 '능께이'
- 3) 천장배기코
- 4) 폴궁둥
- 5) 눈애피, 가심애피
- 6) 콧물댕이
- 7) 체금
- 8) 마리, 물리
- 10) 깐치저구리
- 11) '-수' 와 '-이'
- 12) 백바람
- 13) 보개피하다
- 14) 먼처막

### 3. 활용방안



## VII 방언문화

### 1. 조사 개요

이 글은 전남 신안군 암태도의 방언 어휘 가운데 흥미로운 몇 가지를 골라 전남의 육지 방언과 비교하면서 어원과 쓰임새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암태도의 방언 어휘에 대해서는 1983년에 이미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에서 방대한 어휘를 조사하였고 이것은 김웅배(1983)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김웅배(1983)는 조사된 어형만을 제시하였을 뿐, 각 어형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김웅배(1983)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초자료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따로 조사를 행하지 않고 기왕에 조사된 김웅배(1983)에서 제시된 암태도의 어휘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 그 어원과 쓰임새를 기술함으로써, 이 지역 방언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이 글의 수준은 철저히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언어학적 설명은 오히려 대중들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학적 설명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2. 어휘 설명

### 1) ‘이깎’ 과 ‘이늘’

김용배(1983)에 따르면 암태도에서는 낚시의 미끼 ‘를’ 이깎 ‘이라 하고,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이늘’ 이라고 한다.

박경래 외(2013)에서 낚시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전라도말을 풀이한 바가 있다. 우선 ‘낚시’ 는 ‘낙수’ 라 하며, ‘낚시질’ 은 ‘낙수질’ 또는 ‘내끼질’ 이라 한다. ‘낚시’ 의 옛말이 ‘낚’ 임을 고려하면 표준어 ‘낚시’ 는 접미사 ‘-이’ 가 첨가되어 발달한 어형이며, 전남 방언형 ‘낙수’ 는 접미사 ‘-우’ 가 결합된 형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끼질’ 은 ‘낚다’ 에 대응하는 중세형 ‘낚다’ 의 어간 ‘낚-’ 에 접미사 ‘-이’ 가 결합한 명사 ‘낚이’ 가 음라우트를 거쳐 ‘내이’ 가 되고 여기에 접미사 ‘-질’ 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전남 방언형 ‘낙수질’ 과 ‘내끼질’ 은 어근이 다른 셈이다.

낚시 끝에 꿩는 물고기의 먹이를 표준어로 ‘미끼’ 라 한다. ‘미끼’ 는 중세어에서 ‘뫓’ 이었다. ‘뫓’ 에 의미 없는 접미사 ‘-이’ 가 첨가되어 ‘미끼’ 로 어형이 확장된 것은 ‘잇’ 이 ‘이끼’ 로, ‘낚’ 이 ‘낚시’ 로 되는 것과 같은 변화이다.

한편 옛말에는 <미끼로 잡히다>의 뜻으로 ‘미씨다’ 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미끼로 잡다>를 뜻하는 동사 \*뫓다’의 피동형일 것이다. \*뫓다’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미씨다’ 를 통해 이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예) 後生 점은 사람이 굿구의 덕키는 덕 니르러 만히 간활흔 아전에게 미션 배 되여(소학언해 5:60)

동사 ‘뫓다’ 는 미끼를 가리키는 명사 ‘뫓’ 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뫓’ 과 ‘뫓다’ 의 관계는 ‘뽕’ 과 ‘뽕다’, ‘신’ 과 ‘신다’ 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미끼’ 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는 ‘낙숫밥’, ‘내깃밥’, ‘이깎’ 이 있다. ‘낙숫밥’ 과 ‘내깃밥’ 은 앞에서 설명한 ‘낙수’ 와 ‘내끼’ 에 ‘밥’ 이 합성된 것이다. ‘낙숫밥’ 은 ‘낚시의 밥’, ‘내깃밥’ 은 ‘낚기의 밥’ 이라는 뜻으로서 그 기원적 의미는 다르나 현재

는 모두 ‘미끼’를 가리킨다. 한편 ‘이깍’은 그 기원이 전혀 다르다. 아마도 ‘이깍’은 ‘미끼’를 뜻하는 ‘뫼’에 의미 없는 접미사 ‘-압’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뫼깍’이 생겼을 것이고 이로부터 /ㄱ/ 탈락에 의해 ‘이깍’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깍’이 ‘이깍’으로 바뀌는 것은 모음 /ㅣ/ 앞에서 /ㄱ/이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표준어로 ‘미늘’이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태도에서는 이를 ‘이늘’이라 한다. 표준어 ‘미늘’은 옛말에서 ‘미늘’ 또는 ‘미늘’로 나타난다.

(예) 가. 아래로 낙줄와 낫 미느를 뿌러 나 근 현 덕 업더라(구급방언해 상:48)  
나. 낙시 미늘(역어유해 상:22)

따라서 신안 암태도의 ‘이늘’은 ‘미깍 > 이깍’에서 확인하였던 변화 곧 첫소리 /ㄱ/이 /ㅣ/ 모음 앞에서 탈락되는 변화가 ‘미늘’에 적용된 결과이다.

전남 방언에는 ‘기명(器皿) > 기영’, ‘피명 > 미영’과 같이 반모음 /ㅣ/ 앞에서 /ㄱ/이 탈락되는 예가 있다. 다만 이것은 낱말 첫소리가 아닌 둘째 음절이라는 점에서 ‘이깍’과 ‘이늘’이 겪은 음성적 환경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 2) ‘능깨다’와 ‘능깨이’

굳은 물건이나 덩이로 된 물건을 눌러 부스러뜨리는 동작을 ‘으깨다’라고 한다. 그래서 ‘감자를 으깨어 요리를 하다’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김용배(1983)에서는 신안 암태도에서 이 ‘으깨다’를 ‘능깨다’라 하여 표준말에 없는 /ㄴ/이 낱말의 첫 소리에 첨가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전남의 육지 지역에서는 ‘으깨다’에 대응하여 ‘잉까르다’가 쓰이고 그 피동형으로 ‘잉깔라지다’가 흔히 쓰인다. 이 ‘잉깔라지다’는 표준말의 ‘으깨지다’와 같은 뜻으로서 연약한 물체가 큰 힘에 의해 여지없이 눌러 깨지거나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래서 “콧 잉깔라져 갖고 어디 묵겼냐?”와 같은 문장은 우악스런 힘에 의해 뭉그러진 흥시 따위를 가리키는 말로 제격이다.

‘잉깔라지다’가 표준말의 ‘으깨지다’와 의미가 상통한다 하더라도 두 낱말의 어원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라도말의 ‘잉깔라지다’는 표준말의 ‘으끄러지다’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끄러지다’는 <물건의 거죽이 찌그러지다>는 뜻을 갖는 ‘으그러지다’의 센말로도 쓰이지만, <연한 것이 다른 것에 의해 문질리거나 눌러서 부스러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전라도말의 ‘잉깔라지다’와 같은 뜻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이다. 표준말에는 같은 뜻으로 ‘으끄러지다’ 외에 ‘으츠러지다’라는 말도 쓰인다.

만약 전라도말 ‘잉깔라지다’와 표준말 ‘으끄러지다’가 같은 어원에서 발달한 말이라면 전라도말에서는 ‘으’가 ‘잉’으로 바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 변화는 우선 ‘으’가 ‘이’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전라도말에서도 쉽게 찾아진다. 예를 들어 표준말의 ‘으깨다’는 전라도말에서 흔히 ‘이깨다’로 발음된다. 감자를 으깬 때에도 전라도말에서는 감자를 ‘이깬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으끄러지다’가 전라도말에서 일단 ‘이끄러지다’로 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하겠다. 여기에 자음 /ㅇ/이 첨가되는 것이 특이한데, 그러나 전라도말에서는 /ㄱ/ 앞에서 /ㅇ/이 첨가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예를 들어 ‘바위’는 전라도말에서 ‘바우’ 또는 ‘바구’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구’라고 하기도 한다. 이 ‘방구’는 물론 ‘바구’에서 /ㅇ/이 첨가된 것인데, 이러한 /ㅇ/의 첨가가 ‘이끄러지다’에서도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끄러지다’는 ‘잉끄러지다’처럼 소리 나게 된다. 여기에 /ㄹ/이 첨가되고 모음이 변하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잉깔라지다’와 같은 말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순전한 전라도말처럼 들리는 ‘잉깔라지다’도 꼼꼼히 살펴보면 표준말의 ‘으끄러지다’와 하나의 어원에서 갈라져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태도의 ‘능깨다’는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능깨다’는 표준어 ‘으깨다’와 비교할 때 /ㄴ/과 /ㅇ/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ㄷ/ 앞에서 /ㅇ/이 첨가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데, 암태도는 여기에 더하여 낱말의 첫 소리에 /ㄴ/이 첨가되는 점이 특이하다. 아마도 ‘으깨다 > 응깨다 > 능깨다’와 같은 변화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암태도에서 사용되는 낱말 가운데 ‘이끼’를 뜻하는 말 ‘능끼이’에서도 ‘능깨다’와 똑같이 /ㄴ/과 /ㅇ/이 첨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김웅배 1983). 이 두 예만을 보면 암태도에서 낱말 첫음절에 일어나는 /ㄴ/의 첨가는 /ㄴ/ 모음 앞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서는 낱말 첫 음절에서 /ㄴ/이 탈락되는 변화를 겪는데 이런 변화는 모두 /ㅣ/ 모음 앞이라는 제약을 갖는다. ‘닐굽 > 일곱’, ‘닐다 > 일다’, ‘님 > 임’, ‘닙다 > 입다’가 그런 예이다. 암태도에서도 이런 /ㄴ/ 탈락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 방언에서 /ㄴ/이 탈락되는 환경과 /ㄴ/이 첨가되는 환경은 서로 다른 셈이다. /ㄴ/의 탈락은 /ㅣ/ 모음 앞, /ㄴ/의 첨가는 /ㅡ/ 모음 앞으로서 서로 상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암태도 방언에서 /ㄴ/이 첨가되는 환경에서는 모음 /ㅡ/가 /ㅣ/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앞에서 ‘으깨다 > 이깨다’처럼 모음 /ㅡ/가 /ㅣ/로 바뀐 예를 들었지만 이런 변화는 /ㄴ/이 첨가된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능깨다’나 ‘능깁이’처럼 될 뿐 ‘\*닝깨다’나 ‘\*닝깁이’와 같은 어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 3) 천장배기코

표준어 ‘들창코’를 가리켜 신안 암태도에서는 ‘천장배기코’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다(김용배 1983). 위로 들린 코를 코가 천장을 바라본다고 해석한 일종의 은유라 할 수 있다.

박경래 외(2013)에서는 이처럼 은유를 이용하여 사물의 이름을 붙인 몇 가지 경우를 제시한 바 있다. ‘납작코’를 전남방언에서는 흔히 ‘빈대코’라 하는데 이 역시 납작한 코의 모양을 납작한 빈대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사팔뜨기를 가리켜 전남방언에서 ‘면산바래기’나 ‘건네산바래기’ 등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것이다. 마치 먼 산이나 건너 산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써 사팔뜨기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에 드는 전남방언형으로는 ‘물구나무서다’를 가리키는 ‘계걸음꾼지서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어형은 ‘천장배기코’와 마찬가지로 신안군 암태도에서 확인된 것인데, 여기서 ‘꾼지서다’는 ‘곤두서다’의 방언형이다. 그런데 특히 계가 다리를 위에 두고 움직이는 모양을 마치 계가 물구나무를 서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 역시 사람의 물구나무서기를 계의 행태에 비유하여 표현한 재미있는 예라 하겠다. 또한 온몸에 칠딩굴 같은 어롱어롱한 무늬가 있는 소를 표준어에서는 ‘칠소’라 하지만 전남 보성에서는 ‘부지땅 맞은 소’라고 부른다. ‘부지땅’은 ‘부지깁이’의 전남 방언형으로서 소의 몸에 칠딩굴처럼 늘어진 검은 줄을 마치 부지깁이가 남긴 흔적으로 인

식한 표현이다. 이처럼 방언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이해의 독특한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귀중한 언어문화의 면모를 보여 준다.

#### 4) 폴궁둥

암태도에서 ‘팔꿈치’를 ‘폴궁둥’이라고 한다. 표준어 ‘팔꿈치’는 ‘팔’과 ‘굶치’가 결합된 말로서 ‘굶치’의 ‘굶’은 아마도 동사 ‘굶-’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꿈치’는 <굶은 신체 부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치’가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에 쓰이는 다른 예로는 엉덩이를 가리키는 방언형 ‘엉치’를 들 수 있다.

‘팔꿈치’를 뜻하는 옛말로 ‘폴구브렁’, ‘폴구빅’, ‘폴구미’, ‘폴스구머리’ 등을 들 수 있는데, ‘폴구브렁’에서는 동사 ‘구블-’, ‘폴구빅’에서는 동사 ‘굶-’의 형태가 확인되고, ‘폴구미’, ‘폴스구머리’에서는 ‘굶’이 ‘곰’으로 바뀌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폴구미’는 ‘폴-굶-이’, ‘폴스구머리’는 ‘폴-굶-어리’에서 변화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다만 ‘굶-’이 왜 ‘곰-’으로 바뀌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문제다.

전남 방언에는 팔꿈치를 가리키는 말로 ‘폴굶, 폴꿈치/폴꿈치, 폴꾸마리/폴꼬마리, 폴띠꿈치/폴띠꿈치, 폴꿈댕이/폴꿈대이, 폴옹둥이, 폴꿈뱅이’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각각 ‘폴굶’계, ‘폴꿈’계, ‘폴꿈댕이’계, ‘폴꿈뱅이’계 등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폴굶’계에는 ‘폴굶’이 있는데, 이는 ‘폴’에 동사 ‘굶-’의 어간과 형태가 같은 명사 ‘굶’이 결합된 것이다. ‘폴꿈’계에는 ‘폴꿈치/폴꿈치, 폴꾸마리/폴꼬마리, 폴띠꿈치/폴띠꿈치’가 있다. ‘폴꿈’은 ‘폴’과 ‘굶’이 합성된 것이며, 여기서 ‘굶’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곰’이 바뀐 것이다. ‘폴꿈치’는 표준어 ‘팔꿈치’와 같은 것이며, ‘폴띠꿈치’는 ‘폴’과 ‘뒤굶치’가 합성된 말이다. 표준말에서는 ‘뒤꿈치’가 ‘발’과 합성을 이루는데, 전남 방언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팔에까지 확장되어 ‘폴’에도 결합한 것이 흥미롭다. ‘폴꼬마리’는 옛말 ‘폴스구머리’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굶’의 변이형 ‘곰’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된 ‘고마리’가 ‘폴’에 합성된 것이다.

영광 지역에서 확인되는 ‘폴꿈뱅이’는 흥미롭다. ‘폴꿈뱅이’는 ‘폴’과 ‘곰뱅이’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곰뱅이’는 자그마한 통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긴 자루를

붙인 것으로서 주로 흙덩이를 잘게 부술 때 쓰이는 농기구를 가리킨다. ‘곰뱅이’의 표준말은 ‘곰방메’이다. ‘곰방메’의 ‘메’는 떡을 치는 데 사용되는 ‘메’이므로, 흙을 부수는 메라는 뜻이다. ‘곰방’은 짧은 담뱃대를 가리키는 ‘곰방대’에서도 찾아진다. 아마도 담배통과 담배설대가 거의 직각처럼 구부러져 있는 모양이 ‘곰방메’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이다. 표준말 ‘곰방’과 전라도말 ‘곰뱅이’에서 공통적으로 형태 ‘곰’을 찾아낼 수 있고, 이것은 동사 ‘굽-’의 어간과 어원이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영광 지역의 ‘폴곰뱅이’는 팔의 구부러진 모습이 마치 흙을 깨는 농기구인 ‘곰뱅이’와 닮은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폴궁덩이’ 계에는 ‘폴꿀둥/폴곰덩이/폴궁대이, 폴옹둥이’가 있다. 신안군 암태도에서 쓰이는 ‘폴꿀둥’과 ‘폴궁대이’는 ‘폴’에 궁둥이를 뜻하는 ‘궁둥’이나 ‘궁덩이’가 합성된 말이며, ‘폴옹둥이’는 엉덩이를 뜻하는 ‘옹둥이’가 합성된 말이다. 이들은 모두 팔꿈치가 밖으로 두드러진 모습을 마치 사람의 궁둥이나 엉덩이로 비유한 결과이다. 표준어에서는 ‘궁둥이’와 ‘엉덩이’가 각각 볼기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되지만, 방언에서는 이 두 말이 거의 의미 차이 없이 혼용된다. 이런 이유로 전남 방언에서 팔꿈치를 가리키는 ‘폴궁/폴궁대이’와 ‘폴옹둥이’의 두 어형이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5) 눈애피, 가슴애피

신안 암태도에서는 안질 또는 눈병을 가리켜 ‘눈애피’라 한다. 이 말은 물론 암태도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니고 전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이는 매우 보편적인 말이다. ‘눈애피’란 말을 언뜻 들으면 눈에 피가 고이는 병이거나 아니면 눈에 핏발이 생긴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원래는 ‘눈아프-’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눈아피’에서 발달한 말이다. 즉 ‘눈아피’가 ‘눈애피’로 되고 이것이 다시 ‘눈애피’로 변한 것일 뿐, 눈에 서는 핏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다.

표준어에서는 ‘앓다’라는 자동사를 써서 ‘귀앓이, 배앓이, 가슴앓이’와 같은 단어를 만든다. 그러나 전라도말은 ‘아프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눈애피, 가슴애피’ 등의 낱말을 만드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물론 ‘아프다’도 그 기원은 ‘앓다’에서 파생된 형용사이지만, ‘병’(病)에 대한 순수 우리말 표현으로 표준말의 ‘앓이’ 대신 전라

도말의 ‘애피’가 사용되는 것이 특별하다고 하겠다.

전라도말에는 표준말의 ‘귀얇이’에 대한 ‘귀애피’ 등의 말은 없다. 그 대신 ‘가슴얇이’에 대해서는 ‘가심애피’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표준어의 ‘가슴얇이’가 식도와 위의 윗부분이 쓰리고 아픈 증상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약간 추상화 되면서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하는 일>을 의미하는 데 반해, 전라도말 ‘가심애피’에는 후자의 뜻이 없어 차이를 보인다.

## 6) 콧물덩이

콧등의 마루가 진 부분을 표준어에서 ‘콧마루’라 하는데, 암태도에서는 ‘콧물덩이’라 한다. 콧등은 <코의 등성이로서 두두룩하게 올라온 부분>을 가리킨다. 전남 방언에서는 ‘콧등’을 ‘콧잔등’이라 하는데, 이때 ‘잔등’은 나지막한 고개나 산을 가리키는 전남 방언으로서, 형용사 ‘잘다’와 신체어 ‘등’이 합성된 말이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이 ‘잔등’을 <코나 산의 두드러져 올라온 부분>으로 풀이하여 전남 방언의 용법과 완전히 같은 뜻을 보여 준다.

표준어에서 콧등의 끝 부분은 ‘코끝’이라 하고, 콧등의 마루가 진 부분은 ‘콧마루’라 한다. 여기서 ‘마루’는 등성을 이루는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옛말 ‘믄르’의 후대형이다. 산의 경우 ‘산마루’라는 독립된 낱말로 쓰이기도 한다. 전남 방언에서 산의 ‘마루’는 ‘몬당’, ‘몬덩이’, ‘몰랑’, ‘몰랑가지’, ‘몰랑이’, ‘몰랑지’처럼 ‘몰랑’계와 ‘몬당’계의 두 계열 어형이 확인된다. ‘몰랑’, ‘몰랑가지’, ‘몰랑이’, ‘몰랑지’ 등 ‘몰랑’계의 어형은 옛말 ‘믄르’에 다양한 접미사가 첨가된 것이다. 대들보를 전남 방언에서 흔히 ‘모릿대’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믄르’ > ‘모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모리’는 산마루를 가리킬 때에는 ‘몰’로 줄어들고 여기에 다양한 접미사가 결합하여 ‘몰랑’, ‘몰랑가지’, ‘몰랑이’, ‘몰랑지’와 같은 ‘몰랑’계 어형이 생겨난 것이다.

‘몬당’, ‘몬덩이’와 같은 ‘몬당’계의 어형은 옛말 ‘믄르’가 축약된 ‘몰’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몬’이 된 뒤 여기에 ‘-당’이 결합하여 ‘몬당’과 ‘몬덩이’가 형성되었다.

전남 방언에서 산의 경우 ‘믄르’에서 발달한 다양한 어형이 쓰이지만 콧마루를 가

리킬 때에는 이런 어형이 잘 쓰이지 않으며, ‘콧잔등’이나 ‘코끝’ 등으로 어립하여 가리키곤 한다. 그런데 신안 암태도에서는 유독 ‘콧몰댕이’라는 어형이 확인된다. ‘몰댕이’의 ‘몰’은 몰랑’계의 형태적 특징을, 그리고 ‘댕이’는 ‘몬당’계의 형태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아마도 이 두 계열이 혼태를 일으켜 합성된 낱말로 보인다.

## 7) 제금

신안 암태도에서는 결혼한 자식을 분가시키는 일을 가리켜 ‘제금낸다’고 한다. 따라서 ‘제금’은 이 방언에서 ‘분가’와 같은 뜻을 갖는 셈이다. ‘제금’은 암태도뿐 아니라 전남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낱말이다.

과거 전통적 농경 사회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결혼을 했더라도 큰아들은 당연히 부모와 함께 살아야 했고, 작은 아들들만이 따로 나가 살 수 있었다. 결혼과 함께 따로 나가 사는 일을 ‘분가’라 하는데, 분가를 하더라도 부모 곁에 집을 얻는 것이 보통이고, 또한 농사철이면 서로 도와 가며 일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과거의 분가는 대체로 부모가 가진 전답의 일부를 물려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즉 상속이 분가와 동시에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산이 많은 양반의 경우에는 상속이 따로 있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의 전답을 물려받으면서 분가해 나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고, 아무 것도 없는 살림이라면 방 하나 얻어서 나가 사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처럼 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제 살림을 차려 나갈 때, 암태도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서는 흔히 ‘제금나다’라고 하며, 분가시킬 경우에는 ‘제금내 놓다’라고 한다. 그리고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서 하는 생활을 ‘제금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사람더러 흔히 “장개가 갖고 금방 제금내 놓으면 쓰가니? 밋달이라도 디꼬 살아야제.”와 같은 충고를 하기도 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맞으면서 기존의 가족적 유대가 깨질까 염려하는 부모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제금’은 순수한 우리말로써, ‘분가’(分家)와 같은 한자어와 구별된다. 이 ‘제금’은 옛말에서 ‘제여곰’이란 말로 쓰이는데, 그 뜻은 <제각기> 또는 <각자>이다. 그래

서 세종 때의 문헌인 『석보상절』에 나타나는 ‘제여곰 前生에 닳곤 因緣으로’와 같은 문장은 ‘각자 전생에 닳은 인연으로’와 같은 뜻이 될 것이다. 이 ‘제여곰’이란 말이 후대에 들어 ‘제곰’으로 바뀌고 전라도말에서는 ‘제금’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전라도말에서도 ‘제금’이 <각자>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국은 한테다 푸지 말고 국그럭에다 제금 퍼라.”라고 할 때의 ‘제금’이 이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보면 ‘제금’은 원래 <각자>를 의미하다가 전라도말에 와서 <각자>와 더불어 <분가>의 의미를 따로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금’ 안에는 <자기>를 의미하는 ‘제’가 들어 있다. 이 ‘제’는 전라도말에서 흔히 ‘지’라고 발음되는데, “지가 벗이가니 큰소리여?”라든가 ‘지절로’ 등에서 보이는 ‘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제금’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다.

## 8) 왼손잡이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는 왼손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연스럽지만,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정작 이렇게 쓴 글이 오른손으로 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 왼손으로 쓴다는 것이 그다지 염려할 일도 아닌 듯하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공을 던지거나 글을 쓰는 일은 거의 금기시 되어 있다. 아들이 왼손으로 글을 쓰는 것을 보고, 매를 때려 가며 오른손으로 쓰도록 훈련시켰다는 이야기를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 분이 말하는 이유인즉, 왼손잡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출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자세로 글을 쓰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겠느냐는 것이 이유이지만, 그 이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위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동차의 변속기는 언제나 운전자의 오른쪽에 달려 있고, 야구의 글러브나 골프채 같은 운동 기구도 왼손잡이용을 구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일이 오른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오른손잡이가 주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왼손잡이는 언제나 주류에서 벗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왼손’이란 말 속에 우리의 이런 인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왼손에 상대적인 손을 ‘오른손’ 또는 ‘바른손’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의 어원이 ‘옳은 손’임을 상기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오른손을 쓰는 것은 ‘옳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해 왔음에 틀림없다. 영어에서는 오른쪽을 right라고 하거니와, 이 right에는 <오른쪽>이라는 뜻 외에 <옳다>나 <바르다>의 뜻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서양의 오른쪽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 완전히 같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손’에 포함된 ‘왼’의 뜻은 매우 흥미롭다. ‘왼’은 원래 형용사 ‘외다’에서 온 말인데, 중세어에 보이는 ‘외다’는 <그르다> 또는 <옳지 않다>의 뜻을 가졌다. 그래서 15세기 문헌인 『남명집언해』라는 책에는 ‘올거나 외어나’와 같은 표현이 보이는데, 현대어로는 ‘옳거나 그르거나’ 정도로 옳길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5세기 문헌인 『금강경언해』에 보이는 ‘올흐며 외요물 간대로 보아’와 같은 말도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보아’의 뜻을 갖는다. 현대어에서 형용사 ‘외다’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죽은 말이 되어 버렸지만, 부사로 바뀐 ‘외로’와 같은 표현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와 같은 속담에 있는 ‘모로 가도’ 대신 ‘외로 가도’를 써도 같은 뜻의 속담이 된다.

이처럼 ‘외다’나 ‘외로’의 뜻이 <그르다>나 <옳지 않게>의 뜻임을 생각하면 ‘왼손’의 원래 뜻이 <그른 손>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른손을 쓰는 것은 바른 일이지만 왼손을 쓰는 일은 그른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영어에서도 왼쪽을 뜻하는 left는 원래 <약하다>나 <가치 없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왼손이나 왼발은 오른손이나 오른발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더 가치 없게 느껴졌을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영어의 경우에도 left가 right에 비해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은 우리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전라도말에서 ‘왼손’은 일반적으로 ‘외악손’이라고 한다. ‘외악’의 ‘외’는 물론 형용사 ‘외다’의 어간일 텐데 여기에 붙는 ‘악’의 정체는 분명치 않으나, 의미상으로 ‘쪽’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있다. 중세어에 ‘거기’를 ‘그어긔’라 하였다. 이 말은 ‘그-억-의’처럼 분석되는데, ‘그’는 지시어이고, ‘억’은 ‘쪽’이나 ‘곳’의 의미를 나타내며 ‘의’는 처격조사로서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그곳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분석되는 ‘억’이 ‘외악손’의 ‘악’과 같은 말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왼손만을 쓰는 ‘왼손잡이’는 전라도에서 대체로 ‘외악손잡이’라 한다. 그런

데 신안 암태도에서는 ‘외악손잡이’ 대신 ‘원동잡이’가 쓰여 흥미롭다. ‘원동잡이’의 ‘동’은 ‘손’의 뜻이거나 아니면 ‘악’과 마찬가지로 ‘쪽’이나 ‘곶’의 의미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 9) 마리, 물리

우리가 사는 집의 모양이나 구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기후가 다르고, 산물이 다르니, 당연히 집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부 지방은 대체로 일자 모양의 구조를 갖는데 ‘부엌-안방-대청-건넌방’의 차례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 ‘대청’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있으면서 두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거실 구실을 하고, 부엌은 안방 옆에 붙어 있어, 안방을 위한 난방을 하는 곳으로 쓰인다. 이런 구조에서는 특히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안방에서 먹게 되므로 안방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 것이다.

그런데 암태도를 비롯한 서남해 도서 지역의 가옥 구조는 이와 조금 다르다. 일자 모양을 갖는 점에서는 남부의 여타 지역과 다를 바 없으나, 방의 배열이 달라진다. 이 지역에서는 우선 방의 명칭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안방을 ‘큰방’이라 부르고, 건넌방은 ‘모방’이라 한다. 대청에 해당하는 공간은 ‘마리’라 하고, 부엌은 ‘정지’라 한다. 여기에 창고 기능을 하는 ‘고방’이 덧붙을 수 있다. 이들 각 방의 배열은 대체로 ‘정지-큰방-마리’로 이어지고, ‘정지’ 앞쪽에 ‘모방’이 붙어 있다. ‘고방’은 ‘마리’ 앞에 붙는 수가 많다. 이런 구조는 ‘모방’과 ‘고방’이 앞쪽으로 약간 나와 있고 나머지 ‘정지-큰방-마리’가 약간 뒤로 물러 있으면서 일자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흥미로운 것은 ‘마리’이다. 구조에서 보듯이 ‘마리’는 집의 맨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큰방’의 옆에 붙어 있다. ‘마리’는 대체로 바닥이 평평한 판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대청’과 같지만 그 기능은 다르다. 대청은 거실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마리’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마리’는 곡식을 넣어 둔 항아리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다. 또한 여기에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특히 집을 관장하는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동우’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대청이 열린 공간이라면 ‘마리’는 닫혀 있는 공간인 셈이다. ‘마리’의 바닥은 경우에 따라 판자 대신 흙이나 시멘트로 만들기도 하는데, 흙의 경우 ‘토마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마리’ 앞에

는 앞서 말한 ‘고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표준어의 ‘괭’에 해당하는 곳이다. 대체로 수확한 곡식이 가마니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어서 ‘마리’의 공간을 보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집 앞에는 마루에 해당하는 ‘물리’가 있다. ‘마리’와 ‘물리’는 아마도 그 기원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능이 달라지면서 언어도 분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마루’의 첫 음절에 대해 한반도의 대부분의 방언은 ‘마’나 ‘말’을 대응시키고 있는 반면 ‘물’을 대응시키는 방언은 경북과 전남의 일부 지역뿐이다. 전남의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의 ‘물리’는 이 점에서 특이한 형이라 할 수 있는데, 기왕에 ‘마리’라는 독특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 있어 ‘마’형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기능의 공간으로서 ‘물리’라는 어형이 분화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 도서 지역이라도 곳에 따라 ‘물리’ 대신 ‘토지’와 같은 형을 따로 쓰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마리’라는 공간 때문에 형태적 분화를 보이기 위한 결과로 해석된다. 육지에서도 ‘마루’와 ‘대청’은 바닥이 모두 판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어형은 다르다. ‘마루’는 순수 우리말을 쓰지만 ‘대청’은 한자어이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마루’와의 구분을 위해 ‘대청’이라는 한자어가 발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한자어의 발달은 마치 ‘마리’와 ‘물리’, ‘마리’와 ‘토지’처럼 어형이 분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서남해 도서 지역은 ‘마리’가 옛 형을 고수하는 반면 ‘물리’나 ‘토지’가 새롭게 변한 후대형이라는 점에서, 육지 지역의 경우와는 차이를 보인다.

## 10) 깐치저구리

색동저고리의 ‘동’은 저고리 소매에 이어 대는 동강의 조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색동’이란 오색 천 조각을 잇대어 만든 저고리 소맷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색동저고리’란 결국 이런 색동을 사용하여 소매를 만든 저고리를 뜻한다. 전라도말에서는 색동저고리 대신 ‘깐치저구리’(김웅배 1983) 또는 ‘깐치동저구리’라는 말을 쓴다. 신안 압태도에서는 ‘깐치저구리’가 쓰이고 육지에서는 일반적으로 ‘깐치동저구리’가 쓰인다. 여기서 ‘깐치’는 ‘까치’의 전남 방언형이므로 표준어로 번역하자면 ‘까치저고리’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 표준어에서 ‘까치저고리’는 설날 그믐날에 입는 어린아이의 색동저고리를 뜻한다.

설날의 전날 즉, 선달 그믐날을 표준말에서는 ‘까치설날’이라 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와 같은 동요에 보이는 ‘까치’가 바로 이 말이다. 선달그믐과 까치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까치설날’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사실 까치와 선달그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달그믐은 옛말에 ‘아춘설’이라 하였다. 이때의 ‘아춘’은 <작은>이라는 뜻이니 ‘아춘설’은 <작은설>이라는 뜻이었다. 즉 정월 초하루가 제대로 된 설날이라면 선달그믐은 이보다는 못한 작은설이라는 뜻이니, 마치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의 관계와 같다고 할 것이다. 15세기 말에 조카를 ‘아춘아들’이라 하였고, 질녀를 ‘아춘딸’이라 한 것에서도 우리는 이 당시의 ‘아춘’이 <작은>을 의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아춘’이란 말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자, ‘아춘설’의 ‘아춘’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 뜻 모를 ‘아춘’을 기쁜 소식을 물어다 주는 ‘까치’와 관련시키게 된 것이다. ‘아춘’과 ‘까치’의 소리가 비슷한 것이 이 두 말을 관련시킬 수 있는 주된 근거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아춘설’은 후대에 ‘까치설’이 되어 오늘날 까지 쓰이게 되었다.

이런 까치설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표준말로 ‘까치저고리’라고 한다. 그래서 ‘색동저고리’와 ‘까치저고리’는 그 의미에 있어서 같지 않다. 색동저고리가 색동을 대어 만든 저고리 일반을 가리킨다면, 까치저고리는 까치설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가리키는 말이니, 까치저고리는 결국 특정한 날에 입는 색동저고리를 의미함으로써 훨씬 제약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라도말에서는 ‘까치’를 ‘깁치’라고 하는 탓에 ‘까치설날’에 입는 저고리가 ‘깁치저구리’ 또는 ‘깁치동저구리’가 된 것이다.

전라도말에서는 표준말처럼 ‘색동저고리’와 ‘까치저고리’의 대립이 없이 언제나 ‘깁치저구리’ 또는 ‘깁치동저구리’라는 낱말로 쓰이기 때문에, 전라도말의 ‘깁치저구리’나 ‘깁치동저구리’는 까치설날뿐 아니라 언제라도 입을 수 있는 색동저고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원래 까치설날에 입었던 ‘깁치저구리’나 ‘깁치동저구리’가 그 의미를 확대하여 색동저고리에까지 쓰이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확대 현상은 전라도말에서 ‘색동’이란 말을 ‘깁치동’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말에는 까치설날과 무관하게 ‘까치’를 쓰는 수가 있다. 울긋불긋한 노을을 ‘까치놀’이라 하고, 오색이 들어간 태극부채를 ‘까치선’이라 하는 것이 그 예

이다. 이것은 등이나 날개는 검고 배 색깔은 하얀 까치의 알록달록한 색깔을 울긋불긋한 색깔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준말의 ‘까치저고리’나 전남 방언의 ‘까치저구리’ 또는 ‘까치동저구리’도 까치설날과 관계없이 오색으로 만들어진 색동저고리의 울긋불긋함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낱말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결국 전라도 방언의 ‘까치저구리’ 또는 ‘까치동저구리’는 까치설날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 11) ‘-수’와 ‘-이’

표준어 ‘떠버리’는 자주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어근 ‘떠벌’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가 결합된 말이다. 신안 암태도에서는 이 ‘떠버리’ 대신 ‘떠벅수’라는 말이 쓰여 흥미롭다(김웅배 1983). ‘떠버리’와 ‘떠벅수’를 비교하면 어근 ‘떠벌’과 ‘떠벅’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에서 ‘-이’ 대신 ‘-수’가 쓰이는 점이 특이하다. 물론 암태도에서 접미사 ‘-이’가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땀장이를 가리켜 암태도에서는 ‘때울이’라 하는데 이 ‘때울이’는 ‘때우-르-이’로 분석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접미사 ‘-이’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암태도에서 접미사 ‘-이’는 ‘때울이’처럼 직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쓰이지만, 수다스러운 사람처럼 어떤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말할 때는 ‘-수’를 쓰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암태도뿐 아니라 신안, 진도, 완도 등 전남의 서남해 지역 전역에서 이 ‘-수’가 쓰이는데 ‘똥금수, 피수, 도망수, 묵수, 길수’ 등의 예가 더 있다.

‘똥금수’는 예상치 못하게 태어난 아이를 뜻한다. 전라도말에 ‘똥금없이’라는 부사가 바로 ‘예상치 못하게’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똥금수’는 바로 이 부사로부터 생겨난 말일 것이다. ‘피수’는 다른 지방에서 ‘피보’라고 부르는 말이다. 피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통해서도 서남해 지역과 전라남도의 내륙 지역이 ‘-수’와 ‘-보’를 각각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도망수’라는 말은 도망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이전에 ‘도망자’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는데, 서남해 사투리로 이를 번역하면 바로 ‘도망수’가 해당할 것이다. ‘묵수’는 ‘떡보’에 해당하는 말이다. 한편 ‘길수’는 ‘게으름뱅이’를 뜻한다 ‘게으르다’를 전라도에서는

흔히 ‘기우르다’나 ‘기울르다’ 등으로 쓰기 때문에 ‘길수’의 ‘길’은 이 ‘기울르-’로부터 온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수’가 붙은 것이다.

접미사 ‘-수’는 그 말맛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서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는 점에서 ‘-보’와 같은데, 그 쓰이는 지역이 서남해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로 내륙 지방에서 쓰이는 ‘-보’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 12) 백바람

암태도에서는 ‘벽’을 ‘백바람’이라고 한다(김웅배 1983). 이 말은 ‘벽’의 방언형 ‘백’과 ‘벽’의 옛말 ‘브름’이 합해진 합성어이다. ‘벽’이 한자어 壁에서 온 것이므로, 한자어 뒤에 동일한 뜻의 순수 우리말을 합성했다는 점에서, ‘역전앞’이나 ‘처갓집’과 같은 낱말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전남의 육지에서는 ‘벽브름’의 결합 순서가 뒤바뀐 ‘브름벽’이 ‘베랑뻑’이나 ‘베름뻑’ 등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결국 ‘벽’에 대한 전남의 방언형은 한자어 ‘벽’과 순수 우리말 ‘브름’의 결합 순서의 차이에 의해 분화되는데, 신안의 암태도는 완도 등 다른 섬지역과 마찬가지로 ‘벽브름’에서 변화된 ‘백바람’형을 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같은 뜻을 지닌 한자어와 고유어가 합성될 경우, 한자어가 앞서고 고유어가 뒤서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점에서 섬지역의 ‘백바람’이 육지의 ‘베랑뻑’에 비해 더 자연스러운 어형이라 하겠다. 다만 ‘베랑뻑’은 ‘브름’이 한자어 壁에 밀려 사라져 가는 어형이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롭게 세력을 얻은 한자어 ‘벽’을 덧붙인 경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백바람’은 한자어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바람’이 덧붙은 경우이고, ‘베랑뻑’은 소멸되어 가는 ‘브름’의 뜻을 보충하기 위해 한자어가 앞에 덧붙은 경우로서 각각의 생성원리가 다른 셈이다.

## 13) 보개피하다

‘양값음하다’를 뜻하는 신안 암태도의 방언으로 ‘보개피하다’가 있다(김웅배

1983). 여기서 ‘보’는 한자어 報이고, ‘개피하다’는 순수 우리말 동사 ‘값다’의 어간 ‘값-’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값이’가 음라우트를 겪어 생긴 ‘값이’에 다시 동사 형성 접미사 ‘-하-’가 결합한 것이다. 報의 훈이 ‘값다’이고, ‘개피하다’가 기본적으로 동사 ‘값다’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보개피하다’는 결국 동일한 뜻의 한자어와 순수 우리말이 합성된 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낱말의 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백바람’이나 ‘역전앞’과 같은 것이다.

‘백바람’의 경우 선행하는 한자어 낱말이 홀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즉 ‘백’이 홀로 쓰이는 낱말이지만 한자어이므로 한자의 뜻에 익숙하지 않은 언중들이 그 의미를 생생하게 보충하기 위해 같은 뜻의 고유어인 ‘바람’이 덧붙은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보개피하다’의 경우는 특별하다. ‘보’가 홀로 쓰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말에서는 ‘양값음’과 같이 ‘값음’ 앞에 수식어 ‘양’을 덧붙이는 낱말이 발달해 있다. 그렇다면 ‘보개피하다’에서 ‘보’는 ‘양값음’의 ‘양’처럼 ‘개피하다’를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14) 먼처막

표준어 ‘먼저’에 대응하는 신안 압태도의 방언형은 ‘먼처막’이다(김용배 1983). 이 ‘먼처막’은 ‘먼처’와 ‘막’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먼처’는 ‘먼저’의 방언형으로서 단독으로도 쓰이는 말이다. 전남 방언에서 ‘먼저’는 ‘먼점’, ‘먼처’, ‘먼침’, ‘모냐’, ‘모냐침’ 등의 다양한 방언형이 확인된다. 따라서 압태도의 ‘먼처막’의 ‘먼처’는 당연히 ‘먼저’의 방언형인 셈이다. ‘먼처’에 결합된 ‘막’은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서 표준어에서는 ‘내리막’, ‘오르막’, ‘가풀막’ 등에 쓰인다.

전남 방언에서도 표준어 ‘가풀막’에 대응하는 말로 ‘깔쿠막’이 있는데 여기서 ‘막’도 그렇게 된 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처럼 ‘막’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먼처막’에서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인간 언어에서 공간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우리말에서도 ‘앞’, ‘뒤’, ‘전’, ‘후’와 같은 공간 명사가 시간 명사로 흔히 쓰인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잘 하자’, ‘뒤에 보자’, ‘이틀 전’, ‘그 일이 있던 후’ 등이 이런 경우이다.

그렇다면 ‘먼처막’의 ‘막’ 역시 원래는 공간을 뜻하던 명사였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준어에서도 ‘늘그막’에서 ‘막’이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먼처막’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늘그막’의 ‘막’은 ‘무렵’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먼처막’의 ‘막’은 의미적으로 군더더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가 이미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이 덧붙었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 육지 방언에 나타나는 ‘모냐참’의 경우도 ‘먼처막’과 비슷하다. ‘모냐참’은 ‘먼저’의 방언형 ‘모냐’와 ‘참’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표준어 ‘참’에 대해 『표준어 대사전』은 아래와 같은 뜻을 풀이를 하고 있다.

- ① 일을 하다가 일정하게 잠시 쉬는 동안. 한자를 빌려 ‘站’으로 적기도 한다.  
: 저녁 참에는 산책도 할 겸 근처 서점에 다녀와야겠다.
- ② 일을 시작하여서 일정하게 쉬는 때까지의 사이.  
: 두어 참이 지나야 점심시간이 온다.
- ③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이나 끼니때가 되었을 때에 먹는 음식.  
: 참을 먹다.
- ④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 묵거나 밥을 먹는 곳.  
: 그는 길거리의 허름한 주막에 숙소 참을 댔다.

위를 보면 ①-③은 시간명사로 쓰이는 ‘참’의 예이고, ④는 공간명사로 쓰이는 예이다. 공간명사가 시간명사로 확대해서 쓰이는 것이 언어 보편적 현상이고 그 반대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참’의 용법도 애초에 공간명사로 쓰이던 것이 시간명사로 확대해서 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④의 용법이 기원적이고 ①-③은 이로부터의 확대된 용법인 것이다. 따라서 ‘모냐참’ 역시 ‘먼처막’과 마찬가지로 ‘먼저’의 방언형에 공간명사로부터 확대된 시간명사가 결합된 방언형인 셈이다.

그렇다면 ‘먼처막’과 ‘모냐참’은 ‘먼저’와 ‘모냐’의 형태면에서도 분화를 보이지만 거기에 덧붙여 ‘참’과 ‘막’이라는 시간명사의 차이에서도 분화된 방언형이라 할 수 있다.

### 3. 활용방안

방언 어휘는 해당 지역의 삶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그 지역 방언을 알면 그 지역의 문화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방언을 통한 문화의 이해'야말로 일반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인 셈이다.

이 글에서 제시된 14개의 낱말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암태도라는 해양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는 예로는 '이깎'과 '이늘'을 들 수 있다. 또한 서남해 지역에서 두루 쓰이는 방언형 '마리'나 접미사 '-수' 등은 이 지역의 주거 문화와 관계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글에는 은유를 이용하여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이 지역 방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천장배기코'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런 은유의 예를 통해 이 지역 사람들의 낙천적이고 해학적인 삶의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글에는 암태도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방언 어휘 가운데 외지인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14개의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외지인들은 암태도의 삶, 암태도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암태도 사람들의 말 쓰는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웅배(1983), 《암태도의 방언 어휘》. 《도서문화》 1집, 목포대 도서관연구회.  
박경래/이기갑/강영봉(2013), 《새로 발굴한 어휘(11)》. 《방언학 17》. 한국방언학회.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2006), 《조선말 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북한.  
유창돈(1985),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이기갑(2010), 《2010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 국립국어원.  
이기갑(2013), 《전라도의 말과 문화》. 도서출판 지식과 교양.  
이기갑(예정), 《전라도말 산책》.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1998),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 - 옛말과 이두》. 어문각.

# 암태면편

## VIII. 주거문화

김 지 민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1. 조사개요


- 1) 개요
- 2) 답사일정표
- 3) 민가목록

### 2. 민가현황

- 1) 손석언 민가
- 2) 박종국 민가
- 3) 박종열 민가
- 4) 공가(1)
- 5) 공가(2)
- 6) 주월매 민가
- 7) 공가(3)
- 8) 장단고길 86-16 민가
- 9) 장단고길 86-4 민가
- 10) 김병섭 민가
- 11) 구 이상무 민가
- 12) 고정복 민가
- 13) 송곡리 측간채

### 3. 활용방안

- 1) 개별전통민가의 보존
- 2) 집단 전통민가 복원
- 3) 문화재 지정



# VIII 주거문화

## 1. 조사개요

### 1) 개요

암태도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가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도서적 환경으로 비교적 문화의 교대가 늦었던 까닭에 대부분의 민가는 1960, 70년대까지 조선후기의 민가형태를 유지했다. 삶의 구조가 크게 바뀌었지만 주거만큼은 전 근대적이었다. 한편 일부 가옥은 일제강점기 무렵부터 민가에 근대화가 도입된 이른바 근대한옥도 지었다.

개략 1980년대부터는 획기적으로 암태도 민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신축의 경우 목조는 사라지고 주로 벽돌, 시멘트 등을 사용한 내륙의 도시형 주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살림집이 마을 곳곳에 들어섰다. 원인은 과거 목조집을 경험했던 세대로서 그들은 목조집이 더 이상 현대적 편의성을 수용할 수 없고 또한 경제성도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벽돌과 시멘트집은 흙과 나무로 된 친

환경 목조집과는 정서와 환경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경관 측면에서도 벽돌조 슬라브집은 농어촌의 자연경관에 부적합하다.

암태도는 다행히도 필자가 1980년대 후반에 조사한 전통민가 5가옥이 있다. 당시 조사된 이 가옥들은 모두 1800년대 초중반에 건립된 민가로 건립당시의 모습을 거의 갖추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조선시대 암태도 주거의 한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즉 공간 하나 하나에서 과거 암태도 주민의 생활사를, 그리고 구조나 재료 측면에서 당시의 살림집 축조 기술을 엿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가 5채 중 손석연·주월매·고정복 민가는 모두 훼손되었고 박종국 민가는 행랑채만 헐고 그 자리에 새로 벽돌집을 지었다. 그리고 김병섭 민가는 지붕개량과 함께 내부도 크게 고쳤다.(5채에 대한 본문 해설은 1989년 당시 건축상황임)

이번 조사에서는 송곡리 측간채를 포함하여 모두 13채의 민가가 조사 되었다.(1989년 조사 5채 포함) 이 중에는 공가 4채(9번 행랑채 포함)가 있는데 오히려 그간 빈집으로 있었기에 수리를 하지 않아 본래의 건축모습을 볼 수 있었다.

## 2) 답사일정표

[표 1] 답사일정표

| 순서 | 조사기간                        | 조사지역                          | 조사자        | 제보자         | 조사내용 | 비 고  |
|----|-----------------------------|-------------------------------|------------|-------------|------|------|
| 1  | 2013.06.01.~<br>2013.06.02. | 암태면 와촌리<br>암태면 도창리            | 김지민<br>정영훈 | 박종열(남, 82세) | 민가   | 단독조사 |
| 2  | 2013.07.27.~<br>2013.07.28. | 암태면 단고리<br>암태면 기동리<br>암태면 송곡리 | 김지민<br>정영훈 | 김재운(남)      | 민가   | 단독조사 |

### 3) 민가목록

[표 2] 민가목록

| 순서 | 민가명                 | 위 치                   | 건립년도        | 민가구성         | 비 고                  |
|----|---------------------|-----------------------|-------------|--------------|----------------------|
| 1  | 손석언 민가              | 암태면 와촌리 1411          | 1831년       | 안채, 행랑채      | 1989년 조사<br>(훼손)     |
| 2  | 박종국 민가              | 암태면 와촌리 1146          | 1800년대 중    | 안채, 행랑채, 측간채 | 1989년 조사<br>(행랑채 훼손) |
| 3  | 박종열 민가              | 암태면 와촌리 1417          | 1800년대 후반   | 안채, 행랑채      |                      |
| 4  | 공가(1)               | 암태면 와촌리               | 1800년대 후반   | 안채, 행랑채      |                      |
| 5  | 공가(2)               | 암태면 와촌리               | 1965년       | 안채, 행랑채      |                      |
| 6  | 주월매 민가              | 암태면 단고리 20            | 1861년       | 안채, 행랑채, 측간채 | 1989년 조사<br>(훼손)     |
| 7  | 공가(3)               | 암태면 단고리<br>장단고길 86-6  | 1900년 경     | 안채, 행랑채      |                      |
| 8  | 장단고길<br>86-16 민가    | 암태면 단고리<br>장단고길 86-16 | 1900년 경     | 안채, 행랑채      |                      |
| 9  | 장단고길 86-4<br>민가 행랑채 | 암태면 단고리<br>장단고길 86-4  | 1920-30년 경  | 안채, 행랑채      |                      |
| 10 | 김병섭 민가              | 암태면 기동리 671           | 1840년       | 안채, 행랑채      | 1989년 조사<br>(보수)     |
| 11 | 이상무 민가              | 암태면 기동리 672           | 1800년대 중·후반 | 안채, 행랑채      |                      |
| 12 | 고정복 민가              | 암태면 도창리 924           | 1800년대 초    | 안채, 행랑채      | 1989년 조사<br>(훼손)     |
| 13 | 송곡리 측간채             | 암태면 송곡리<br>활목길 19     | 1900년대 초    | 측간채          |                      |

## 2. 민가 현황

### 1) 손석언 민가

- 위 치: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1411
- 건립년도: 1831년

5대째 거처해 온 꽤 오래된 고가이다. 안채의 상량문에 “道光十四辛卯九月(도광십사신묘구월)……”으로 기록되어 있어 도광14년(1834년)과 간지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신묘년에 건축된 것으로 본다면 건축년도는 1831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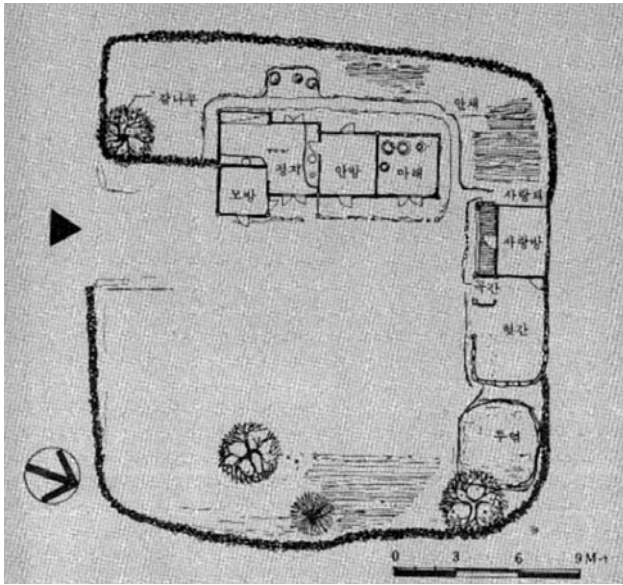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중앙 안쪽에 안채를 앉히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튼 ㄱ자’ 형식으로 행랑채(사랑채)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ㄱ자형식 배치는 이 지역 도서민가 배치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안채는 모방, 정지, 안방, 마래의 4실로 이루어진 41.6㎡ 규모의 일자형 초가이다. 모방은 맨 좌측 끝에서 정지 안으로 반쯤 들어가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지의 공간이 작아지나 구조적으로는 더 간결하다. 이러한 형식의 평면형도 이 지역 전통민가에서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암태도를 포함한 이 곳 도서지방 민가에서 제일 주목이 되는 공간(실)은 마래다. 이곳에는 조상의 위패가 안치되고 제사도 이곳에서 지낸다. 또한 알곡식을 넣은 큰 항아리들이 벽선을 따라 놓여지는 생명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구조는 막돌허튼층쌓기의 기단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4량가의 단순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벽체는 흙벽이며 안방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전면의 퇴간과 마래바닥은 토방으로 처리하였으며, 기단면에는 연통없이 배연구를 설치하였다.

사랑채는 죽담구조의 초가로 평면구성은 좌측으로 방 1간을 드리고 우측으로는 헛간을 꾸며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곧 철거할 계획이라고 집 주인이 전한다.



민가 배치도



안채



사랑채

## 2) 박종국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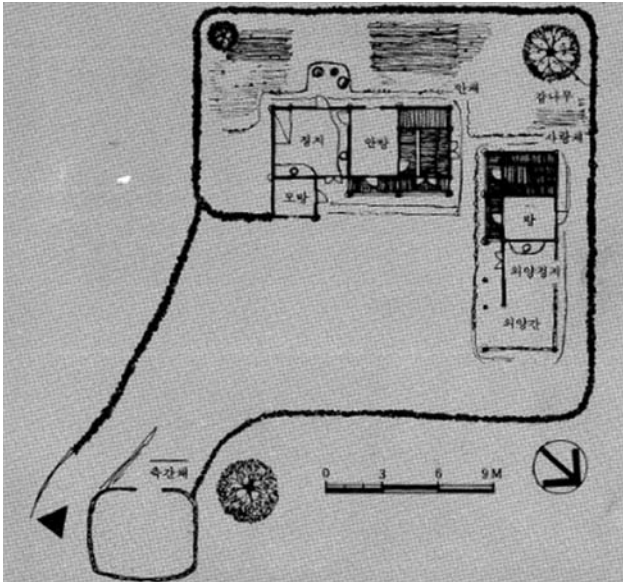
- 위치: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1146
- 건립년도: 1800년대 중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죽담구조의 측간채로 구성된 가옥이다, 건축년대는 약 150년 전 쯤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배치는 남동-북서방향으로 긴 장방형 대지의 안쪽에 곤좌간향(坤坐艮向)으로 안채를 두고 그 전면 우측으로는 행랑채(사랑채)는 앉혔다. 측간채는 대지 아래쪽 좌측의 입구쪽에 배치하였으며 대지 주위는 모두 돌담으로 둘러쌌다.

안채는 전후로 퇴간을 둔 슬레이트집으로 본래는 초가였으나 1970년 경에 지붕만 개량한 것이다. 평면구성은 중앙의 안방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정지와 마래를 드리고 정지 앞쪽으로는 퇴간선에서 1m 정도 돌출시켜 모방을 배치하였다. 마래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고 뒷면 상부에는 조상들의 위패를 모신 감실을 설치하였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140×140 크기의 방주올 세운 2고주5량가구이다.

사랑채는 일자형 초가로 좌측으로부터 광, 방, 외양간 순으로 평면을 꾸몄으며 구조는 전면으로 퇴간을 둔 4량가로 되어 있다. 외양간 전면의 퇴간에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디딜방아가 원형 그대로 놓여 있다.



민가 배치도



안채



사랑채

### 3) 박종열 민가

- 위치: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1417
- 건립년도: 1800년대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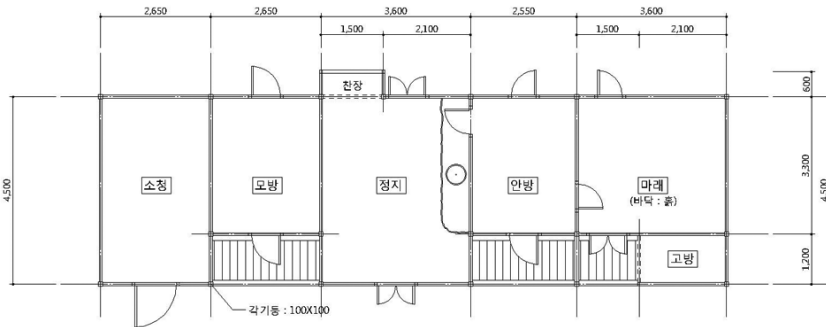
와촌마을 중앙의 아래쪽 인 옛 손석언 가옥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년도는 세대주 박종열(82세)이 3대째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1800년대 후반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옥(안채)은 지붕개량만 되어 있을 뿐

건립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옛 행랑채 자리(안채 전면 우측)에 새로 지은 벽돌조 건물에서 노부부가 생활하고 안채는 보수를 앓고 창고 정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붕은 새마을 운동 당시 초가에서 스테이트로, 그리고 2012년에는 강판으로 다시 교체하였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반(전면 반칸 퇴)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 실구성은 우측으로 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소청 순으로 나란히 꾸며져 있고 모방과 안방, 그리고 마래 앞쪽의 퇴에는 마루가 놓여있다. 또한 마래 앞 모퉁이 퇴간에는 ‘고방’이라고 하는 알곡식 저장고가 마련되어 있다.

구조는 4량 가구로 결구 하였고, 기둥과 도리의 크기는 100×100 정도로 의외로 작다.

이 가옥은 손석언 가옥과 달리 모방이 정지 옆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소청’도 별도의 1칸을 갖는 등 규모와 실구성에 차이를 보인다.



안채 평면도



안채



안채 퇴간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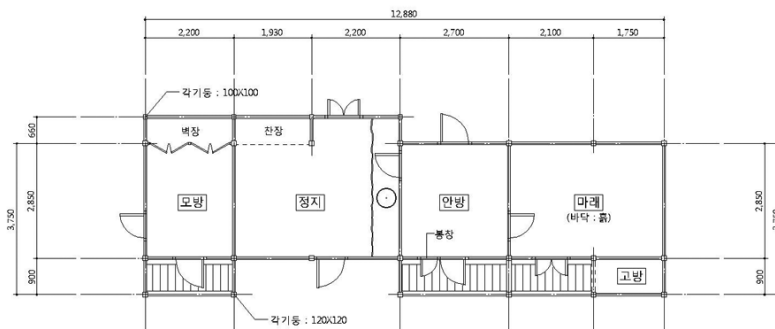
## 4) 공가(1)

- 위치: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 건립년도: 1800년대 후반

옛 손석언 가옥 바로 윗 대지에 있다. 건립년도는 1800년대 후반쯤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비어있는 공가(空家)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관계로 보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건립당시의 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다. 건물은 안채가 대지 중앙의 위쪽에 있고 행랑채(현재는 헛간 규모의 폐가 수준)가 안채와 ‘튼 ㄱ자’ 형식으로 우측에 있다. 이러한 안채와 행랑채의 ‘ㄱ’자 배치는 서남해 도서민가 배치의 규범이다.

안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전면 반칸 퇴)의 우진각 초가다.(현재는 스테이트로 개량) 실구성은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이 나란히 드러져 있고 전퇴에는 툇마루가 놓여있다. 그리고 마래쪽 모퉁이에는 고평이 있다. 이 집은 규모면에서 정지와 마래가 각각 2칸으로 비중이 크다.

구조는 전면에 높이 2.1m의 퇴주(120×120)를 세운 4량가이며 도리는 100×120 크기의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안방 전면에는 도서지역 전통민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봉창(420×570)이 있다.



안채 평면도



안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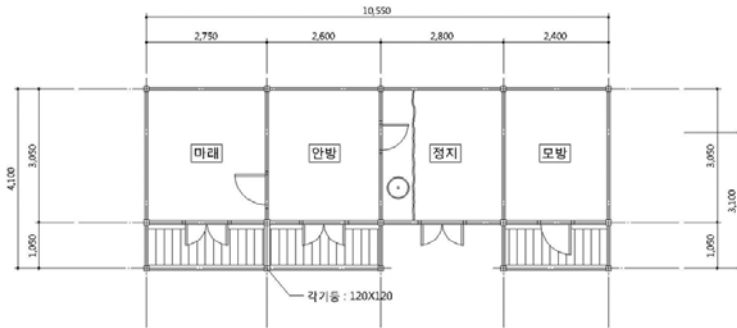
고방과 마래 판장문

## 5) 공가(2)

- 위 치: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 건립년도: 1965년

와촌의 주 마을과 떨어진 좌측편에 외진곳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년도는 상량문에 서기로 1965년이 기록되어 있다. 규모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전면 반칸 퇴)이며 지붕은 본래 초가였으나 현재는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다. 실 배치는 각 1칸식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꾸며져 있고 전퇴에는 정지 앞만 제외하고 모두 뒷마루가 놓여있다. 구조는 1고주 5량 가구의 민도리식이다. 이 집은 기둥(120×120)과 도리(100×120) 등 부재 크기는 1800년대 집과 차이가 없으나 1고주 5량 형식으로 가구를 결구한 것이 특이하며 안방 등 각 실의 문 크기도 비교적 크다.

이 집이 지어진 1960년대 까지만 해도 암태도에는 벽돌(블럭)로 지은 살림집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 이 집과 같이 조선시대 평면과 전통 목구조 형식으로 살림집이 지어졌다.



안채 평면도



안채



퇴간 상부

## 6) 주월매 민가

- 위치: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20
- 건립년도: 1861년

야트막한 야산을 등지고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본 가옥은 잘 축조된 돌담장과 안채, 그리고 헛간채, 측간채 등이 서로 잘 어울려져 있는 아담한 가옥이다. 건축년도는 안채에 “咸豊拾壹年辛酉(함풍십일년신유)”라고 기록된 상량문이 있어 1861년에 건립된 가옥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주월매 할머니(70세) 혼자 거처하고 있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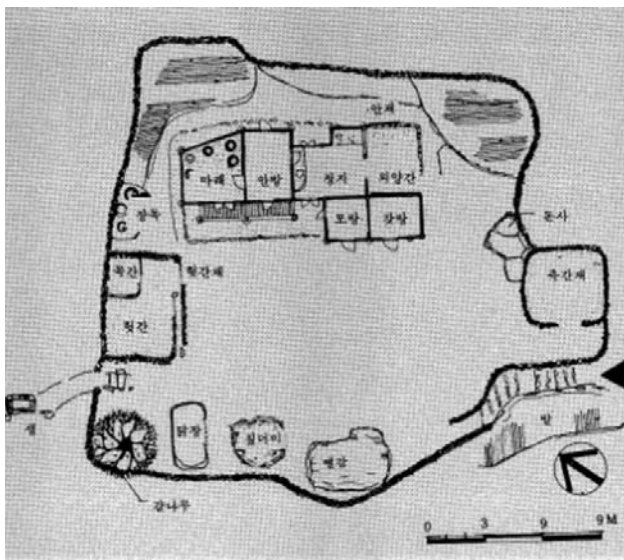
지의 중앙 안쪽에 인좌신향(寅坐申向)으로 자리하고 있는 안채는 비교적 규모가 큰 15.5㎡ 규모의 초가집으로 갓방과 외양간이 각각 모방과 정지 옆으로 1칸씩 더 드러져 있다. 따라서 실이 모두 6개가 됐다. 이러한 구조는 옛 중농가이상의 가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갓방과 외양간(헛간)이 서로 바뀌는 곳도 있다.

구조는 전후로 퇴간을 둔 2고주5량가구로서 초석은 막돌을 사용하였고 기둥은 110×110 크기의 방주를 사용하였다.

마래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안방의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꾸몄다. 창호 구성중에는 특히 안방의 뒷문과 모방 출입문의 죽살문이 눈에 띈다.

본 가옥에서는 정연하게 축조된 강담(흙을 이용하지 않고 돌로만 쌓은 담을 이곳에서는 강담이라고 부름)과 집의 문간에서 안마당과 안채가 직접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담장에 의식적으로 꺾음을 둔 진입공간의 구성이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담장 밖의 썩과 넓은 삼밭으로 가기위해 헛간채 옆의 담장에 설치한 출입구에도 주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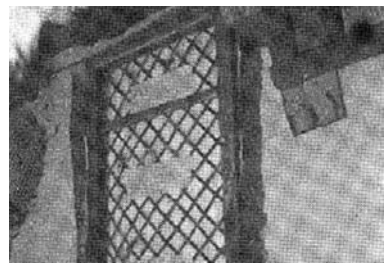
측간의 배치에 있어서도 다른 가옥과는 달리 대지의 우측에 안마당과는 한단 낮게 터를 닦고 배치한 점과 또한 집의 출입구에서는 시선이 닿지 않게 처리한 사실도 펍 인상적이다.



민가 배치도



가옥 전경



안채 죽살문



안채(우)와 행랑채(좌)



마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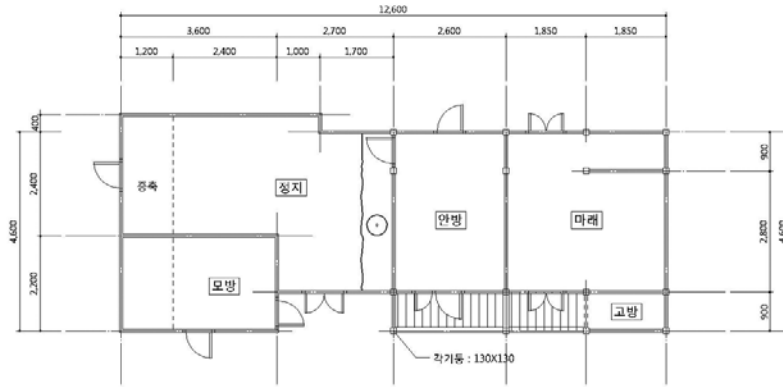
## 7) 공가(3)

- 위 치: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장단고길 86-6
- 건립년도: 1900년경

단고리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고가로 좌측에 난 마을 안길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다. 대지 안쪽에 안채가 있고 그 전면 우측에 행랑채가 비스듬히 자리하고 있다.

이 민가는 19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할머니 혼자 기거하다가 최근에 빈집이 되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 (전·후 반칸 퇴 별도)의 우진각 스테이트 집이다. 지붕은 새마을 운동 당시 초가에서 개량된 것이다. 내부 실은 우측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자리했고 안방과 마래 전면의 퇴간에는 마루가 놓여있다. 모방 뒤쪽의 정지 일부는 옛날에 소를 키웠던 소청이다.

구조는 전·후 퇴주 사이에 고주(H: 2350)를 세운 2고주 5량 가구의 민도리 형식이다. 안방의 출입문 옆에는 400×570 크기의 봉창이 있다. 방 내부에서 보면 봉창의 하단 높이가 500 정도 되기 때문에 앉아서 편리하게 밖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방 봉창과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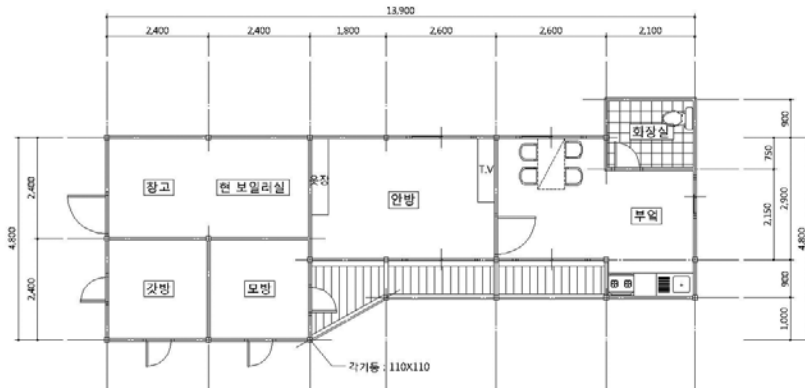
## 8) 장단고길 86-16 민가

- 위치: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장단고길 86-16
- 건립년도: 1900년경

단고리 마을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약 100여년 전에 지어진 민가다. 이 집은 최근에 우측부분(옛 정지, 안방, 마래)을 현대식으로 개수하여 현재 다문화가족이 생활하고 있다. 전통민가의 현대적 변용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 집은 건립당시 규모나 실 구성 면에서 같은 마을 주월매 민가와 거의 유사하다. 정지 측면이 겹집화 되어있고 모방 옆으로 또 하나의 침실인 갓방이 있다. 갓방 후면은 본래 소를 키웠던 ‘소창’이다. 현재 이쪽부분은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옛 정지와 안방, 마래 부분은 편리하게 입식부엌, 화장실 등으로 개조가 되어있고 이에 맞게 창호도 미서기 문으로 재설치 하였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안채 내부

## 9) 장단고길 86-4 민가 행랑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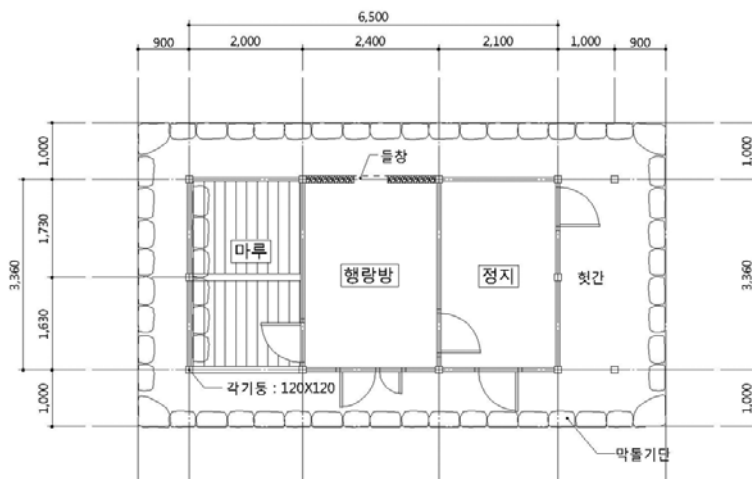
- 위치: 신안군 압태면 단고리 86-4
- 건립년도: 1920-1930년경

단고마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좌측에 난 경사진 마을안길을 통해 진입하게 되어있다. 민가 구성은 대지 안쪽에 ‘┌’ 자형 안채가 있고 그 전면 우측에 ‘ㄱ자’ 형식으로 행랑채가 자리하고 있다. 건립년도는 안채와 행랑채 모두 1900년대 초쯤으로 여겨진다.

행랑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스테이트 집이다. 실 배치는 마루방, 행랑방, 정지가 나란히 드러져 있고 정지 옆으로는 반 칸 정도 덧댄 형식으로 벽체 없는 헛간이 있다.

구조는 4량가구의 민도리식이며 기둥은 120×120 크기의 네모기둥을 썼다. 벽체는 맞벽형식이나 행랑방 후면 만큼은 막돌로 화방장쌓기를 하였다.

안채는 크게 보수가 이루어져 고가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으나 행랑채만은 지붕만 초가에서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을 뿐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행랑방 전면 출입문 옆에도 건립 당시에 설치된 봉창(390×510)이 있다.



행랑채 평면도

행랑채는 과거 서민들 살림집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한 제2의 건물이었다. 가족 수가 늘어나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되면 이 집이 필수적으로 건립되었다. 행랑채에는 장자의 살림방, 또는 노 시부모가 거처하기도 했다.



후면 죽담과 들창



행랑채 전경



마루 상부

## 10) 김병섭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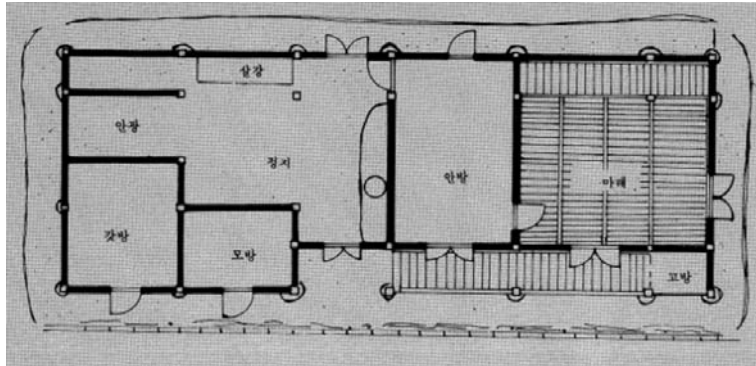
- 위치: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671
- 건립년도: 1840년

약 300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총 87호로 구성된 기동마을에 위치하

고 있다. 현재 안채만이 고가로 남아있는 본 가옥은 상량문에 “崇禎紀元後四己酉年九月(송정기원후사기유년구월)” 이란 기록이 보이므로 1840년에 건축된 가옥으로 여겨진다. 약 140년 가까이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곳이 없어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평면은 중앙의 안방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뒷퇴와 우측퇴간을 포함한 마래(우물마루 깔음)를 배치하고 좌측으로는 정지와 그 전면에 모방을 드렸다. 정지와 모방 측면으로는 각각 빨감을 저장하기 위한 안광와 갓방을 꾸몄는데 이 부분은 약 50년 전에 증축된 부분이다. 뒷마루는 안방과 마래 앞쪽에 90cm 폭으로 설치하였다. 구조는 전후면 퇴간을 둔 2고주5량가구이며 기단은 장대석 1벌대 쌓기로 되어있다. 초가에서 장대석 기단 설치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구조이다. 초석은 막돌초석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은 120×120 크기의 방주를 세웠다. 창호 구성중에는 마래의 우측면에도 판장문을 설치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 민가는 최근에 사진과 같이 내·외부를 크게 보수하여 건립당시의 본래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안채 평면도



안채(보수 전)



안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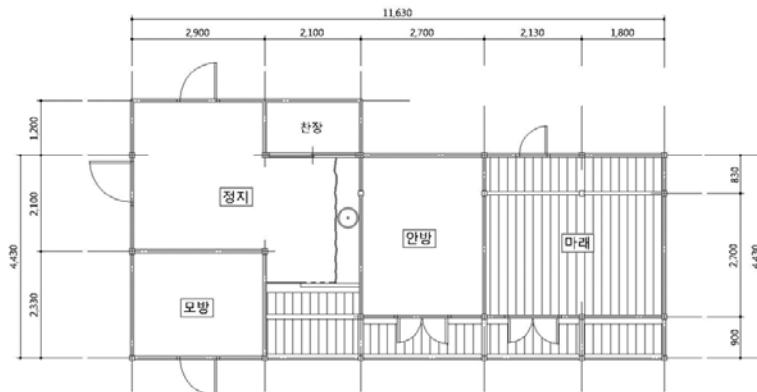
## 11) 이상무 민가

- 위치: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672
- 건립년도: 1800년대 중·후반

김병섭 민가 바로 윗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건립년도는 이상무(남 75세) 증조부도 이 집에서 거처하였던 것으로 보아 최소 1800년대 후반 이전 즈음으로 보인다. 이상무는 21세 결혼 후 이곳에서 4자녀를 키우고 1967년에 블록조 신축건물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블록을 쌓을 수 있는 조적 기술자가 없어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한다(현재 이 집은 폐가로 남아 있음). 이사하기 전에 이 민가에서는 조부모까지 모두 14명이 거처하였다고 한다.(아래채: 조부모 외, 안채 안방: 부모 외, 안채 모방: 이상무 부부 외)

이 집 안채는 1966년에 스테이트로 지붕개량을 하면서 정지 전면 출입구 쪽에 마루를 깔았고(정지 출입을 측면으로 바꿈) 마래 출입문도 새로 교체하고 그 상부에 미서기 유리창을 새로 설치했다.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전·후 반칸 퇴 별도)이며 지붕은 우진각 형이다. 내부는 마래, 안방, 정지순으로 꾸며져 있고 모방은 정지 끝 칸 앞쪽에 드렸다. 구조는 2고주 5량 형식의 민도리 형식이다.

이 집은 건립 후 100여 년 만에 시대에 맞게 새롭게 태어난 집이다. 현재는 비어 있다.



안채 평면도



안채 전경



마래 상부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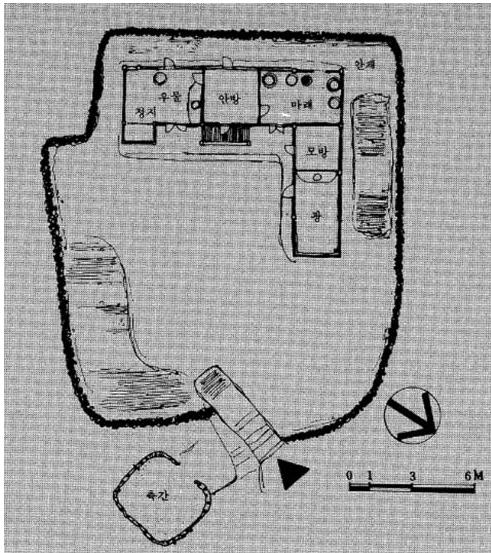
## 12) 고정복 민가

- 위치: 신안군 암태면 도창리 924
- 건립년도: 1800년대 초

이 민가는 도창마을 최고의 고가로 고정복(48세)의 8대조부때부터 거주해 왔다고 한다. 현재 115호로 구성된 이 마을은 350여년전 오씨가 최초로 입향하였다고 전하나 자세한 내력은 알 수가 없다. 현재 밀양박씨(32가구), 김해김씨(22가구), 경주고씨(20가구)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건물로는 신좌인향(申坐寅向)으로 앉힌 ㄱ자형 안채만이 있고 전면의 입구 좌측면으로 측간이 한 채 있다.

ㄱ자형의 초가인 안채는 본래 좌측으로부터 정지와 안방 그리고 마래 순으로 꾸민 일자형 건물이었으나 증조부 때에 측면으로 마래를 넓히고 그 앞쪽으로 방 1칸을 증축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1970년 경에 방 옆으로 블록구조의 광을 드렸다. 즉 이 민가의 본래 모습은 정지, 안방, 마래로 꾸며진 단순한 ‘—’ 자형이다. 여기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3실형 민가에서도 반드시 마래가 있다는 것이다. 즉 마래는 이 곳 도서지방에서 곡간과 제사 기능을 동시에 해결했던 방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100×100의 방주를 세운 4량가이며 건물의 뒷면은 죽담구조로 처리하였다.



민가 배치도



안채 전경

### 13) 송곡리 측간채

- 위치: 신안군 암태면 송곡리 활목길 19
- 건립년도: 1900년대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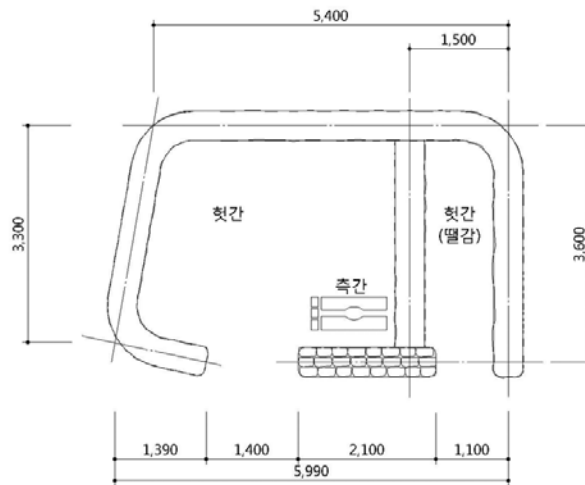
측간채는 서남해 도서민가 구성에서 빠짐없이 존재했던 중요건물이다. 용도는 용변을 보는 측간(칙간)기능부터 재 저장, 바깥에서 사용하는 각종 연장 및 땀감 저장 등 매우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했다. 행랑채가 없어도 측간채 만큼은 모든 민가에서 거의 건립했다.

송곡리에는 지붕만 초가에서 스테이트로 개량되어 있을 뿐 건립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4동 정도의 측간채가 있다. 특히 활목길 19번지 민가의 측간채는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칙간까지 잘 남아있고 별도의 땀감을 보관하는 분리된 헛간도 있다.

19번지 측간채 구조는 막돌과 흙을 번갈아 쌓은 죽담 형식이다. 벽체 두께는 하부

가 500~600, 상부가 400~500 정도이고 높이는 1700~1800정도가 된다. 벽체 상부를 대강 다듬은 목재를 놓고 그 위에서 특별한 기교없이 우진각 지붕틀을 걸고 벗짚을 올렸다.

송곡리에는 아직도 부분적이기는 하나 돌담이 마을 안길에 잘 남아있다. 흙없이 돌로만 쌓은 '강담'은 죽담구조의 측간채와 잘 조화가 된다. 송곡리 담장은 측간채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구조물이다.



측간채 평면도



측간채 전경



측간채 후면



측간채 측간



측간채 내부



활목길 8번지 민가 측간채



송곡리 돌담장



활목길 20번지 축대와 소청

### 3. 활용방안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다양한 유무형의 전통요소가 깃들여 있다. 즉 민가에는 한시대의 총체적 문화가 담겨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민가는 특별한 보존 마을에 있는 문화재 민가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압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화 이후 전통주거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거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1) 개별 전통민가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 3~5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찾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특히 압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도서관광의 명소로 그 지명도가 다른 도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 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민가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1차적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민가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끔 한다.

## 2) 집단 전통민가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암태도의 경우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영화 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단고리, 와촌리, 송곡리 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아직도 옛 돌담, 공가, 옛 집터 등이 많이 남아 있다.

## 3) 문화재 지정

전통민가는 민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 및 공간적 특성 때문에 개인이 살림집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치가 있는 전통민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다. 즉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암태도에는 지정가치가 있는 주거 자원이 다른 도서보다 많다.

그 구체적인 자원은 ① 와촌리 박종열 민가 안채

② 와촌리 공가(1)

③ 단고리 장단고길 86-4 행랑채

④ 송곡리 활목길 19 민가 측간채



# 암태면편

## IX. 경제자원

고 두 갑

목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조사개요
2. 인구
3. 토지
4. 사업체
5. 농림
  - 1) 농가 및 농가인구
  - 2) 경지면적
  - 3) 주요 전작작목 및 면적(2013년도)
  - 4) 작목반 현황(2013년도)
  - 5) 특용작물
  - 6) 토종농산물
  - 7) 과실
6. 산림
  - 1) 산림현황
  - 2) 임상별 임목축적
7. 수산물
  - 1) 기본현황
  - 2) 어선현황
  - 3) 양식어업현황
  - 4) 어업허가
  - 5) 어촌계현황
8. 염업
9. 활용방안
  - 1) 암태면의 지주식 김
  - 2) 암태면 고사리
  - 3) 암태도 마늘
  - 4) 택사
  - 5) 토종농산물



## Ⅸ 경제자원

### 1. 조사개요

암태면 경제자원으로 인구, 토지, 사업체, 산림 수산업, 농림 등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자원조사를 위해 암태면을 3회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였고, 통계자료 조사를 위해 신안 군청 및 면사무소를 3회 방문하였다. 기초통계자료는 신안군 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통계연보에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는 면사무소 및 군청 내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인구와 산업을 살펴볼 때 암태면은 여타의 도서지방과 마찬가지로 인구유입은 거의 없고, 전담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부부세대만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생산량 및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벼농사보다 전작의 소득이 높으며 전작으로는 양파, 마늘, 시금치, 고추, 밀 등이 재배되고 있다. 수산업의 경우 주로 김양식, 어선어업, 맨손어업 등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2012년도 소득액은 5,656백만원(염업포함)으로 추계되고 있다. 수산업의 품목별 소득액은 김 소득이 가장 높고, 염전, 맨손어업의 순이다. 어촌계는 다섯 개가 있어, 주로 김을 생산하

나, 추포어촌계는 전복이 주 생산물이다. 어선어업은 계절에 따라 민어, 송어, 병어, 농어 등을 잡고 있으며, 맨손어업은 주로 낙지를 채취하고 있다.

염전은 2012년 말 현재 12곳이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2곳은 휴경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곳 중 5곳만이 자가 운영 중이며, 5곳은 소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염전의 운영은 고령화된 부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필요에 따라 염전당 1~2명을 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암태면의 경우 수산물 및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미비하다. 따라서 암태면의 특징을 살려서 특산물화 시킬 수 있는 자원을 선정하고 발전시켜 지속적인 지역소득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 2. 인구

### 1) 인구현황

암태면은 암태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의 4개의 유인도와 4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태도에 8할이 넘는 세대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전체적인 세대 및 인구는 1,123세대에 2,253명이며, 20개의 행정구역에 인구는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장고 253명, 익금 237명이며, 와촌(47명)과 탄금(26명)은 다른 리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세대당 인구는 2.0명, 65세 이상의 고령자 760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도서지역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고령화된 지역이다. 인구유입은 거의 없고 고령부부 세대만이 농업 및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세대    | 합 계    |        |        | 한 국 인  |        |        | 외 국 인 |    |     |
|-------|--------|--------|--------|--------|--------|--------|-------|----|-----|
|       | 인구     |        |        | 인구     |        |        | 인구    |    |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1,123 | 2,253명 | 1,127명 | 1,126명 | 2,235명 | 1,121명 | 1,114명 | 18명   | 6명 | 12명 |

2011년도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출생 9명, 사망 20명이며, 인구이동은 전입이 209명, 전출이 242명이다.

### 3. 토지

#### 1) 토지 지목별 현황

2011년도 암태면의 토지지목별 합계는 43,233,792㎡로 신안군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안군 여타지역과 비교하여 전은 5,811,170㎡(신안군의 13.44%), 답은 7,250,546㎡(신안군의 16.77%), 염전은 946,726㎡(신안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중심의 농업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염전은 흑산도를 제외하면 신안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고, 임야가 25,111,163㎡로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 토지지목 | 면적(㎡)      | 토지지목 | 면적(㎡)     |
|------|------------|------|-----------|
| 전    | 5,811,170  | 제방   | 139,250   |
| 답    | 7,250,546  | 구거   | 1,191,338 |
| 과수원  | -          | 유지   | 673,388   |
| 목장용지 | 8,259      | 양어장  | 56,735    |
| 임야   | 25,111,163 | 수도용지 | -         |
| 염전   | 946,726    | 공원   | -         |
| 대지   | 626,195    | 체육용지 | 1,865     |
| 공장용지 | -          | 유원지  | -         |
| 학교용지 | 59,360     | 종교용지 | 3,693     |
| 주차장  | -          | 사적지  | -         |
| 창고용지 | 7,711      | 묘지   | 189,709   |
| 도로   | 1,002,002  | 목장용지 | 8,259     |
| 하천   | 2,843      | 잡종지  | 153,631   |

## 4. 사업체

### 1) 사업체 현황

2012년도 4월 확정 자료에 의한 사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103개의 사업체에 285명이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 종사 하고 있다. 광업(염업)에는 21명, 제조업 42명, 도소매업은 23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 합 계 |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 광업  |     | 제조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 계   | 남   | 여   |             |     |     |     |     |     |
| 103 | 285 | 181 | 104 | -           | -   | 10  | 21  | 10  | 42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사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2                | 5   | -                         | -   | 3   | 14  | 19       | 23  |

|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4   | 4   | 20        | 39  | 1                     | 9   | 1        | 13  |

| 부동산 및 임대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1         | 1   | -               | -   | -                 | -   | 3                  | 32  |

| 교육서비스업 |     | 보건·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
|--------|-----|-----------|-----|----------------------|-----|----------------------|-----|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사업체                  | 종사자 |
| 5      | 41  | 5         | 21  | -                    | -   | 19                   | 20  |

암태면의 대표적인 제조업은 마른김 가공 공장이나 2013년 2월 말 현재 13개의 공장 중 4곳만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곳은 폐업중이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며, 공장가동은 가족중심으로 운영된다.

가동 중인 공장 4곳은 모두 당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사도 김은 지주식 형태로 김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연산에 가깝고 맛이 좋다. 김생산은 대부분 어촌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마른김 가공공장 현황(2013년도)

| 주 소      | 상호명  | 공장<br>가동여부 | 총생산량<br>(2013.2월말 기준) | 시스템<br>(유류, 전기) | 1일 생산 능력 |
|----------|------|------------|-----------------------|-----------------|----------|
| 당사리 176  | 남양수산 |            |                       |                 |          |
| 당사리 240  | 바다수산 | 여          | 100,000속              | 유류              | 3,000속   |
| 수곡리77-4  | 추포수산 |            |                       |                 |          |
| 당사리105   |      | 폐업         |                       |                 |          |
| 당사리228   | 삼호수산 | 여          | 9,000속                | 유류              | 2,000속   |
| 당사리103   | 홍일수산 | 여          | 50,000속               | 유류              | 2,200속   |
| 당사리204   | 해양수산 | 여          | 40,000속               | 유류              | 1,800속   |
| 당사리178   |      |            |                       |                 |          |
| 신석리2478  |      |            |                       |                 |          |
| 신석리415   | 금성수산 | 폐업         |                       |                 |          |
| 당사리107-1 |      |            |                       |                 |          |
| 신석리 2572 |      |            |                       |                 |          |
| 당사리274-1 |      |            |                       |                 |          |

## 5. 농림

### 1) 농가 및 농가인구

농가는 462호의 1,82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전업농은 570호로 신안군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암태면의 전체인구 대비 농가의 비율은 81%로 면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농가   |      |       |       | 농가인구   |      |      |
|------|------|-------|-------|--------|------|------|
| 계    | 전업   | 1종 겸업 | 2종 겸업 | 계      | 남자   | 여자   |
| 734호 | 570호 | 92호   | 72호   | 1,820명 | 950명 | 870명 |

### 2) 경지면적

2011년도 경지면적은 1,305ha로 이중 논이 725ha, 밭은 580ha이다. 암태면의 경우 밭보다 논이 많아 벼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구당 경지면적은 71.7ha로 이중 논은 39.9ha, 밭은 31.9ha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영세한 농업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흑산을 제외하면 가구당 경지면적이 가장 작다.

2012년 쌀 생산량(정곡)은 2,682톤이며 소득액(조수입)은 4,649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 합 계     | 논     | 밭     | 가구당 경지면적 |        |        |
|---------|-------|-------|----------|--------|--------|
|         |       |       | 계        | 논      | 밭      |
| 1,305ha | 725ha | 580ha | 71.7ha   | 39.9ha | 31.9ha |

### 3) 주요 전작작목 및 면적(2013년도)

주요 전작작물은 마늘, 양파, 고추, 밀 등이며 2012년도 소득액은 7,200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2012년도 벼농사와 전작 소득액을 비교해보면 전작의 경우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2013년도 전작작목 및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 구분 | 작목별 | 농가수  | 면적(ha) | 단수(kg) | 비고   |
|----|-----|------|--------|--------|--|
| 전작 | 마늘  | 373  | 65.0   |        | 남도 64.7, 대서 0.3  |
|    | 양파  | 231  | 87.7   |        | 조생종 2.0, 중만생종 85.7   |
|    | 시금치 | 50.0 | 6.1    |        | 중만생종 6.1   |
|    | 고추  | 320  | 30.7   | 82,700 | 예상생산량  |
|    | 밀   | 5    | 6.1    | 27,806 | 단고리 18,512m <sup>2</sup> , 단고리 2,645m <sup>2</sup> , 신석리10,706m <sup>2</sup> , 기동리3,600m <sup>2</sup> , 신석리 11,570m <sup>2</sup> |

### 4) 작목반 현황(2013년도)

암태면에는 6개의 작목반이 있으며, 마늘과 고사리, 석류를 생산하고 있다. 고사리는 임산물로서 야산에서도 일부 채취하나 대부분은 밭에서 종근을 재배하여 생산한다. 종근은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지리산 밭해옹 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며, 농협에서 전량 구매한다.

석류작목반은 결성되어 석류나무를 심기 시작한지 4년 정도 경과하였으나 석류의 수확은 심고 6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 석류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목반 활동은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 단체명     | 생산품목 | 참여 농가수 | 면적(ha) | 설립일      | 비고 |
|---------|------|--------|--------|----------|----|
| 서부마늘작목반 | 마늘   | 20     | 15     | 07.3.10. |    |
| 신기마을작목반 | 마늘   | 8      | 3.5    | 09.3.20. |    |
| 승봉작목반   | 고사리  | 32     | 4.1    | 09.2.12. |    |
| 대봉산작목반  | 고사리  | 15     | 1.6    | 09.12.5. |    |
| 암태작목반   | 고사리  | 21     | 4      | 08.2.23. |    |
| 암태석류작목반 | 석류   | 8      | 3.2    | 08.3.2.  |    |

## 5) 특용작물

암태도에서는 생산되는 특용작물은 유지작물인 참깨와 약용작물인 택사이다. 참깨의 생산량은 2011년도의 경우 신안군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택사는 신안군에서 유일하게 암태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택사의 생산지는 경북 봉화, 승주군 해룡, 암태면 등이나 택사재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남이다. 한약 재료로 사용되는 택사는 8월 20일 이전에 심어야 수확이 가능한 약초이다. 또 물을 좋아해 밭이 아닌 논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재배 환경 때문에 택사는 8월 중순 전에 벼 수확이 가능한 중부이남 지방에서 주로 생산된다.

택사는 2013년 현재 근당 5,000원에 팔리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이나 암태도의 경우 인력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8.5톤을 생산하였으나 2013년 현재는 택사를 생산하는 농가는 없다. 따라서 국산택사의 95%이상이 순천의 해룡면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다.

### • 특용작물 생산실적(2011년도)

| 작물별  | 품목별 | 전체면적(ha) | 단수(kg/10a) | 생산량(톤) | 농가수(호) | 비고 |
|------|-----|----------|------------|--------|--------|----|
| 계    |     | 69       | 55.2       | 38.1   | 344    |    |
| 유지작물 | 참깨  | 60.5     | 50         | 29.6   | 329    |    |
| 약용작물 | 택사  | 8.5      | 600        | 8.5    | 15     |    |

## 6) 토종농산물

암태도에서 2013년 현재 재배되고 있는 토종농산물은 조, 수수, 기장, 쥐눈이콩, 속칭, 이팔, 녹두이다. 가장 활발하게 재배되는 토종농산물은 녹두이며 쥐눈이콩, 이팔의 순이다. 다른 토종농산물의 재배는 겨우 명맥유지 정도이다.

• 토종농산물 재배조사(2013년도)

(단위 :호, ha)

| 구분 | 품종별 재배현황 |       |     |      |     |     |     |     |      |      |         |     |        |     |     |       |
|----|----------|-------|-----|------|-----|-----|-----|-----|------|------|---------|-----|--------|-----|-----|-------|
|    | 계        |       | 조   |      | 수수  |     | 기장  |     | 쥐눈이콩 |      | 속칭(서리테) |     | 이팔(약팔) |     | 녹두  |       |
|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농가수 | 면적    |
| 암태 | 202      | 24,13 | 6   | 0,25 | 1   | 0,1 | 1   | 0,1 | 19   | 4,94 | 2       | 0,2 | 21     | 0,9 | 152 | 17,64 |

7) 과실

암태도에서는 생산되는 과일 여러 종류의 과실이 생산되나 특화된 과일은 없다. 그 중에서도 뽕은감 농가수가 가장 많고 재배면적이 넓다. 석류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고 향후 생산이 기대되기에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 과실 생산실적(2012년도)

| 품 목    | 농가수(호) | 재배면적(ha) |     |     | 10a당<br>생산량(kg) | 생산량(톤) |
|--------|--------|----------|-----|-----|-----------------|--------|
|        |        | 계        | 성과수 | 미과수 |                 |        |
| 합 계    | 63     | 14.6     | 8.6 | 6.0 |                 | 37.6   |
| 포도(노지) | 1      | 0.1      | 0.1 |     | 1,610           | 2      |
| 포도(시설) | 1      | 0.2      | 0.2 |     | 1,770           | 4      |
| 단감     | 4      | 0.6      |     | 0.6 |                 |        |
| 뽕은감    | 26     | 4.4      | 0.3 | 4.1 | 1,200           | 4      |
| 매실     | 7      | 1.9      | 0.8 | 1.1 | 247             | 2      |
| 무화과    | 4      | 1.8      | 1.8 |     | 950             | 17     |
| 블루베리   | 1      | 0.1      |     | 0.1 |                 |        |
| 오디     | 1      | 1.0      | 1.0 |     | 550             | 6      |
| 석류     | 17     | 4.4      | 4.4 |     | 100             | 4      |
| 꾸지뽕    | 1      | 0.1      |     | 0.1 |                 |        |

## 6. 산림

### 1) 산림현황

임상별 산림면적은 2,056ha로 입목지의 침엽수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은 거의 없다

| 합계    | 입목지(ha) |       |      |     |    | 무입목지(ha) |      |     |     |    |
|-------|---------|-------|------|-----|----|----------|------|-----|-----|----|
|       | 계       | 침엽수림  | 활엽수림 | 혼효림 | 죽림 | 계        | 미입목지 | 황폐지 | 개간지 | 제지 |
| 2,056 | 2,020   | 1,776 | -    | 244 | -  | 36       | 1    | -   | -   | 35 |

### 2) 임상별 임목축적

임상별 임목축적현황은 114,284m<sup>3</sup>이며 이중 침엽수림이 99,677m<sup>3</sup>이며 혼효림 14,607m<sup>3</sup>이다.

| 합계                       | 침엽수                      | 활엽수 | 혼효림                    | 죽림 |
|--------------------------|--------------------------|-----|------------------------|----|
| 122,099(m <sup>3</sup> ) | 112,130(m <sup>3</sup> ) | -   | 9,969(m <sup>3</sup> ) | -  |

#### • 임산물 생산량

산나물인 고사리가 생산되고 있을 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임산물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

| 용재 | 죽재 | 연료 | 농용<br>자재 | 종실 | 버섯 | 섬유<br>원료 | 수지 | 탄닌<br>원료 | 약용 | 죽순 | 산나물<br>(kg) |
|----|----|----|----------|----|----|----------|----|----------|----|----|-------------|
| -  | -  | -  | -        | -  | -  | -        | -  | -        | -  | -  | 62,534      |

## 7. 수산물

### 1) 기본현황

암태면의 수산업은 5개의 어촌계에 183척의 어선, 8개의 선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식어업이 주로 김(지주식)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4곳의 김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암태면의 2012년도 수산업 소득은 5,656백만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중 김과 염전소득이 대표적이다. 어선어업은 1,050백만원으로 추계되었다.

| 구 분   | 시설량(면적)                  | 생산량     | 소득금액     |
|-------|--------------------------|---------|----------|
| 계     |                          |         | 5,656백만원 |
| 김     | 9,177척                   | 1,376천속 | 2,753백만원 |
| 전복    | 2건 12ha                  | 5톤      | 200백만원   |
| 어선어업  | 35척                      | 105톤    | 1,050백만원 |
| 염전    | 596,872(m <sup>2</sup> ) | 4,560톤  | 1,529백만원 |
| 기타해조류 | 160줄 8ha                 | 120톤    | 24백만원    |
| 맨손어업  |                          | 2,000접  | 100백만원   |

### 2) 어선현황

수산물을 획득하기 위한 어선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약 183여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톤수는 419.45톤이다. 거의 대부분이 목재 또는 FRP로 건조된 1-5톤 미만의 동력선이며, 이러한 어선들은 김 양식이나 민어, 송어, 농어 잡이 등에 이용된다.

| 동력  |        | 무동력 |       | 1톤 미만 | 1-5톤 미만 | 5-10톤 미만 | 10-20톤 미만 |
|-----|--------|-----|-------|-------|---------|----------|-----------|
| 척수  | 톤수     | 척수  | 톤수    |       |         |          |           |
| 183 | 403.45 | 12  | 16.00 | 84    | 104     | 4        | 4         |

### 3) 양식어업현황

(2013년 6월 20일 현재)

| 양식명     | 어가수 | 면적(ha) | 시설량     | 생산량   |
|---------|-----|--------|---------|-------|
| 김       | 62  | 564    | 9,444책  | 950천속 |
| 전복      | 3   | 6      | 72칸     | 7톤    |
| 축제식(새우) | 2   | 11.7   | 4,500천미 | 35톤   |

### 4) 어업허가

(2013년 6월 20일 현재)

| 계  | 연안 어업 |    |    |             |             | 근해 어업 |    |    |     |            |
|----|-------|----|----|-------------|-------------|-------|----|----|-----|------------|
|    | 소계    | 자망 | 복합 | 정치성<br>구획어업 | 이동성<br>구획어업 | 계     | 자망 | 연승 | 안강망 | 어획물<br>운반업 |
| 86 | 80    | 28 | 33 | 8           | 11          | 6     | 4  | 2  | -   | -          |

### 5) 어촌계 현황

암태면에서 주로 생산되는 양식물 및 체포물은 김, 매생이, 전복, 민어, 농어, 병어 등이며 어업권자는 암태면의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오상어촌계, 익금어촌계, 추포어촌계, 송곡어촌계, 당사어촌계가 있다. 암태도의 어장면적은 당사어촌계, 익금어촌계가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양식물은 지주식 김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오상어촌계와 송곡어촌계도 다른 어촌계와 마찬가지로 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추포어촌계는 다시마와 전복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다시마, 가리비, 매생이 등도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매우 미비하며, 암태도의 어촌계는 거의 김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오상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암태면 천포길 32-12
- 어가수: 33세대(확인)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1,006,500m<sup>2</sup>
- 어선세력 : 11척
- 기반시설 : 선착장 2개소

#### 특산품

- 주 어업 : 민어, 병어, 농어
- 주산물 : 김(지주식), 매생이

### (2) 익금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암태면 익금길 300-1
- 어가수: 21세대(확인)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1,423,000m<sup>2</sup>
- 어선세력 : 6척
- 기반시설 : 선착장 2개소

#### 특산품

- 주 어업 : 병어, 농어, 민어
- 주산물 : 김, 가리비

### (3) 추포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암태면 추엽길 125
- 어가수: 30세대(확인)

#### 어업기반

- 어장면적 : 690,000m<sup>2</sup>
- 어선세력 : 4척

- 기반시설 : 선착장 1개소

**특산품**

- 주 어업 : 송어, 농어, 민어
- 주산물 : 전복, 김, 다시마

**(4) 송곡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암태면 해당길 161
- 어가수: 6세대(확인)

**어업기반**

- 어장면적 : 427,000
- 어선세력 : 5척
- 기반시설 : 선착장 1개소

**특산품**

- 주 어업 : 간자미, 민어, 농어
- 주산물 : 김

**(5) 당사어촌계**

- 소재지: 신안군 암태면 당사도길 17
- 어가수: 91세대(확인)

**어업기반**

- 어장면적 : 2,750,000
- 어선세력 : 23척
- 기반시설 : 선착장 2개소

**특산품**

- 주 어업 : 민어, 농어
- 주산물 : 김, 가리비, 다시마

• 어촌계별 양식어업면허 현황(2013년도)

| 어장<br>위치 | 면적        | 어업의<br>종류 | 양식물<br>체포물 | 어업의<br>방법 | 어업의<br>시기      | 존속기간                       | 어업권자         |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6,506,500 | 40        |            |           |                |                            |              |       |
| 암태 신석    | 10,000    | 패류 양식     | 가리비        | 연승식       | 1.1<br>12.31   | 2004.10.15.<br>2014.10.14. | 암태면 신석리 2568 | 김만섭   |
| 암태 당사    | 120,000   | 해조류 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6.06.26.<br>2016.06.25.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200,000   | 패류 양식     | 피조개        | 살포식       | 1.1<br>12.31   | 2006.06.26.<br>2016.06.25. | 안좌면 읍동리988-5 | 이박열   |
| 암태 당사    | 100,000   | 패류 양식     | 가리비        | 연승식       | 1.1<br>12.31   | 2007.07.23.<br>2017.07.22.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신석    | 15,000    | 패류 양식     | 가리비        | 연승식       | 1.1<br>12.31   | 2011.12.07.<br>2021.12.06.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오상    | 9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1.01.01.<br>2021.12.31.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추포    | 20,000    | 패류 양식     | 전복         | 가두리       | 1.1<br>12.31   | 2004.09.07.<br>2014.09.06.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추포    | 40,000    | 패류 양식     | 전복         | 가두리       | 1.1<br>12.31   | 2004.09.07.<br>2014.09.06.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해당    | 427,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6.03.06.<br>2016.03.05. | 암태면          | 송곡어촌계 |
| 암태 오상    | 185,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6.03.06.<br>2016.03.05.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추포    | 29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6.03.06.<br>2016.03.05.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오상    | 20,000    | 해조류 양식    | 매생이        | 지주식       | 1.1<br>12.31   | 2006.11.20.<br>2016.11.19.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오상    | 6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오상    | 8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익금    | 18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익금    | 28,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당사    | 40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16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8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         |        |     |     |                |                            |     |       |
|---------|---------|--------|-----|-----|----------------|----------------------------|-----|-------|
| 암태 당사   | 52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29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80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1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2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20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1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25,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당사   | 15,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8.<br>2022.01.07. | 암태면 | 당사어촌계 |
| 암태 오상   | 494,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22.<br>2022.01.21.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추업도  | 100,000 | 해조류 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7.10.18.<br>2017.10.17.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추업도  | 50,000  | 해조류 양식 | 다시마 | 연승식 | 1.1<br>12.31   | 2007.10.18.<br>2017.10.17.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추포   | 19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8.11.20.<br>2016.03.05.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신석   | 19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1.<br>2021.12.31.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익금   | 475,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8.11.20.<br>2016.03.05.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익금   | 55,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8.11.20.<br>2016.03.05.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익금   | 4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08.11.20.<br>2016.03.05.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익금   | 8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1.<br>2021.12.31.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오상외암 | 3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2.01.01.<br>2021.12.31.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익금   | 360,0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0.06.28<br>2020.06.27.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면 신기  | 47,500  | 해조류 양식 | 김   | 지주식 | 9.1<br>익년 4.30 | 2011.12.19.<br>2021.12.18.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마을어업면허 현황(2013년도)

| 어장<br>위치 | 면적        | 어업의<br>종류 | 양식물<br>체포물               | 어업의<br>방법 | 어업의<br>시기    | 존속기간                       | 어업권자 |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 4,130,000 | 7         | 413                      |           |              |                            |      |       |
| 암태 추포    | 500,000   | 마을        | 갯지렁이,<br>낙지              | 맨손        | 1.1<br>12.31 | 2004.03.12,<br>2014.03.11. | 암태면  | 추포어촌계 |
| 암태 익금신석  | 500,000   | 마을        | 갯지렁이, 낙지,<br>바지락         | 도수<br>형망  | 1.1<br>12.31 | 2011.06.29,<br>2021.06.28. | 암태면  | 익금어촌계 |
| 암태 중흥    | 500,000   | 마을        | 갯지렁이, 낙지, 꼬막,<br>기타수산동식물 | 도수        | 1.1<br>12.31 | 2009.01.07,<br>2019.01.06.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송곡    | 650,000   | 마을        | 갯지렁이, 낙지,<br>꼬막, 굴 등     | 도수        | 1.1<br>12.31 | 2010.06.28,<br>2020.06.27. | 암태면  | 송곡어촌계 |
| 암태 송곡    | 700,000   | 마을        | 갯지렁이,<br>낙지              | 맨손        | 1.1<br>12.31 | 2012.10.13,<br>2022.10.12. | 암태면  | 송곡어촌계 |
| 암태 오상    | 400,000   | 마을        | 갯지렁이, 낙지,<br>기타수산동식물     | 맨손        | 1.1<br>12.31 | 2012.11.12,<br>2022.11.11. | 암태면  | 오상어촌계 |
| 암태 송곡    | 540,000   | 마을        | 갯지렁이, 낙지,<br>기타수산동식물     | 도수        | 1.1<br>12.31 | 2013.02.16,<br>2023.02.15. | 암태면  | 송곡어촌계 |

• 전북 육상 종묘 배양장 현황(2013년도)

| 사업자<br>주 소     | 운영사업장          |                     |                      | 운영여부<br>(미운영사유) | 2013생산<br>예상량(천미) |          |
|----------------|----------------|---------------------|----------------------|-----------------|-------------------|----------|
|                | 위치             | 면적(m <sup>2</sup> ) | 수면적(m <sup>2</sup> ) |                 |                   | 생산능력(천미) |
| 암태면 수곡리 928-20 | 암태면 수곡리 928-20 | 656                 |                      | 350             | 여                 | 250      |
| 암태면 수곡리 928-22 | 암태면 수곡리 928-22 | 198                 |                      | 270             | 여                 | 150      |

## 8. 염업

염관리법의 정의에 의하면 “천일염(天日鹽)”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을 말하며, 즉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 만든 소금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鹽管理法)” 제정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2007년 11월 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판매가 허용되었으며,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식품부로 다시 2013년 3월 해양수산부의 이관되었다.

### • 천일염 생산과정

염전은 저수지, 증발지, 결정지로 구성되며. 저수지는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 증발지는 햇볕과 바람을 통해서 염도를 높이는 곳으로 난치와 누테로 구분.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소금결정체를 만드는 역할을 함. 이 모든과정을 거쳐 소금을 생산하기까지는 20~25일정도 소요됨.

- 1단계 : 저수지(해수취입) - 수문을 통하여 바닷물을 저수지로 유입. 저수지는 1차적으로 해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수로를 통해 1증발지에 해수를 보급하며, 이 때의 염분 농도는 1~3도임.
- 2단계 : 증발 - 깨끗한 갯벌과, 햇볕, 바람을 통해 해수를 증발시켜 염도를 높이는 곳. 제 1 증발지(난치), 제 2 증발지(누테)로 구성, 염전 면적의 80%이상을 차지함. 다양한 염생식물과 갯벌에서 생성 및 자생하는 유기물들이 소금의 원료인 함수와 섞여 질 좋은 소금을 만듦. 1증발지 농도 3~8도, 1증발지는 8~18도.
- 3단계 : 염도맞추기 - 해주(함수창고)는 증발지 및 결정지 내의 농축된 함수를 보관하며, 강우와 월동을 대비함. 보통 3개소의 함수창고(해주)는 각 염도별로 나뉘어져 있고, 결정지에 보급하는 염도수(약25도)를 맞추어 결정지에 보급.

4단계 : 채렵단계 - 증발지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소금결정체로 만들어 소금을 거두는 곳. 이 때의 염분농도는 약 20~25도이며, 보통 오전 6시경에 결정지에 보급된 함수는 오후4~6시에 채염가능함. 소금결정은 그 날의 일기·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기와 습도에 따라 소금 채염의 시간이나 결정체의 굵기, 맛이 달라짐.

## 1) 염업의 현황

암태도는 염전이 없는 흑산도를 제외하면 자은면(595,441㎡)과 더불어 가장 작은 염전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염전생산시설은 14곳이 허가를 받았으나 2012년 말 현재 12곳이 소금을 생산하고 있으며, 2곳은 휴경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곳 중 5곳만이 자가 운영 중이며, 5곳은 소작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염업종사자는 30여명이며, 남자가 21명, 여자가 9명이다. 염전의 운영은 고령화된 부부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성수기인 여름철에는 필요에 따라 염전당 1~2명을 고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염업의 생산자조직으로는 암태면 천일염작목반이 있으며 작목반원은 10명이다. 염전은 대부분 수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가장 큰 염전은 신석리의 홍일염전이다.

### • 천일염 생산 및 판매현황(2012년 말)

| 구 분 | 품목별 | 생산량 |         |          |           | 판매현황     |         |
|-----|-----|-----|---------|----------|-----------|----------|---------|
|     |     | 업자수 | 면적(㎡)   | 생산량(M/T) | 총판매량(M/T) | 판매처별     |         |
|     |     |     |         |          |           | 염업사(도매상) | 직거래(택배) |
| 염업  | 천일염 | 14  | 596,872 | 4,560    | 3,540     | 3,540    | 1,020   |

## • 염전현황

| 순서 | 면적 (㎡)  |         |        |        | 염 전 위 치 |  |
|----|---------|---------|--------|--------|---------|--|
|    | 총면적     | 염전면적    | 저수지    | 기 타    | 리       | 지번   |
|    | 596,872 | 468,671 | 80,607 | 47,594 |         |  |
| 1  | 29,160  | 22,700  | 4,622  | 1,838  | 기동      | 1271   |
| 2  | 45,819  | 30,500  | 13,101 | 2,218  | 수곡      | 677-1, 743-1, 743-3  |
| 3  | 67,490  | 35,007  | 30,271 | 2,212  | 수곡      | 730  |
| 4  | 33,421  | 32,532  |        | 889    | 수곡      | 32-12,7  |
| 5  | 68,502  | 48,548  | 20,054 | 26,109 | 수곡      | 32-1,10,16   |
| 6  | 154,913 | 126,440 | 2,364  |        | 신석      | 1053,1054-1,1055,1056,1057,1058,1059,<br>1059-9,12,1393,1394 |
| 7  | 2,763   | 2,763   |        | 2,480  | 신석      | 1379-2   |
| 8  | 19,243  | 15,193  | 1,570  | 5,924  | 수곡      | 1639,1639-1,1640   |
| 9  | 31,100  | 25,176  |        | 5,924  | 수곡      | 918  |
| 10 | 29,177  | 23,253  |        |        | 수곡      | 918-2  |
| 11 | 28,186  | 23,769  | 4,417  |        | 수곡      | 923-2, -5,924-2,-5   |
| 12 | 32,381  | 32,381  |        |        | 수곡      | 923-4,924-4  |
| 13 | 29,744  | 26,640  | 3,104  |        | 수곡      | 923-4,924-4  |
| 14 | 24,873  | 23,769  | 1,104  |        | 수곡      | 923,923-1,924,924-1  |

## 9. 활용 방안

암태도의 경우 여러 수산물 및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특산품은 수산물 중에서는 김(지주식) 양식과, 민어, 농어 잡이이며, 농산물은 고사리, 텍사, 마늘재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암태면의 특징을 살린 특산품을 섬초로서 브랜드화 하여 지역소득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 1) 암태면의 지주식 김

암태도의 다섯 곳의 어촌계 중 네 곳이 김 양식을 하고 있다. 암태도에서 생산되는 지주식 김은 밀물과 썰물에 의해 햇빛에 김이 노출되어 충분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성장함으로 김의 향기가 진하며 단맛이 강하다.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소량밖에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암태도의 지주식 김을 브랜드화해 소득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 2) 암태도 고사리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다. 암태도의 경우 고사리 작목반 6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전량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고사리 작목반이 임산물로서 야산에서도 일부 채취하나 대부분은 밭에서 종근을 재배하여 생산한다. 비금도의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해양성 기후의 해풍을 받고 게르마늄 토질에서 재배되는 섬초로서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 3) 암태도 마늘

마늘의 대표적 성분은 ‘알린’이라는 유황화합물이다. 맑은 공기, 게르마늄이 많이 함유된 깻벌, 풍부한 햇볕,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최적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신안 마늘은 당도도 높고 맛도 좋으며 ‘알린(allin)’ 성분을 많이 함유한다는 점에서 우수 마늘로 손꼽힌다. 암태도에는 2개의 작목반에 28농가가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작목반을 통한 브랜드화가 가능하다.

## 4) 텍사

텍사는 신안군에서 유일하게 암태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텍사는 쇠퇴나물이라고

도 하며, 맛은 달며 싱겁고 성질은 차며 콩팥과 방광에 작용한다. 텍사재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남이며, 한약 재료로 사용되는 텍사는 8월 20일 이전에 심어야 수확이 가능한 약초이다. 텍사는 2012년 현재 근당 5,000원에 팔리는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이나 암태도의 경우 인력이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8.5톤을 생산하였으나 2013년 현재는 텍사를 생산하는 농가는 없다. 따라서 텍사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필요가 있다.

## 5) 토종농산물

암태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배되는 토종농산물은 녹두이며 쥐눈이콩, 이팔이다. 토종농산물은 육지에서 점점 사라지는 농산물이다. 토종자원 다양성 확보와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의 공감대를 넓혀간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암태도를 포함한新安군의 도서지역은 풍부한 농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태도는 2018년 새천년대교가 완공되면 암태, 안좌, 팔금, 자은이 24시간 왕래 가능한 육지가 된다. 따라서 현재는 섬이라는 제약 때문에 발생한 유통, 인력의 문제를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섬초로서의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新安군 통계연보(2012년도)

2013년도 최근자료는 군청이나, 암태면사무소에서 입수한 자료임



## 암태면편

# X. 관광자원화 방안

강 봉 룡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 도서문화연구원장

김 재 은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테마 있는 섬여행을 위한 암태도의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1. 암태도 조각쟁의-소작인과 지주
2. 암태도 농지 형성사의 근간-간척
3. 간척이 가능했던 배경-갯벌
4. 마음을 이어주는 갯벌 위의 징검다리-노들길
5. 암태도의 신비를 간직한 성소  
-승봉산과 노만사, 그리고 입도지
6. 험고한 자연과의 협상-매향비와 우실
7. 희미한 역사의 피안  
-희미한 선사문화, 왜적과 맞선 역사
8. 테마 있는 암태도 여행

<암태면 문화지도>



# X 관광자원화 방안

“테마 있는 섬여행을 위한 암태도의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 1. 암태도 소작쟁의-소작인과 지주

오늘날 암태도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매력적인 요소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과거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때는 의미심장한 동력이 작동했던 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에 걸쳐 1년간 발생·전개된 암태도 소작쟁의이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전국적인 이슈를 넘어 국제적인 이슈로 발전하여 암태도의 이름을 만방에 떨친 대사건이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등 메이저급 언론기관은 앞다투어 보도했을 뿐 아니라, 부서별로 성금을 모아 기탁하면서 소작쟁의를 응원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성금은 전국에서 답지하였고, 해외의 동포들도 성금 기탁에 참여하였다.

암태도 소작쟁의는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포함한다. 일제와 지주 측의 강압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소작인이 승리를 쟁취했다는 점, 전국적인 소작쟁의로 확산되는 발화점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서태석과 박복영 등과 같은 독립운동가이자 소작쟁의의 영웅을 탄생시켰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

암태도 소작쟁의를 떠올릴 때, 역시 소작인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상대였던 지주들의 면모도 암태도의 역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측면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일부는 7~8월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율 소작료를 강행하다가 소작인들에 의해 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암태도 소작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철 가문이 암태도에서 지주로 성장해온 과정, 문재철이 과도한 소작료를 책정하게 된 내력과 소작쟁의에 대처했던 방식 등은 물론이고, 목포에서 남일운수주식회사와 선일척산주식회사 등을 운영했던 것이나, 1941년에 문태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연까지를 포함하여, 지주 문재철의 공과(功過)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암태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암태도의 학교교육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전해오는 천두학과 같은 다른 유형의 지주들도 주목하여 암태도 지주의 이미지가 단면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도 있겠다.

#### • 탐방지

-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비(단고리 542-1)
- 의사서태석선생 추모비와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기동리 서씨문중 선산)
- 서태석 생가(기동리 오산마을)
- 문재철 생가(소곡리길 63-1)
- 남강선착장(‘아사동맹’ 출발항)
- 고참봉천공두학장학기념비(단고리 암태초교 정문 우측)

#### • 콘텐츠

- 논픽션 : 박순동 『암태도 소작쟁의』(1969)
- 소설 : 송기숙 『암태도』(1981)



[사진 1]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



[사진 2] 암태면 외촌리 남강선착장

## 2. 암태도 농지 형성사의 근간-간척

결국 소작쟁의가 지주와 소작인 간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비롯했다고 한다면, 암태도의 소작쟁의의 발생은 암태도에 농지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암태도 농지 형성사의 근간을 이루는 간척의 문제를 빼놓고는 암태도의 역사를 논하기 어렵다.

간척은 땅으로 만입한 바다의 입구를 막는 방조제 축조 공사로부터 시작하여 방조제 안쪽의 바닷물을 빼내고 흙을 채워 넣음으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간척의 역사는 방조제의 역사와 통한다. 암태도의 방조제는 현재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최외곽의 방조제 28개소와 그 내부의 방조제를 포함하여 총 100여개의 방조제가 확인되고 있다. 조선후기부터 자연마을 단위로 소규모의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방조제 축조가 더욱 대규모화 되면서 간척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암태도의 너른 농지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인상적인 암태도의 사례로는 신석들 간척지를 위시로, 마명지구 간척지, 외촌리 중흥마을 간척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신석들 간척지는 승봉산이 자리잡은 본섬과

그 동쪽의 송곡리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섬, 그리고 그 북쪽의 신석리를 중심으로 한 섬을 하나로 연결시킨 대규모 간척 공사의 결과물로서, 오늘날 암태도의 외형을 크게 형성시킨 간척지라 할 수 있다. 마명지구 간척지는 본섬의 단고리와 와촌리 사이에 비교적 큰 규모로 만입한 바다의 입구를 단계적으로 막아서 만든 간척지로서, 오늘날 면소재지인 단고리를 포함하고 있어 암태도의 중심지를 이룬다. 또한 중흥마을 간척지는 와촌마을에 비교적 작은 규모로 만입한 바다를 단계적으로 막아 만든 소규모 간척지로서, 규모는 작지만 조선 후기부터 1970년 무렵까지 총 17개소의 방조제 흔적이 찾아지고 있고, 방조제 축조의 주체도 개인, 형제, 문중, 마을, 간척계 등 다종다양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사연도 포함하고 있어서 중흥마을의 형성·발전사뿐만 아니라 바다와 싸워 쟁취한 섬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다.

#### • 탐방지

- 와촌리 중흥마을 간척지
- 마명지구 간척지
- 신석들 간척지



[사진 3] 마명간척지 제방과 간척지

### 3. 간척이 가능했던 배경-갯벌

이러한 암태도의 간척은 암태도가 갯벌로 둘러싸인 ‘갯벌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갯벌은 밀물 때 바닷물로 채워졌다가 썰물 때 땅을 드러내는 ‘반육반해(半陸半海)’의 ‘바다(개) 들(뺨)’을 말한다. 따라서 섬 안으로 깊이 만입해 들어온 갯벌의 입구를 막아 바닷물을 차단해 버리고 흙으로 보강하면 항상적인 ‘땅의 들’로 남아있게 하여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암태도의 너른 농지는 갯벌

이 있었음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농업이 근본을 이루던 농경시대에 간척은 절대가치를 보장했다. 섬사람들이 밀려드는 바닷물과 싸우며 방조제를 쌓아 농지를 만들고, 그 농지를 지키기 위해 방조제 관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방조제를 둘러싼 원초적인 사연들은 암태도 사람들의 가장 진솔한 삶의 역사를 구성한다.

방조제는 한자식 표현이고, 원래 암태도 사람들은 이를 ‘원둑’이라 불렀다. 농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들은 마을 앞까지 침투해 들어온 갯벌의 입구를 차단하는 원둑 막기 공사를 함께 도모했다. 마을 사람들은 원둑을 막기 위한 계(契)를 조직했으니, 이를 ‘원계’라 불렀다. 원계 성원들은 맨손으로 원둑을 막고, 원둑 안쪽의 갯벌을 농지로 가꾸었다. 그리고 원둑을 관리하였다. 원둑이 터지는 순간 농지는 바닷물이 침투하여 갯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니, 원둑의 관리는 원계 성원들의 중요한 일과였다.

암태도에는 일부 원계 문서가 남아 있고 어르신들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어서 마을 원계의 조직과 운영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다. 원계의 상징적인 책임자는 ‘공원’이라 불리는 자였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보주’라 불리는 자가 맡았다고 한다. “비오는 날에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는데, 보주만은 원둑으로 향해야 했다”는 증언이 보주의 엄중한 책임감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비가 오면 원둑의 지반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보주는 비오는 날에 특별히 신경써야 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원둑의 최대 적은 갯벌의 게였다. 게들이 원둑으로 기어올라와 파들어가는 구멍이 원둑 붕괴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주는 게 구멍을 살피야 했다. ‘개알탕’이라 부르곤 했던 작은 구멍은 보주의 응급조치로 보수가 가능했지만, 붕괴가 상당히 진행되어 ‘울구덕’이라 불리는 큰 구멍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보주는 즉시 공원에게 알려 원계 성원들을 소집하여 복원 공사를 해야 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어린 시절 교과서에서 읽었던, 네덜란드 어느 소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난다. “어느 소년은 마을 독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한다. 그 소년은 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엔 손가락으로 막다가 점점 구멍이 커지자 급기야 팔뚝으로 막아 밤새 버틴다. 새벽녘에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둘러 독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마침내 마을을 구한다.”

암태도의 원둑 위를 거닐며 다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어떨까? 암태도의 갯벌

이야기, 갯벌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암태도 사람들이 사투를 벌였던 이야기, 농지를 둘러싸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폭발한 소작쟁의의 이야기, 원뚝을 만들고 관리했던 원계와 보주의 이야기, 그리고 덧붙여서 네덜란드의 그 소년 이야기까지... 감명 깊은 좋은 여행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스토리가 있는 암태도의 원뚝을 발굴하고, 이를 특별한 '원뚝 걷는 길' 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탐방지

- 와촌리 중흥마을 간척지 방조제
- 마명지구 간척지 방조제
- 신석들 간척지 방조제
- 수곡리와 추포도 사이의 갯벌

#### • 콘텐츠 : 원계문서



[사진 4] 오상리 가섬마을 대동계척 문서

## 4. 마음을 이어주는 갯벌 위의 징검다리-노돛길

서남해의 ‘갯벌섬’ 중에는, 밀물 때 섬과 섬 사이가 바닷물로 찻다가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두 섬 사이를 건너는 방법으로는, 밀물 때 나룻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 갯벌 위에 돌 징검다리를 놓아 썰물 때 건너는 방법이 있다.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나룻배보다는 돌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돌 징검다리를 ‘노돛길’(노도 혹은 노두)이라 부르고, 노돛길을 내기 위해 늘어놓는 돌을 ‘노돛돌’이라 칭한다. 노돛길은 나룻배 대용(代用)의 의미가 있어서인지, 섬 사람들은 노돛길 건너는 것을 나룻배 타듯이 ‘노돛길 탄다’라고 표현하곤 한다.

갯벌섬인 압태도에도 섬과 섬을 연결하는 노돛길이 5개 정도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중 압태도 본섬의 수곡리에서 건너편 추포도의 추포리 사이 갯벌 2.5km를 잇는 ‘추포 노돛길’은 3,600여개가 넘는 돌들을 놓아 만든 우리나라 최장(最長)의 노돛길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병인년(丙寅年)에 장씨, 문씨, 김씨 등이 시주하여 이 노돛길을 놓았다는 것을 새긴 ‘노도비(路道碑)’가 추포도 측에 남아 있어, 추포 노돛길이 3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노돛길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이처럼 우리나라 최장, 최고의 노돛길인 만큼 추포 노돛길엔 사연도 가지가지다. 압태도 본섬에서 추포도로 시집가던 신부가 가마를 타고 노돛길을 건널 때, 앞뒤의 가마꾼이 ‘띄었냐? 띄었다! 띄었냐? 띄었다!’라고 발장단을 맞추는 구호를 주고받으며 노돛길 타는 것에 조마조마했다는 이야기, 물때가 달라 본섬의 학교로 가는 추포도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이 매일 달랐다는 이야기, 물때를 맞추지 못해 노돛길을 미처 건너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매년 음력 7월 8일과 9일에 해초가 잔뜩 끼어 미끌미끌해진 노돛돌을 뒤집는 작업을 공동으로 했다는 이야기 등...

추포 노돛길 옆을 따라 2차선 콘크리트 도로가 2000년 6월 30일 개통되면서 추포 노돛길은 추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다. 매년 노돛돌을 뒤집던 행사도 1997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단절되어,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노돛길은 점점 갯벌 속에 파묻혀 들어가 흔적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300여년 전에 세웠다는 노도비가 의연히 그곳에 서있고, 추억을 기억해 내려는 역사의 작동이 멈추지 않는

한 추포 노뎃돌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이다.

노두의 기원이 불교의 ‘월천공덕(越川功德)’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월천공덕이란 ‘내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공덕’을 말한다. 이것이 정월 대보름 전날에 마을 개울에 노뎃돌을 놓는 선행을 베풀면 한해의 나쁜 액을 막아낼 수 있다는 액막이 세시풍속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한다. 그러니 섬사람들이 노뎃돌을 놓아 노뎃길을 만들고 매년 노뎃돌을 뒤집는 일을 반복했던 것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는 ‘월해공덕(越海功德)’의 기원을 한 마음으로 비는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고 해야겠다.

‘노뎃돌’은 문병란 시인이 1976년에 발표한 <직녀에게>라는 시에서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의미의 핵심 시어로 등장한다. 이 시는 1980년대에 박문옥이 곡을 붙이고 김원중이 노래한 동명의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슴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은 더 이상 탈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추포 노뎃길을 추억하면서 <직녀에게>의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로 불러본다면, 나쁜 액은 끊어지고 끊어진 우리의 마음은 이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 • 탐방지

-추포 노뎃길

-추포 도도비



[사진 5] 추포 노뎃길



[사진 6] 추포 도도비

• 콘텐츠

-TV다큐멘터리 : 청주 KBS

-시와 노래 : <직녀에게>

<직녀에게> 문병란 시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뚝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던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감고 풀 실을

밤마다 그리움 수놓아 짠 베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 짠 베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망이 막혀 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유망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뚝돌이 없어도

가슴을 던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칼날 위라도 던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뎛돌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직녀에게〉 박문옥 곡, 김원중 노래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뎛돌을 놓아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뎛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인아 연인아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 5. 암태도의 신비를 간직한 성소 -승봉산과 노만사, 그리고 입도지

암태도에 승봉산(升鳳山, 355.8m)이 있다면 그 북쪽으로 인접한 자은도에는 두봉산(斗鳳山, 363.8m)이 있으니, 두 산의 이름에는 태초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깃들여 있다. 먼 옛날 연일 폭우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겨버린 저 ‘노아의 방주’ 시대에 승봉산은 봉우리가 되[升] 만큼 드러나 있었고, 두봉산은 말[斗] 만큼 드러나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승봉산과 두봉산이 그만큼 세상의 높은 산이지만, 두봉산이 간발의 차이로 좀 높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리라.

과연 승봉산에 오르면 ‘1004섬’ 다도해의 사방 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산 곳곳에 만물상, 마당바위, 오리바위 등과 같은 규모있는 기암괴석이 즐비하다. ‘바위가 큰 섬’이라는 의미의 ‘암태도(巖泰島)’의 이름도 승봉산의 바위들로부터 연원한 것일까?

승봉산 서남방 5부 능선쯤에 이름도 특이한 노만사(露滿寺)라는 절이 있다. ‘이슬을 가득 머금은 절’이라는 뜻이다. 현재 대웅전 1동, 칠성각 1동, 요사채 1동을 갖추고 있다. 해남 대흥사의 말사로 1873년에 창건되어 신안군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라 하나, 대웅전은 근대 초에 새로 건립된 석조건물이고 요사채는 최근에 세워져서 고풍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대웅전으로 가려진 뒤편에 자궁 형상을 한 아주 특이하고 거대한 바위가 있어, 문득 범상치 않은 신비감을 느끼게 한다. 자궁 안쪽의 내밀한 부위에 해당함직한 곳에는 파란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그 이끼를 타고 이슬을 머금은 듯 은근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10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 물은 만병통치의 약수물로 알려지고 있다. 노만사라는 이름도 이끼 사이로 이슬처럼 흘러내리는 물의 모습에서 따온 것일까?

문득 자궁 형상의 노만사 바위가 암태도의 모든 것을 잉태한 원초적 성소(聖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바위 주변은 노만사의 절이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이 섬 사람들에게 성소로 신봉되던 것이 불교와 만나면서 노만사로 탄생한 것이 아닐까? 자궁 형상의 바위와 이슬을 머금은 절 노만사, 그리고 태초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승봉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인연이 느껴진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암태도의 이름도 ‘바위가 큰 섬’이라는 뜻을 가진 ‘巖泰島’ 보다는 ‘바위의 자궁이 잉태한 섬’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巖胎島’가 더 어울려 보인다.<sup>1)</sup>

노만사 주변의 예사롭지 않은 식생도 성소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절 주변이 낙엽활엽수 군락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대웅전 앞에 바위 절벽을 타고 뻗어나가는 오래된 송악 군락이 신비롭다. 절 뒤로 나있는 등산로로 접어들다 보면 곰솔군락과 굴참나무 군락이 서로 섞이면서 교목층을 형성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 가다보면 암태도에 처음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는 승봉산 기슭의 입도지에 당도한다. 1980년대

---

1) 암태도의 조선시대 표기는 ‘巖泰島’ 혹은 ‘암태도(巖墜島)’였다. 지명의 한자 표기는 시대에 따라 기록자에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까지만 해도 5가구가 살았다는 그곳엔 지금은 집터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승봉산 기슭, 바위 성소 노만사로 통하는 그곳에 사람이 처음 터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또한 신비롭지 않은가!

• 탐방지

- 승봉산 등반
- 노만사 절과 바위, 그리고 식생
- 승봉산 입도지



[사진 7] 승봉산 노만사 뒤의 성스런 바위 (전경)



[사진 8] 승봉산의 괴암 괴석



[사진 9] 승봉산 노만사 뒤의 성스런 바위 (부분)

## 6. 험고한 자연과의 협상-매향비와 우실

도서문화연구원의 전신 도서문화연구소가 출범하기 1년 전인 1982년에 목포대의 여러 교수님들이 섬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학술조사를 한 곳이 바로 압태도이다. 압태도 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서문화연구소가 1983년도에 정식 출범했으니, 그런 의미에서 압태도는 도서문화연구원을 잉태한 섬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압태도 조사에서 최대의 성과는 송곡리 매향비의 발견이었다.

매향비는 향나무를 묻는[매향, 埋香] 의식을 거행하고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를 말한다. 매향의식은 바닷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해양활동의 안전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공동체적 해양신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바닷가 마을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갯벌에 향나무를 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육지의 연안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압태도 송곡리 매향비가 섬에서 발견된 유일한 사례이다.

송곡리 매향비는, 동서로 서로 마주보는 박달산과 무명산(無名山)이 골짜기를 이루고 남동쪽으로 바다와 연결되면서 형성하는 갯벌지대의 서쪽 무명산 기슭에서 발견되었다. 송곡 마을은 갯벌과 통하는 골짜기 안쪽에 자리잡고 있어, 해양활동이 활발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골짜기와 갯벌이 맞닿는 지점에 매향비를 세웠다는 것은, 송곡리 사람들이 해양활동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행했던 해양신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매향비 건립 시기는 조선 초기 1405년의 일이었다.

섬사람들은 이밖에도 험고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우실'이라 불리는 마을숲을 조성한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우실이란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마을 서북쪽에 조성한 마을숲을 말한다. 이렇듯 우실은 처음엔 방풍의 기능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점차 마을의 경계,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성소(聖所) 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압태도에도 마을마다 우실이 조성되어 있는데, 송곡리 마을 우실과 신석리 익금마을 우실이 대표적이다. 두 우실 모두 팽나무숲으로 조성되었는데, 돌담을 쌓아 이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송곡리 우실의 경우 어느 스님의 계시에 따라 돌담이 조성되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함께 전승되고 있다.



[사진 10] 송곡리 우실



[사진 11] 송곡리 매향비

• 탐방지

- 송곡리 매향비
- 송곡리 우실
- 신석리 익금 우실

## 7. 희미한 역사의 피안-희미한 선사문화, 왜적과 맞선 역사

암태도에서 사람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일까? 이 문제는 고고학적 조사에 의해 해명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찾지 못했고, 몇몇 토기편과 자기편, 기와편만이 수습되어 빨라

야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가 찾아지면 추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암태도가 최초로 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나타나는 척준경 유배기사이다. 척준경은 이자겸과 공모하여 인종을 폐위하려 대궐을 침범하였지만 왕의 설득으로 오히려 왕을 구해 공신의 반열에 올랐던 인물인데, 그후 권력을 남용하다가 정지상의 탄핵을 받아 1127년 ‘암타도(巖墮島)’에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암태도의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유물로는 조선 초기 1405년(태종 5)에 세웠다는 송곡리 매향비를 들 수 있다. 매향비에 의하면 마을사람들이 ‘향도(香徒)’라는 신앙공동체를 결성해서 매향 의식을 거행하고 매향비를 세웠다 하니, 이미 15세기 초에 조직적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8년에 염간(鹽干) 김나진과 갈금 등이 암태도를 노략하는 왜선 9척을 쫓아내고 나진 등 20여인이 혈전을 벌여 적의 머리 3급을 베고 잡혀갔던 2명을 빼앗았다는 기사가 나온다. 매향비를 세운지 불과 3년 후의 일로서, 왜구의 퇴치를 기원하는 것도 매향비를 세운 목적의 하나였지 않았을까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1435년(세종 17)의 기사에는 암태도에 도적들이 점점 성행한다는 형조의 보고가 보이고 있어, 왜구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암태도의 부속도서 당사도가 난중일기에 등장한다.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해전으로 기록되는 명량해전(1597년 9월 16일)에서 기적의 승리를 거둔 이순신은 우수영에서 후퇴를 명령하는데, 그 첫 기착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당사도였다. 당사도에서 어외도(오늘의 지도), 법성포, 위도 등을 거쳐 21일 고군산도에 이르러 10여일을 머문 후에 다시 남하하여 10월 9일에 다시 우수영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왜적에 일격을 가하고, 조선전기 왜적의 침탈지였던 암태도의 당사도를 첫 기착지로 선택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후 암태도에 대한 동정이 보이지 않다가 조선후기 숙종 연간(1675~1719)에 진을 설치해야할 6개 도서 중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다시 등장한다. 그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와 같은 논의만으로도 군사요충지로서 암태도의 위치가 다시 주목을 받았던 셈이 된다. 그런 암태도가 1923년~1924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소작쟁의의 섬으로 미친 존재감을 떨쳤으니, 갯벌과 간척의 역사, 그리고 농지를 둘러싼 갈등이 암태도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 수 없다.

- 탐방지

- 당사도

## 8. 테마 있는 암태도 여행

테마 : “갯벌이 있음으로 간척이 있었고, 간척이 있음으로 소작쟁의가 있었다”

- 갯벌과 노돏길

- 암태도 본섬과 추포도 사이의 갯벌을 추포 노돏길과 연계하여 스토리있는 갯벌 체험장으로 구상.
  - 노돏길을 복원하여 ‘노돏길 타기 체험’

- 간척지

- 와촌리 중흥마을 간척지의 방조제 탐방로를 정비하여 방조제를 걸어가면서 간척의 역사와 이야기 나누기

- 소작쟁의

- 암태도의 간척과 농지를 둘러보며 암태도 소작쟁의 배경 이해하기
  - 서태석 생가와 소작쟁의 기념비 둘러보며 소작쟁의 의의 살피기
  - 문재철 생가와 천두학 기념비를 찾아 암태도 지주의 이중성 엿보기

- 승봉산과 노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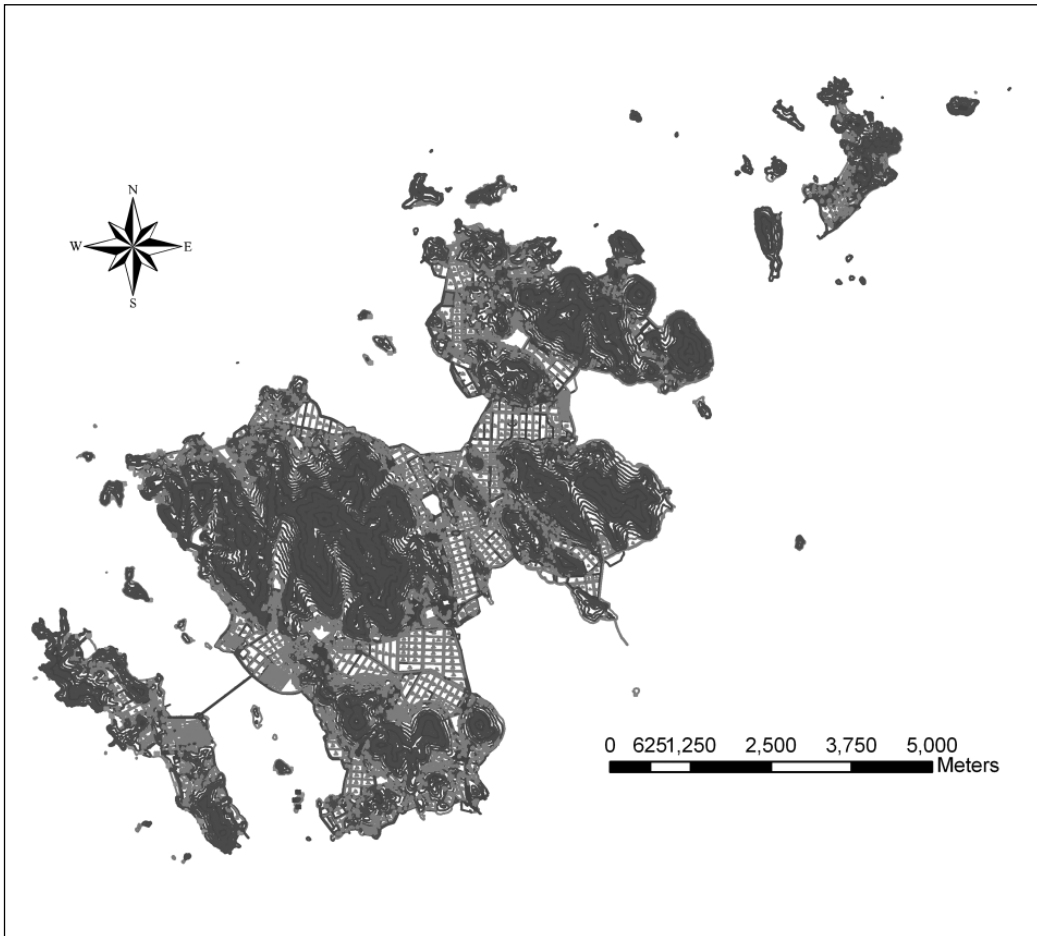
- 승봉산 기암괴석 통해서 ‘바위가 큰 섬’ - ‘암태도’ 이름 이해하기
  - 승봉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다도해의 절경 즐기기
  - 노만사의 유래와 암태도의 성소(聖所) 바위 느끼기
  - 승봉산과 노만사 주변의 식생 탐방하기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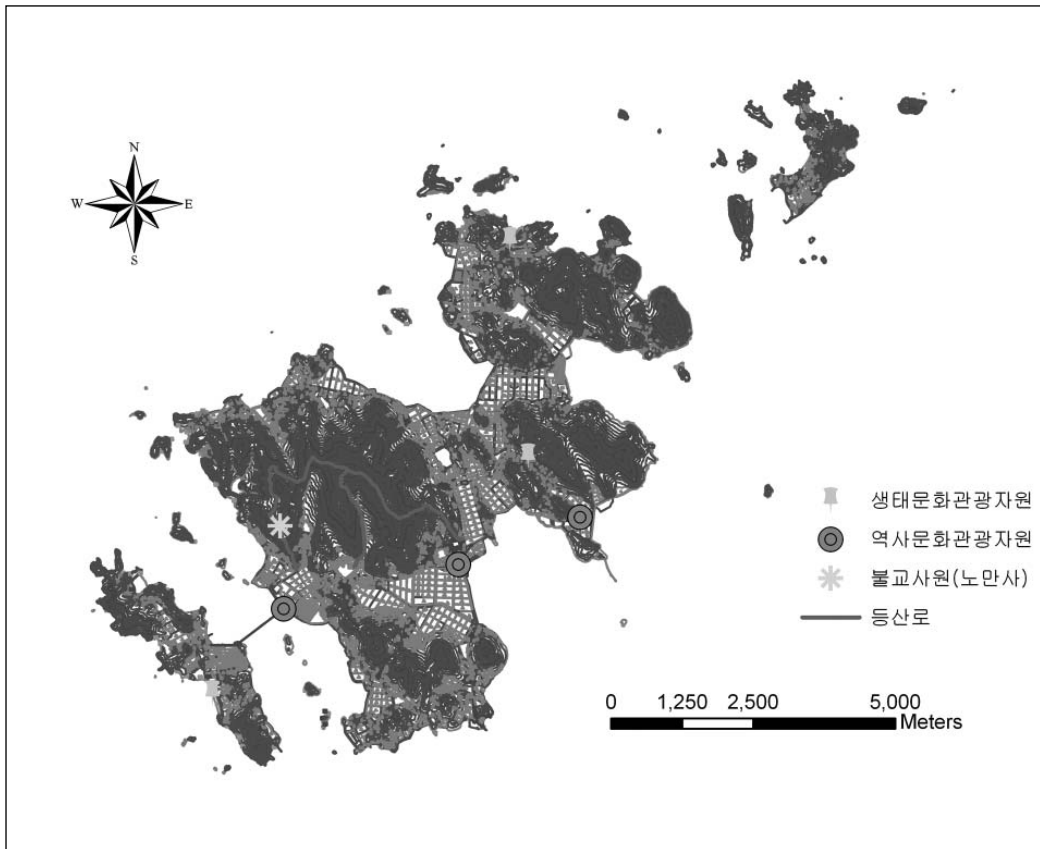
- 섬에서 발견된 유일한 매향비의 의미 살피기
- 송곡리 우실과 신석리(익금) 우실을 통해서 섬 마을숲의 의미 알기
- 이순신이 흔적 남긴 당사도에서 왜적과 맞선 압태도의 역사 이해하기
- 천두학이 압태초등학교를 지원한 것이나 문재철이 문태증을 건학한 사실을 통해 압태도 사람들의 교육열 느끼기
- 그밖에 민속, 구비전승, 건축, 어업생태 등 탐방하기
- 압태도 방언 배우기

## 〈암태면 문화지도〉

### 1. 암태면의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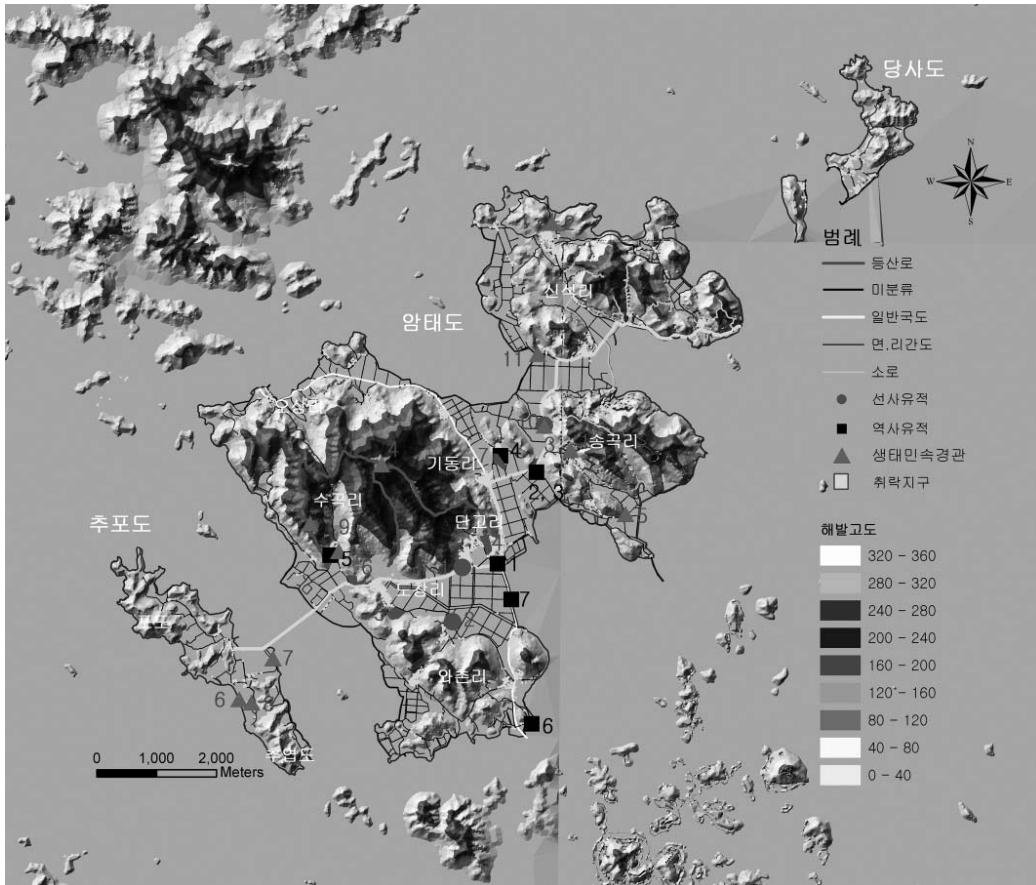


## 2. 암태면 승봉산 등산로 안내도



- 암태중학교-정상(오르막길) 2829m : 약 1시간 30분
- 도창저수지-정상(오르막길) 1982m : 약 1시간 10분
- 정상-노만사(내리막길) 4263m : 약 1시간 10분

### 3. 암태면의 3차원 문화자원 안내도



#### 선사유적

1. 단고리 단고입석
2. 와촌리 와촌입석
3. 송곡리 활목입석
4. 단고리 유물산포지
5. 도창리 유물산포지1
6. 도창리 유물산포지2
7. 오산마을 고묘군

#### 역사유적

1. 암태도 소작인 항쟁기념탑
2. 서태석 묘역 및 암태도농민 항쟁사적비
3.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4. 서태석 생가
5. 문재철 생가
6. 아사동맹을 출발한 남강선착장
7. 소작인들이 경작한 소작지인 마명지구 간척지

#### 생태민속경관

1. 송곡리 마을숲(우실)
2. 신석리 마을숲(우실)
3. 노만사
4. 승봉산
5. 매향비
6. 추포해수욕장
7. 노도비
8. 추포리 마을숲
9. 수곡마을 노거수
10. 활목마을 노거수
11. 구석마을 노거수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22집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 암태면편



## 부 록

1.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신문자료
2.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회고문



# 부 록

## 1.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신문자료

암태도 소작쟁의는 진행상황에 대한 소식이 1924년 당시 주요 신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본고에서는 당시 소개된 신문의 원본 기사를 바탕으로 주용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당시 문법이 현재와 달리 다소 어색한 표현이 있으나, 자료적 측면에서 당시 기사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두었다.

### 1) <동아일보> 관련 기사

#### (1) 1924. 4. 4. 小作會幹部를 突然 毆打

##### 문디주의 일족들이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면 기동리 사는 암태소작인회의 간부 서태석 박종유 서동오(全南 務安郡 岩泰面 基洞里 岩泰小作人會幹部 徐邵皙 朴宗有 徐東五) 세사람은 전부 터 소작문제로 그곳 지주문재철(地主文在喆)과 서로 의사의 소격이 잇던중 보누얼

이십칠일에 전괴세사람이 어대를 갖다가 도라오는 길에 동면와리리(同面瓦利里)를 지날 때 그위산 기슭에서 동면 수곡리(水谷里)사는 지주문재철의 종제되는 문응창(文應昌)이가 서태석을 부름으로 서태석이 올라간즉 문재철의 실부문군옥(文君玉)이가 「저놈 죽여라」하고 호령을 하자 문군옥의 일족 오십오명은 각기칼 낫 몽둥이 가튼 것을 가지고 란타함으로 동행하든 박종유 서동오 두사람은 싸닭을 알고저 올라갔더니 그에게도 역시 폭행하려함으로 전괴 두사람은 할 수 업시 도망하야 달어 났스나 그들은 일정보가량이나 쓰쳐와서 두사람을 무수히 란타하야 필경 중상을 당하고 서태석은 만흔상해는 업다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면민일동은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방어하랴 하엿스나 그들은 여전히 폭행을 함으로 면일동은 흥기를 빼앗고 폭행의 리유를 물은즉 모다 도망하고 구중에 수모자 문명호(文明鎬) 혼자 남어 말하기를 「오늘 면민대회에서 내종조부의 송덕비(頌德碑)를 파괴하기로 하엿다하기에 그 수모자를 죽이려함이라」하고 대답하엿다는데 피해자인 박종유 서동오 두사람은 즉시 목포제중원에 입원하엿다더라

## ② 1924. 4. 6. 岩泰事件으로 小作幹部の 質問

### 경찰서당에게 무장경관 파송에 대하여 강경질문

전남 무안군 암태면 암태도(全南 務安郡 岩泰面 岩泰島)에 잇는 디주 문재털(文在喆)의 일족중에서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간부 서태석(徐邵楮) 박종유(朴宗有) 서동오(徐東五)등 세사람을 란타하야 중상을 식혔다함은 괴보한바 이어니와 그 소작인회에서는 간부 서태석씨를 목포(木浦)경찰서에 파견하야 이번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리를 질문하엿는데 동씨는 지나간일일 오전 열시경에 서당과 면회하고 대략 다음과 가튼 문답이 잇섯더라

一. 이번 사건에 소작인들이 디주의 집으 습격한다고 무장경관을 보태고 쏘는 엉터리도 업는 그러한 사실을 각신문에게 재함은 무슨 싸닭인가? (대표자)소작인이 디주의 집으 습격한다는 주재소보도가 잇슴으로 무장경관을 보낸것이오 신문의 괴사는 신문괴자들이 그러케 낸것이오(서당)

一. 암태주재소에서 피해자들의 고소를 맞지 아니함은 무슨 싸닭이며 쏘는 모든 일에 디주를 옹호함은 무슨 리유인가?(대표자) 그럴 리가 잇소? 고소는 피해자가 즉점으로하지 아니하고 대리로 썬사람이 한 싸닭에 맞지 아니한 것이며 사건은 어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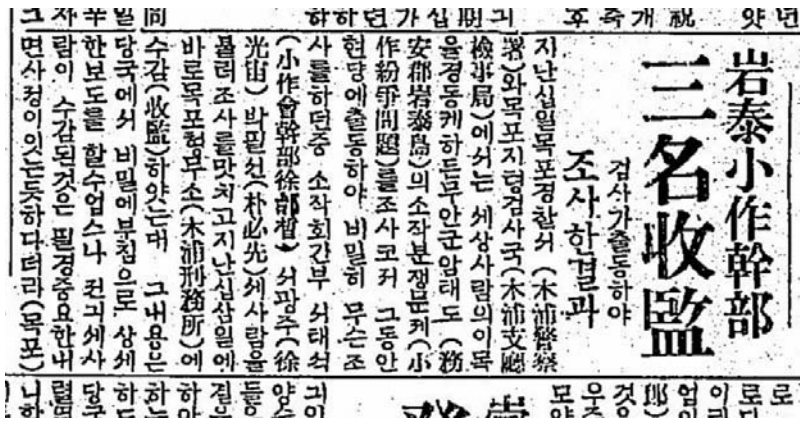
가지든지 공평 정대히 처리할 터이오(서당)

(3) 1924. 4. 16. 岩泰小作幹部

三名收監

검사가 출동하여 조사한 결과

지난 십일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와 목포지령검사국(木浦支廳檢査事局)에서는 세상사람의 이목을 경동케하던 무안군 암태도(務安郡 岩泰島)의 소작분쟁문제(小作紛爭問題)를 조사코저 그동안 현당에 출동하여 비밀히 무슨 조사를 하던중 소작회 간부 서태석(小作會幹部 徐邵楨) 서광주(徐光宙) 박필선(朴必先) 세 사람을 불러 조사를 맞치고 지난 십삼일에 바로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에 수감(收監)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국에서 비밀에 부침으로 상세한 보도를 할 수 업스나 전과 세사람이 수감된 것은 필경 중요한 내면사정이 잇는 듯하다더라(목포)



[사진 8] 1924.04.16. 동아일보, '암태도 소작쟁의 간부 3인 수감' 기사 원문

(4) 1924. 6. 8. 猛烈한 示威運動

구급된 대표를 방송치안으면 어대싸 지 운동을 계속한다고

### 拘禁된 幹部의 釋放運動詳報

전남 무안군 암태소작쟁의문제(全南 務安郡 岩泰小作爭議 問題)는 확대되야 암태소작회 간부서태석(徐邵楫)외 열두명이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에 구금중 그회회원 일동은 이것을 분히 녀여 선후책(先後策)을 강구한 결과 구금된 간부의 석방운동을 하고져 면민대회를 열고 청년회대표 박복영(靑年會朴福永) 소작회김용학(小作會金龍學) 부인회대표고백화(婦人會高白花) 삼씨를 비롯하여 각단체남녀사백여명이 지난 오일 범선(帆船)일곱척을 나누어타고 목포경찰서에 이르러 괴세를 내었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당국에서는 크게 놀라 대표자 몇사람을 불러 사실을 물은 뒤에 원경비소(元警備所)에 수용하고 경관의 경계로써 그날밤을 새이고 그이튿날 오전 아홉시부터 재판소 구내에 사백여명이 모다 몰려들어갔는데 예심판사는 대표자 세사람을 판사실로 불러들여 당시간을두고 설유하며 「이와가치 다수한 군중이 모함은 불가한즉 대표자 몇명만두고 각기 해산하라」고 명령하였슴으로 그회 간부되는 서광호(徐光浩)씨는 이 뜻을 일반 군중에게 면하였스나 다수한 군중은 언제까지던지 구금된 간부일동을 이길로써 압흔세워주지 아니하면 해산할 수가 업다고 사방에서 야단을 치며 쫓까지 해산안키를 주장하다가 오후 일곱시경에 이르러야 숙소로 나왔스나 그면민들은 계속하여 그날도 룽십여명이 건너올 모양인데 만일 이운동으로써 목적을 달치못하게 되면 수백여명이 또 건너와서 대대덕으로 시위할 모양이라더라(목포)

### (5) 1924. 6. 10. 三日間包圍示威

#### 木浦地方法院支廳을 감찰관면회로 해산케되여

지난 사오량일 전남 무안군 암태소작인 오륙백명(全南 務安郡 岩泰面 小作人 五六百名)이 수감된 간부석방운동(幹部釋放運動)차로 목포경찰서 또는 법원지청(法院支廳)에 쇄도한 사실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삼일동안을 해산하지 아니한 그들에게 지난 룽일 오전에 이르러 법원지청을 겹겹히 에워싸고 잇는 군중을 대하여 무안군수는 해산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즉 이길로 해산하라고 설명이 잇섯고 법원지청에서도 전날가치 루루히 달내이었스나 조금도 뜻지 아니하고 수감된 간부 등을 면회(面會)식혀달라고 형무소(刑務所)로 몰려갓섯스나 용이히 되지 아니함으로 도로형무소로를 켜나 법원지청으로 도라왔는데 그날은 맛참 총독부 산구감찰관(山口監察官)이 목포

에 왓단 말을 듯고 일동은 이 기회를 타서 목포부형으로 몰려갔는데 또 한 사절(謝絶)을 당하였으나 이를 불고하고 루루히 교섭을 한결과 감찰관은 그러면 군중은 일제히 해산을 시키고 대표자 두명만 청하여 달라고함으로 그말을 승낙하고 지난칠일 아침에 각기 해산되엿다더라(목포)



[사진 12] 1924. 6. 10. 동아일보, 암태도 주민들의 단체 항의방문 기사 원문

(6) 1924. 7. 8. 岩泰小作事件

豫審을 마치고 公判에

전남 암태소작 분쟁문제(全南 岩泰小作 紛爭問題)로 그회간부서창석군의 열두명(其會幹部 徐倉錫君外 열두명)은여러가지 죄명을 입어 목포형무소(木浦刑務所)에 수감되엿다함은 루루히 보도된 바어니와 그동안 광주지방법원 목포지형검사(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檢査)의 손을 거쳐 심리중이든바 지난 삼일에 예심(豫審)을 마치고 공판(公判)에 부치엿다더라(목포)

(7) 1924. 7. 13.

### 岩泰小作事件 前後經過의 詳報

무안군 암태면(務安郡 岩泰面)소작인 룩백여명이 지난 팔일부터 목포 광주지방법원지정구내에 쇠도하여 금번의 소작쟁의(小作爭議)로 말미암아 예심(豫審)을 마치고 공판에부치여 잇는 소작회 간부와 및 회원 열세사람을 내여달라고 부르짓고 잇는 현상은 임의 작보에 보도한바어니와 이제 그자세한 언말내용과 목도한 사실을 기록하면 지난 칠일에 암태면 암태도(岩泰島)주민일동은 그곳에 잇는 소작인회(小作人會) 부인회(婦人會) 청년회(靑年會) 삼단체가 연합하여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고 구금중(拘禁中)에 잇는 열세사람을 건져낼 것을 굳게 결의하게되야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사법관에게 속아실패한 것을 경험삼아 잊지되었던지 최후의 해결을 잊자는 뜻으로 만일이번길에 열세사람과 가치 도라오지 못하게 되는 새는 우리는 그법정(法庭)안에서 다가치 굴머죽자는 구든결심으로 모다 거름을 가지하자는 약속밧헤 주민룩백여명은 늙으니와 젊은사람의 구별도 업시 남자나 여자를 못지안코 누구나 모다 흥분되야 즉시 열척의 배를 나누어타고 그이틀되는 팔일밤 황혼에 목포지정(木浦支廳)구내에 살기가 가득한 야영(野營)을 일우게 되였다

幕天席地=오스름달알에 하루밤을 새여 이와가치 불의의 변을 당하게 된 재판소에서는 엇더한 태도로써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위선지정당(支廳長)은 경찰서당과 협의하여 군중의 대표자(代表者) 서광호(徐光浩)씨를 먼저 회견하고 일반군중에게 속히 도라가는 것이 제일 량책이라는 뜻을 말하고 제이차로는 대표자 박복영(朴福永) 서광호, 김정순(金正順) 김상규(金相圭) 고백화(高白化)등 제씨를 회견하고 역시한 뜻으로 조금도 확실한 대답이 업시 그대들이 이곳에 공연히 머물고 잇는 것은 일의 해결을 위하여 조금도 리익이 업스니 이뜻을 군중에게 전하여 량해를 식혀달라는 말로써 간절하게 권고를 하였스며 이와가치 두차례나 일러도 군중은 의연히 도라갈 생각이 조금도 보이지 아니함으로 세 번째는 할 일업시 경찰서당으로부터 경비소(警備所)를 열어돌터이니 모다 그곳으로 도라가서 오날밤을 새우라하였스나 일반은 이런말에 귀도 기우리지안코 그냥 그 자리에서 더풀 것 쌀것도 업시 대디(大地)로 요를 삼고 창공(蒼空)으로 이불을 삼아 입은 옷에야 흑이 못던지 마던지 조라드는 창자야 쓴 어지던지 마던지 오죽한 아집을 써날 새에 작명한 마음으로 숨기가 가득한 밤이 술을 마지면서 말은 정강이와 해벧에 쓸은 두쌍을 인정업는 모기들에게 물러가면서 그날밤을 자는둥 마는둥 또다시 그이틀되는 초구일을 당하게 되얏다

「詳細는 不知」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처지하겠다고 中島木浦署長談

다시 중도(中島)경찰서당을 방문한즉 「나는 경성고등계에 있다가 지난달 이십사일에 이곳에 새로히 부임하였스니써 자세한 최초의 것은 알 수 업습니다마는 하여간 재판소에서는 될수잇는대로 온건한 처분을 할작명가치 보히며 이번일로 인하여 특별히 군수나 법원당들이 모혀서 무슨회의를 한일도 업습니다 오즉 경찰서에서는 재판소의 지휘를 조차서 그들을 처분하겠습시다마는 일전부터 대표자들에게 향하여 속히 각각 도라갈 것을 루루히 알려주었스며 만일 시내로 도라다니며 밥을 구한다든지 엇저니하여 질서를 문란할 염려가 잇는 때는 그저 둘수업스나 아모것도 모르는 사람들임으로 참 함부로 제재할수도 업고 심히 딱한 노릇이올시다 본래 재판소구내에 저러케 와잇는 것부터도 하지못할일인줄 압니다 그리고 열세사람의 피의인(被疑人)들은 죄측주터 검사국으로 곳다려간 싸닭에 경찰서에는 청취서(聽取書)가튼것도 업습니다」

### 飢餓恐怖, 忿怒

#### 老翁과 少婦二百餘名 굶문어미에게 매달린 어린목숨

이와가치 불상한 정경과 참혹한 현상을 알아주는 자업시 오즉 그네들 자신으로 자위할 썬이었는데 룩백여군중가운데는 백발이 뒤딤힌 칠십로파와 어린아이를 안은 젊은 부인이 근이 백여명이 나된다 이곳저곳에 허터저서 들식셋식 머리를 맞모으로 세상을 한탄하며 사람을 야속타하고 지친다리와 압흔 허리르 두다리며 아이고 대고 신음하는 늙으니의 비애와 아모것도 모르는 텃사가튼 어린것들의 젓날나는 울음, 정신이 썩썩한 젊은사람들의 괴운과 함께 어우러져 하염업는 인생의 비애로 일시에 폭발되였다 굶주린 창자를 힘업는 두손을 움켜잡고 팔일부터 구일까지 이틀동안이나 아모것도 먹지안코 밤과 낮으로 말할 수업는 괴로움을 당하고 로약(老弱)과 어린 아이들은 몸을 잘기동할수도 업시 쇠잔하여지게 되야 마춤내 암태면 단고리(岩泰面 短庫里) 박씨(朴氏)(五〇)는 졸도를 하고 직시 제중의원으로 수용되였스며 광경이 이에 이르매 목포시내의 유지 청년들은 이현상을 크게 근심하여 위선먹고 일을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죽(粥)을 만들어다가 여러번 강권하였스나 결국 로약과 몇사람외에는 먹는 사람이 업고 그중 삼분의 이는 그 잇흔날 오후 점심까지 만삼일동안을 아모것도 먹지안앗스나 일행중 로약들은 강권으로 역시입을 되는대로 축이게 되였스나 일푼돈이업고 한줌쌀이업는 그름들은 장차 엇지 그날 그날을 지내갈는지 실로 중대

한 문태이며 십일 오전에도 역시경찰서당과 재판소에서 대표를 회견하고 오후에는 무안군수 김동우(金東佑)씨가 자괴사택(私宅)으로도싸지 대표들과 만나보았으나 아모해결을 보지못하였스며 데사일되는 재작십일일 오전에는 제주(濟州)로부터 도라 왔다는 광주 지방법원당과 수석판사들이 일반군중에게 「오즉공명정대한 사법당국을 밋고 속히 도라가라」는 것을 말하매 군중가운데 몇사람은 압헤나아가 쌍우에 업되리어 소원을 들어달나 하였스나 법원당은 면회도 거절할 썬더러 아모말도 듯지 아니하고 오즉할말이 잇거든 광주(光州)로 오라고하며 자동차를 모라 도라가바렷다 이리하여 목포에 도착한 후 사일동안에 전후사오차의 교섭이 잇섯스나 하 등의 결과를 엇지 못하고 군중은 의연히 괴아(飢餓)와 공포 분로(恐怖忿怒)에 싸여잇다

### 判事發怒

#### 아모말도 안할테니 질문을 덩지 하라고

금번사건에 관계자 무안군 암태면 괴동리(務安郡 岩泰面 基洞里) 서태석(徐邵楫)(四〇) 박홍원(朴洪源)(三五) 박응언(朴應彦)(二九) 서동수(徐東洙)(二五) 서창석(徐倉錫)(三三) 소작회위원장 서민석(徐珉楫)(二三) 김연태(金淵泰)(三七) 손학진(孫學振)(二九)등 여덟명과 동면 단고리(短庫里)에 거주하는 박필선(朴弼善)(四〇) 박병완(朴炳完)(四〇) 김운재(金云宰)(三六) 박용산(朴用産)(三八) 김문철(金文喆)(二七)등 도합 열세명은 도다예심중에 잇다가 지난 삼일에 종결을 마치고 모다 소요급상해(소요급상해)죄라는 명목하에서 공판을 열게 되었는데 이사건의 수리하는 신등(新藤)검사 중촌(中村)예심판사 대우(大友)수석판사는 일절 입을 담을고 한마테를 내이지안으며 그중에도 대우(大友)판사는 무슨 싸답인지 괴자를 대할 새 성을 필적내이면서 공연히 되지도 안는 말로 남의 사무실을 왜드러오느냐 마느냐 하는 말로 이번사건은 공판에 부치고 안부치는 것싸지라도 말하지 안켓스니 여하간 여기대하야서는 절대로 말아니할터이니 속히 도라가라고 자못 자미롭지 못한태도싸지 가지게 되엇섯다

### 「新聞 買收 돈만잇스면」

#### 문지주가 말해라고

디주측의 관계자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務安郡 岩泰面 水谷里) 문태현(文泰炫)(七八)(디주문재철의 부친) 문명호(文命鎬)(三七) 문민순(文珉順)(二五) 문응창(文應昌)(四〇) 문재봉(文在奉)(三〇)다섯사람도 역시 상해급소요죄로 공판에 부치잇다는데

그중에 문명호와 문민순 두사람만 구금이되고 나머지 세사람은 그대로 자유의 몸으로 잇스며 그중의 수모자는 문태현인 모양갓다는데 디주문재철(文在喆)씨는 항상 말하기르 우리측사람은 벌서내여 노홀수가 잇스나 만일 그러면 소작인편의 면목이 업서서 그대로 구금중에 두고 잇다하며 지난 오월 십팔일에는 단고리(短庫里)구장 김동련(金東連)의 집에서 그새 마참 경찰서순사 장모싸지 잇는 곳에서 공연하게 신문 괴자가튼 것도 돈만잇스면 모다 매수할 수가 잇다고 팔을 썸내여 도라다닌다더라

### 文地主의 答辯

#### 그런말은아니하얏다고

오후 네시경에 괴자는 전괴 문재철(文在喆)씨의 자택을 방문한 즉 그는 「글세올시다 지금세상은 모다 돈잇는 사람만 낫부다 하니」 어디 내말으 신용하겠습니까마는 최초부터 그사람들이 온순하게 요구를 하지안코 위협수단으로 강제를 함으로 할 수 업시 오날경우를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측의 두사람이 구금된것에 대하여는 별로 변호사도 대일필요도 업습니다 재판소에서도 곳내여 놀터인데 만일 우리측사람만내여 노흐면 저쪽사람들이 불공편한 처분을 한다고 비난이 심할 것을 근심하여 공연히 두달이나 너무 구금하여 두는 것은 재판소도 너무 가혹한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이러니 저러니하고 도라다닌 다는 것은 멀정한 거짓말이외다 나도 사람이지요?

### 警戒繼續

#### 거리마다 景觀

경찰서에는 요사이 다른일은 도라볼 여유도 업시 사복형사를 느러노아 일반군중 가운데 각대표자를 가는곳마다 조차다니며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정복순사는 지난 팔일 밤부터 재판소 주위를 포위하고 그부근일대에는 아즉것 경계가 엄중한 모양이며 재판소랑하(廊下)정문에는 정복순사가 가장 위협스럽게 눈방울을 이리저리 굴리며 흙바닥에 엎터저잇는 일반군중을 감시하고 들고나는 사람을 눈이 싸지도록 흘터 보고 잇더라

### 「소요죄? 어셔케 덕용하는지 참말모르겟소」 김변호사담

금번 열세사람의 사건을 변호할 변호사 광주(光州) 서광설(徐光高) 경성(京城) 김병로(金炳魯) 김용무(金用茂) 김태영(金泰榮) 목포(木浦) 김영수(金永洙)씨등 다섯사

랍중 하나인 김영수씨는 말하되 「아즉 기록(記錄)을 다보지 못하였스닛가 무어라고 말할 수는 업습니다 엇재던 기록이 이천여장이나 돌 썬더러 『소요죄』라는 것은 얼마나한 범위안에서 엇더케 적용하는지 참으로 나역시 잘 리해할 수가 업습니다 하여간 내생각에는 그중 몇사람은 아마 무사하게 될줄 압니다만은 모든 것은 그네들에게 달렸지요 그리고 먼저부터 중촌(中村)예심판사에게 데출하였던 보석(保釋)청원은 지난 번에 종결과 한가지로 각하(却下)가되었슴으로 또다시 지난 십일에 대우(大友)판사에게 보석청원을 새로히 데출하였는데 이번에는 엇지될는지 알수 업습니다」

「속番은 斷然不歸 우리의 목덕을 달하지 안코는」

群衆代表某氏談

륙백여명군중 대표 한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일이 발생되어 열세사람이 구금된 후로 거의 날마다 판검사들과 교섭하여 왔슴니다만은 아모효력이 업시 오늘이러한경우르 당하게 되었슴니다 그동안 보석에 대하여도 예심판사는 항상 오늘 내일 미러오다가 결국 지난번 예심종결이 될 쎄에 각하를하여 바렛스하고 그대답을 기다리는 것 썬이외다 우리의 요구는 무슨 그 열세사람에게 향하여 죄가 잇느니 업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으 우선 보석(保釋)을하여 달나는 것 썬이외다 만일 오늘이나 레일에 명확한 대답이 업거나 또는 보석을 불허가하는 쎄에는 그쎄에 또다시 군중의 협의를 싸라 일을 진행하겠스나 하여간 이번에는 결단코 그대로 도라가지아니할 구든결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고로 장차 엇지 될는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리고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일반군중은 오즉 참혹한 현상이외에는 아모 반항도 폭행도 업시 양순한 무리들이외다 일전에 좀 쎄든 것은 흥분되었든 싸닭인가합니다」하더라

岩泰小作爭議 同情演說會

로총, 청중, 주최로 금일 턴도교당에서

암태소작쟁의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덕분대를 그대로 잠잠고 지낼 수 업다하여 금월 십사일 오후 팔시부터 시내 경운동 턴도교당(慶雲洞 天道教堂)내에서 로총, 청년량동맹주최로 아래와 가튼 연사와 연데로 암태소작쟁의 동정연설회(岩泰小作爭議 同情演說會)를 개최할터인바 립당료는 이십전이라더라

岩泰小作爭議의 經過報告 金永輝 姜宅鎭 小作人의 慘狀 崔昌益, 爭議와 同情 李廷

允, 題未定 申日鎔, 死에 瀕한 岩泰小作人을 救하라 任鳳淳 金炳燾

(8) 1924. 7. 14.

### 岩泰事件의 同情金을 건설사 주최로 넓히 모집하는 中

작일 오전에 재동건설사(建設社)안에 일부유지들이 모히어 암태소작사건의 현상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하여 동정금(同情金)을 모집할 것을 결의하였다는데 이제 그 상세한 것을 말하면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의 전후경과 전말과 참혹한 현상은 임의 각신문지상으로써 자세한 보도를 하였으므로 이제 또다시 붓을 들 필요도 업스나 룩백여명의 군중이 하로아참에 목포(木浦)지령구내에 몰려드러온 이후로 그들은 한푼 돈과 한줌 쌀을 가지지 못하고 닥쳐오는 굶주림과 넘치느 비애르 엇지할 줄 모르고 오죽 집으 썬날 새에 결심한 곳은 마음으로 최후의 해결을 엇고자 낮이면 백여도 갖가운 쓰거운 폭양이 내려 쏘이고 밤이면 이슬을 먹으며 모기와 싸오는 그 비참한 현상은 참아 뜻잇는 사람과 눈물잇는 동물로 그대로 간과 할 수 업는 사실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것흔 경우에서 것흔 늦김을 가지고 도저히 그냥보고 잇슬수 업슴으로 만턴하 동포에게 이 뜻을 고하여 그들에게 다만 한조각 물질(物質)의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이제 감히 이일을 주최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신 후 쓰거운 동정을 기우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 同情金募集內容

- 一. 金額에는 制限이 無함
- 一. 應募金額及 그 氏名은 朝鮮日報及 東亞日報에 發表함
- 一. 同情金은 京城齋洞八四建設社內 金章鉉 又は 京城安國洞平文館(振替口座京城一〇九一〇番)으로 送付할 일
- 一. 第一回送金期限은 本月 十七日로 定하여 電送하겟사오니 可及的 迅速히 送付할 일

(9) 1924. 7. 18. 岩泰事件同情

#### 大邱各團體의 活動

暴惡한 地主一名으로 말미암아 五百餘小作人들이 最後로 飢死同盟까지에 이르게 된 岩泰事件에 對하여 大邱에서는 勞動共濟會, 尙微會, 大邱青年等 三團體가 聯合

하야 慘憺한 境遇에 處한 그들에게 同情金을 모아보내기로 하였다는데 兄弟의 그리 함에 늦김있고 눈물잇는 이는 七月 二十二日까지 金額의 多少를 不拘하고 大邱西城 町勞動共濟會管內 尹雨烈氏에게로 보내어 주기를 바란다고(大邱)

#### (10) 1924. 7. 31. 病人保釋問題로 數百小作人騷動

암태소작인들이 또 소란

병인수감이 최근의 동괴

岩泰小作爭議 後報

전라남도 무안군(全羅南道 務安郡) 암태소작사건(岩泰小作事件)은 그후 광주(光州)지방법원목포(木浦)지청에서 이제까지 목포형무소에 두엇든 간부 열세사람을 돌연히 광주 형무소로 넘기엿슴으로 남겨잇든 대표가 지청에 질문하엿든바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하며 전에는 일주일안에 해결하여 주겿다하고서 공판에 넘겨버리더니 이번에는 병인에게는 보석(保釋)을 허락하겿고 일간 해결까지하여 주겿다하고서 또 속이엿다고 백회원의 가족까지 전부 암태를 리별하고 광주로 가자고 한다하며 소작인들은 더욱 단결하여 간다더라

私食差入熱心

소작인의 결속공고

암태소작인들은 형무소에 수감중에 잇는 간부 열세사람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목숨이 부터잇는 날까지는 간부 열세사람의 사식(私食)을 드리주겿다하여 대표서광호(徐光浩)씨를 보내어 모든 준비에 착수케 하였다더라

#### (11) 1924. 8. 24. 岩泰小作同情

慶南固城郡 下二面 下二小作人組合에서는 岩泰小作會 小作爭議事件에 對하야 同情金 六萬을 各會員이 鳩聚發送하얏다더라(固城)

#### (12) 1924. 8. 27. 全南岩泰의 小作爭議公判은 일부는 업무집행죄로 심리

열세명의 공판은 구월일일

전남 암태소작재의(岩泰小作爭議)사건중 이십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열게

되얏든 일부 열세 명에 대한 공판은 구월일일로 연기되고 서광호(徐光浩) 윤두석(尹斗石) 두명에게 대한 공판은 이십삼일 목포지청 데일호법정에서 송하판사(松下判事)와 신동검사(新藤檢査)의 주심으로 사실심리를 마친뒤 검사로부터 「이사건은 단순한 소작쟁의가 아니고 그등뒤에는 사상문제가 잇는것」이라고 론고하고 각각징역 륫개월의 구형이 잇섯는데 판결언도는 이십칠일이라더라(광주)

### (13) 1924. 9. 2. 岩泰小作의 爭議解決

#### 문디주가 사할소작료승락

오랫동안 맹렬히 싸와 오든 암태소작문제는 이사이 일단락을 맞췄다는디 이제 그 내용을 듯건대 소작인대표 박복영(朴福永)씨와 광주노동회간부서명회(徐廷禧)씨와 전남 경찰부고등과장(全南警察部高等課長)고하(古賀)씨와 목포(木浦)경찰서장 등의 극력조명으로 디주문재철(文在喆)씨는 소작인회의 요구인 사항을 승낙하는 동시에 금이천원을 그소작인회에 기부하기로 되엿더라(광주)

### (14) 1924. 9. 4. 文地主와 和解條約

#### 두편의 양보로 구금자는 석방될 듯

오래동안 분기를 거듭하여 오든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는 결국 열세사람이나 희생자를 내이고 표면상으로는 일단락을 일운것가치되여 오든중 당국자의 중재와 디주측의 양보로 인하여 해결을 지엿다함은 임의 본보에 보도한 바어니와 더욱 자세한 해결조건을 추후로 듯건대 대정 십이년도에 미랍한 소작료(小作料)를 삼개년에 난호아 무리식으로 디주에게 납부하게하고 구금중에 잇는 소작회(小作會)간부 열세사람과 디주측 두사람에 대하여는 양방에서서로 고소를 취하하여 전부 석방(釋放)운동을 하게되여 구월 일일 공판일에 서로 광주(光州)지방법원에 출딩하기로 되엿스며 이와가치 모든 것이 순하게 해결됨을 싸라 파궤된 디주의 비석(碑石)은 종전대로 세워주게 소작회에서 승낙하엿다더라(목포)

### (15) 1925. 4. 29. 岩泰事件判決

#### 위연금모집한 암태청년회 간부들

전남 무안군 암태 청년회간부(全南 務安郡 岩泰青年會幹部) 손학진(孫學振)의 다섯 사람이 그회에서 경영하는 강급원의 교육비를 중수하기 위하여 포도(浦島)에 출장하였다가 목포 문재철(文在喆)일파가 지취하는 소작상조회원의 무리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충돌을 이르기어 드디어 협박공갈상해라는 죄명하여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신음중이라함은 괴보한 바 어머니와 이에 대한 판결연도가 아래와 갖치 지난 룩일에 목포 재판소에서 잇섯다는데 특히 손학진은 작년중에 목포문재철(文在喆)을 대덕하여 맹렬히 싸우든 암태소작쟁의 사건으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팔개월의 연도를 받고 목하상고중이라하며 박응언(朴應彦)은 동사건으로 룩개월 징역을 받고 집행 유예중이였으므로 이번사건과 함께 복역하게 되리라더라.

孫學振 朴應彦 金世重 各懲役 八個月 金正順 朴今淡 李權益 各 六個月

## (2) 〈조선일보〉 관련 기사

### (1) 1924. 1. 18. 岩泰小作會의 好成績

디주들이 모다 감복하고  
결의대로 시행하겠다고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는 작년십이월상순경에 창립한이래로 그회간무제득의 공정한의인으로 여러 가지 디주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각디주들은 그회의 결의가 공정하고 련려함에 감복하여 소작에 관한 모든일을 결의대로 실행하겠다고 승낙하고 위선작년소작료를 실디로 감명한 것이 룩할인데 이에서 이할을 감하고 사할만 바더들이는데 디주중에 엇더한사람은 그질의 승낙을 주저하는중 그회의창립비 몇백원은 기부할터이라하며 일방으로는 작년추수는 이미명한대로 소작료를 수봉케하면 사할이외는 전부빈민들에게 줄터이오 금년부터는 그회의 결의대로 작년추수부터 실행하기를 주장하여 그디주도 불원간 전무승락을 하리라던데 그회의 질의사항과 승낙한디주의 씨명이 아래와 갖다더라.

決議事項

소작료는 논(畓)사할과 밭(田)삼할로 할사

一, 본회에서 질명한 논사할 밭삼할의 소작료를 디주가 불응하는 세에는 본회윈오

로서 그디주와 관계된자는 모다 그소작료를 내지말고 디주의 각오할새까지 기 달일사

一, 디주로서 소작료 불납동맹(不納同盟)에 반항하여 소송이나 혹은 기타쟁의가 잇는 때에는 본회의에서 전테책임으로 그소송을 대변하는 동시에 소송비일테 는 본회에서 부담할사

一, 디주와의 분쟁이 음력 래년 이월 까지 해결되지 못할새에는 관계회원일동이 파업을 단행할사

一, 사움을 부인할사

一, 소작권은 영구히 보장할사

一, 회원으로서 본회의 규정과 질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출회하고 회원일동은 교 제를 거절할사

承諾地主

岩泰千后彬 金用善 金尙善 徐宋産 徐光浩 木浦中道清太郎 中道清男 小林興次郎  
朴京三 朴龍采

## (2) 1924. 4. 2 文地主의 暴舉

五十餘人이 作黨하야

면민대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중로에서 칼과 몽둥이로 막싸려

지나간 삼월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신기리(新基里)에서 그곳 디주 문태현(文泰鉉)의 부하 오십여명이 작당하야 혹은 칼, 혹은 몽둥이, 혹은 낫가튼 무서운 흉기를 가지고 송림속에 숨엇잇다가 마침 그 길로 지나가는 그곳 소작인회원 서태석(徐邵植) 박종남(朴宗南) 서동오(徐東五) 세사람을 함부로 난타하여 박종남, 서동오 두사람은 거의 죽게 되얏다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듯게대 무안군암태면 남강(南江)에 거주하는 문태현은 현시 목포에 거주하는 문재철(文在喆)의 부친되는 사람으로 투거민의 재산을 가지고 수백명의 소작인을 둔 큰디주로서 항상 소작료에 대하여 잔인무도한 행동을 하는고로 소작인으로 하여금 끈칠사이업시 철저의 원한을 품게하든바 지나간 대정오년도에 그곳면민일동이 모혀여(면민이 거의 소작인) 소작에 대한 선후책을 협의하기를 만일 디주로 하여금 악감을 사게하는새에는 더욱더욱 우리의 고통이 심할터이니 그리하는것보다 호감을 어더셔 다소간이

라도 동정을 밟는 것이 좃갓다는 뜻으로 그곳 신기리라는 곳에다가 문태현의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든바 그네들은 항상 태도만보고 잇섯스나 디주편에서는 일항 변치안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혹한고로 여러 번교섭하야도 도모지 이에 응치 안는고로 비로소 면민일동이 분기하야 그러한 의리인정이 업고 잔인무도한자의 비를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어느방면으로 생각하든지 천부당 만부당한일이라하야 지나간 이십칠일에 면민대회를 열고 최후로 디주의 의견을 들어보아서 우리의 요구에 응하면 몰으거니와 만일 어대까지든지 자괴고집을 주창하는새에는 단연코 비를 썩아버리자는 절의를 하고 우선교섭위원으로 십여명이 압해서서 문디주의 집을 향하고 가게 되얏든중 미리의 소문을 들은 디주편에서는 크게분노하야 가족과 친척오십여명의 장정에게 각각 몽둥이를 들게하고 그중에 문태현은 낫을 들고 문명호라는자는 식도(食刀)를 들고 산중에 매복하고 잇섯더라.

(3) 1924. 4. 11.

取消申請 大正十三年四月二日附 貴報第一三一 日號

全南務安郡岩泰面에 文地主의 暴舉라는 題目하에 文某氏部下五十餘名을 식켜서 如한 行動을 했다고 云云한 文句와 及此에 對한 前後記載의 文句가 그 當時事實과는 上達되엇삽기 此를 御取消하여 주시기 望하와 茲에 申請함

大正十三年四月七日

申請人 文明 鎬 印

朝鮮日報社 御中

(4) 1924. 4. 12. 雙方告訴의 岩泰事件

검사국에서는 화해하라하나

쇼작회에서는 억울하야불응

지난 삼월이십칠일 오후세시경에 무안군(務安郡) 암태면(岩泰面) 신기리(新基里)에서 그곳디주 문태현(文泰鉉)의 부하오십여명이 작당하야 송림속에 숨어잇다가 마침침그길로 지나가는 그곳쇼작회원 서태석(徐邵楮) 박종남(朴宗南) 서동오(徐東五) 세사람을 린타하야 박종남 서동오는 중상을 당하얏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후 피해자박종남씨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야 검사국에 고소를 제기하얏는데 문태현

측에서도 역시당디 옥산의원(玉山醫院)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되 피해자측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여 서로내가 미졌다고 주장한다는데 소작회측에서는 주중하기를 문태규가 미져서 부상이 되었다는 진단은 거짓진단이니 고의로 하여금 다시 진단하야달나고하나 검사국에서는 이것을 듣지안이하고 덩허노코 쌍방이 화해하라고 하더라.

#### (5) 1924. 4. 17. 岩泰小作人會近況

全南務安郡岩泰小作人會에서는 去九日午後一時半부터 舊學舍內에서 第五回臨時總會를 開催한바 會員約六百餘名이 會集한 後援長 徐倉錫君 金正順, 金云宰, 徐光圓, 徐光○ 五人과 通常執行委員 金相彦氏外 七十二人을 選定하고 常務執行委員을 佐와 如히 選定하였는데 庶務部 朴宗南, 金云宰, 經理部 徐東五, 金相奎, 調查部 金淵泰, 朴應彦, 宣○朴弼亟, 朴宗植, 敎務部 孫學振, 經濟部 金奉均, 金正順, 救護部 李奉五, 金相五, 朴致彬, 朴佐一諸君이오 更히 文地主에 對한 警察當局의 不正取扱에 對하여 質○方法을 對處한 後 南鮮勞派同盟執行委員長徐廷福君의 『小作運動이 살라고하는 根本問題다』하고 說明함과 李光字君의 『보다도 더쪼흔 生을 目的하는 最後의 勝利는 完全한 團結을 要한다』하는 簡單한 말이 窸나자 『진뒤기』(사음) 『박쥐』(간특한 小作人)의 前過를 容恕하고 入會를 許한 後 徐廷福君의 指揮卜에 岩泰小作人會及南鮮勞農同盟會萬歲를 各三唱하고 午後八時頃에 閉會하였다더라. (莞島)

#### (6) 1924. 5. 2. 岩泰小作會의 奮起

總督, 道知事에게 陳情提出

만약 民間의 원한을 풀어안주면

필사덕의 활동을 최후까지 할터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에 유수한디주 문재철(文在喆)은 사람오 십여명을 거나리고 도중에 매복하였다가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會)의 간부삼사인이 통과하는 것을 함부로 구타하여 거의 죽게한후에 도로혀 목포(木浦)경찰서에 무고 통지하야가지고 소작회에서 자○○○부셔 노히다는 말을하야 수십명의 경관대가 파송되었다는것과 그후에 목포경찰서와 검사국에서는 무엇인지 비밀회의를 자주하더니 매맛고 치료한후에 로농대회에 참석코자오는 서태석(徐邵皙)씨를 대면(大

田)까지와서 검속해야갓디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검사국과 경찰서에서는 그후에도 계속하여 서창석(徐倉錫) 서광원(徐光圓)등 십삼명을 구금하고 이래 이십여일을 내려오며 취도중이라는데 이에대하여 각처에 여론이 비능하든바 금번암태소작회에서는 그대로 잇슬수가 업다하여 도지사(道知事)와 총독에게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였다는데 그진정서에 내용은 문디주의 악행과 당디검사국과 경찰서의 처지에 대하여 불공평한 사실을 기록하여 원한을 풀어달나고한것이라더라.

### (7) 1924. 5. 16. 岩泰爭議 擴大

#### 警官은 地主만 擁護

소작인은 강경히 대항하는 중 이오

다주는 락중한 모자리를 갈어엮히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와 동디 문디주(文地主)와 충돌되야 서로 쟁투하는중 동면인민이 문디주의 비석(碑石)을 썩여버림으로 문디주는 더욱 분토하야 목포(木浦)경찰서에 무고한 집과 소작회간부 십삼인을 구류케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그자세한 보도를 들은 즉 문재털(文在喆)이는 자기부친 문태현(文泰炫)이 기소작인에게 구타를 당하야 죽게되얏다는 말로 목포경찰서에 무고하야 무장경관이십여명이 출장하얏는데 전디 문태현은 자기의 아들이 경찰서에 무고한 사실을 몰으로 경관을 환영하라고나옴으로 경관과 기타가는 문재털은 자기부친이 나옴을 보고 경관에게 무고함이 탄로될까 녀려하야 배에 나리는 길로 즉시 사용인 강운재(姜允載)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기부친에게 머리를 동이고 고통하는테하라고 단속하야놋코 녀려업시 들어간즉 문태현은 반가운기운에 이기지 못하야 출문환영하는 고로 문재털이가 붓그럽고 분하야 자기의 부친이 배히고잇든 퇴침으로 장자(障子)를 후려쳐서 퇴침도 부셔지고 장자도 상하엿스며 그후 강운재를 비밀히 시켜서 장자를 더 부스라고하야놋코 경관에게 말하기를 소작인들이 부순것이라고하는등 자은순사(慈恩巡査)의 조사에 폭로된사실과 나중에 환자를 진단내인 일과 멀췌 한살에 빅로지를 붓치고 항하엿다고하는등이 (현장에서 발각되야 경관도 썰썰우슨것)각종의 음모로 활동한집과 싸 린디주편은 죄가적고 마진소작간부는 죄가잇다하야 련속검거하야 서태석(徐邵楯)와 십이인을 검거하였는데 소작인으로 데 일중 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험한 박종남(朴宗南)은 문디주를 살인미수(殺人未遂)로

고소하였는데 목포경찰서에서는 그 고소장을 문디주에게 경유한후 암태순사에게 보내여 불수리케하여버리는등 그와7튼 경관의 압박과 디주의 무리로 소작인은 무한한 고통을 받는중이던바 문디주는 암태면민을 위협하여서 안이 썬인 비석을 썬엿다는 서류에 비밀히 도장을 바다다가 그 도장 썬은 사람이 소작회에 가서 문디주의 협박에 못이긋여서 도장을 썬은 것이라고 낫낫치 설명하고 변명서를하야 노히슴으로 문은 할수업시 중디하였스며 경관들은 각디주를 보고 소작료(小作料)를 작명한대로 록봉하라고 충동을 하고 단인것이 발각되야 서로 구슈가티보며 절대행동을하던중 근일에는 각디주가 소(牛)와 쟁기(霧具)를 가지고 이십여명씩 작당하야 단이면서 작년소작료를 디주가 작명하는대로 주지안이하면 락종한 모자리(秧坂)를 갈어버린다함으로 일반소작인들은 더욱 맹렬한 주장으로 사할로하기전에 논 한되를 주지안이하기로 불납동맹(不納同盟)을 낱날이 선던한다는데 문디주가 협박하는 증거로 말하면 지나간 일일경에 문태현의 가족십여명과 고용인 십여명이 소와 장기를 가지고 동면오리동(五里洞)에서서 박용현(朴用玄)이란 소작인에게 엉터리업는 소작료를 내라함으로 박용현은 귀가막혀 안젓는데 그 고용인들이 소를 몰고 락종한 모자리로 들어감을보고 겁이나서 가옥문서를 써 서주엇다함을들은 소작인간부는 급히가서 그 무리협박함을 말한즉 문디주의 일파는 오히려 양심이 잇던지 집무서를 도로 내여주고 도망하였는데 이러한 디주의 폭행과 소작인의 대항은 점점 격렬하야 암태소작쟁의는 날로 확대되야가는 터이라더라. (전남특파원)

#### (8) 1924. 5. 19. 岩泰小作臨時總會

##### 惡地主와 奸小作人問題로

##### 람명한소작료는 주지안키로하고

##### 악지주간소작은 교제싸 지 쫓는다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쟁의가 점점확대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 이어니와 횡폭한 디주는 문태현(文泰炫)썬안이라 그외에도 다수임으로 소작회에서 큰문제가되야 지나간 십일에 동면 기동리(基洞里)소작회립시사무소에서 네칠회(第七回)립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덩각전부터 남녀회원(男女會員)사백삼십오인이 회집하야 살기충던한주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립시의장 김정순(金正順)씨가 「우리는 이제 가마에든 고기(釜中魚)가 되야 안저도 죽고 서도 죽을 디경이니 좀 뛰다가난

죽자」구 피 쏘는 목소리로 개회사를 하고 각दन역 위원(委員)의 보고가 들어오는데 인류세계에는 뜻지못하던 통절(痛絶)참절(慘絶)한 사실과 남녀회원이 서로 나서서 다토아 말할제음에 일시공 기가 진장하며 디주가 원수이니 경관이 원수이니하는 열 광덕 언든이 일어나 매립장하얏던 경관은 언론을 제재하다가 대중의 공격과 서광호(徐光浩)씨 황하설(黃河舌)제씨의 말에 정신을 진정치 못하얏으며 압뒤말을 감추지 못하고 말엇으며 부인회원(婦人會員) 고백화(高白華)씨의 농자는 던하지대본인즉 우리는 죽도록 싸호지안이하면 안되겟다는 열변이 잇섯고 우래와 가튼 질의를 한후로 조선로농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위원(委員) 박병두(朴炳斗)외의 인생의 근본정신을 말하면 토디의 권리는 전부소작인에 잇다는 응변과 북만주에서온 박복영(朴福永)씨의 무리한 디주(地主)와 또 그를 보호하는 무엇은 우리가 괴어히 업새어버리자는등의 래빈축사가 쏏 나고 오후세시경에 폐회하얏다더라.

#### (9) 1924. 5. 20. 橫幅無道한 地主 岩泰爭議去益擴大

문압마당을 경작하야노코

다리를 노코단이라는 폭행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암태소작회와 동면 문태현(文泰炫) 천후빈(千后彬)등 디주사이에 작년부터 큰 충돌이 생기여 그 두디주는 십할이사의 무리한 소작료를 강명(強定)하얏고 일반소작은 그무리함을 분개하야 사할로 승낙치 안이하면 전부를 안이주기로 불납동맹을하야 지금 까지 일천석이상의 소작료를 안이주고 규측을 굿게 직히는 중인데 그 드디주는 짐짓 강악한 수단으로 더욱더욱 활동하든바 지난번에 소작간부가 검속된 기회를 리용하야 지나간 사일에 문태현의 가족 문응창(文應昌)의 십여인이 작당하야 가지고 동면 오리동(五里洞)이란 궁벽한 농촌에 가서 그의 소작인되는 김사유(金仕有)라는 로인을 위협도하며 또 쇼(牛)와 장기(耕具)를 가지고 시위하면서 모자리를 갈어업힐터이니 빨리 소작료를 내어라함으로 그 로인은 모자리를 간다함에 겁이나서 이왕저축하얏던돈 십이원을 내어주었는데 그와 가티 위협한다는 말을 들은 소작회간부는 급히 쏏차가서 정식교섭을하는중 동간부 서광호(徐光浩)씨는 말하되 십할이 상의 소작료를 그대로 바드라고 락종(落種)하야 노흔모자리를 함부로 갈어버리는 것이 강탈(強奪)행위와 불법(不法)행위가 안이나고 말한즉 문디주일파는 오히려 량심이 잇섯던지 나도 불법인출은 아노라하고 바덧든

돈은 내어주고가서 소작회간부를 도로혀 고소까지 하얏스며 그뒤를 이어서 천후빈(千后彬)도 역시 지나간 구일에 소(牛)와 장기를 가지고 동면해당리(海棠里)에 가서 소작인 조은모(曹銀某)의 소작답부근에 슈십명이 진을치고 일변 쇼를 모라셔 모자리로 들어가며 소작료를 독촉하나 원래 조은 모는 소작회규칙도 지키고 쏘는 디주의 넘어무리함을 분개하여 거절하매 모자리를 갈라고하는 디주측과 못갈게하는 소작인측은 서로 상지하는중 디즈측의 천괴선(千奇先)은 소작인 조은모를 폭언악설로 위협하다가 못하여 막후러쳐서 물소에다 업지르고 발브며 차며하는 동시에 디주측 신사들과 소작측농부들은 모자리물속에서 대격투로 수전(水戰)을 일으키었는데 그중에 천은도(千銀道)라는 디주편사람은 이다음에 고소거리를 장만하느라고 그장기를 부스라고 예를 쓰는제음에 소작인은 저놈제자기를 제가 부순다는 소리를 벽력가티질으며 그사람은 무료하야 즉시 물너가고 쏘 천후빈의 장자 천진털(千振喆)은 자괴움을 버셔서 낫낫치 씻다가 소작회간부 조군조(曹君助)씨에게 발각되야 저놈도 고소거리작만한다는 소리를 질으며 그역시 무색하야 가버리였고 동면순사는 현장에 출장하야 디주만 옹호하고 소작인을 질책함으로 소작들은 일제히말하되 경관은 디주의 경관이오 우리무산자 소작인에게는 원수이니 그말을 들을것도 업다하고 다헤여져갓다는데 천디주는 이를 분개히 력이여 호령하기를 이로부터 내 쌍에 집지은 소작인은 다 집을 쓰더 가라고하는중 동면 송곡리(松谷里)에 잇는 김금주(金今柱)집은 천디주의 쌍에지은 집이라 지나간십일경에 천디주의 일족 천은도 천호민(千好岷)등은 급히 김금주집에가서 위협하되 인도상에 잡아 방까지는 쓰더 내이라할 수는 업스나 방이외에는 다 괴경(起耕)할터이니 모다 헐어내라하며 문도내일곳이 업슨즉 공중(空中)에 다리를 늦코단이라고 즉시 마당과 문간을 괴경하랴함으로 김금주는 매일 처자를 다리고 통곡할 썬이라더라. (전남특파)

(10) 1924. 5. 24. 惡地主 壓迫下에 三百年間呻吟하든 八千同胞

死活問題가 이번 一擧에 달닌 最後戰  
안져서죽으나 싸호다가죽으나 죽기는 일반  
참다가 못하야 일어나는 최후의 단결 떡운동

一個日人對荷衣, 上台, 下台, 三島住民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하의면(荷衣面)하의도(荷衣島)상태도(上台島)하태도(下台島)세섬으로 말하면 면적이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업스나 디종별(地種別)의 면적

은

一, 田二百二十七萬五千七十五坪

二, 畓二百二萬八千九坪

三, 塚二千五百五十五坪

四, 池沼三千九百四十九坪

五, 雜種地二千四百七十一坪

으로 여기다가 생명을 매여달고 사는 호수가 일천삼백여호오 인구로는 팔천오백 여명이나되는데 이섬은 한국시대부터 그곳섬사람이 이것을 개척하고 그것만으로 생활해야 오기를 사백여년이나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삼백년전 선조대(宣祖大王)시대에 정명공주(貞明公主)의 부마 홍원주(洪元柱)에게 그섬에서 밋는 구실(結卜)이십사결(結)을 하사하신이후로부터 하의도주인업는 섬속에서 살든 동포들은 비로소 디주 밋테서 울기 시작하게 되매 홍씨의 혹독한 징수법은 점점 심하여짐으로 슈천동포의 가슴에는 썩을 녹이는 듯 한 압힘이 더욱 사모치게되야 참다 참다 못하여 그곳 동포들은 최후의 노력으로 전라감사(全羅監司) 리호준(李鎬俊)씨 시대에 호소하였더니 인민의 정경을 측은히 녀기여 구실한목에대하여 백미사십두식 바치든 것을 이십두로 감하라는 판결이 잇서 그곳 동포들의 영세불망(永世不忘)의 석비 싸지 세운일이 잇섯스며 그후에 또다시 심하여감으로 지금부터 백년전에는 그곳 동포가 죽음을 무릅쓰고 경성에 올라와 남문문루에서 북을 쳐서 텃텃(天聽)에 달하게 하였든바 삼도도세(三島賭稅)는 일테물시(一切勿施)하라는 성지(聖旨)가 잇서 텃은이 망극하다고 도라가는길에 홍씨의 집에서는 중간에다가 사람을 매복하였다가 함부로 구타하여 거의 죽게되얏섯스며 대표 윤세민(尹世敏)의외의 두사람은 홍씨의 무고로 구양까지 가게 되얏더라.

## (11) 1924. 6. 23. 암태소작회에 동정

평양의 각로동단체로부터

가튼쳐디의 동포를 위하여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의 쟁의 사건으로 그주립에 잇는 동포들을 위하여 평양각로동단체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동정금을 모집하고자 노력하다가 경찰당국의 금지로 마음가티되지못하였다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후 여러단체들은 계속하여 우리단체서리만이라도 연조하자는 취지로 모모간부는 노력하여오든중 당디는 수재로인하여 로동자의 생활이 비참함에 불구하고 그들의 성의로 아래와 가티 암태소작회에 보내엿더라.

勞動大會平壤支會五圓

大同門勞動組合 十圓

薪永口勞動組合 十圓

勞動大會平壤支會 개인으로도 동정

이상과가티 각단체에서 도정한외에 부내로동대회평양지회(勞動大會平壤支會)에 서는 개인으로도 아래와갓치 동정금을 보내게 되엿더라.

李翊柱 李大央 崔志淳 高鳳曼 沈○仁 金永錫 金昌瑞

○仁道各五十錢 金寬永 金洛辰 盧昌元 金昌模 朴夢弼

## (12) 1924. 7. 14. 岩泰事件에 對하야

地主의 橫暴, 官憲의

小作人 鬻은 畢竟 餓死 同盟

工業은 元來부터 基礎도업스나 工場勞動갓흔 것은 하고십허도 곳이업고 싸려서 勞動爭議갓흔것이업스니 官憲에게는 하부조로 걱정을 석힐 必要가 업는 것이 多幸 이요 商業은 工産物이 업는 나라에 獨立으로 잇슬수가 업는것이라 잇다하면 商業이 라하기보다는 한 仲介業이라는 것이 맞당할만치 남의 物品갓다 販賣하여주고 얼마 口錢먹는심, 그나마도 남의 손으로 다 도라가고 第一 甞 흐로 그도 半넘어 남의손에 귀어들어갓지만 아직우리손에 쥐고잇는 것이 토지그것이요 近來社會問題로 流行하 는中에 小作爭議라는것이잇다하면 農村을 中心삼고 일어나는 그것이나 指稻할수갓 계업다. 그러나 그것도 畢竟은 乞人씨리 자루 썰는심에지나지못한다.

勞動爭議 小作爭議 罷業 怠業이런 것은 勿論 資本國의 經濟的 發達과 政治的自由 의 擁護下에서 일어나는 모든 問題이다. 政治的으로는 自由의 境地에 除外되고 經濟的으로는 破滅의 局面을 當하야 무슨 爭議의 餘地가업는 것이 오늘날 朝鮮의 狀態 라고 이러케 볼 것이다. 그러나 富의 程度와 國體의 有無는 姑捨하고 一個集團의 生活를 營爲하는 同時에 크고 적음은 別問題로하더레도 資本家와 貧民階級, 地主와 小作人의 區別이 儼存한 以上에는 그에 對한 爭鬪가잇슬 것은 避할수업는 一種의 現實이 아니 되고는 그저말것이 아니다. 勿論 大慈悲의 資本家와 從順한 勞動者所有慾

이 全無한 地主와 壓迫한 小作人으로만 形成된 이 社會라하면 그는 問題의 거리도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資本家は 搾取를 하라 勞動者는 거기에 對抗 地主는 壟慾을 채우라 小作人은 거기에 不服 이것이 어느나라 어느곳에나 普通으로 實寅되는 現狀이다. 그러면 朝鮮의 所謂 小作爭議라는 그것도 그런 背景下에서 惹起되는 것은 勿論 일 것이다. 그 中에도 次日의 舊習으로 因하여 任意로 小作人을 剝脫하고 거기에 더구나 一定한 小作法規같은 것이 업서 地主의 橫暴와 野慾이 滿滿하야마지아니함은 所謂 資本主義가 極度로 發達한 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업는 惡例가 特別히 만흠은 所謂 畝音, 賭租, 小作權移動, 地稅負擔등 不合理한 制度를 보면 넉넉이 알 것이다. 그리고도 거기에 조금 不平等과 反抗의 態度를 갖는 者이면 官憲의 干涉까지 항상 地主 그를 擁護하고 小作人을 虐待함이 아췌 定規로되야있다.

우리가 이 社會를 警觀할 새 不合理, 不○底한 制度和 洞窟꾼이라 現狀에 苟安하는 富豪에게업는 積面能散的大慈善을 바라는 것이 도리어 無理요 威權에만 漫醉한 官憲에게 擲强扶弱的大義俠을 말할여지도 업지만 적어도 正當한 範衛로 利益을 獲得하고 公平한 眼目으로 民衆을 取扱함 그일만은 아모리 마음이 막히고 힘만밋는 現代의 韓盟의地位에 잇는 富豪와 官憲이라할지라도 그 兩階級에 不得已말하여두고십 혼바이다. 只今 過渡時代에 滯在하야잇는 모든 不合理의制度和 未決의 問題가 根本的으로 鮮決되는 그날이 잇슬지업슬지는 아췌 保留하야둔다하더래도 김흔 堡壘에 갓친 막막한 迷夢에서 깨어나지못하고 建瓴의 水와 갓치 쏘다져나오는 民衆의 思想을 威厭만하라는 手段을 곳치지 못함은 또 한 得策이 아닌가한다. 頻頻한 小作爭議 말하자면 그도 역시 한가지 生의 慾求의 運動 그것은 民衆의 覺醒에 因한 反抗의 運動으로 일어나는 朝鮮의 現狀이다. 特別이 全南務安郡岩泰島民大地主의 小作爭議事件은 일이 일어난지 이미 數個月이요 各紙上의 報道가 頻繁하야 그의 記憶과 批評이 世人의 耳目에 周悉케된바 그의 善惡과 是非는 역시 世上의 公平에 맞기려니와 近日에는 또다시 이 農務가 第一奔忙한 時節임에도 不拘하고 六百의 農民이 再次法廷에 까지 蝟集하야 極端인 餓死同盟 까지 團結하야 老弱이 呼哭하고 衆人이 憤號함은 과연 누가 여기까지 險惡化하게함이나

地主의 非道不義임은 이미 世人의 公誅가 잇거니와 代表者抱禁을 한 能事로 삼어 六百民衆에게 이미 食言의 態度를 取하고 公平한 處分이 업시 今日까지 滿廷하야 畢竟의 그가튼 紛亂을 再演함은 이것이 官憲을 政活의道德을 無視하고 오췌 私的으로 一個資本家를 擁護하라는 手段에 지나지못함이 아니냐 여기에 또다시 威權과 法

網으로 今番의 擾騷들 嚴酷히 處理하고 또 다시 反動이 일어나거던 또 다시 一層을 加하여 이와갓치마지아니하면 이것이 도리어 民衆의 思想을 일부러 險惡化식힘이 아니고 무엇이랴 富와 力도 人間의 生 그를 認定한 前提下에서잇는 것이다 苟且한 권조를 吾人은 즐거하지안커니와 地主와 官憲으로 良心이잇스면 반드시 誠意잇는 覺悟가 잇슬것인가한다.

### (13) 1924. 7. 14. 岩泰爭議 同情演說禁止

사건이 예심에 잇슴으로

오해가생길가념려하고

조선로동총동맹(朝鮮勞動總同盟)과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의 연합주최로 암태(岩泰)소작쟁의에대한 동정연설회를 금십사일에 개최하리라함은 이미 보도 하얏든바이엇스나 불이의 종로경찰서의 금지로 개최치못하게 되얏다는데 이와가티 연설회를 금지한 당국자의 주장하는 이유는 『근래에 만흔 집회를 금지하얏지마는 이번암태사건으로말하면 예심(豫審)중에 잇는 피고도 잇서 예심이 싣나기전에 연설회가튼 것을 개최하면 되리혀 일반에게 오해를 셋치기 쉽다』고 함이라더라.

### (14) 1924. 7. 15. 岩泰小作人 二十六人은 檢束

文在喆家를 襲擊하다가

비오는 밤을 한데에서 새인 군중은

문재철의 집으로 살도하든중 검속

지나간 팔일부터 목포재판소에 살도한 암태(岩泰)소작인 룩백여명은 십이일 짜지 조금도 움직이지안코 오일간을 나려오며 아사동맹(餓死同盟)을 계속하든바 당일밤에 비로인하여 군중은 시내항명(港町) 김길룡(金吉龍)의 집에가서 혹은 비를 피하고 혹은 비를 마지머잇는 형상은 누구나 참아볼수업시되얏든바 십삼일오후네시경에 군중은 분함을 참다인하여 전부 북교동(北橋洞)으로 몰니여 동리 일백십칠번디에서 편안이 누어잇는 문재털(文在喆)의 집으로 살도하여 대소동을 일키라는동시에 군중은 흥분을 더하여 형세가 험악하든중 목포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 하여 오십여명의 경관은 현장에 달녀들어 엄중히 경계하다가 오후여섯시에 일오매 중도(中島)서장이 퇴거를 명령하여스나 퇴거하지 안이함으로 경관과 군중은 충돌되야 남자십구명과

녀자칠명 합하여 이십륙명은 검속되얏스며 군중은 아즉 싸지 잇는데 문재털의 집과 시내각처에는 거의 순사성을 싸여서 엄중히 경계하는중이라더라. (목포에서특파원)

### (15) 1924. 7. 15. 岩泰小作人事件의 餓死同盟同情團組織

동정금은와룡동서울청년회내

림표씨에게로보내기바라는중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인의 비참한 현상은 이제 다시 기록할것도 업거니와 이사건으로 인하여 경성에 잇는 유지 삼십여명은 작일오전열시에 서울청년회에 모디어 회의한결과에 암태소작인아사동맹동정단을 조직하고 실행위원으로 김유인(金裕寅)씨의 여섯사람을 선명하는 동시에 결의문 싸지 발표하얏다는데 이제 그결의문의 내용을 대개 소개하건대 암태소작쟁의로 말하면 소작인측의 요구가 당연한 것인데 포악한 디주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도로혀 소작인을 위협하얏스며 협박과 주립에 우는 그들은 겸하여 부상테포로 결국은 아사동맹 싸지 조직하야 적극덕으로 투쟁을 계속한다. 그런데 그들과 계급이 갖고 라해가 갖고 장래의 운명을 가티할 조선의 무산대중은 가만히 보지못할바인즉 그들로하야금 최초의 요구를 관털케하라거던 다소 동정이 업지못할바인데 이에대한 동정을 보내려는 이는 와룡동(臥龍洞)일백삼십일번디 서울청년회 림표(林豹)씨에게로 보내기를 바란다더라.

### (16) 1924. 7. 16. 六百男女의 구든 決心

五日間 餓死同盟을 繼續하다가

목포유지의 간곡한 권고로 목숨을 유지

최종싸지 헤여지지만코 결말을 불작명

悲絕慘絕한 岩泰小作人의 現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구내에 모히여 닷새동안이나 아사동맹(餓死同盟)을 계속한 암태도민(岩泰島民)륙백명은 재직일 오후에 디주 문재털(文在喆)의 집으로 몰녀가셔 두시간동안이나 몰녀가지안이라고 형세가 매우 험악함으로 목포경찰서에서는 해산을 명령하는동시에 남녀이십륙명을 검속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이러니와 이제 자세한 경과를 보도하면 지나간 팔일에 목포지청안에 살도한 암태도민남녀 륙백명은 이실나리는 밤과 해빛이 몹시 쏘이는 낮에 구든 쌍으

로 자리를 삼고 망망한 창공으로 집을 삼아서 자괴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다만 그전에 잡히었든 암태소작회간부 서창석(徐倉錫)의 열두사람을 차저널결심으로 재판소와 경찰서에서 가진수단을 다하여 물러가기를 도모하였으나 그군중은 한마음 한 뜻으로 조금도 변동치 안이하고 동십이일까지 닳새동안이나 아사동맹(餓死同盟)을 계속하였는데 재판소에서는 수백명민중을 죽일지언정 자괴들의 뜻만 고집하여 문대는 종시 해결을 엇지못하고 썩만 남은 노인과 연약한 여자들이 이미 괴운이 다하여 정신업시 쌍우에 혼도할디경이오 씩씩하던 청년들도 몸이 자못 지쳐서 재판소안은 겨우 숨만부터잇는 날송장이 어지러히 질비하여 산천초목도 습해하는 듯 하얏고 보는 사람마다 몸서리를 칠만치 비절참절한 상태를 이루엇슬지음에 십이일아침부터 흘이엿든 한올에는 돌연히 비방울이 나리기 시작하여 세상을 원망하고 인간을 야속타고 하염업시 흘으든 군중의 눈물은 비물과 한테엉키여 말났든 쌍우에 물이고일새 까지도 한결가티 자리를 변동치안이하고있다가 목포유지들의 간곡한 권고에 엇지할수업시 시내하명(항정)김길룡(김길룡)씨 면화창고(면화창고)안에 수용되니 세는 풍우가 심하고 날이 저물은 십이일오후여덜시엿더라. (목포에서특파원)

### (17) 1924. 7. 16. 地主의 模糊한 口實

소작인의 요구대로하고보면

관령과 다른디주가 미워한다

마귀(魔鬼)의 굴속가티 어두운 창고안에 그나마 보지도 못한곳에 켤썩하게 들어찬 군중들은 몹시 피곤한 몸을 서로의지하여 압흔다리를 한번 펴보지도못하고 그날밤을 근근히 새인후 미약하고도모진 것은 사람의 못숨이라 그이튼날까지 쓴 어지지는 안이하얏스때 목포유지들이 모은돈으로 사다주는 팟죽(豆粥)열네통으로 룩백명의 군중이 목구멍을 적시고 오전열한시경에 또 재판소안으로 들어가고자 창고문을 벼셔나서 재판소안으로 왓스나 이날은 마춤 일요일인 까닥인지 재판소에서는 문을 굳게다치엿슴으로 할 일업시 다시 창고안으로 가서 여러 가지로 협의한결과 이번에는 우리의 피를 글거먹고 결국 열세명의 소작인을 잡아다가 가두게 까지한 디주 문재털(文在喆)의 집으로 가자하여 전부일어시라고할지음에 간부몇사람이 이를 말니고 간부들이 먼저 문재털의 집으로 가서 담란을 시작하얏는데 문재털은 『작년의 수확물은 사할오분으로하고 금년부터는 대세에 짜라서 남이하는대로하겠소』하고 애매몽롱한말로 자괴의 주장만 고집하여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큰 싸흠을 이리킬것가듯

스나 될 수잇는데 싸지는 온건한 태도를 취하기위하여 백방으로 문재털의 잘못을 말하고 각성하기를 권고한즉 문재털은『내가 당신의 요구대로하면 행정관팅의게 미움을 받느니 다른 디주들에게 칭원을 뜻느니』하는 말로 수백군중이 당장에 죽는다 하더라도 시약심상(視若尋常)의 태도이였섯고 담판하든 간부들은 다만 가슴속에서 의분의 피가 쓸엇슬 썬이였섯더라.

#### (18) 1924. 7. 16. 全市에 愁雲이 慘愴

이급보를 들은 목포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을하여 동일오후여섯시경에 중도(中島) 서장이하 오십여명의 정사북경관이 문재털이 집으로 달녀와서 집 뜰안에는 순사의 장금이 해빛에 번득이매 공포중에 싸히여잇든 문재털은 뜰 아래로 내려와서 서장에게 호리를 구푸리여 감사의 뜻을 표한수 중도서장은 곳 담판중에 잇든 산부 서광호(徐光鎬)씨와 두사람을 불너 내여노코 『치안을 유지할관계상 너희들은 레일까지 돌아갈 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이 자리에서 그말을 군중에게 던하야 여부를 곳 회답하라』고 서설이 시퍼런일골빛으로 말하야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곳 회답하기는 어렵겟다고 말한즉 서장은 다시 『치안경찰법에의하야 너희들에게 해산을 명령한다』고 한번입에 말이 썬러지기도전에 경관들은 살가티 군중들에게 달녀들어 헤여져가라고 등을밀어치는지라 이 썬에 엇더한 로파한명이 우리들은 죽어도 물러가지말자고 웨쳐서 군중은 강경한 태도로 용이히 물러가지 안이한즉 경관들은 괴고만장하야 혹은 팔을 잡아다리고 혹은 썬 밀어치는 바람에 늑고주린로파 한명이 문재털의 집대문간 뚫흔대몰에 굴너나리여사자를 썬치고 혼도하엿스며 기타 분한마음을 견디지 못하야 대성통곡을 하는등 이로 말할수업고 이로 기록할수업는 비참한 살풍경을 연출하엿는데 오히려 경관들은 남자편으로 서광호(徐光鎬)씨의 열여덟명과 녀자편으로 김소녀(金小女)의 여섯명 총수 이십륙명이 경관을 반항하엿다하야 검속 싸지하야가지고 경찰서로 압송할지음에 도중에는 구경군이 산가티모혀들어 보는 사람마다 동정의 눈물을 금치못하는듯하야 돌연히 시내는 불안의 공기가 가득하엿고 문재털의 집은 만일을 염려하는 생각으로 사오명 경관이 파수하야 밤을새여가면서 엄중경계 하엿더라.

(19) 1924. 7. 16. 死에 瀕한老弱少幼

이로부터 이틀만더잇스면 죽는사람이 잇슬모양이다

암태도민과 문디주사이의 소작쟁의사건은 데일화분규당시에 소작인편의 열세명이 검속되엿슴으로 소작인편에서는 그들을 방석하야달나고 금번데이회의 분요가 일어나자 금번에는 전번보다 배수되는 이십륙명이 검속되여서 문디주 일개인은 의연히 고루거각에 편안한 잠을자는반면에 소작인측은 벌써 사십구명이나 털창생활을하게된 형편인데 재작일 해산당시에 군중은 엇지하여 우리만 붓들어가느냐고 분함과 숨숨이 영킨소리로 경관에게대하야 항의까지한사람이 잇섯스나 그말도 하등소용이 업시 검속되지안이하사람조차 경관에게 쏘들니여 이곳에가도 호령 저곳에가도 호령을하야 갈곳은 업고 날은 저무는지라 할수업시 면화창고로 다시들어가서 물한목음을 어더먹지못하고 웅크리고 안져서 밤이 새기만 기다리는 광경이야말로 이붓을 든 사람으로는 처음으로보는 참경이엿는데 그들은 작일까지 전후일주일동안을 먹지못한터이라 그중에 간혹 죽물이나 어더먹은사람이 잇다하더라도 화기와 분한을 견디지못하야 몸이 여위가는 일반이엿스며 이 모양으로 이틀동안만더 계속한다면 큰일이날는지도 알수업다더라.

(20) 1924. 7. 23. 岩泰小作同情金 大邱警察은 禁止

할수업셔 중지하얏다

소작쟁의(小作爭議)로 암태도민의 말뫼된참상을들은 대구로동공제회(大邱勞動共濟會)와 상미회(尙微會)와 대구청년회(大邱青年會)에서는 열렬한 동정을 표하야 동정금(同情金)을 모집한다함은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지난 십팔일당디 경찰셔는 리우렬(李于烈)씨를 불너 그모집을 금한다함으로 전과 리우렬씨는 동정금모집을 아니할수업다는 말과 가련하고도 참담한 암태도민의 상황을 자세히말하얏스며 례를 들어 작년동경진재와 금년 김천(金泉)우박에 대하여 동정금을 보내인 말을하고 그성질과 조금도달을것이 업스며 결코 불온당한일은 업다고 말하얏스나 결국 뜻지안이하함으로 할수업시중지하얏다더라. (대구)

## (21) 1924. 7. 25. 岩泰餓死同盟同情

長城勞農共濟會에서 決議

돈을 장성조선일보지국으로

촉탁하여 목포지국에서 분배

목포문디주(木浦文地主)의 포악으로 인하여 암태(岩泰)소작인 룡백명이 목포지청에 살도하여 예심중에 잇는 열세사람을 내여달나고 아사동맹을함에는 우리사회가 눈물과 피로척진동정금을 보내는 이가 날로 세일수가 업다함은 이미 보도한도한바 이어니와 이번 전남장성군 로룡공제회(長城勞農共濟會)에서는 지난 십오일 오후 십시에 집행위원회를 열고 동정강연을 하라함은 당국에서 물론 제재하는 고로 별도로 할수업스나 동정금을 얼마던지 거두워서 본보장성지국을 거쳐 목포지국으로 보내여 아사동맹자인 동포에게 분배하기를 촉탁하기로 결의하얏다더라. (장성)

## (22) 1924. 7. 25. 岩泰小作會를 同情하자고

소안노동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다

전남 무안군(務安郡)암태면(岩泰面)소작회사건으로 그내막의 비참한 그털의 형상은 이미본보에 열어번 보도하얏거니와 일반사회에서는 모다 분개하며 참혹히 생각하던터인데 완도군(莞島郡)소안면(所安面)노농연합대성회(勞農聯合大成會)원덜은 분개하여 지금 비운에 빠진 암태소작회를 어대샤 지던지 동정하자는 취지로 지나간 유월이십오일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준희(申峻熙)군은 삼인을 특파하여 그참상을 묘사하여 위문하기로하고 동시에 동정금은 본회회원명하에 오전식 내여 되는대로 보내기로하고 출발일은 칠월안으로정 하얏다더라. (완도)

## (23) 1924. 7. 28. 岩泰爭議에 同情

一般이 共和하는 岩泰小作爭議에 대하여 各處로부터 同情金이 逕至한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全南莞島郡 所安面 勞農聯合大成會會員들의 熱烈한 活動으로 該地人事의 悲運을 同情코져 一人分에 五錢의 同情金을 取合하여 總計二十圓을 付送하얏다더라. (莞島)

## (24) 1924. 8. 7. 岩泰小作會員

### 決死隊싸지組織

#### 재감한 열세사람과 가티죽자고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쟁의로 소작회간부삼명이 목포지청에 수감됨과 그들을 노하달라는 소작인들은 아사동맹까지 하얏다함은 이미 루루히 보도한바이니와 지난달 이십칠일에는 암태소작인회에서 립시총회를 열고 립시 의장 서동오(徐東五)씨 사회로 이번쟁의의 경과보고가 잇스후 수삼백명의회원은 사법관청의 처사가 넘어 가혹함을 분개하여 울며 원망하는 소리가 일시는 회장이 참담하게되얏섯는데 의장이 질서유지를 권고하여 계우 안정된후 의론을 계속하얏는데 회원중으로부터 엇던사람이 큰소리를 쳐서 『우리 무산자에게는 법률도 소용업고 백성을 보호한다는 관청도 미들수업스니 우리 소작인들은 광주(光州)로 가서 가져잇는 소작회간부 십삼인과 가티죽자 죽기로 결심한 회원은 이리로 나오니라』하며 우레 가튼 소리를 질으며 삼백여명의 회원은 일변 피눈물을 씨스며 한곳으로 모히여섯는데 이새 간부의 권고에의하여 대표를 보내여 광주지방법원장에게 질문하여 만일에 우리의 요구를 듯지안이하얏세에는 총출동하자고하여 대표 박복영(朴福永)씨를 보내기로 결의하고 오후두시에 폐회하얏다더라.

## (25) 1924. 8. 7. 決死隊出動說에 署長이 大驚

### 암태소작인회를 방문

암태소작인회에 결사대(決死隊)를 조직하야가지고 목포로가서 갖쳐잇는 열세사람과 가티죽고자한다는 말을 들은 목포경찰서장은 지난달 삼십일에 경비선 금강환(金剛丸)을 타고 암태 싸지가서 재감한 열세사람의 부형과 소작회간부 박복영씨외에 세사람을 방문하고 결사대출동에 대하여 그럭케 격렬할것이 안이라고 백방으로 달내엇스나 용감한 소작인들은 열렬한 결심에는 엇지하지못하고 돌앗갓더라.

## (26) 1924. 8. 23. 岩泰事件公判 무기로연구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회간부십삼명의 공판은 무기로연구되얏다더라.

## (27) 1924. 8. 23. 岩泰小作會를 爲하야

木浦人士의 血誠的 同情

우리들도 안저서볼수만업스니

일부분의 責 任을 가지자는 의미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에서는 소작쟁의가 일어난 후 횡포한 디주들과 악전고투를 계속하다가 간부십여인은 철창생활까지 하게 되고 또 아즉까지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아사동맹(餓死同盟)을 하는 등 또 는 최후에는 결사대까지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사람으로 당하지 못할 지극히 참절저절한 디경에서 신음하는 소문을 들은 목포(木浦) 일반인사로부터 우리는 안저서도 일부분의 책임을 갖자는 의미로 자발적 성의로 혈성덕동정을 하였다는데 방명과 금액을 들면 아래와 같다더라.

朴宗植五圓, 崔鳳羽 金奉錄 ○勝煥 金俊○ 金京津 各三圓, 金漢植 朴鋪大 崔汝章 文章彦 金仁瑞 曹奉○ 裴化一 李周彦 李奉淑 各二圓, 金元三 一圓五十錢, 高和一 金寅洪 韓昌淳 鄭太玉 徐○云 金龍準 金永錫 朴正基 林連奎 李詳奎 趙文漢 黃良宣 徐俊烈 方德天 朴處宗 朴正允 金鍾泰 宋文玉 徐勝律 崔汝一 崔乃化 金順九 洪富錫 蔡平善 朴道連 朴乘源 安京在 朴亭淳 朴榮同 鄭化京 朴斗彩 柳官五 安順奎 李京倫 史濟奎 李春培 胡成○ 朴玉才 高永彬 各一圓, 宋基善 金在涉 金仁遠 李明淳 崔奉玄 蔡東彬 金鍊斗 趙成炫 趙聖完 金斗賢 徐致淑 姜五鳳 文元伯 張奉鉉 丁丙柱 李再奉 郭道淳 成元一 金字兼 李奉洙 鄭善祚 朴泰準 曹乘善 各五十錢 張京彩 鄭俊永 各四十錢 金順汝 鄭昌律 許 恩 金鍾沂 各三十錢 韓輔鉉 各二十錢 (호남)

## (28) 1924. 9. 6. 岩泰事件公判中 雙方이 和解陳情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인간부 서태석(徐邵楮)외 십이인의 공판은 예명과 가티 지나간 일일상오 역시부터 광주(光州)지방법원 데일호법명에서 열리었는데 명각전부터 방청객이 물밀 듯 들어오고 경북사복영관들은 엄중히 경계하는 가운데서 내산(內山)판사부장이 피고 서태석(徐邵楮)부터 심문을 시작하여 예심결명서에 소요급상해죄(騷擾及傷害罪)의 유무를 묘사하는데 피고등은 예심결명서는 전부 부인하나 비석(비석)과 괴한일은 사실이라고 답변하였스며 문재털(文在喆)일파에게 구타를 당한 박종남(朴種南)을 증인으로 도사하기로하고 다시 삼일에게 명하

기로하고 오후 여섯시에 폐당하였스며 지나간 삼일 데이호공판에 증인을 도사하였는데 증인된 박종남은 아즉까지 병이 완전히 낫지 못하였슴으로 즉시 광주자혜의원(光州慈惠醫院)의사를 불너 병세(病勢)진찰하였스나 당석에서는 자세한 병세를 알수 업스니 삼일간만 입원시키고 진찰하기로하고 즉시 자혜의원에 입원한후 오는 팔일로 연귀하였는데 목포(木浦)문재 털 암태(岩泰)박복영(朴福永) 량씨로부터 이번사건은 쌍방이 취하(取下)하였스니 재판장이 이대한쳐분이 나리기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더라. (전남)

### (29) 1924. 9. 11. 岩泰事件公判의 檢事の 論告

#### 최상이 증역 삼년

전남(全南)암태(岩泰)소작인회간부 서태석(徐邵楮)의 십이인공판이 계속된다함은 이미 루차 보도한바어나와 예명과 가터 지나간 팔일오전열시부터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데일호법당에서 계속하여 내산(內山)재판장이 증인(證人) 옥산의원(玉山醫院)의사 옥풍빈(玉豐彬)씨에게 도사하는중 변호사 김병로(金炳魯)씨는 말하되 의사가 문파(文派)에게는 사오주일식 진단을 하여주고 순전한 감기약인 『안지씨 링』을 주었스나 상처에 『안지씨 링』이 무슨효과가 잇느냐고 물으니 이사는 애매몽롱한 대답을 한후 신등(新藤)검사로부터 예심종결서에 잇는대로 일일이 설명하는중 단순한 소작문제가 안이오 공산주의를 실행하느니 혹은 사회주의를 실행하느니야는 말로 한참동안말하더니 이번사건에 각처에서 동정금(同情金)이 다수히 온 것을 보면 피고등과 신문기자(新聞記者)와 연락이 잇스닛가 다수 허위의 보도를하여 각처에서 동정을 구한 것이 사실이라는등 여러말을 하다가 다음과 가터 론고하였다더라.

徐邵楮 懲役三年 徐倉錫 懲役一年 朴弼善 金淵泰 孫學振 各十個月 金文喆 徐東洙 各八個月 金云宰 十個月 朴炳煥 徐岷楮 朴洪彦 朴應彦 朴用産 各八個月

김운재 김운행이하는 장구한 기한으로 집행유예로하라고 요구한후 한시간동안 휴식하였다가 계속하여 변호사 김병로(金炳魯) 서광설(徐光高) 김영수(金永洙) 류복영(柳福永) 세씨로부터 변론이 시작되야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유무한 변호가 잇스후 판결언도(判決言渡)는 십팔일로 명한후 오후일곱시반에 폐당하였다더라. (전남)

## (30) 1924. 9. 14. 小作幹部保釋

## 암태사건록인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岩泰)소작쟁의(小作爭議)사건으로 슈개월동안 광주 형무소에서 털창생 화을하든 암태소작회(岩泰小作會)간부(幹部)는 보석(保釋)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여섯간부는 지난 십일일에 보석되었는바 이의성명은 다음과 갖다하며 나머지 간부도 미구보석되리라더라.

朴炳完 朴用産 金云宰 朴洪彦 朴應彦 徐岷皙

## (31) 1924. 9. 20. 岩泰小作事件公判

## 소작회간부네명은 실행언도

## 디주측은 한명만 실행언도

## 外九名은 執行猶豫로

전남무안군암태(岩泰)소작쟁의사건에대한 판결은 본월십팔일오후 한시 광주 지방 법원(地方法院) 일호 법당(法廷)에서 내산판사(內山判事)의 언도가 잇섯는데 그죄명과 형기는 여좌하였더라.

|            |              |
|------------|--------------|
| 徐郃皙 騷擾及傷害罪 | 二年           |
| 徐倉錫 同上     | 一年           |
| 金淵泰 同上     | 八個月          |
| 徐同洙 同上     | 八個月          |
| 朴弼善 同上     | 八個月二年間執行猶豫   |
| 金文喆 同上     |              |
| 金云宰 同上     |              |
| 徐東洙 同上     | 懲役六個月二年間執行猶豫 |
| 朴炳完 同上     |              |
| 徐珉皙 同上     |              |
| 朴用産 同上     |              |
| 朴洪彦 同上     |              |
| 朴應彦 同上     |              |
| 文地主派       |              |

文明鎬 傷害懲役 十個月

文珉順 同上 懲役八個月二年間執行猶豫

문파(文派)와 문재봉(文在奉)은 사실 도사가 미급함으로 다시 도사한다하여 일시 휴화하고 동일오후 두시에 폐정하였는데 소작회간부는 다 공소할터이라더라. (전남)

### (32) 1924. 11. 1. 岩泰事件控訴

#### 피고는 대구로

전남(全南)무안군(務安郡)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로 구금된 간부 열세사람중에 아홉사람은 광주디방법원공판으로 방석되었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어니와 나머지 네사람은 공소하여 지난 이십륙일에 광주형무소(光州刑務所)를 쫓나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로 갖다는데 암태소작인회에서 간부 박복영(朴福永)씨를 파송하였다더라. (광주)

### (33) 1924. 11. 3. 岩泰事件控訴로 박복영씨활동

전남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의 사건이 피고네사람의 불복으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 넘어간 것은 이미 보도한바와 갖거니와 암태소작인회의 간부 박복영(朴福永)씨는 피고들을 위하여 수일전 대구싸지와서 여러 가지로 진력하는중인바 그 류숙하고 잇는곳은 대구부동성명이동목칠십이번디(大邱府東城町二丁目七二) 신가운(申加云)의 집이라하며 대구로동공제회(大邱勞動共濟會)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도아준다더라. (대구)

### (34) 1924. 11. 10. 岩泰小作爭議 和解는 虛說

논에 나락도 아즉 베이지안코

문디주는 더욱 소작인을 확대

◇大邱에서 岩泰小作會幹部談

오래동안 싸흠에 싸흠을 거듭하여 온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는 일시에 화해되었다는 말을 전하였으나 이것은 무근한 풍설에 지나지못하고 실상은 갈사록 분쟁

이 더하여 도저히 타협알여망이 업서 졌다는데 이사건으로 대구 복심법원에 공소한 소작인을 위하여 일부러 대구에 와서 두류하고있는 박복영씨는 그사실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가티 말하였다.

디주와 소작인간에 쌍방이 서로 고소한 것을 위하한곳으로 마치 모든일이 해결된 듯이 전하였스나 이는 서로 고소한것만 취하하얏슬 썬이요 분쟁은 그대로 계속하여 감니다 디주문재철(地主文在喆)은 암태도 전테의 삼분지일이상의 토디를 가지고 매년일천이백석이상의 소작료를 착취하는터인데 금년에는 소작쟁의로 김흔 감정을 품고 어대까지 소작인을 곤난하게하랴고 지금까지 눈에 나락을 베이지 못하도록하야 나락이 만히 썬러젧스나 너무 감정에 끌리여 앓싸운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갈사록 소작인을 학대하는 모양인바 소작인들도 굴하지 아니하고 일항 반항하며 중대한 생명관계에 그대로 참수수가 업슴으로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가 일어나서 옛재던 나락을 비여드릴 작정이라하며 문재철은 우리소작인회에 대항할 계획으로 자기의 친척관계자 몇사람을 모아 소작상조회(小作相助會)라는 반동단체(反動團體)를 조직하고 또한 문재철이가 경영하는 남일운수회사(南一運輸會社)는 이전부터 암태청년회(岩泰青年會)와 연락을 취하야 관계하던 것을 다시 쓴 허버리고 교육협회(教育協會)라는 헛이름만 가진 단체를 만드려 다시 그리로 관계를 맺는 동시에 소작인회와 청년회는 가튼 한편이라고 여러방면으로 추궁하는 문재철의 횡포한 태도에는 누구던지 적의를 품고 죽을새까지 싸워볼 결심인데 의외로 무사히 화해하얏다는 풍설이 전파되는 것은 조치못한 일로 생각합니다. (대구)

### (35) 1924. 11. 11. 惡地主文在喆

社會의 組織이 뒤숭숭하면 雜輩도 또한 이름을 一世에 傳한다 遺臭 萬年이라도 또한 可하다는 氣狂的好名癖이 잇는 者는 惡名이 一世에 傳하는 것도 또한 我意를 이루엇다고 깃버할는지?

일즉 一世의 耳目을 놀래든 全南의 孤島岩泰의 小作爭議의 福首惡地主 文在喆은 지금껏 그 不靈한 頑心이 풀어지지안코 어데까지든지 百方으로 小作人을 追窮하야 憎惡할 勝利의 깃분을 자랑하려한다고 舊社會가 맨들 어션 ○物 너의 일흠은 미워할 물건○○

(36) 1924.. 11. 19. 岩泰小作爭議 漸益惡化

논바닥에 썩는 이삭  
디주는 간평을 아니하고  
작인은 거두지를 안하야

세상의 주목을 비상히 뜨 러오는 암태소작쟁의에 대하여 일시는 디주 문재철(文在喆)과 소작회간에 원만히 해결이되얏다 전하엿스되 사실 그러치 안은 것은 이미 보도한바와 갓거니와 대구에 두류중인 그소작회간부에게로온 암태소작회의 보고에의 하건대 천여명소작인은 디주 문재철의 갈사록 포악한 행동을 보면서도 디주의 금년 수확감명(收穫鑑定)을 기다리고 잇섯스나 디주는 무슨생각인지 벼가 논바닥에서 썩 어지도록 감명을 아니하고 작인은 한편으로는 채귀(債鬼)에게 빚을 줄리게되야 나날 이 디주가 오기를 고대하든중 불행히 지난일주일전에 모진 풍우가 잇섯고 설상가상 으로 그우에 눈이와서 벼이삭은 모조리 논바닥에 썩러져다 이에 암태도 사천여명도 민은 논머리에 나아가서 목을 노코 통곡하는등 참아 못볼형상에 싸져다 이에 목포 경찰서원이 급히 출장하야 수확을 감명하고 소작인을 진정식히는중이라더라. (대구)

(37) 1925. 1. 2. 南一社의 無理로 岩泰青年奮起

船舶會社를 新設하야  
남일운수사를 배척코자  
격렬히활동하는 중이다

목포(木浦)남일운수사(南一運輸社)와 암태청년회(岩泰青年會)의 분규사건은 본보 에 루차보도하얏서니와 지난이십삼일부터이십사일까지 량일간을 운수사안에서 중 역회의(重役會議)를 열어 암태취급점(岩泰取扱店)에 대하여 백방으로 토의한결과 사장 문재철(문재철)의 전제로 암태취급점을 탈퇴하는 동시에 항행(航行)을 폐지하 기로 결의하얏는데 그의원인은 문태의 인물 문재철은 금년 암태소작쟁의로인하야 누구이든지 소작간부인 암태청년이라면 모다 무수시하야 될 수잇는대로 전멸식히라 는 심리에서 나온 계획이라하야 지난이십오일에 남일사전무 김종기(金琮基)가 정식 으로 암태청년대표(青年代表) 박복영(朴福永)에게 귀회와 암태교육협회(岩泰教育協會)는 본사선박을 공동취급하게하되 그중 쌍방이 협도하지못할바이면 취급권을 면 사무소에 이임할지나 만일 이것을 방해한다는 새에는 암태취급점을 탈퇴하고 동향

행까지 폐지하겠다는 통지가 잇슴으로 이소식을 접한 암태청년들은 새조직으로 선박회사(船舶會社)를 설립하여 남일사배척운동을 이르기기로 의론과 활동이 격렬하다더라. (목포)

### (38) 1925. 1. 2. 最後交渉 파렬되고 말었다

목포(木浦)남일운수회사(南一運輸會社)가 사회의 공익을 무시하고 횡포한 행동이 만음으로 당디 오개청년단체가 분기하여 지난달 이십팔일에 남일사와 교섭을 개시한다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형편에 의하여 동 삼십일에야 비로소 개최하였는데 상오 십일시부터 오개청년단체와 각신문 기자들이 엄명한 경관경계의 속에서 교섭을 개시한바 남일사장은 무슨 핑계로 참석하지안이하얏슴으로 일반이 참석한전무(專務) 김종기(金琮基)에게대하여 사장이 업서도 교섭할수가잇느냐고 물은즉 김종기는 사장은 아버와 삭고 전무는 자식과 가트니 아버의 대신으로 아들의 말하는 것과는 사장의 대신으로 전무가 말할수 잇다고함으로 교섭을 개시하여 무슨리유로 무도건 해제통지를 취급당에 보내엿느냐고 물은즉 사장 문재털(文在喆)의 직권으로 보내엿는바 그의 리유는 세가지가 잇는중 첫째는 자괴회사의 배를 아니타는 것이요 둘째는 박복영(朴福永)이가 남일사를 방해하는것이요 셋째는 청년회에서 취급하면 손이적어 번창하지못함으로 자괴회사에 입하여 영리하고자함이라고 대답하고 괴와에 여러 가지 문테에대하여 말이 중시 모호함으로 결국 회의는 과열되고말었다더라. (목포)

### (39) 1925. 1. 16. 四洞作人連袂脫退

所謂地主小作相助會에서

속앗든 것을 뉘우치며 암태소작회로 다갔다

전남 무안군암태면(務安郡岩泰面)소작쟁의라하면 누구든지 조선소작운동중 가장 큰쟁의로 아는바이어니와 그소작쟁의가 시작된후 문재털(文在喆)디주는 별별수단을 다하여 암태소작회를 박멸하고자하든중 자괴의 친척과 사음(舍音)으로 암태디주소작인상조회(地主小作相助會)를 조직하였섯는데 그회에 입회하였든 소작인들이 매일 몇명씩 탈퇴하여 암태소작인회에 입회한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이오니와 요사이에는 한서번에 여러동리회원이 전부탈퇴하여 암태소작회에 입회하는동시에 그 속은 이

야기를 모다하얏다는데 이제 그내용을 들으면 그 소위 디주소작상조회는 회장을 문화오(文化五)로 부회장을 문응창(文應昌)으로 총무를 박춘빈(朴春彬)으로하고 문디주의 린근촌의 소작인을 감언리설로 쓰이되 그 상조회에 입회하면 소작료는 암태소작회에서 요구하는 사할보다 오히려 적게할것시오 소작권도 잘분배해야 영영 계속하게 할것시오 작년 불납동맹새 아니내인 소작료는 면제하여 주마함으로 오륙동소작인들이 그말을 고지듯고 입회하얏섯는데 작년가을에 실행하는 것을 본즉 소작료는 모다 사할이상시오 소작권분배도 말 쏘이오 불납동맹새의 소작료까지 또박 또박 강박덕으로 바듬으로 소작인들이 그제야 속은줄로알고 일제히 단결하여 오상리(五相里) 신명리(新亭里) 천포리(川浦里) 목도리(木島里) 네동리 소작인은 전부탈퇴하는동시에 암태소작회에 입회하얏다는데 암태소작회에서는 지난십일에 간부가 총출동을하여 소작회의 결의한 사할제로 소작료를 주게하얏는바 그소작인들은 한편으로 늦게 깨다른 것을 후회하는 동시에 문디주에게대하여 원망하는 소리는 이로 옴길수가 업다더라. (목포)

#### (40) 1925. 1. 24. 文地主의 一派 小作幹部를 襲擊

소작회와 청년회를 막멸코자 친족과 사음들을 시켜서 폭행  
雙方에 重輕傷者가 多數

무안군암태면포동(務安郡岩泰面浦洞)에서는 지난십구일에 금번소작쟁의의 희생자가되야 털창생활을하다가 보석으로나온 간부 십삼인과 기타 소작회간부 제씨를 접대하기위하여 포동대표 강성태(姜成泰)씨의 집에서 연회를 배설하고 주객이 즐겁게 놀다가 오후한시에 산회하고 김정순(金正順)의 오륙인이 남아잇서 교육회비(教育會費)를 징수하든중 두시 썸되야 별안간 문제털(文在喆)의 사음(舍音)과 친족으로 조직된 교육협회원과 디주소작인상조회원(地主小作人相助會員)과 합 백여명이 몰려와서 포위란타함으로 돈을 거두든 오륙인과 포동사람은 형세가 위험한중 중과부덕(衆寡不敵)으로 맞기만하다가 한편으로 심오리나되는 신석리(新石里)에 교육회비 징수하러와잇는 오륙인에게 통지하여 구원이오기만 기다리고 잇섯을 쏘이였다.

應授到來

부상자를 구호

별항의 소식을 드른 신석리에와서 잇든 수금원(收金員) 박복영(朴福永)씨와 룩칠인

이 남강선두(南江船頭)로달려가서 동리사람륙칠인과 함께 동일하오칠시 썸 하야 촉 불을 밝히고 현장인 포도에 도착한즉 포위란타하든 백여명은 몸을 다피하였고 다만 김정순외 수금위원과 포동사람들은 그자들에게 맞고 누어잇슴으로 위선 간호를 한 후 그날밤은 포동에서자고 그이튿날 그자들을 찾기로하였다.

容恕를懇乞

질문을 하니사 잘못하였다고

그이튿날 암태소작인회에서는 박복영(朴福永)씨의 삼인이 그자들을 차저가서 상조회측 문시준(文時俊) 박봉빈(朴奉彬)과 강성태(姜成泰)의 집에 모히여 전과 백여명의 습격한 사실에 대하여 리류를 질문한즉 모호하게 어름어름하고 그저 잘못하였스니 용서하라고하야 사죄함으로 그제는 별일업시 헤여졌는데 암태소작회는 다시 두 대로 난호아 교육회비를 맞든중 상조회원 수십명이 또다시 소작회원 오륙인을 두 번째 란타하기시작하야 고향을 지르며 살기가 등등하든중 소작회원들도 결사적으로 싸호다가 겨우 진정되었스나 쌍방에 중경상자가 잇섯는데 문재털의 사촌 문응창(文應昌)은 소작회원들이 문시준(文時俊)과 문재봉(文在奉)을 구타하야 반 썸죽게하였다고 순사두명을 다리고 포동으로 갔다더라.

#### (41) 1925. 1. 24. 前後設計는 文地主

자기도 현장에까지 갔다가 만일을 넘려하야 먼저 피신

지제 전과와 가튼사실이 발생한내용을 드르면 전과 문재털은 금번서작쟁의 이후로 암태소작회원과 청년회원을 미워하야 하는중 사오일전에 암태에 들어가서 자과 친족이 거주하는 수곡리, 추엽리, 도창리(水谷里, 秋葉里, 都昌里) 세동리 상조회원과 교육협회원을 전부 불려서 남강선두(南江船頭)에 모히여노코나서 문재털은 훈시 모양으로 하기를 이번에 세동리사람이 전부단결하야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학교도 세우고 암태소작회와 청년회를 절대덕으로 대항하야 모든 것이다 세동리의 승리가 되게하면 내가 돈천원을 주겠다하고 지금 포동에 암태소작회간부가 교육비를 거두러가서 잇스즉 이과회를 타서 한번 되게두들겨주라하고 문재털과 그의 사촌 문응창은 자과의 친족과 사음이십여명을 발동기선 남일환(南一丸)에 실코 포동 까지 가서 소작회원을 치라명하고 자과는 만일을 넘려하야 목포(木浦)로 가고 문응창은 룡로로 도라가서 동민 이백여명을 소집하야 문재털의 집근처 포동으로 들어가는 어구에 진

을 치고 납팔을 붙여 소작회원이 포동에서 맞고 쫓겨나오거든 전후로 습격하자고 설계하얏섯다더라. (목포)

#### (42) 1925. 1. 24. 岩泰女子院有望

##### 문지주측에서 방해하나 청년의 활동은 더욱 열렬

암태(岩泰)소작쟁의로 인하여 디주 문재털(文在喆)이가 암태청년회에서 경영하는 여자강습원(女子講習院)까지 방해하고자 잇는 수단을 다하여 백가지 천가지 활동을 한다함은 본보에 이미 보도하얏거니와 근일에 이르너 문재털이 자기의 친족인 문시준(文時俊)과 일보 아주는 사람 박봉빈(朴奉彬)이라는 두사람을 식히여 동면 신석리(新石里) 대디주 천모(千某)에게가서 간할한말로 여자강습원이라는 것을 괴어히 박멸하고 우리디주씨리 다시 경영하는 것이 조치아니하냐고 백방으로 꼬이엿는바 이 말을 들은 당디 청년회간부 몇사람이 신석리에 출장하여 천모를 방문하고 교육비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얏는데 천모는 강개한말로 간부들에게 대하여 문재털이가 사람을 보내여 여차여차하얏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그의 악독한 행동을 무한히 타매한후 자기의 아들 손자등 여러집안 청년들을 불러 압혜세우고 의분에싸인 목소리로 엄절히 훈계하되 내가 암태강습원에 대하여 금전을 다소간 보조할터이니 너희들도 아모썬 성령을 다하여 교육비와 소작회비등을 지테업시 루락(漏落)업시 썩 내이라고 한바 그청년들은 모다 여술일구로 대답하고 물러갔다는데 그이튿날부터 신석청년들이 일제히 열정을 다하여 한푼도 루락업시 교육비를 다 수봉한 결과 도강습원은 문재털의 리상과 정반대로 도리혀 그전날보다 완전하게 되얏다더라. (목포)

### (3) <시대일보> 관련 기사

(1) 1924. 6. 23.

毒手に 걸린 千餘生靈

사할감하운동으로 사명은 죽게되고 십삼명은 죄업시 가치어 문제는 확대

岩泰小作料不納同盟事件詳報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全羅南道務安郡岩泰島)에서 피와삼으로 남의 토지를 경작하여 겨우 그날그날을 사러오는 천여명의 소작인들은 너무도 무리한 소작료(小作料)를 내고는 살어갈수가 업다하여 암태소작인회(岩泰小作人會)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소작료를 내려달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풍파가 만헛다함은 이미 본보에 대략 보도하였거니와 처음에 결의한 소작료 사할감하운동(四割減下運動)과 만일 이것이 여의치못하면 소작료불납동맹(小作料不納同盟)은 아즉까지 계속하여 오든중 소지주(小地主)들은 그동안 소작인들의 요구대로 쾌히 승낙을 하였스나 제일 큰 부호요 대지주(大地主)인 문재철(文在喆)과 천후빈(千后彬) 두사람은 중시듯지안코 여러가지 포행을 함으로 그곳 소작인들은 심히 분개하여 그 형세가 자못 험악하다한다.

(2) 1924. 6. 23.

小作人會幹部四名을 地主가 凶器로 誘擊

오십여명이 솔밭으로 쏘여 식칼과 낫으로 죽게 만들어

그런데 이제 그자세한 말을 드르면 지난 삼월이십칠일에 이문제를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면민대회(面民大會)를 열기로 하고 소작인회간부중 박종남(朴宗南) 서태석(徐泰皙) 서동오(徐東五) 삼씨가 목포에서 암태도로 건너가서 상륙하자 남강(南江) 전곡 문재철의 집부근 송림속에서 그의 친족 문응창(文應昌)이가 서태석을 불르드니 별안간 몽둥이로 찌러서 업허트리매 뒤에 썰 어저잇는 박종남 서동오 량씨는 그광경을 보고 깜작놀라 곳달려간즉 별안간 전후좌우 송림속에서 머리동인 오십여명이 혹은 식칼(食刀) 혹은 몽둥이 혹은 낫(鎌)을 들고 덤벼들어서 함부로 란타하여 인사불성을 날우엇섯다는데 전곡 면민대회에서는 이급보를 듯고 수십명이 현장에 달려가서 선혈리 립리한중에 왜뭇을 십자로 박은 몽둥이와 식칼등이 여기저기 노여잇슴을 발견하였스나 피해자는 업는고로 어두대엇느냐고 무른즉

被害者는 隣家에 隱匿

피투성이로 죽게되어 이웃집에 두엇다함으로 가서본즉 피투성이를 하고 거진죽엇슴으로 응급치료를하여 겨우 숨은 돌리게한후 곳목포(木浦)로 운반하여 그곳에 입원시켜서 겨우 생명을 구한후 치료비의 관계로 퇴원케하였고 면민대회에서는 넷 날에 세윗든 문재철의 부친 문태현(文泰鉉)의 비를 썸아 버리기와 소작료 사할감하운동을 철저히 행할것과 만일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소작료불납동맹을 철저히 실행할

것 등을 일치가결한 후 문재철에게 줄 소작료 일천삼백여석과 천후빈에게 줄 소작료 칠백여석을 주지아니하고 항쟁중인바 문제는 더욱분규되어 확대하는 중이라한다.

(3) 1924. 6. 23.

### 문재철의 凶計 綻露

#### 무장경관대를 출동시키고 자괴집문씩과 세간을 부셔

그후 문재철은 목포에잇는 자괴의 집으로 나와서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 무슨 말을 하였든지 목포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이십여명의 무장경관이 경비선을 타고 암태도로 향하여 썬나게되매 이새에 재철은 자괴집 사람을 식히어 암태도 남강에 잇는 자괴집에 먼저가서 자괴부친에게 문씩과 세간들속을 좀 부셔어노흔후 머리르 싸매이고 알튼 것 처럼하고 누어잇게 하라고하여 다른 목선을 태워서 건너가도록하고 자괴는 경관대들과 가티 경비선을 타고 건너갔는데 먼저 문재철의 부탁을 바더가지고 건너가든 사람은 경관대가 거의뒤를 쌀허움으로 어느여가에 그사정을 문태현에게 말할 수가 업서서 경관대 보다 먼저 들어간 그자는 들어가는 길로 더퍼노코 문씩을 썬다 세간을 부신다하며 야단을 한즉 문태현은 웬 영문이지 모르고 너도나를 배퇴하느냐고 생야단을 치다가 문재철이가 뒤에 경관대를 다리고 온다는 말을듯고 문태현은 세간을 부시며 문씩 썬는 영문은 채알지도 못하고 자괴를 위하여 경관대가 온다는 말만 반가워서 부두까지 환영을 나간즉 경관들은 자괴의 드른바와 틀리는 것이 잇섯든지 삼작놀라는 괴색이 보이자 문재철이도 자괴계획이 탄로가되는 것을 새닷고 역시 놀라서 가본즉 문과세간은 자괴가식힌대로 되었스나 자괴의 계획대로 되지못하고 부친이 도로혀 환영을 나왔슴으로 락심을 하는일편에

#### 木浦署長도 地主와 結託? 소작회간부를 검거

경관대들은 자괴들이 드른사실과 전혀 틀리는 고로 곳 그곳 순사주재소(駐在所)에 가서 소작인회간부(小作人會幹部)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랴한즉 소작인간부들은 통력(通譯)을 자괴편의 사람에게 허락하여주면 조사를 밧겠다고 항의함에 서장은 하는수업시 다른곳에 잇는 경관을 불러서 통력을 식혀서 조사를 한 결과 문재철의 음흉한 계획이 전부 탄로되고 마럿스나 서장은 더퍼노코 십삼인을 금거하여야가지고 목포로 가서 취조를 마친후 그곳 검사국(檢事局)으로 넘기엇다한다.

(4) 1924. 6. 23.

六百餘의 岩泰小作人이 裁判所에 殺到

천우빈은 요구를 승낙하나 재판소는 약속을 실행안어

문제가 이가티 모호하게 번지어 무죄한 소작회간부들이 어더맛고 잡혀가고함에 분개한 암태도 천여명의 소작인들은 지난 사일에 룩백여명이 결속하여 목포로 가서 목포경찰서장에게 질문을 하고 재판소에 가서도 역시 시위적 질문을 한즉 재판소에서는 방금 예심(예심)중이니 칠일이내에 예심을 마치고 발표하겠단한바 전귀 오백여명은 만일 칠일안에 석방해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오겠단한후 재판소를 나와서 시가로다니며 시위운동르 하다가 전귀 천후빈에게 차저가서 자귀들의 요구를 승낙해달라 하여 요구대로 해야주겟다는 승낙을 바뎠다하나 문재철의 집에는 사일부너 안팎문을 침침히 닫고 절대로 사람을 드리지 안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전귀 룩백여명은 가지고온 러비가 써러젓슴으로 칠일부터는 룩백여명은 목포부내에 허터저서 밥을 비러먹다가 팔일야아 드디어 자귀의 향촌으로 도라갓다는데 잡힌사람을 아즉 가두어두엇슴으로 그들은 불원간 또 목포로 나와서 재판소의 태도를 규탄하여 자귀네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하얏다한다.

(5) 1924. 6. 29.

北青

岩泰作人 同情 勞動組合委員會에서

北青勞動組合委員會에서는 臨時委員會를 同組合臨時事務所내에 開하고 三十七人の 委員중에서 代表委員四人과 常務委員六人을 左와 如히 選定하고 주린 脹子를 부여잡고 惡戰苦鬪하는 저 - 岩泰小作人相助會에 積은 金額이나마 誠意를 表하자는 一致可決로 金五圓을 寄贈하기로 한후에 年二次共同勞○을 徹底히 實行할 것을 討議하고 同十二時에 解散하였다고.

▶代表委員 崔學成, 李冠洙, 趙斗熙

▶常務委員庶務部 李正焚, 財務部 金亨珍, 勞動部 金用善, 宣傳部 李宇英, 調查部 金璟植, 救護部 朱性煥

(6) 1924. 10. 1.

#### 岩泰小作總會

務安郡岩泰小作會에서는 去二十六日午後 四時에 第十一會 臨時總會를 岩泰公立 普通學校내에 開催하였는데 木浦中島警察署長이 臨席하고 其他多數한 傍聽人이 雲集한中 金正順氏의 司會로 順序대로 進行할새 來賓 趙永善氏 祝辭가 있고 光州刑務所에서 出獄한 代表徐東洙氏의 感想談이 이은후 左記事項을 決議하였다고.

一, 小作地臺帳準備에 着手할 것.

一, 在監人 後援費 現金 五百圓을 準備할 것.

(7) 1924. 12. 7.

#### 岩泰事件被告 再昨無事歸鄉

#### 구개월만에 고향으로

세상을 놀라게하던 전남무안군암태도소작쟁의(全南務安郡岩泰島小作爭議)의 희생자들이 대구(大邱)에서 보방이 되었다함은 기보와 같거니와 그들은 수일간 휴양하고 지난 오일오후 두시오분급행렬차로 철창생활 구개월만에 암태에서 파견되어와서 잇든 박복영씨와 가티오인이 질겁게 고향산천을 바라고 암태로 향하였다고 한다.

(8) 1924. 12. 7.

#### 岩泰幹部歡迎

#### 保釋歸鄉을 期하야 木浦無靑의 主催로

無産運動의 嚆矢로 半島江山을 울리든 岩泰小作人會幹部 孫學振 金淵泰 徐倉錫 徐郁哲 四氏는 大邱에서 控訴中이든바 去番保釋으로 出監하였다함은 이미 報道한바 어니와 公判日字가 延期됨을 알하 不遠에 歸鄉하리라는 消息을 들은 木浦無産者青年會에서는 이를 期會삼아 歡迎會를 열려고 準備에 奔忙中이라한다.

(9) 1924. 12. 15.

#### 암태간부대 화녕

### 도처에 성대한 환영회를 열어

포악한지주의 강압한 수단들은 먹고저 넘어났든 암태소작문제(岩泰小作問題)에 대하여 무정한 경찰은 이것을 이해치 못하고 아무 죄업는 소작회간부 십삼명만 희생하게 되어 비분과 원통을 참지 못하는 암태소작인 수천명은 그들을 위하여 아사동맹(餓死同盟)의 단장곡도 부르짖으며 어느새에는 씨는듯한 더위와 서리찬바람을 기리지 안코 울고 썰었으며 어느새는 암흑한 창고속에서 물건치우는듯한 서름도밧다가 최후에는 류치생활까지하게 되었든 암태사건으로 대구복심에서까지 도합구개월을 고생하든 십삼명이 보석되었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된바어니와 그들은 대구에서 수일간 휴양하다가 지난륙일오전 열한시에 목포에 도착하매 목포무산청년회의 주최로 남원려관(南原旅館)에서 환영회가 열렸섯고 그곳에서 이틀간 류숙한 일행십삼명은 팔일오전집시에 발동선으로 향리에 돌아오게되었는데 일행이 부두에 도착하기전에 환영회대표가나가서 싸뜻한 악수가 교환도고 상륙되자 각단체는 물론이오 남녀학생수백명 까지 출동되어 환영창가를 부르는데 만산편하얏든 남년군중들은 반가움과 슴흠이 아울러눔물을 흘리게되었섯스며 그뒤에는 소작인사무소에 다달으며 뜸에서 수백명이자리를 가티하여 환영회를 열고 김정순(金正順)씨의 개회사를 시작하여 청년회대표 서주석(徐周楫)씨와 부인회대표 고백화(高白化)녀사와 학생대표 박자신(朴慈信)양과 소작회대표 박복영(朴福英)씨등의 열렬한 환영사가 잇스후 서태석(徐泰楫)씨의 답사가 마치매 만세세번을 부르고 해산하얏다는데 암태에서는 처음보는 대성황을 일우엇섯다고 한다.

(10) 1925. 1. 1.

### 南一社長橫暴로 各青年團體奮起

#### 네단체가 결속하여 항의제출

남일운수주식회사(南一運輸株式會社)에서 개업당시에 암태취급점(岩泰取扱店)을 암태청년회(岩泰青年會)에 맞기엇슴으로 청년회에서는 박리다매함을 불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모아 교육비에 보충할싸하여 빈한한회에서 거액을드러 종선(船)싸신제하여 취급을하여 나오든중 괴회사장문재철(文在喆)은 단순이 암태소작인회에 대한 감정으로 자기의 사음간사인들을 모아 교육협회(教育協會)라는 간관을부치어 이취급점을 경영케하고서 암태청년회로 돌연히 해약통지(解約通知)를 발하얏슴으로 청년회에서는 이무리한 행위에 복종치안코 지금것투쟁해나온다함은 루보하얏거니와

문재철의 흉악한행위와 회사의 전횡무쌍한 행동에 목도하여 본 각사상단체에서는 크게 분개하여 자은청년회(慈恩青年會) 비금청년회(飛禽青年會) 도초청년회(都草青年會) 목포무산청년회(木浦無産青年會) 사개단체가 오는 이십구일에 해회사에 대하여 질문을 개시하기로 각대표자가 목포에 나왔다는 소식을듣고 회사에서는 이십팔일에 미리 경관과 각신문기자를 초대하여 다과회를 열고 사장 문재철은 사건의 경과를 말하며 자기의 주장은 여전히 고집하고 이문제는 사회에 공개하겠스니 내일단판석에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한다.

(11) 1925. 1. 1.

### 岩泰小作人 爭議又復開始

#### 지주의 협정부인으로

말성만튼 암태소작쟁의는 전라남도경찰부고등과장(高等課長)목포경찰서장(署長)의 중재로 지난 팔월에 협정서(協定書)싸 지되었으나 지주소작인간의 감정은 여전히 풀리지아니하여 지주는 소작료세금도 늦도록아니하여 줌으로, 소작인의 원성은 자못자자하든바, 그도 또한 목포경찰서에서 일부러 출장하여 겨우조정을 시켰다 함은 루보하였거니와 그 협정서에 정한바 「지주는 대정십삼년십이월말일내로 소작인회에, 현금이천원을 보내기로 되었슴으로 그한이 박도함에 암태소작인회에서는 지주 문재철(文在喆)에게 통지를 발하였스나 하등의 반답이 업슴으로 대표가, 지난이십구일에 문재철을 차저말한즉, 문재철은 소작인회에서, 먼저협정을 부인함으로, 돈을 줄수 업다고 함으로 대표는 어썤 조건에 가서어썤케 부인하드냐고, 물어도 다만 생 각해보라고 애매몽롱한 대답을 할뿐임으로 대표는, 그만돌아갔는데 소작인회에서는, 크게 분개하여 투쟁을 다시 계속하게 되리라고한다.

(12) 1925. 1. 15.

### 地主의 毒牙에 걸린 岩泰女子講習院

#### 무사녀자의 교육까지 방해 청년의 진력으로 기초완성

전남무안군암태면(全南務安郡岩泰面)은 겨우 칠천가구 가량사는 작은섬이나 비교적 문화의 풍조가 일찍이 들어와 지금으로볼너 십오년전부터 학교교육이잇섯스나 다만 남자교육에만 한하였슴으로 누구나 유감으로 생각하였슬뿐이오 자산가에 태

여난녀성들은 거의류학을 하게 되었건만 돈업서 배우지못하는 우리들도 여간만치안 하 원한의 늑물을 흘리든차 이에 동정을 말지안튼 암태청년들은 즉시 하령강습회(夏令講習會)를 조직하여 이학기부터 강습을 시작하였는데 거기배우는 부녀들이 대개는 소작인의 안해나 딸이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사업이라면 무에라고 방해하는 지주 문재철(文在喆)은 그녀자강습원도 업새라고 흥계를 부리든중 재작년에 암태면에서는 그녀자강습원을 위하여 면화공동판매소(棉花共同販賣所)에서 매근일전식의 돈을 짓기로 결의하여 청년들이 이책임을 지고 매일 현장에 출장하여 천이백여원의 금전을 모았는데 문재철은 사음, 간사인등을시켜 동서를 분활하자는 리유로 그돈을 갈라내라하며 청년들은 크게분개하여 얼마동안 싸우다가 결국 그들의 주장이「서부에서 이돈을 갖다가 싸로녀자교육을 하겠다」함으로 분렬된 것은 유감이나 다가티녀자교육을 힘쓸진댄 그도 무방하다고 양보하였드니 문재철편에서는 그돈을 녀자강습원 분렬운동비에 써버렸스며 그러고 또 일방으로 문재철이 남일회사사장(南一會社社長)의 직권으로 이것을 방해키위하여 녀자강습원을 유지하라고 청년회의 사업으로 남일회사 암태취급점을 경영하는 그것을 썩여내라하다 조건이업슴으로 소위「암태교육협회」라는 것을 역시자기의 간사인 사음배에게 시켜가지고 취급점을 교육협회로 옮긴다고 해약통지까지 하였건만 이에도 굴치안코 암태청년들은 최후의 결심을하고 기본급 천륙백원(基本給一千六百圓)을 세우고 강사는 서광원(徐光圓) 박광애(朴光愛)랑씨가 무보수로 들어서 열심교수중임으로 수운과 비루에 처여잇든 암태녀자 강습원은 새서광이 비취게되엇다고한다.

(13) 1925. 1. 24.

文地主의 回測한 心腸

마름을시켜 소작간부를 치고 돌이어마젓다고 무고로 얹어

警官을 시고서 가진 暴行

세상의 이목을 놀래이든 암태소작쟁의(岩泰小作爭議)의 중심인물 문재철(文在喆)은 교활한계획을 세우고 매양 집행유예(執行猶豫)로나 혹은 보석(保釋)으로 철장을 벗어나온간부를 상대로삼아 간사인, 사음혹은 가족을시켜 싸움을 부치는데 작년구월에도 일심판결(一審判決)에 집행유예로 소작간부아홉사람이 출옥함을 괴회로하여 문재철의 가족 문시준(文時俊)이가 술을 잔뜩먹고 달려들어 무조건하고 포학을함으

로 겨ते잇든 사람이 이것을 말리자고 몇번밀쳐내엇드니 「소작간부가 싸려 죽게 되엇다」고 무고를 하얏슴으로 목포경찰서(木浦警察署)에서 경무가출장하야 사실을 조사한후 화해(和解)를 시킨일이잇섯는데 금번에는 보석출옥한 간부의 공판이 갖가워움을 기회삼아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작회의 감정을 날으키나, 이간계(간계)를 미리아는 소작회에서는 될 수잇스면 싸움을 피하라하는중 지난십륙일 문재철이가 돌연히 목포로부터 돌아와 연회(宴會)를 열고 부근주민들을 청첩하야 성대한대접을 하고서 「서부(西部)에서 싸로 교육기관을 만든다하면 천원(千圓)을 기부하겠다」하야 암태 청년회중앙교육기관(岩泰靑年會 中央教育機關)을 반대케하얏스며 지난십구일에 소작간부(小作幹部)가 서부포도리(西部浦島里)에 출장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문재철은 부하를 모아무어라고 몇시간을 수근거리드니 사음, 간사인, 가족십여명을 나룻배에 태워 남일회사(南一會社)에서 부리는 발동기선(發動機船)에 다부치가지고 전기포도리로 보내어 소작간부를 습격하야 그중에도 보석중에 잇는 손학진(孫學振)씨를 몹시 싸리엇는데 이소식을 들은 소작인회원들은 크게분개하야 현장으로 불몰리듯 하얏는지라 뒤로 싸저나 일체수속을하든 문재철의 종제 문응창(文應昌)은 후비군(後備軍)으로 가족사음, 간사인 백여명을 나팔로써 모라내어 소작회원의 돌아올길에 진을 지고 나열시켜두고 또 문응창은 한편으로 경관에게 무고(誣告)하야 전전순사부장(前田巡查部長)과 김순사(金巡査)를 다리고 포도리를 향하야 오든중에 돌아오는 소작인을 맞나 큰소리로 「웨 자네들이 사람을 싸리고 오는가」하며 경관을 다리고 오는바람에 괴세등등하얏슴으로 소작인들은 기가막혀 말대답도 하지안코 다만가는경관에게 「무슨일로 이러케가느냐」한즉 경관들은 출장을 간다는 심히 모호한대답을 하매 소작인들은 분한마음을 참지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재철의 후비군을 만났는데 수백군중이 둘러서 나팔을부르며 고함을지름으로 소작인들은 더욱분개하야 최후결심을하고 고함을높히질르며 돌진함에 문재철후비군들은 겁을내어 사방으로 도망을하야 바렛슴으로 소작인들은 분을 참지못하고 돌아갓다고 한다.

(14) 1925. 1. 25.

#### 岩泰教育問題 圓滿解決

말성만든 岩泰小作爭議는 敎育事業에싸지 影響이미치어 波瀾曲折이 자못甚하얏든 것은 世上이 다아는바어니와 文在喆이가 小作人會에대한 感情으로 自己家族이며

舍音幹事人輩를 시켜 西部一區를 分裂시키는 同時에 東部一隅까지 文時俊이란자가 단기며 巧言理說로 쇠여내라는 運動이 자못甚하였는지라. 岩泰青年會에서는 이것을 遺憾으로 生角하여 지난 十七日에 徐倉錫 金文一 兩氏가 出張하여 東部青年들을 모아노코 長時間을 分裂의弊를 들어 熱辯을 吐함에 全部가 이것을 徹底히 理解하여 拍手喝采로 歡迎을하고 千炳采外 十餘青年이 自進하여 教育費를 徵收하여 中央教育機關에 加擔하였으므로 岩泰教育事業은 圓滿하게되었다한다.

(15) 1925. 1. 28.

靑年과 南一社長이 船中에서 大衝突

말성만튼 取扱店門題로

南一運輸株式會社가 昨年四月 開業當時에 岩泰取扱店을 岩泰靑年會에 委託함으로 靑年會서는 薄利多賣임을 不拘하고 教育費에 補充할생각으로 代表 朴福永氏의 名義로 契約을 締結하고 積務를저가며 涎船까지 新裝하여 誠意로 此를 取扱하든바 社長文在喆이 岩泰小作人會에 對한 感情으로 昨年十月에 突然히 無條件으로 解約通知書를 發送하고 自己幹事人 朴判奎에게 此를 取扱케하라는바 이를 目睹한 五個思想 團體에서도 會社의 專橫에 奮起하여 各各代表를 보내어 會社當局에 質問까지한것은 既報한바어니와 지난 二十三日에 岩泰靑年會代表 朴福永氏가 木浦에서 岩泰로 돌아가든바 그船中에 마츄 南一社長文在喆과 同支配人 權東采도 올랐는데 그들은 朴福永氏안진 二等室에와서 안젓다가 슬며시나가 무에라고 속은거리드니 船員을 보내어 朴氏에게 「船票를 내여라」함으로 朴氏는 「會社規例에 依하여 取扱店主된 本人은 無賃乘船하는것은 諸君도 이미아는事實이어늘 何必오늘에야 이가티 無理한 要求를 하는가」 하얏드니 뒤를 이어 權東采 文在喆 兩人이와서 「取扱店이 解約되었스니 無賃乘船은 못한다」고 주장하매 朴氏는 解約은 君等の 主張이오나 나는 모르는事實이며 또한 이局部를 버서나서 말하드라도 解約그것은 條件이야 될 수잇는것이요. 無條件하에 一方의 主張으로만되는것이 아니라고 概論하얏스나 彼方에서는 「會社는 無條件下에 自由로 解約할 수가 있다」고 無理한 主張을함으로 朴氏는 이에 憤怒하여 「그러면 君等은 會社라는 名義下에 專橫을 敢行하여 一般社會를 無視함이 아닌가? 容恕할수업다」 하야 一大衝突이 일어났는데 結局은 이問題의 根源인 小作爭鬪에 들어가숨어잇는 感情이 暴發되어 激烈한 活戰의 幕이 열리어 乘客들의 구경거리가 됨에 朴氏는 文在喆의 罪惡을 들어 聲討를하매 文在喆은 避身하여버렸다한다.

(16)1925. 6. 17.

岩泰의 小作委員會 田小作料 調停決議

지난十日午後四시에 全南務安郡岩泰小作人會에서는 岩泰女子講習院內에 同會執行委員會를 開하였는데 委員四十餘人이 出席하여 臨時議長 徐東五氏의 司會로 左의 事項을 決議하였다한다.

◇決議案

- 一, 田小作料調停에 關한 件
- 一, 農軍教養에 關한 件
- 一, 惡地主에 關한 件
- 一, 臨時總會 召集에 關한 件

## 2. 암태도 소작쟁의 관련 회고문

- 자료명: 『해사(海舍) 서태석씨 약력과 소작인회 관계 소송기』
- 기록자 및 기록시기: 암태면 고 양은호 옹 1991년 11월 기록

이 글은 1924년 암태도 소작쟁의의 지도자였던 서태석 선생과 소작인회에 대한 증언문으로 당시 소년의 몸으로 농민운동의 한 몫을 담당했던 고 양은호 옹이 1991년에 친필로 기록한 것이다. 항간에 실제 소작쟁의를 이끌었던 서태석 선생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지 않고, 왜곡된 내용이 많다는 판단하에 이를 바로 잡고자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자료는 신안문화원에서 발간한 『신안문화』에 소개된 바 있으며, 본 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 원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고시(古詩)에 이르기를 "不知而言不智 知而不言不忠"이라 하였는데 해석을 해본다면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지혜(智慧)가 없고 알면서 말하지 아니함도 충성(忠誠)스럽지 못하다 하였다. 지성(知性)이 침묵을 우치(愚痴)가 횡행(橫行)할 수밖에 없고 논리(論理)보다 비리(非理)가 항리(項理)보다 역리(逆理)가 일반화 될 뿐이다. 그러므로 아는 것만 대략 말하자면 기동리(基洞里) 오산부락(五山部落) 이천(利川) 서씨(徐氏)의 장남으로 1885년(乙酉)에 태어나서 한문서당에 입학하여 진학(進學)하던 중 세간(世間)에서 천재라고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상객(觀相客)이 와서 10세 된 서태석에게 하는 말이 너는 운수(運數)가 불길하여 15세가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기에 그 말을 들은 부친 되는 서두근(徐斗根) 씨가 전문(傳聞)하고 서태석에게 학업에 열중할 것이 없으니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放浪生活로 배회 중 지도군(智島郡)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장원시(壯元詩)는 다음과 같다.

“海色英雄來洗劍 山形玉女坐彈琴”

(바다 빛은 영웅이 돌아와 칼을 씻는 듯 하고 산들은 옥녀가 앉아 거문고를 타는 것 같구나)

그 후로 안좌면 옥도(玉島)서 18세까지 괘약(掛藥)을 하였는데 10세까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통독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 해석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발백중 약효가 있어 명의(名醫)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 후 1913년(癸丑) 29세 시에 암태면장으로 임명되었다. 임자년(壬子年)에 조해(早害)가 극심하여 수도작(水稻作)을 미식(未植)하므로 일본 정부가 대용작물로 교맥(蕎麥) 종자(種子)를 무상으로 배급하였는데 대금을 징수하고 겸하여 백답(白畝)에 세금까지 징수하였음을 즉시 발견하여 법원에 신고하여 관계직원 2명이 옥고(獄苦)를 치렀고 무안군(務安郡)내 모범 면장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당시 민적(民籍)이 호적(戶籍)으로 개정하게 되는데 암태면에서는 1건도 반려(返戾)됨이 없는데 각면에서는 \*환(\*換)이 심함으로 무안군수 김동우(金東佑)씨가 암태면장에게 물어서 호적을 정리하라고까지 하였다. 기미(己未) 3·1운동을 연락 받아 면장직을 사직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목포시내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돌아다녔다.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서울 청년회(靑年會)를 경유하여 독립운동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露西亞 海蔘威)를 다녀서 귀향하여 1923년(癸亥) 가을(秋節)에 암태면 기동리(基洞里) 김운태(金潤泰)씨 정원에서 마를 깔고 면민대회(面民大會)를 개최하였는데 소작료를 전(田) 삼할(三割), 답(畓) 사할(四割)로 하는 것이 지주와 소작인간에 합법적이라는 강령을 내세움으로 전원이 찬동하여 만장일치로 소작인회(小作人會)가 창립되었다.

집행위원 및 각 부서까지 조직되었다. 얼마 후 사무소를 예배당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박종남(朴宗南)씨가 이거했다. 총의(總議)를 쫓아 투쟁하던 중 서태석씨는 농농연맹 형평사 해방운동자동맹(勞農聯盟 衡平社 解放運動者同盟) 등 제반 사상단체를 서울청년회를 통해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내에서 사상가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얼마 후 서울 청년회에서 박노영(朴老英), 이교헌(李敎憲), 조병태(趙秉兌) 등이 내도(來到)하여 급선무가 교육이라고 하면서 여자교육을 선착(先着)하자 는 말을 고백화(高白化)씨가 전문(傳聞)하고 간부들과 합의하여 기동리(基洞里)에 목조건물 칠량(七樑)으로 건축하였다. 서울청년 세명이 교수 책임을 하고 서동수(徐東洙)씨 교감책(敎監責)을 가졌는데 야학(夜學)은 양은호(梁銀浩) 소년 이 담당하였다. 야학생들은 인근부락에서까지 통학하였다. 얼마 후 양은호 소년에게 남강에 가서 기선취급(汽船取扱)을 하라는 권유가 있어 부득이 16세 소년으로 매일 남강에 통근하게 되는바 학교운영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매일 매표대금을 서동수에게 납부하

였다.

당시 회사로 청구하면 선표(船票)를 부송(付送)해주고 월말에 계산하게 되었는데 16세로부터 18세까지 3년간 취급하던 중 체납액이 오백여원이 됨으로 선일사(鮮一社)에서 선표를 부송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귀가 하였는데 19세 되는 해 2월에 지불명령장이 양은호에게 송달되어 왔으나 소작인회나 학교 당국에서도 아무 관계도 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일본 대판(大阪)으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한 사상운동자(思想運動者) 지방제현(地方諸賢) 장성 기노춘(長城 奇老春), 나주 이항발(羅州 李恒發), 영암 조극환(靈岩 曹克煥), 완도 김상규(莞島 金相奎), 지도 김상수(智島 金祥洙), 자라도 문찬숙(者羅島 文贊淑) 등이 독립운동의 밀의(密議)를 하기 위하여 내왕이 자주 있었다.

소작료에 대하여는 과다(過多)함으로 전 수확량을 내는 농민이 많았다.

그러므로 서태석씨가 누차 문지주 재철에게 누차 교섭하였으나 불응함으로 인하여 총회석상에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회원 중에서 불망비(不忘碑)를 파괴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다.

서태석은 성급한 것이 아니라고 좀더 두고 보자고 설득하여 보류된 셈이다.

일본정부에서는 기미 3·1운동 4~5년간에 노농운동(勞農運動)이 즉 사상운동이라 인식하고 조선총독 제등실(齊藤實)에게 무마하라는 지시가 누차 있었다는 것을 서태석은 인지한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 당시 소작인으로 문지주측에 비밀을 통(通)한 사람도 있어 『박쥐』 또는 『진드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당시 천지주에게 소작료를 경감(輕減)하라는 이유로 단고리(短庫里) 소작인 등이 석정리(石亭里) 산하에 시혜비(施惠碑)를 세우고 소작쟁의 관계로 서남 각 부락민은 문지주 지도하에 소작상조회장(小作相助會長) 박하오(朴夏五)씨는 지주측의 지도를 받아 공립보통학교 인가비(公立普通學校 認可費) 이천오백원을 전면(全面)에 부과하였는데 반대하기 위하여 도창리(道昌里)현재 저수지 부근에 문지주가 양철가옥으로 사간(四間)을 건축하였으므로 서남 부락민은 공립보통학교 인가비를 반대하고 있음으로 박필선(朴必先)씨가 천지주에게 누차 권유하여 1,900원을 지급하였기로 공립보통학교 정문전(前)에 시혜비(施惠碑)를 견립(堅立)하였다.

문지주 불망비(不忘碑)를 파괴하자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필선(朴必先)씨가 천지주 후빈(后彬)씨에게 누차 설득하여 소작인회 주장대로 하겠다는 구두 승낙은 하고 공식서류는 미급하였는데 문재철 부친 태현(泰炫)씨가 소문을 전문(傳聞)하

고 천지주에게 통지(通知)하여 남강(南江)으로 오라는 것이다. 노인의 말이므로 방 문한바 대단히 꾸짖으면서 무안군내 대지주라면 나중만(羅鍾萬), 문재철(文在喆)이 있는 데도 합의도 없이 임의로 승낙한다는 말인가, 수상의 말임으로 그러면 취소(取消)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사실의 유설(流說)을 전문(傳聞)하고 총회도 거치지 않고 단고(短庫) 회원 몇 사람이 석정리(石亭里) 산하에 건립한 천지주 불망비를 파괴하였다. 그러므로 야간을 이용하여 신석리(新石里)로 이동하였다. 그 후 문지주 불망비도 파괴하지는 것이었으나 간부 측에서 절대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연기한 것인데 수곡리(水谷里)문씨 측에서 파비(破碑)한다니 예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씨 일족이 단결하여 각목을 준비 소작인 총회 당일 남강(南江) 비석 부근 밀양박씨(密陽朴氏) 산소 송리(松裡)에 은신중인데 마침 총회 참석차 서태석(徐邵皙)씨는 목포에서 서동오(徐東五)씨는 장산학교(長山學校) 교사로 귀가중이고 박종남(朴宗南)씨는 사치도(沙稚島) 처가에 다녀오다가 불기지회(不期之會)로 남강 선창(南江船艙)에서 상봉하여 동행중 맨 먼저 서태석씨를 일타(一打)하니 대경失色(大驚失色)하면서 피신하고 그 다음 서동오씨를 일타(一打)하니 송리(松裡)은신중인 문명호(文明鎬)가 아니다 아니여 하므로 주춤하고 최후로 박종남을 난타하여 교자(矯子)로 운반하게 되었다. 공립보통학교에서 회의도중 소식을 전문(傳聞)하고 대노분개 하여 군중의 심리라 도착 즉시 밧줄을 걸어 당기어 허망하게 자빠진다. 망할 놈의 비석하고 칩을 뺄고 넘어가면서 애간장 많이 녹였다. 그리고 문지주 댁으로 운집(雲集)하여 소란을 피웠다 하여 목포서(木浦署)에서 경비정을 동원하여 소요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게 되었다.

당시 송치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서태석(徐邵皙), 서창석(徐倉錫), 서광호(徐光浩), 서동수(徐東洙), 김문일(金文一), 조병태(曹炳泰), 김상언(金相彦), 윤덕선(尹德先), 박홍언(朴洪彦), 박응언(朴應彦), 손학진(孫學振), 김연태(金淵泰), 박필선(朴必先), 박치빈(朴稚彬), 박명완(朴炳完), 박용산(朴龍産), 김문철(金文喆), 김운재(金云宰), 김용학(金龍學) 등 19명 이었으나 몇일 후 6명이 석방되었다. 그 사람은 다음과 같다. 서광호, 서동수, 조병태, 김상언, 박응언, 김용학 등이다. 현재 구속 중인 13명은 중책을 가진 간부이므로 소작인회 사무소에 출근하는 사람은 김상규(金相奎)씨 뿐이었다. 그러므로 김용학씨 등 3~4명이 발의하여 석방운동을 하자는 의사(議思)가 있어 회의를 소집한바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소작인으로는 남녀노소간에 총 동원하여 신정부락 선창으로 선박 7척을 출동시켜 솔단지 밥그릇 식량까지 준비하여 대

략 사백명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시기는 6월 초순이다.

새벽녘에 출항하여 돛을 달고 목포 꾀보선창에 도착하니 목포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문지(問知)하고 동정 앓은 사람이 없었다. 당시 총지휘의 책임자는 김용학(金龍學)씨였는데 서광호(徐光浩), 서동수(徐東洙), 고백화(高白化)씨 등도 동반하였다. 경찰서로 군중이 운집하자 상송서(上松署)씨가 나와서 사유를 탐문하므로 대표 김용학씨가 이번 13명의 구속자를 석방해 달라고 하면서 지주 측에서 먼저 간부를 타상(打傷)하였는데 차별적으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우리는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나 밤이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날 밤을 맨땅에서 앉아 밤을 새우면서 밥을 지어 조금씩 나누어 먹고 날이 밝아지면서 법원으로 가는데 구경하는 시민들이 가마니도 갖다 주고 해서 반수정도는 노인들부터 안젓게 되었다.

법원장에게 누차 교섭한 결과 형무소에 재감(在監)중인 간부들을 대표 4~5명이 면회하게 됨으로 면회를 갔던바 면회석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하며 농사시기가 도착하였는데 돌아가서 맥수확(麥收穫)도 하고 이종(移種)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전언(傳言)을 사실대로 보고하니 군중들이 찬동하면서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재차 출동하자고 하여 3일 만에 귀암(歸岩)하게 되었는데 현재 수감 중인 간부들의 전답(田畠)부터 맥수확(麥收穫)과 계속(繼續)하여 이종(異種)을 끝마치고 보아도 하등의 사건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재차 출동한다는 발의(發意)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양(移秧)은 적당한 시기에 한 셈이다. 사건이 \*\*되기 전에 서태석씨는 서울에 노동위원회 해방동맹 형평사동맹위원회(勞動委員會 解放同盟 衡平社同盟委員會) 등에 참가하여 국내 사상가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내용을 알아차리고 일본 정부에서는 염려가 되어 중도건삼(中島健三)을 목포서장 암태지서 주임 전전 순사(主任 前田 巡查)로 총독본부(總督本部)에서 이송하였다. 그 당시 중외일보 지국(中外日報 支局)은 서광호(徐光浩)가, 동아일보 지국(東亞日報 支局)은 박복영(朴福永)이가, 조선일보 지국(朝鮮日報 支局)은 설준석(薛俊錫)이가 각각 영류(營留)하게 되었는데 소작사건에 대해서는 대서특필로 개재되었다.

소작인회에서는 수감된 간부들이 석방되지 아니하므로 재차 출동하게 된바 금년에는 2백명에 불과하였다. 법원에 들어가 시위(示威)를 하는데 이번에는 암태에 본적을 둔 시민들이 참석하여 식료품뿐만 아니라 동석(同席)하면서 배수(倍數)로 인원이 증가되어서 시민으로서 동정을 앓은 시민이 없을 정도였다. 각 기관에서도 우려

가 되어 무안군수 김동우(務安郡守 金東佑)씨도 내방하여 법원장에게 설득하는 모양이었다.

그럭저럭 3년여 동안이 지났으나 누차 공판에 유죄 판결은 없었다. 국내 유명한 변호사들이 개입시마다 출두하여 변론은 무료였다. 일본정부가 처음에는 양의 가족을 쓰고 이리의 행동을 할 생각이었으나 도저히 여의치 아니하므로 일본정부에서 누차 지시가 있어 전남지사 원응상(全南知事 元應常), 목포서장 중도건삼(道警察局長 中島健三 道警察局長 高等課長)등이 문재철에게 설유(說諭)하였든 모양인데 소작인회 대표자에게 통지(通知)가 있어 박복영(朴福永), 김정순(金正順)씨가 동원루(東園樓)에 동석하였는데 경찰국 고등과장이 조그마한 섬에서 조용하게 지내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니꼬웠으나 참고 있었다. 그때 한쪽 구석을 보니 문재철이도 눈에 띄었다 이만하면 되었는지 읽어보라고 하면서 고등계 과장이 중도건삼(中島健三)에게 넘겨주었다. 중도(中島)서장이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소작인회 대표 박복영(朴福永)씨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을 꺼내보니 소작료 약정서였다. 박복영씨는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다. 지주 문재철과 소작인회 간에는 전(田)삼할, 답(畓)사할로 약정하고, 지주는 소작인에게 이전원을 기부한다. 1926년 8월19일까지 미납된 소작료는 향후 무이자로 삼년간 분할상환 한다. 구속 중인 쌍방인사에 대하여는 쌍방이 고소를 취하한다. 파괴된 비석은 소작인회 부담으로 복구한다.

동년 9월중에 복심법원(覆審法院)에서 구속 중인 13명이 무죄로 석방되었다. 동원루에서 갈려나올 때 박복영씨가 문재철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나 손을 뿌리쳤다고 들었다. 1923년에 소작인회 창립 후 서울 청년회에서 온 3명이 교수 책임을 맡고 서광원(서동수)(徐光圓(徐東湊))이가 교감(教監)으로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남일회사기선(南一會社 汽船) 취급을 양은호(梁銀浩) 소년에게 책임 주었던바 매일 남강에 통근하던 중 선표 대금은 월말에 환산하기로 하였는데 학교운영 관리상 체불이 3년간에 오백여원이 되어 회사로부터 선표를 付送하지 아니하므로 귀가하였던 중 1927년 춘기에 회사로부터 지 불 명령장이 송달되어 부득이 일본 대판(日本 大阪)으로 피신중인데 1933년이라고 기억되는데 하의도(荷衣島)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의도민 제갈봉좌(諸葛奉佐)와 손학진(孫學振) 씨와 서태석 씨 등이 양은호를 심방(尋訪)하여 말씀하시기를 당시 박남언(朴南彦)씨가 산이(山梨)에게 삼만원에 지당하였으므로 당시 금액으로 해결이 안될 때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서태석씨가 말씀하셨는데 아니 될 말을 한다고 했는데 병고현(兵庫懸)까지 산이(山梨)를 심방하여 사실대로 언

급하니 현재 덕전(德田)이가 소유하고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 보자고 하면서 장거리로 전화문답을 하는데 과연 3만석에 결정하고 대금(代金) 준비 차 대판(大阪)으로 오던 중 조선에서부터 미행한 순경에게 구금되어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라는 죄명으로 신의주 감옥으로 송치되었는데 3년간 옥고를 치르는 동안 전기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상태가 이상하게 되어 압해면 장감리 제매(押海面 長甘里 第妹) 집에서 별세하였는데 본적지 압태면 기동리 오산부락 청룡등(岩泰面 基洞里 五山部落 靑龍登)으로 이장하고 기념비까지 건립하였다.

일본으로 피신한 양은호 만이 만10년 만에 환고향(還故鄉)하여 현재 생존중이다.







---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제 22집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①

# 암태면편

---

2013년 9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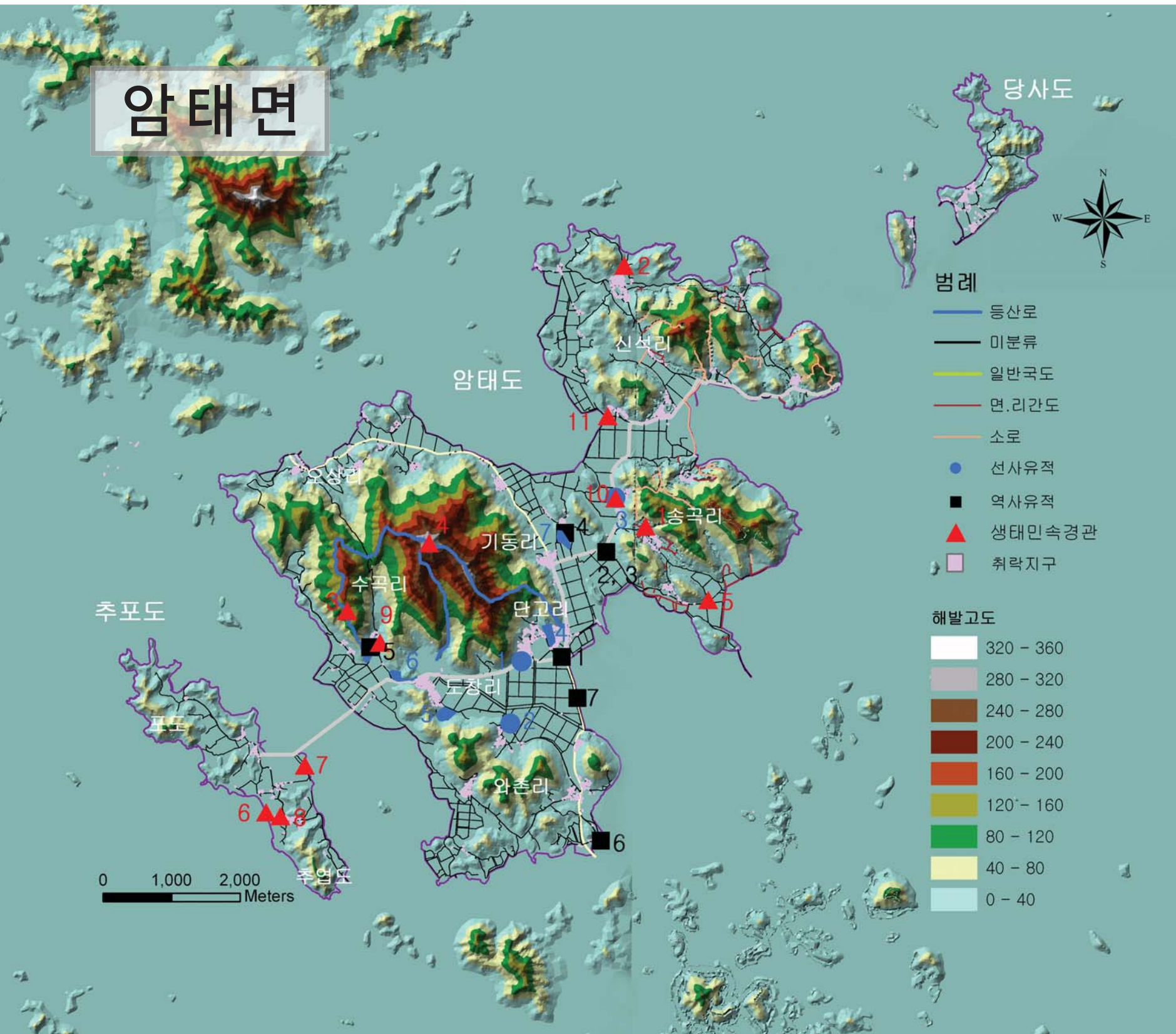
발행 신안군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인쇄 제일기획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2-328  
Tel. 061-277-1900  
Fax. 061-277-1300  
출판신고 제480-2009-00001호

신안군청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Tel. 061-271-1004  
Fax. 061-240-8000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Tel. 061-450-2952  
Fax. 061-453-2958  
<http://islands.mokpo.ac.kr>

ISBN 978-89-97005-34-5 (SET)  
ISBN 978-89-97005-33-8

# 암태면



## 선사유적

- 1 단고리 단고입석
- 2 와촌리 외촌입석
- 3 송곡리 활목입석
- 4 단고리 유물산포지
- 5 도창리 유물산포지1
- 6 도창리 유물산포지2
- 7 오산마을 고묘군

## 역사유적

- 1 암태도 조각인 항쟁기념탑
- 2 서태석 묘역 및 암태도농민항쟁사적비
- 3 의사 서태석 선생 추모비
- 4 서태석 생가
- 5 문재철 생가
- 6 아사동맹을 출발한 남강선착장
- 7 조각인들이 경작한 조각지인 마명지구 간척지

## 생태민속경관

- 1 송곡리 마을숲(우실)
- 2 신석리 마을숲(우실)
- 3 노만사
- 4 승봉산
- 5 매항비
- 6 추포해수욕장
- 7 노도비
- 8 추포리 마을숲
- 9 수곡마을 노거수
- 10 활목마을 노거수
- 11 구석마을 노거수